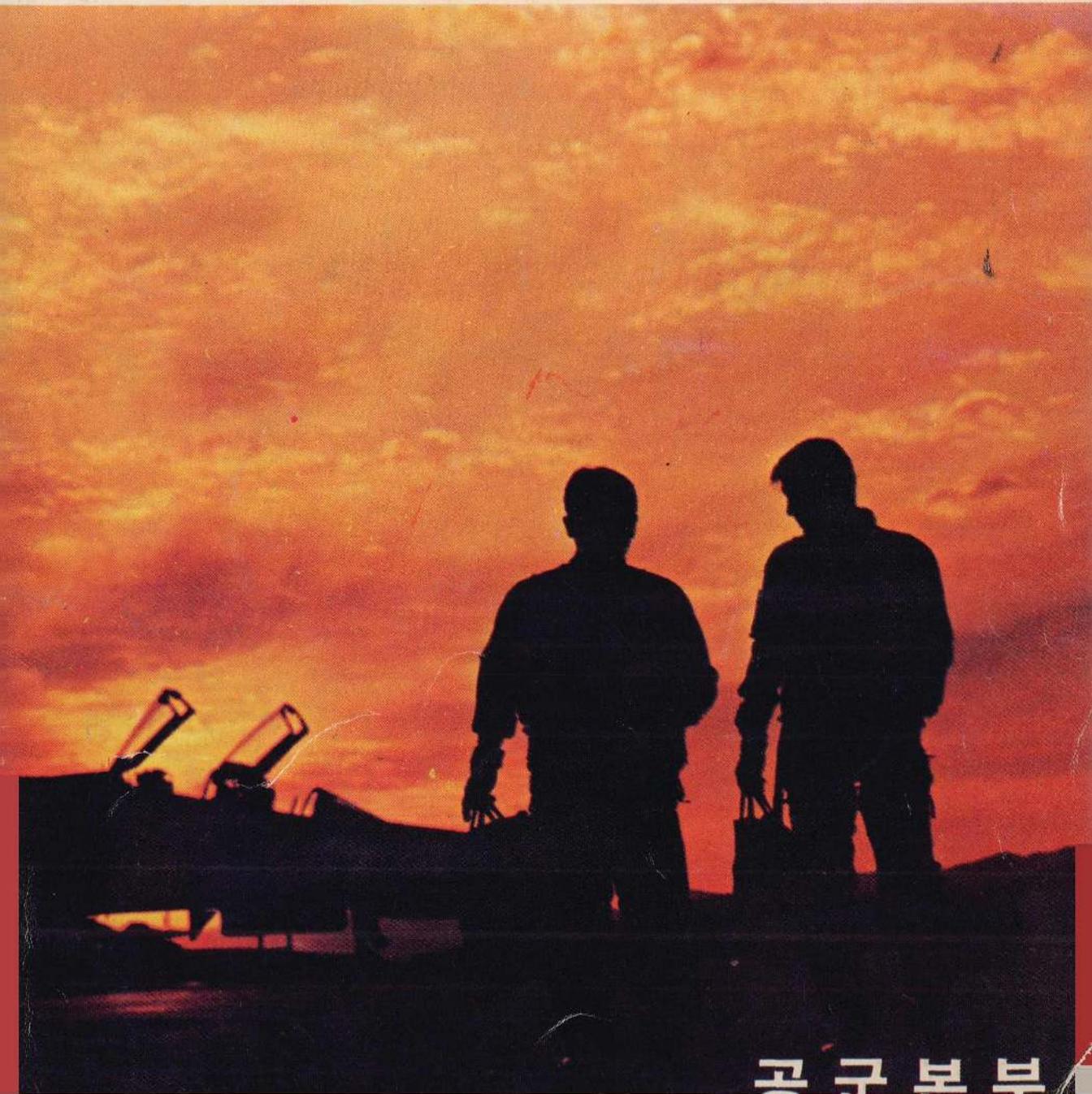


AIR FORCE

공군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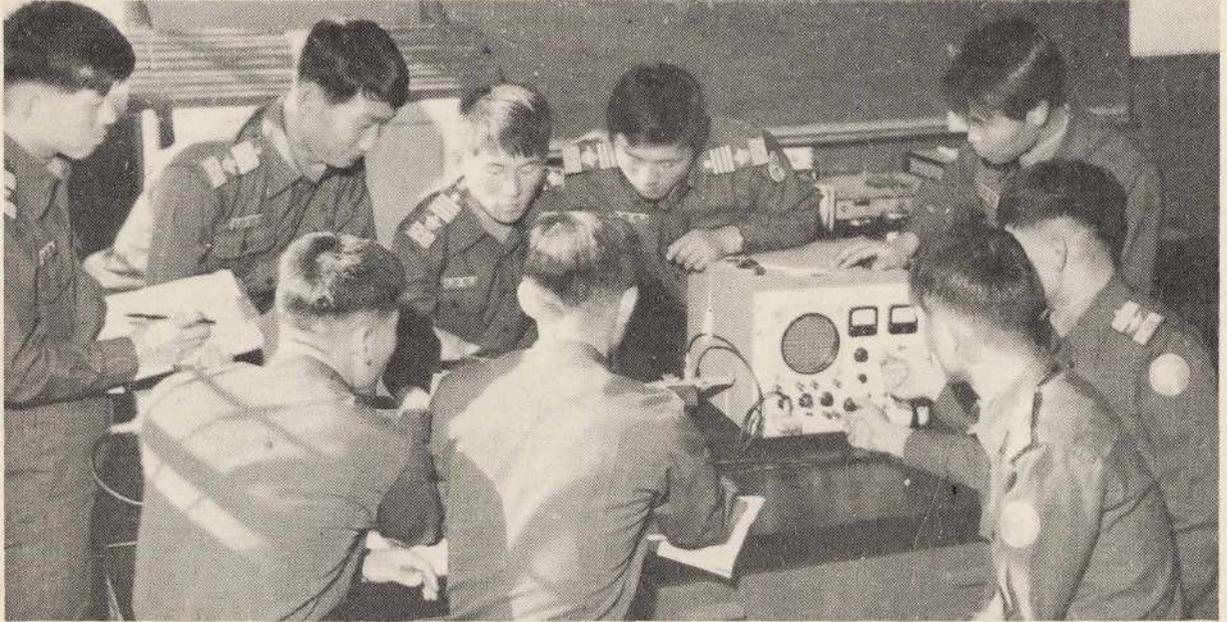


공군본부

— 사관생도교육 —

보라매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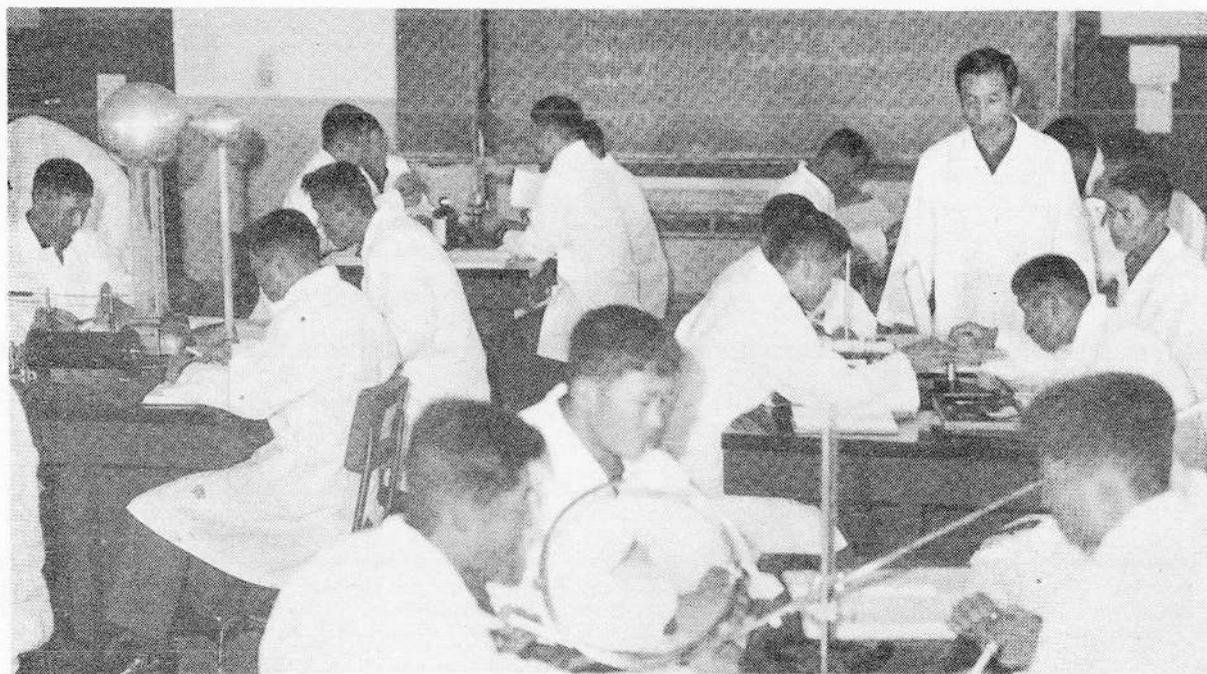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겨레와 하늘에
바치려는 내일의 보라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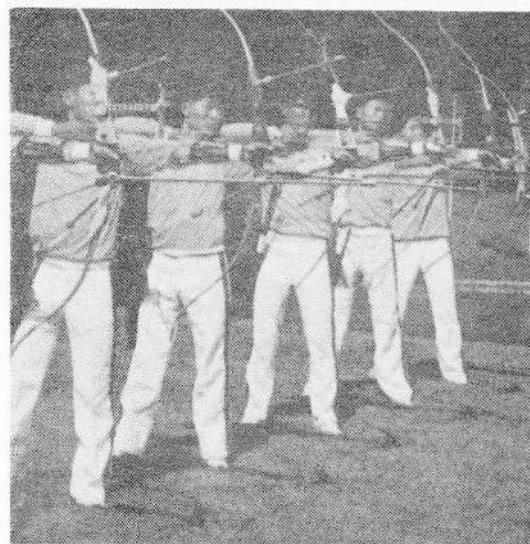
전자공학실험



명예위원회의



물리 실험



궁도 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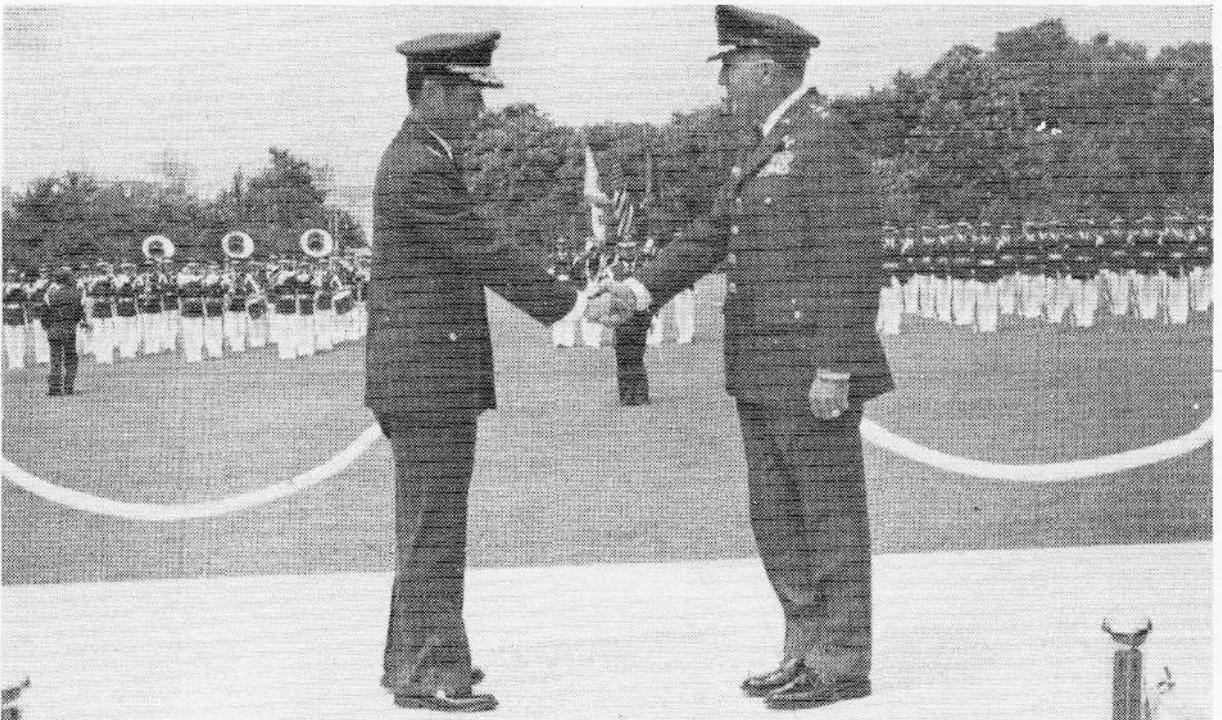
서예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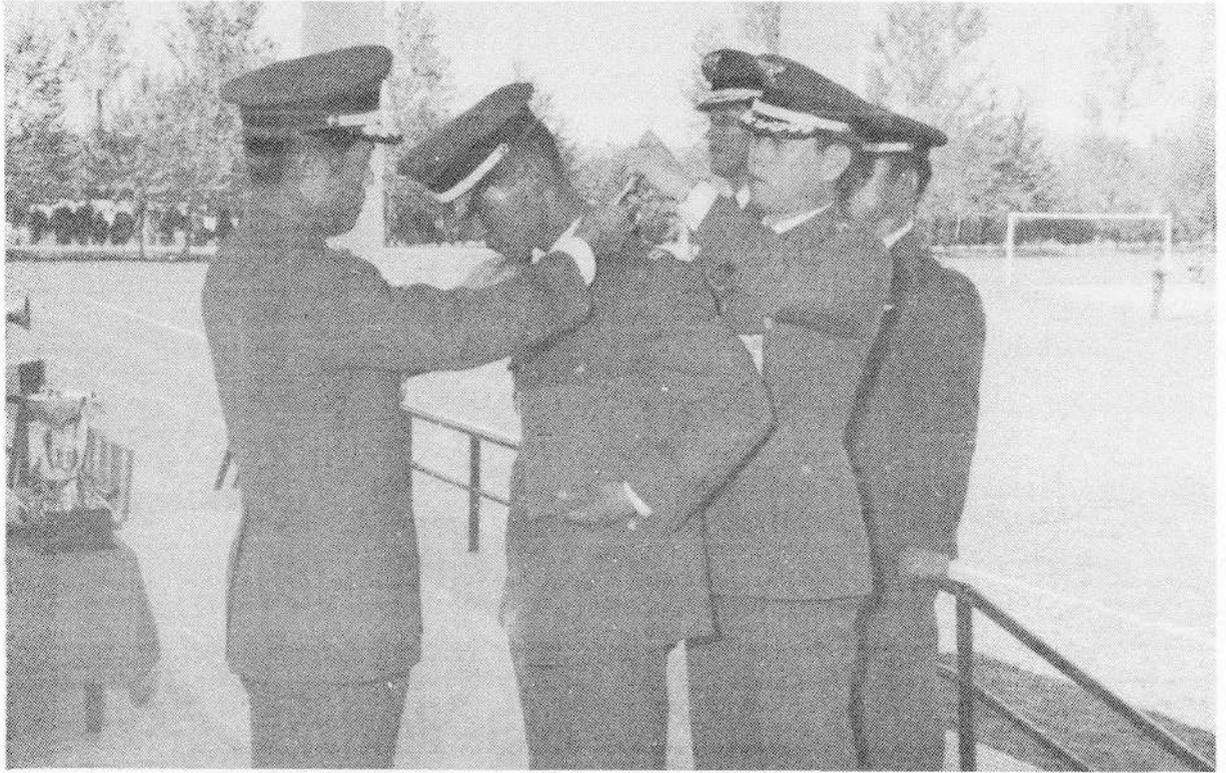
— 임관 및 수료식 —

사관후보생 81기 임관식
(8.1 교육사)



신임 미 314사단장을 접견하고 있는
金仁基參謀總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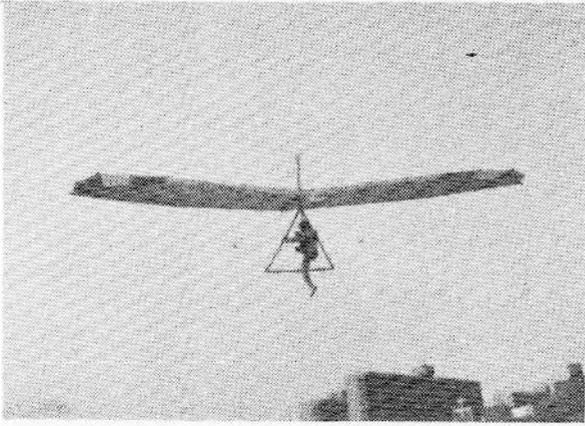




고등비행 수료식(9.5 5718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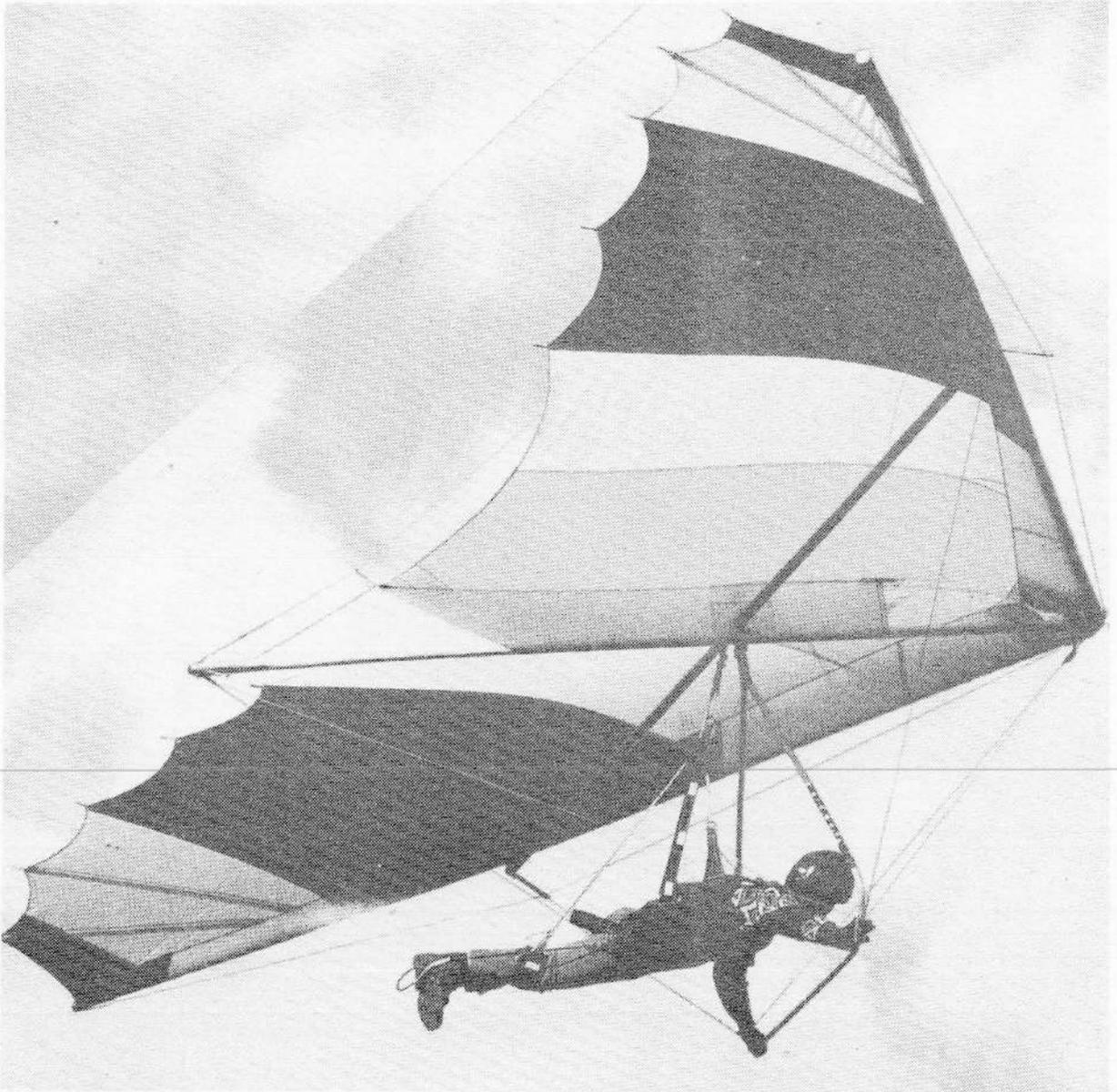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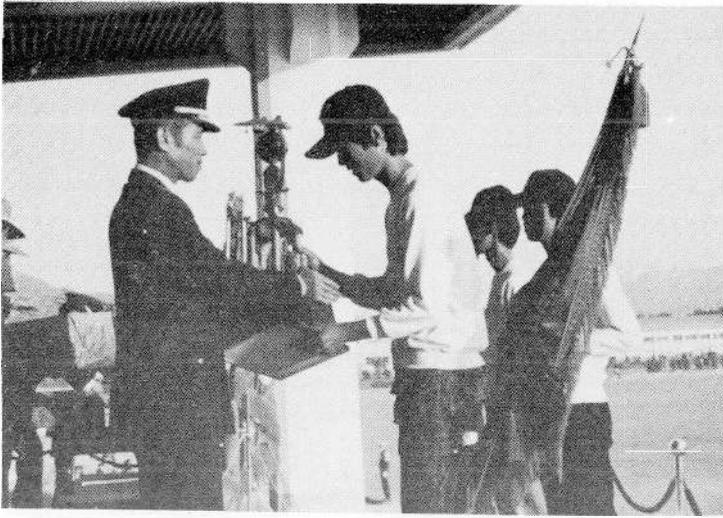
국방부 7927부대장을 접견하고 있는 金仁基 參謀總長



— 행글라이딩대회 —

제1회 空軍參謀總長盃 행글라이딩 대회가 지난 9.30일 경주 토함산에서 열렸다. 항공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많은 선수가 참가 기량을 겨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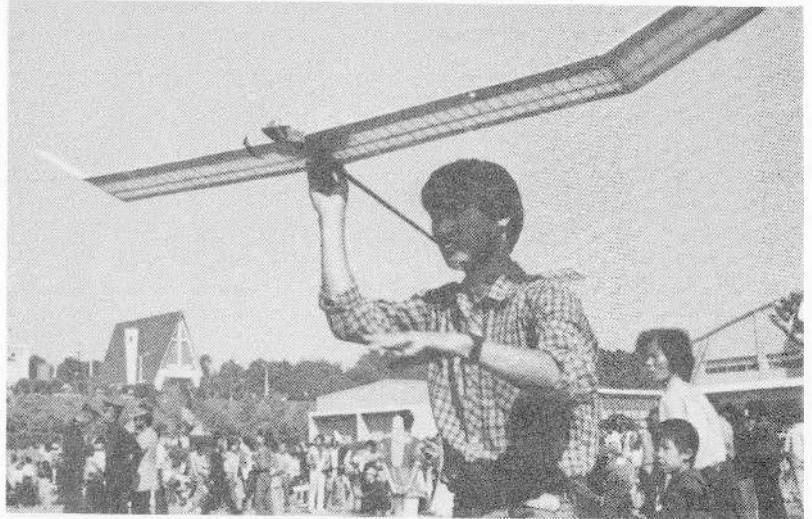
入賞者에게 施賞을 하고 있는 參謀總長

— 模型항공기대회 —

제 7 회 空軍參謀總長盃 模型항공기대회가 지난 10. 13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렸다.

國民의 科学化운동과 한국항공과학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大會에는 전국 10여개 지역의 예선대회를 거친 2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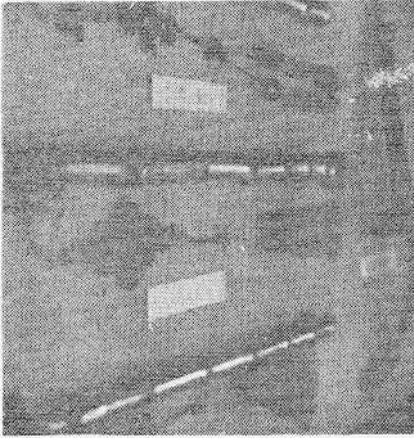


入賞者들의 헬리콥터 搭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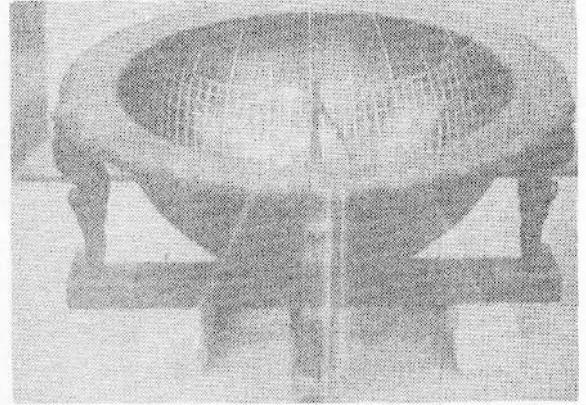
□ 새時代 새文化創造의 精神的 支柱 □

世宗大王

— 誕辰 588周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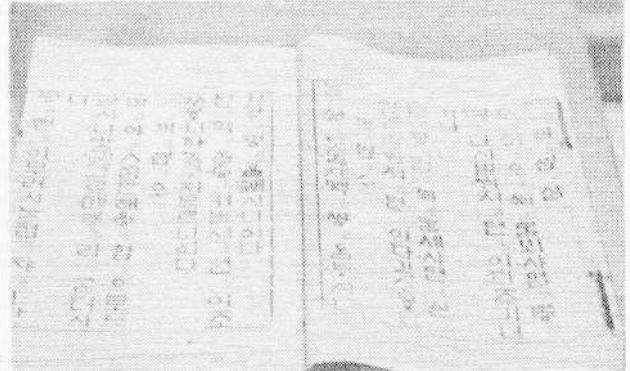
연주에 사용하던 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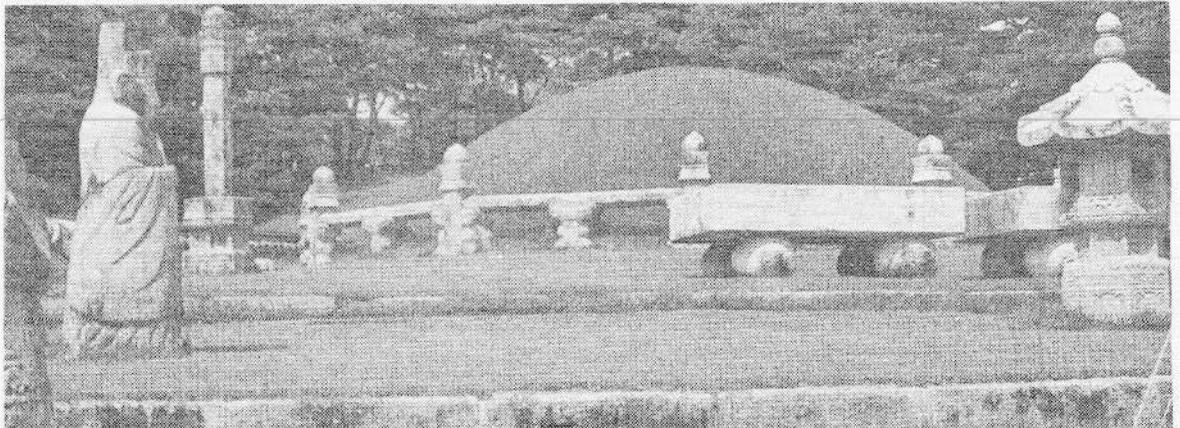
청동으로 만든 해시계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관측하는 渾天儀



初期의 國文 資料



오늘날 우리의 새時代 새文化創造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능은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

目 次

卷 頭 言 政訓監 李 殷 鳳 (1)

論 壇

逆境試鍊 극복한 民族의 防牌 李 容 相 (3)
 한글 그 우수성과 논리의 독특성 신 방 현 (8)
 中共의 對 北韓政策 展望 徐 成 雨 (15)
 先進經濟에의 跳躍과 先行課題 조 장 훈 (23)

政訓教育資料

軍人精神에 關한 研究 (2) 李 龍 炯 (31)
 禮節바른 言語生活과 秩序의식 編 輯 室 (39)
 開天節과 創造, 開拓의 護國精神 朴 文 松 (44)
 人口增加의 深刻性과 問題點 정 병 섭 (49)
 훌륭한 社會人은 節度있는 家庭 教育에 이 성 호 (55)
 北韓의 新聞과 放送 編 輯 室 (60)
 現代産業 社會에 있어서 急進變革論理와 疎外의 克服·李 正 奎 (66)

軍事知識

프랑스의 核戰力 現況 丁 龍 鎮 (74)
 美·蘇航空機 電波諜報戰 編 輯 室 (84)
 美·蘇 核戰爭과 當面課題 李 善 浩 (91)
 管理科學 模型의 實用性 考察 曹 永 喆 (99)
 北韓의 教育實像 編 輯 室 (107)
 올바른 理解를 爲하여, 1問1答 編 輯 室 (125)

○ 內憂外患을 平定한 崔瑩 將軍 鄭 俊 貴 (130)
歷史의人物 ○ 契丹의 侵略과 楊規 將軍 金 健 錫 (141)

法律常識 ○ 家計手票 事犯 解說 編 輯 室 (152)

마음의양식 ○ 對話의 必要性 장 재 화 (155)
 ○ 첫 一 문 編 輯 室 (158)

健康常識 ○ 산성食品과 알카리食品 김 용 직 (163)

隨 筆 ○ 나비처럼 꿀벌처럼 編 輯 室 (167)

○ 잊혀지지 않는 추억 권 광 주 (170)

○ 祈 禱 朴 在 森 (172)

○ 한해가 저물며 編 輯 室 (173)

小 說 ○ 夕 陽 김 영 희 (174)

공 군

통권제 195호

1985. 제 4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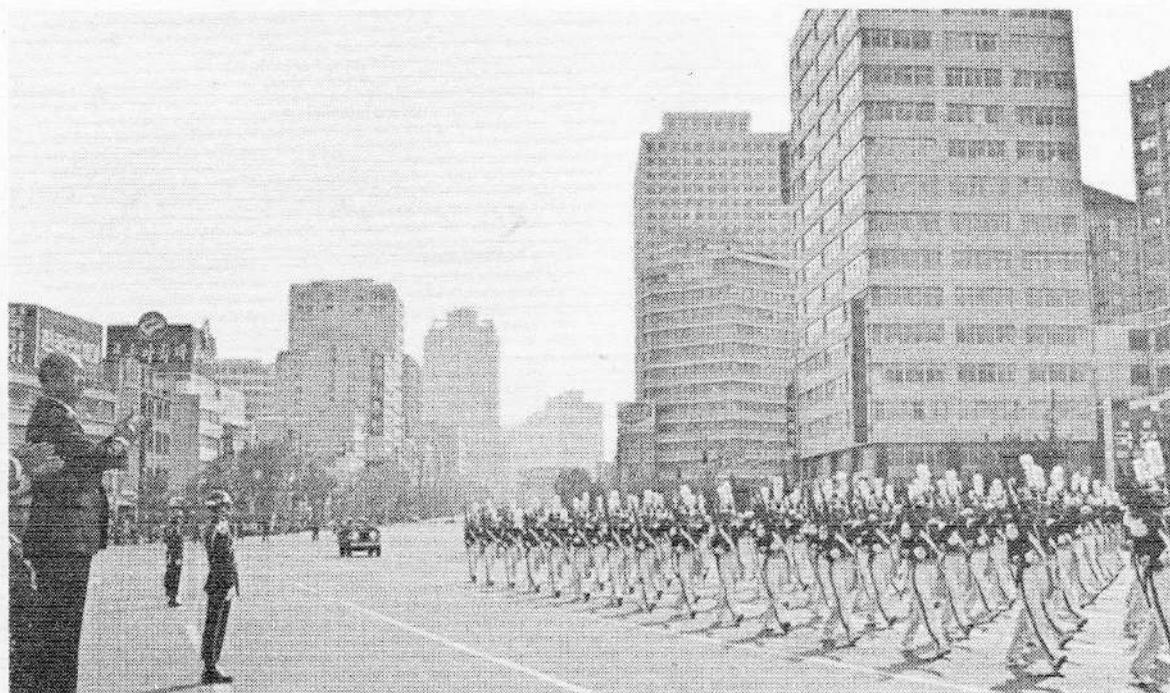
공군
 통일
 백범

參謀總長統率方針
精兵強軍이 되자
 必勝의 精神戰力
 必勝의 技術, 技倆
 必勝의 指揮, 管理

공군본부

건군 37 주년

막강한 우리 공군.....



誠實 그리고 實踐

政訓監
空軍大領 李 殷 鳳



하늘은 질푸르고 소슬한 바람과 함께, 기름진 땅에는 五穀과 百果가 결실을 맺어 그 完成의 무게로 더욱 謙虛하게 머리를 숙이는 계절이 왔다. 맘흔려 씨앗뿌리고 보람으로 거두는 收穫이야말로 來日에 대한 予備가 있어 인간이 갖는 가장 原初的인 생의 기쁨이리라.

우리에게 어김없이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大自然의 秩序는 이처럼 崇高하고 아름다우며 謙虛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위도 善을 향한 질서에 順應하고 꾸밈없이 노력할 때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孔子께서는 論語에서! 巧言亂德 小不忍 則亂大謀' (工巧한 말은 德行을 파괴하고, 작은 일을 견디지 못하면 큰 계획을 잃게 한다) 라고 하여 말보다는 사람의 實踐力을 중요시하고 큰 일을 위해 작은 어려움을 견디어야 함을 강조했다.

聖人の 말씀처럼 대부분의 人間은 자기자신을 誇張표현하려는 心理的 傾向이 있다. 실제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모두들 愛國者然하며 자기자신을 가장 바람직하고 참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닌가 한다.

知識의 次元에 있어서 우리는 先進國 수준에 달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당연한 內容을 실생활을 통해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公職者는 公明無邪하고 정직하고 誠實하게 직무에 충실하자, 國民은 納稅의무를 정직하게 지키자, 外製물건을 사지말자, 거리에서 질서를 지키자, 自主國家의 國民으로서 긍지를 갖자 등 수십, 수백 가지의 肯定的이고 훌륭한 口號를 만들고 滿場一致의 可決을 하는 식으로 열심히 크게 떠드는 것으로 社會의 분위기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內容이 生活을 통해 실천되지 않는한 社會의 體質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評價하면서 말(言)이 실천되어 이루어지는(成)것을 ‘성’(誠)이라고 했던가 보다.

나날이 熾熱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속에서도, 祖國先進化의 旗幟를 들고 온 國民이 건전한 노력을 傾注해온지 여러해가 지났다. 이제 先進化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國民的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함이 없이 생산적인 면에 集中投資함으로써 기쁨의 收穫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토가 분단되어 不可抗力的으로 방대한 兵力이 對峙하고 있는데다 좁은 國土, 비약한 부존자원, 세계에서 가장 높은 人口密度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先進化의 大役事에 몸부림치는 이 祖國에 몸담고 있는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우리의 日常活動이 나라의 피가되고 살이 될 수 있는 生産的인 것인가에 대해 謙虛한 자세로 自己自身을 거듭 되돌아 보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음으로 지키코자하는 祖國하늘이 늘 높고 푸른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항상 젊고 건강하므로 그 푸르름을 잃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英國의 文豪 디즈레일리(W. Dislaily)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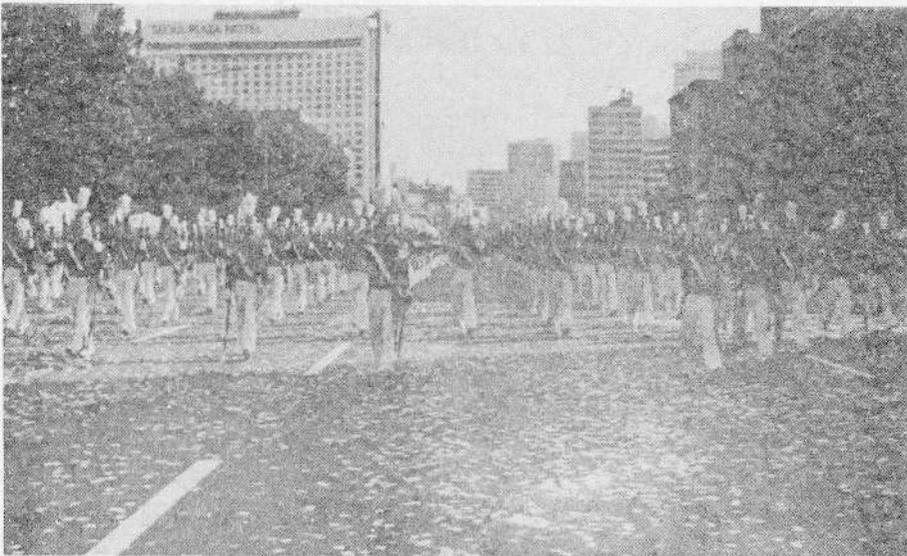
“지혜를 짜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성실하라,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곧 誠實이다”

逆境 試鍊

극복한 民族의 防牌

＝ 国軍 앞엔 前進과 勝利의 榮光뿐 ＝

李 容 相
(전 문교부 : 예술국장)



苦難 · 逆境속에서 成長

— 反共 · 愛國愛族의 結晶 —

자랑과 보람, 그리고 새로운 다짐속에서
우리는 모습도 능름한 전군 37들의 「国軍의
날」을 맞는다.

地軸을 흔들며 步武도 당당하게 펼쳐지는
陸軍의 威容과 하늘과 바다에서 또한 그 勇
姿를 마음껏 誇示하며 호국의 干城됨을 확
인해주는 우리의 국군, 생각할수록 믿음직
스럽고 壯하고 마음 뿌듯하기만 하다.

北傀의 끊임없는 도전과 侵略的 야욕은
변함이 없고 주한 미지상군이 점차로 물러

가려는 상황속에서 실로 「自主國防의 主軸國軍」되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기필코 이룩해야 할 자주국방과 종력안보의 가늠쇠로서의 우리 국군의 더욱 알찬 發展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 앞에 提起되고 있다.

우리는 지나온 “軍의 발자취를 더듬어 그 빛나는 전통을 바르게 계승하고 막중한 오늘의 과제를 굳건한 사명감으로써 기어코 이룩, 더욱 막강한 국군으로 성장 발전해야 하겠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5년동안 우리 국군이 걸어온 발자취는 한 마디로 공산침략자들과의 끝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創軍 초기의 공비소탕작전과 처절했던 3년간의 6. 25동안, 그리고 8년여에 걸친 월남전에의 참전 등 공산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국군용사들은 가는 곳마다 勇猛을 떨쳐 無敵·常勝國軍의 빛나는 전통을 굳게 지켜왔다.

오늘날 우리 국군이 세계 제4위의 막강한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기까지는 이렇듯 이 나라 젊은이들의 피나는 尙共鬪爭과 高貴한 희생의 밑거름이 있었음을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군의 전통과 위용은 일찌기 건군 초기의 숭한 시련을 딛고 이룩된 것이라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여·순반란사건은 한마디로해서 건군 초의 국군에게 몹쓸 가지발길이었고 뼈에 사무친 시련이었던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발호하던 赤色勢力은 국군내에까지 浸透하여 끝내는 반란사건까지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군의 바르고 알찬 발전을 위해서 유효한 投藥의 役割을 했을지언정 공산분자들이 노렸던 弱体化는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군은 이를 계기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성과 함께 단호한 肅軍作業을 통해 군의 反共態勢를 가일층 가다듬고 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우리 군은 肅軍·整軍을 거듭하면서 그 바탕을 다져나왔고 그래서 6. 25 북괴남침을 맞이해서는 정신적으로는 반석처럼 굳어진 반공정신아래 우세한 敵과 맞서 백척간두에 선 국가·민족의 命運을 지탱하고 조국의 오늘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했던 건국초창기의 홍역이 없었던들 우리의 군대가 6. 25때 과연 것처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겠는가 하고 돌이켜 보는 것은 비단 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建軍日淺한 역사 속에서 당한 6. 25기습 남침만해도 우리의 국군은 곧 전장속에서 싸우면서 늠름하게 성장해온 것이다. 그것은 反共의 자장가를 들으며 제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국군은 공산주의 침략의 포성속에서 뼈를 굳혔고 어른으로 커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휴전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그간

월남의 자유수호전선에서 또한 귀중한 경험들을 쌓으면서 반공의 침병으로 이제 세계에서라도 막강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또하나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서 비단 外部로부터의 侵略에 対処해서 국권을 수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국가민족의 命運과 進路를 바로잡고 그 무궁한 발전을 다짐케하는 파수병으로 또는 先鋒에서 役務를 다해온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自主國防의 自我意識이 발돋움

— 北傀 赤化야욕 버릴 때까지 —

지금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61년 5월 16일, 또 당시 우리 軍이 亂麻와 같이 헝클어지고 갈피를 못잡던 당시의 국정과 혼란이 極한 사회상을 바로잡지 못했던들 과연 오늘의 大韓民國이 지탱될 수 있었고 또한 오늘의 이 보람찬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지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또 절실한 것으로 다가서기만 한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모로 복잡하고 미묘한 세계 情勢속에 挑戰과 試鍊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뚫어야만 하는 것이며 또한 기어코 극복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우리가 한시도 放心할 수 없는 것은 休戰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南侵야욕은 조금도 변치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硬化一路를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휴전협정체결 30년이 흘러간 올 6월말 현재 북괴가 자행한 도발진수가 총 7만6천2백여건에 달할만큼 挑戔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최근들어 북괴는 우리나라의 IPU 총회와 ASTA회의,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서울에서 開催될 각종 국제행사를 사전에 沮止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陸上和 海上, 그리고 空中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事態들, 임진강과 月城海岸으로 침투하던 武裝共匪를 현장에서 섬멸하는 철저한 경계와 지난 8월 7일, 귀순한 中공기를 맞아 즉각 출격하여 완벽한 領空기동으로 領空守護의 완벽함을 보여주었다.

또 8월 13일, 동해안 울릉도 근해로 침투하던 北傀間諜母船을 격침하는 우리 海軍의 기민한 영해수호를 통해서 육군과 해군, 공군이 지닌 각기의 기능과 職分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신해 주고 있다.

이같은 북괴집단의 도전은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말살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國運의 문제인 동시에 당면해서는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제반 努力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주한 미 지상군이 언젠가는 단계적으로 감축이 될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당초부터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을 위해 또한 실제적인 전쟁억제 세력으로

써 뿐만아니라 미국의 友邦에 대한 公約준수의 상징으로써 계속 주둔해 있어야 함을 認識하고 또 그렇게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이 언젠가 그 군대를 단계적으로 빼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만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스스로 조국방위를 맡고 나설 국군의 強健한 戰力유지가 절실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미군이 감축내지는 철수할 것이라는 데 발맞춘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는 나의 生存權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自主自立의 意志요, 또 그렇지 않고서는 이 험한 世波에서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자주국방이라는 自我意識과 새로운 발돋움을 다짐하게 된다.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友邦이자 同盟國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냉철하게,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정한 세계정세의 추리에 새로운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둘이켜,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과 태세는 급작스럽게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방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맡아져야 한다는 징조는 이미 닉슨 독트린에 의해 나타났고 그 산 敎訓은 월남전을 통해서 절실하게 배워온 터다.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탁월한 식견과 선견지명이나 경륜과 결단력이 있다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和습으로 그 운명과 진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6. 25때 그에 적절히 대응했던들 그같은 엄청난 비극과 참화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의 희생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有備면 無患이요, 無備면 有患이란 사실을 우리는 익히 배웠다.

몸에 안맞는 옷은 체구실을 다할 수 없듯이 한국의 실정에 맞지않는 軍은 한국의 방위에 만전을 다하기 어렵다함은 새삼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군은 創軍과 더불어 미국을 모델로해서 발전해 왔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忠誠으로 다져진 必勝의 信念

— 빛나는 傳統의 계승 그리고 發展을 —

이제 우리는 오늘의 國軍을 성장시켜 오면서 그때그때 그 實情에 맞지않는 점들을 과감히 바로잡아 왔으나 아직도 제웃을 입혀 우리의 것으로 消化시켜야 할 分野는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먼저 物量爲主의 作戰을 하는 美式보다는 우리가 그간 6. 25 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공비소탕작전 등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敎訓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알맞는 국군의 전략전술을 創造해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바람직스럽고 또한 合理的이라 하겠다.

간략하면서도 機動性이 있고 能率的인 編制로 개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국군이 指向해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 또 그것이 국군의 군대로서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內務生活이 더욱 알차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明朗하고도 충실한 내무생활은 곧바로 士氣와 전투력의 근원이라고 할 때 不合理하고 정신적 육체적 곤욕내지는 부담감 등을 一掃하고 어디까지나 兄弟愛·戰友愛와 上下간의 신뢰감이 한데 어울려 一體感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전의 努力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兵營에서는 항상 근검절약하며 이것이 父母兄弟의 피땀어린 聲援이란 생각을 갖고 明朗한 분위기 속에서도 嚴重한 軍紀로서 그 기강이 확립됨은 물론 끊임없는 體力鍛鍊으로서 전력을 향상·도모함으로써 그 모습은 한결같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게 돋보일 것이다.

오늘에 빛나는 막강국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정진이 필요하며 날로 創意·科學化하는 군대로서 그 質을 높여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명실상부한 과학화된 軍을 위해서는 勉學과 연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다.

오늘날 高度의 水準에 오른 방위산업의 發展을 통해서 우리는 軍의 科學化의 보람찬 결실을 살필 수 있는 터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얼

마든지 있으며 그것이 하나 하나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戰力은 더욱 놀랍게 증강될 수 있을 것이요 사회 내지는 국가발전에 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軍人の 道」 그 主文의 첫머리는 忠誠의 道를 부각시키고 있다.

몸과 마음을 祖國에 바친다는 實踐要綱이 따라붙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말자.

오늘의 국군장병들이 바쳐야 할 忠誠이란 물론 大韓民國과 그 國民을 위한 것이며 우리 國民 모두는 忠誠의 道를 걸으려는 國軍을 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뒷받침할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굳이 한마디 하려고 한다면 敵은 戰略的으로 輕視하되 戰術的으로는 重視해야 한다는 教理이다. 이는 必勝의 信念으로써 싸움터에 임하되 개개의 싸움에서는 敵의 力量을 알봄이 없이 모든 힘을 다해 最後의 勝利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 戰爭의 原理이다.

교활한 공산주의자·특유의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기습, 복병, 우회, 후방교란 등은 그들의 특유한 戰術이다. 때문에 우리는 굳은 신념을 가지되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全力으로서 対処하는 智略을 갖춰야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國力배양과 자주국방에의 國民的 結의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때 맞는 國軍의 날의 서른다섯들은 특별한 意義가 있음을 거듭 되새기면서 國軍의 무한한 發展과 將兵들의 앞길에 배전의 武運과 勝利의 榮光이 있기를 진심으로 빈다.

한글 그 우수성과 논리의 독특성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발전과정

신 방 현
(단국대학교 대학장)



~ 훈민정음 창제의 두가지 동기 ~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먼(간접적) 동기이고 하나는 가까운(직접적) 동기이다.

먼 동기: 옛날 우리나라 한아비들은 중

국의 글자인 한자로써 글자생활을 해왔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말을 한자로 표기한「한문」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어서 글자생활을 꾸려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다 매우 힘드는 일이었다. 한문을 쓰려면 첫째, 중국말의 낱말과 문법을 배워야했고, 그 어려운 한자를 알아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난관 때문에 한문은 특별한 재주와 특수한 판자를 타고난 사람 아니고서는 좀처럼 배워 쓰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우리 말을 한자로 적는 일은 한문쓰는데 비하면 한 가지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

곧 중국말을 배우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지만 어려운 한자를 배우는 어려움은 역시 겪어야 했다.

이와같이 먼 우리 한아비들은 글자를 쓰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속에서 살아온 것이

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한아비들은 한자로써 우리 말을 적는 방법을 개척하려고 애를 썼다.

중국말은 원래 한 낱말을 한 글자로 써 나타내는 낱말글자(뜻글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우리 말의 낱말을 한자로 나타내기도 했다.

「봄」은 春으로, 「사람」은 人으로 나타내는 따위의 방법을 썼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春과 人은 각기 봄과 사람으로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것은 우리말과 중국말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중국말은 「고립어」라는 종류에 속하는 언어이어서 우리말의 토씨나 풀이씨(용언)의 씨끝(어미)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말을 적은 글자도 물론 없다.

「사람이 범을 잡았다」란 우리말을 한자로서 적으려면 사람은 人으로, 범은 虎로, 잡(다)는 捕로 적어지지만 「이」·「을」·「았」·「다」와 같은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글자는 없다.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는데 큰 난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우리 한아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다.

한자가 가진 소리를 그 뜻과 관련시키지 않고 이용하거나, 또는 그 뜻을 아주 단판으로 이용한 것이다.

「乙」자는 본디 고기의 배알(창자)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그러한 뜻과는 전

혀 관련시키지 않고 그 소리만을 따서 우리 말의 「범을」의 「을」을 적는데 이용했다.

그리하여 「범을」은 「虎乙」로 적었던 것이다. 또 「是」자의 뜻은 「이」이고 소리는 「시」인데 이 글자의 뜻인 「이(것)」을 아주 단판으로 이용하여 「사람이」의 「이」를 적는데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이」는 「人是」로 적었다.

다음으로 「잡았다」의 앓은 원래「있다」의 「있」이 변화한 것이므로 이것은 「有」로 적고 「多」나 「如」로 적었다. 그리하여 「잡았다」는 「捕有多」와 같이 적었던 것이다.

우리 한아비들은 뜻글자인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소리글자인 음절글자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서 음절글자를 만들어 보았으나 우리 말은 음절글자로 적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한아비들은 알게 되었다.

우리말의 음절의 구조는 중국말의 그것과 매우 다르며 또 그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한아비들은 한자로써 우리말을 적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될 국면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먼(간접적) 동기가 있다.

~ 민족자주정신의 소유자, 세종대왕 ~

가까운 동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그 먼 동기는 한자를 빌어 우리 말을 적을 수 없었다는데 있는데 그 가까운 동기는 세종의 훌륭한 정신과 뛰어난 영도력에 있다.

세종은 그때로서는 드물게 볼 수 없는 민족자주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때의 지식인들은 중국만이 훌륭한 나라요, 중국문화만이 본받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중국과 같아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글짜까지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라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임금은 우리를 중국사람이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역설하였다.

훈민정음 서문에서 세종임금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 글자로 우리 말을 적을 수는 없다」고 한것은 바로 이 정신의 표명이다.

말과 글이 중국과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우굴거리고 있었던 그 서리에서 세종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며 우리 말은 중국 말과 달라서 그 글자를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민족자주정신의 나타남이라 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세종임금을 높이 받드는 그 첫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세종은 철저한 민본정신의 소유자였다.

백성의 고통을 자기 스스로의 고통으로 여길줄 아는 임금이었다.

세종은 임금의 자리에 앉아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니 자기로서는 한문으로 글자생활을 해 나가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글자생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많은 사람들이 한자로 쓰는데서 겪는 고통을 짐작하여 새로운 글자-우리말을 바로 적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를 결심하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끝끝내 그 뜻을 이루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세종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려는 일이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이를 딱하게 여겨 새 글자를 만든다」고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민본정신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종임금은 이렇게 훌륭한 민족자주정신과 민본정신의 소유자인 동시에 자기자신 뛰어난 언어학자이었고 또 뛰어난 영도력을 가진 분이였다.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였다.

학자들은 시키는데만 머무르지않고 자기 자신이 바로 소리의 이치를 연구하였던 것이다.

세종은 본디 건강이 좋지않았는데 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주 초청으로 요양하러 가면서도 훈민정음에 관한 문헌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며 또 최만리를 친히 국문하면서 「너희들은 소리에 관한 이치를 아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세종은 그 자신이 언어학자이었을 뿐 아니라 학자를 모아 연구에 전념하게 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을 충분히 나

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니 대왕은 뛰어난 영도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집현전에 학자를 모아 연구하게 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익히 아는 일이며 신 숙주, 성 삼문을 중국에까지 보내어 소리의 이치를 연구해 오도록 한 이야기는 모두 잘 알려진 일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민족자주와 민본정신 그리고 대왕의 학자적 자질, 나아가서는 그 뛰어난 영도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논리정연한 한글 스물여덟자 ~

훈민정음의 글자꼴이 어째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인도의 산스크리트 글자를 본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옛 글자를 본받았다고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몽고글자를 본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해례」가 나타난 뒤로는 이러한 추측들은 완전히 잘못임이 밝혀졌다. 훈민정음은 모두 스물여덟자이다. 그중 초성이 열일곱자, 중성이 열한자인데 우선 초성을 만든 방법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보기로 하자.

초성은 그 나는 자리에 따라 다섯가지로 나뉜다.

어금닛소리-ㄱ ㅋ ㅇ
혓 소 리-ㄷ ㅌ ㄴ ㄹ

입술소리-ㅂ ㅃ ㅍ
잇 소 리-ㅅ ㅆ ㅈ ㅊ
목 소 리-ㅇ ㅎ ㅎ

이것을 오음(五音)이라 하는데 오음중에서 가장 약한 소리를 하나씩 가려서 이 소리를 적는 글자부터 만들기로 하였다. 어금닛소리중에서 뿔힌 소리는 ㄱ소리인데 이 글자꼴은 이 소리를 낼 때에 혀의 뒷쪽이 어린 입천장에 닿아서 꼬부라진 모양을 본뜬 것이다.

혓소리 중에서는 ㄴ이 뿔혔는데 이 글자는 혀끝이 잇몸에 올라닿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입술소리 중에서 뿔힌 ㅍ은 입술을, 잇소리중에서 뿔힌 ㅈ은 이의 줄은 목소리중에서 뿔힌 ㅇ은 북구멍의 모양을 각각 그려서 만들었다.

다음으로 이 다섯 으뜸글자를 토대로 하여 그 소리가 섞여지는 차례를 따라 각각 획을 하나씩 덧붙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다.

한예를 들면 ㄱ보다 ㅋ이 그 소리가 세므로 ㄱ에 한 획을 더붙여 ㅋ을 만든 따위이다.

ㄴ → ㄷ → ㄸ
ㅍ → ㅑ → ㅓ
ㅅ → ㅆ → ㅈ
ㅇ → ㅎ → ㅊ

따위도 모두 그러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다만 ㅎ과 ㄹ과 △은 그저 ㅇ·ㄴ·ㅅ의 꼴로 약간 바꾸어 만들었다.

중성은 그저 세소리를 가려서 이것을 각

각 하늘·땅·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는 하늘을, -는 땅을, |는 사람을 본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을 둥글고 땅은 평평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는 사람이 서있는 모양이다. 나머지 ㄷ(丁), 卜(卜), ㄸ(ㄸ), ㄱ(ㄱ), ㄴ(ㄴ), ㄹ(ㄹ), ㅁ(ㅁ), ㅂ(ㅂ), ㅅ(ㅅ), ㅇ(ㅇ)은 모두 이 세글자를 만들어서 만들었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보니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최초의 착상은 매우 위대한 것이다.

다른 나라의 글자와 비교해보면 다른 글자는 모두 자연발생으로 생겼거나 남의 것을 빌어서 쓴 것들이어서 매우 무질서하고 어수선한데 오직 우리 글자만이 일정한 원리에 의해 만들어져서 질서정연하게 되었으니 우리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잘된 글이라고 이름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아버들의 슬기를 자랑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다. 이렇게 훌륭한 글자인데도 우리 겨레는 이 글자를 잘 부려쓰지 못했다. 우선 세종이 이 글자를 만들어 펴려할 무렵, 최만리를 비롯한 몇몇 신하들은 이 글자 만드는 것을 극력 반대하였다.

그 이유인즉, 첫째는 중국의 좋은 글자를 두고 무엇때문에 천하고 상스런 글자를 만드냐는 것, 둘째는 언문(한글)을 배우면 성현의 학문을 못하게 된다는 것, 셋째는 이러한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더라도 하면 부끄러운 일이란 것들이다.

모두 어리석은 선비들의 잠꼬대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으나 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세종은 친히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그래도 듣지않자 감옥에 잠깐 가두기까지 하면서 이 글자를 천하에 퍼내게 된 것이다. 그 뒤 한글은 왕가의 보호아래 순조롭게 쓰이게 되었다.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과 같은 문학작품이 나오고 많은 불경 성경과 중국의 문학작품까지 번역이 되어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산군 때에는 뒤서리를 맞게 되었으니 그의 죄상을 쓴 글이 한글로 되어 있었으므로 죄인을 잡기 위하여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문초하고,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글로 된 책을 불태우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한글보급은 큰 타격을 겪게 되었으나 그 명맥은 끊기지 않고 민중속으로 스며들어서 모든 국민의 애호를 받아 수백년을 자라온 것이다.

한글이 역사의 표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갑오경장 이후이다. 그전에 있어서는 한글은 공용문서에 쓰이지 못했던 것인데, 이때부터 비로소 공용문서에 한글이 쓰이게 되고, 유보준은 그의 저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적어내고 서재필을 영도자로 하는 독립협회에서 낸 독립신문은 한글만으로 찍혀나오고 주시경선생은 말과 글의 정리가 나라의 흥망과도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 말과 글에 관심이 쏟아지

기 시작했으나 이때 또한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 닥쳤던 것이다.

일본 침략이 그것이다.

일본 침략자들은 말과 글이 겨레의 정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한국적인 얼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 말, 우리 글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이에 대한 저항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주시경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학자들은 조선어연구회(→조선학회→한글학회)를 만들고 우리 말과 글의 학리를 연구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에는 표준말 모음을, 1941년에는 외래어표기법을 내는 한편 1929년부터 시작한 사전편찬의 일도 계속 추진하여 1942년경에는 거의 원고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무렵 소위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일본은 불리해가는 전세에 초조함을 느끼게 되어 1936년에는 사상범 보호관찰령을 내려 우리 애국지사들을 연금상태에 두고 1938년에는 조선어과목을 전폐하여 이름뿐이던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없애고 1940년에는 우리에게서 성과 이름을 빼고 애국지사들을 투옥하고 조선·동아 두 신문을 폐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악독한 식민지정책을 감행해 내려온 그들은 1942년 드디어 한글학회에 관

련된 사람들을 검거·투옥하였으니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그들은 악독한 고문질을 자행하여 한징·이윤재 두분의 국어학자를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 한글 발전에 적극적 관심을 ~

해방이 되었다.

이젠 마음놓고 우리 말, 우리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국민학교에서 중·고등·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 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이때에 그 기반이 된 것이 한글학회에서 만들어놓은 맞춤법과 표준말이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해방뒤의 국어교육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방면의 민족교육이 그렇게 빨리 재출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글에 큰 관심을 쏟기 시작하여 1948년에 이미 한글 전용의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1970년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가로쓰되 표준말로 하라는 법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역사의 진전에는 반드시 보수세력의 반대가 따르기 마련이다.

한글이 나아가는 길에도 반대는 예외없이 나타난다.

이 반대는 두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한글만 쓰려는 역사적 진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반대이다.

한자는 초창기의 우리 문화를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이젠 그 글자의 원시성 때문에 세계문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쓰던, 또는 쓰고 있는 나라는 예외없이 이 글자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월남이 그랬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 자신이 그렇다.

1970년의 법령이 지지하는대로 한글만으로 가로쓰는 일, 이 길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지않다.

이러한 한글전용의 글에는 읽는 것만 있을뿐, 읽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명 언

의심해야 할 데에서 의심하고, 단언해야 할 때에 단언하고, 굴복해야 할 때에 굴복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성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세가지 원칙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혹은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단언하여 증명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모든 것을 의심하여 어떤데서 굴복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혹은 모든 일에 굴복하여 어떤 곳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 파스칼의 「팡세」중에서 -

경험은 사랑의 아들이오,

사랑은 행동의 아들이다.

책에서 인간을 배울 수는 없다.

- 디즈레일리 -

中共의 對 北韓



政策 展望

徐 成 雨

〈平和統一研究所研究委員〉

이 글은 安保論壇으로서 平和統一研究所 徐 成雨 研究委員이 월간지에 게재한 글에서 발췌했으며 內容은 中共의 對北韓 政策展望이다.

I. 序 言

우리민족이 南北으로 분단된 이래 北韓·中共·소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北方3角体制은 분단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0여년간의 이들 3者間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兄弟間 團結」을 과시하던 3者가 어느덧 中共과 소련이 적대관계로 변하고 北韓이 「自主路線」이란 것을 표방하는 상황에까지 도달했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소분쟁은 同盟의 폐기로까지 발전하였고 北韓은 이를 악용하여 對 中·蘇 等

距離外交를 적당히 전개하면서 양국과 同盟·協力關係를 적당히 전개하면서 양국과 동맹·협조關係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북방 3각관계의 기본적인 틀로 인식하여 왔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의 국제질서는 가장 유동적이며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많이 몰고 왔다.

1972년 2월 21일 닉슨 美대통령의 중공 방문을 시작으로 美·中共관계의 개선은 세계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도 새로운 역학關係를 조성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중공이 한국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

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80년 1월 25일 중공의 外交部長 黃華가 「80년대 국제정세와 中共의 대외정책방향」이란 党·軍幹部를 대상으로 한 비밀 연설에서 북한을 「적(소련)의 친구」, 한국을 「친구(미국)의 친구」라고 지칭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문을 닫았으며 빗장을 걸지 않았다」고 하면서 북한이 「소련카드」를 가지고 계속하여 중공을 괴롭히면 중공으로서는 「한국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83년 5월 5일 中共의 국영항공사인 中國民間航空局소속 여객기의 한국 착륙으로 인하여 중공당국은 한국의 정식국호를 공식으로 사용하면서 沈圖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30여명의 중공대표단이 서울에 도착, 역사적인 韓國·中共간의 公式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중공은 정기적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한국과 교환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라는 北韓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한국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東京-上海-北京 路線을 개설함에 대해 한·일·중공간 합의가 이루어져 비행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중공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가 북한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며 중공이 한국과 政治的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 또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중공은 피남중공기 사건이 타결된 직후 吳學謙외교부장을 평양에 보내 북한당국의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갖고 우호관계를 다짐한 점이나 북한이 피남기사전에 침북을 지키면서도 吳의 訪北을 전후하여 그들의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중공과의 관계를 「형제와도 같은 관계」 「이(齒)와 입술(脣)과 같은 관계」라고 지칭, 쌍방간의 동맹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韓·中共간의 급격한 관계개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本稿에서는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속에서 中共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떠한 政策을 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1) 中共의 對韓半島 認識

중공의 한반도정책을 위해서는 中共의 政治엘리트들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공은 주변지역에 대해 內境(Inner Frontier)과 外境(Outer Frontier)이란 개념으로 분류하는데 내경이란 中共의 통치권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외경이란 전통적으로 中國의 영향을 받았거나 中國의 문화권에 속하던 지역을 의미한다.

중공은 내경내에 있는 지역을 內界로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다른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중공의 權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공이 이 지역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나 주변정세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중공 스타일의 정권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이 최소한 北京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중공은 이 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어 중공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공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대륙과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수천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때로는 전쟁을 하고 때로는 충돌을 하지만 밀접히 연결되어 서로의 文化를 교류하여 왔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에서 파생되어 中共이 韓半島에서 지니고 있는 重要性和 利益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가 만주의 공업지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주의 안전과 관련하여 한반도가 중요성을 갖는다. 중공의 공업력은 만주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주의 공업력이 중공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주와 한반도는 바로 접해있다. 그러므로 중공에 있어서는 한반도가 중요한 위치가 되며 북한이 친중공적인 존재로 있게 됨으로써 큰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황하강, 양자강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만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만주는 변방으로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럴 때는 한반도는 만주를 공략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주가 중국 본토가 된 뒤에는 한반도가 하나의 변방적 주변적 지역이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한반도, 특히 북한은 중국 본토를 보호하는 방풍지역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밀집성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완전히 敵性化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중공지도자들은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한 생각의 行動化가 6·25참전이라고 볼 수 있다.

1949년 가을에 통일공산정권을 세운 중공이 1년만에 1백만의 대군을 참전시키는 행동을 한 것은 한반도가 만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공에 있어서 만주가 중요하고 만주의 보호를 위해 북한이 중요한 것이다.

둘째, 해양세력의 진출을 한반도가 막아주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반도는 일본세력과 대륙세력의 직접대결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거기가 어느 한쪽에 편입되면 세력균형이 깨지고 한반도는 팽창의 발판이 되어 왔다.

지금도 역시 한반도는 美·中共 또는 日·中共의 직접대결을 완충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 북한은 해양세력을 저지시키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 중공식의 이념과 개발방향

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과 북한은 비슷한 문화적·역사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정권획득과정에 있어 중공은 자생적인 과정을 밟고 북한은 외래적인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것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방식과 지도하는 방식에 있어 양자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공으로서는 중국식의 이념이 크게 받아들여지는 북한의 존재가 뜻이 있는 것이다.

네째, 북한에서 소련과 공동으로 접경을 하고 있으면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거의 대부분은 중공과 접경하고 있으나 일부는 소련과도 접경을 하고 있다.

그것은 소련에 의한 포위를 당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親中地帶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소련의 영향아래 북한이 들어간다면 중공은 소련에 의해서 동남북으로부터 모두 포위되기 때문이다.

(2) 對韓半島 政策

앞에 제시한 이익과 중요성에 따라 중공의 대한반도 정책이 결정될 것인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존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및 행동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존립이 중공의 존립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중공으로서는 북한의 보호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공은 미국과 같이 서구적인 가치관에 따르는 타산적, 계산적인 판단에서

가 아니라 동양적인 情誼性으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일관하여 지지하고 있다.

「외세의 간섭없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본래 미군의 철수가 관련된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란 북한이 주도하는 혁명을 뜻한다.

이러한 북한의 노선은 중공의 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중공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社會主義運動과 民族解放運動의 統一戰線에 의한 民族統一獨立(革命)에서 찾고 있다. 처한반도정책은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워진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공의 철학 및 원칙과 북한의 그것은 같은 것이다.

즉 통일과 관련된 중공의 대한반도정책은 공산세력에 의한 혁명인 것이다.

세째,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북한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공이 바라는 한반도상은 중공식의 혁명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反蘇的, 反霸權的인 형태로 한반도가 중공권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중공은 한반도에 親蘇的이거나 親美的인 체제가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배격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중공이 취하게 되는 정책도

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Ⅲ. 중공의 대북한관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보아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더 큰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소련보다 중공이다.

그러나 8·15 해방 이후 오랫동안 중공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고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행동에 추종하고 동조하는 형태로 밖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당시 중공이 처하고 있던 내외의 상황과 여건 때문이었다. 즉 중공 공산당은 중국대륙으로부터 국민정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1949년 10월 1일에 중공정권을 수립하였지만 국민당 정부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였고 대만점령이라는 문제가 목전의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내전 후의 내부인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우기 소련이나 미국을 상대로 하여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나 세력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공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물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소련의 한반도 정책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시까지 북한과 중공간의 협력관계는 쌍무적인 직접관계라는 성격보

다 북한과 소련, 그리고 중공과 소련간의 밀착관계로부터 파생된 간접관계 혹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소련·중공·북한의 3자관계 속에서의 쌍무관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중공간의 밀착 및 「피의 유대」가 형성된 것은 역시 1950년 10월에 중공군이 한국전에 직접 투입되어 북한공산정권의 궤멸을 막아 준 이후부터이다.

북한의 종주국 및 보호국의 위치에 있던 소련이 김일성정권의 궤멸위기시에도 북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끝까지 회피하였던 데 반하여 中共은 직접 참전하여 김일성정권을 보호해 주었고, 휴전 이후에도 1958년 10월까지 중공군을 북한에 주둔시키면서 소련과 함께 막대한 경제·군사원조를 함으로써 중공은 북한에 대하여 소련과 대등한 입장과 영향력을 확보해 갔다.

뿐만 아니라 중공은 한국휴전협정의 한 당사자가 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더 큰 발언권과 우위의 입장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까지 소련, 중공, 북한 3자간의 관계는 소련·북한간의 주종관계, 한국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피의 유대」 관계, 중·소간의 긴밀한 동맹관계 등으로 이루어진 밀착관계가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중공과 소련의 이견과 마찰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격심한 분쟁, 적대관계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처음에는 중·소분쟁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하였다.

1961년 알바니아문제에 관하여 북한은 중공과 동일보조를 취했지만 중·소양국의 어느 한쪽으로도 편향하지는 않았다.

1965년 중공의 월남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국제통일전선의 형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중공과 북한관계를 소원시켰으며 이것은 표면적으로 김일성과 월맹이 자주노선을 표방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그로 인해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은 양측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양측 대사들소 환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갔으나 1968년 후반부터 중공과 북한은 다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9월 9일, 북한정권 창건 20주년에 중공의 周恩來首相은 축전을 보내 「피로써 맺어진 쌍방인민들의 투쟁 관계가 부단히 계속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1969년 10월 1일 중공정권창건 20주년에 최용전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1970년 4월에는 周恩來가 북한을 방문하고 중공이 북한의 안보를 공동으로 보장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후, 중공과 북한간의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IV. 중공의 대북한정책 전망

중공의 대북한정책은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 진척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만주지역에 대한 전초기지란 점에서 중공에게는 굉장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소분쟁 이후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밀착은 중공에게 큰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중공의 대외정책의 최대목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소련진출을 봉쇄하는데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의 진출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쌍방관계는 북한의 중·소 등거리외교정책으로 인하여 70년대 후반보다는 다소 침체되었지만 쌍방 밀월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을 놓고 벌이는 중·소 경쟁에서 중공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현저한 우세를 점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1년 12월에 중공수상 조 사양이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두차례의 북한대표단과의 회담과 김 일성과의 면담에서 쌍방간의 관계 개선문제와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으로 「원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동맹 외교노선을 지지함과 아울러 고려연방안 실현 및 주한 미군 철수를 강력한 어조로 촉구하고 미국의 대북한 직접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조 사양의 평양방문은 그간 노정되어온 쌍방 지도체제 및 노선에 대한 의견조정, 협력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을 중공측에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2년 들어 중공의 대북한 군사·경제지원이 증가되었다.

중공은 소련제 MiG-21기의 개량형인 중

공산 A-5전투기를 20대 내지 40대를 처음으로 북한에 제공했으며 1억달러 상당의 원조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공은 재정적 고갈상태, 인플레이션, 저경제 성장 그리고 4대현대화 계획의 추진 등으로 북한을 원조할 여유가 없는 형편인데도 상당한 원조를 했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또한 소련이 근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량을 1백만톤에서 50만톤으로 줄인데 반하여 중공은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 계약량이 50만톤이었는데도 80만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고, 1982년에는 1백 50만톤으로 증가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중공은 1982년 9월 16일~26일에 김 일성을 초청, 수차례의 회담을 개최하면서 쌍방관계의 밀착을 과시하였다.

특히 금년 들어 김 정일을 중공에 초청함으로써 김 정일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중공의 대북한 정책을 볼 때 앞으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공은 중·소 대립이라는 여건 때문에 김 일성의 주장을 꺾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철수문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중공이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므로 공식적으로는 주한 미군철수 및 고려연방제에 관한 북한측의 주장을 계속해서 지지하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중공은 중국공산당 12차 대회에서

1인통치를 금지하고 개인숭배를 봉쇄하여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한다는 것과 어떠한 혁명수출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별하고 독자자주의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중공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사회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숭배 및 권력세습을 요란하게 전개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하고 불안한 노선임이 확실하다.

중공지도자들도 북한의 이러한 불안과 반발을 의식하고 경제·군사적인 원조와 북한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할 것이다.

김 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중공의 공식적인 지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중공의 대북한정책은 중·소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영향권에 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들의 체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중·소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일 뿐 아니라 과거에 중공의 월남 응징,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등을 보아온 북한으로서는 반 중, 또는 반 소화에 따라 중·소가 가해울지 모르는 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어느 일방으로 편향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쟁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서도 중립 내지 자주노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중·소에 대한 자주노선 내지 등거리외교는 중·소관계의 변화라는 점을 고려치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한

국카드」라는 전략적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의 관계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겠지마는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은 점진적으로 시도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한국은 보다 적극적이며 자주적인 대 중·소의교를 전개하여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를 막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명 언 ◆

만약 인간이 인류에 대한 고찰을 초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놀랄만한 결과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에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면, 理性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빼앗길 지도 모르며,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귀먹고 말없이 끌려갈지 모른다.

G. 워싱턴 「육군 장교들에게 행한 연설」

＝ 先進經濟에의 跳躍과 先行課題 ＝

조 장 훈
(세무사)



〈1〉 서 언

지금 우리 경제는 크나 큰 전환점에 서있다고 하겠다.

우선 이미 기반을 다진 물가안정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인플레이의 악몽을 영구히 추방하는 계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지적할수 있다.

둘째는 오랜 불황의 시련을 극복하여 경기회복, 나아가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점

이다.

세계는 개방과 자원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눈을 바깥으로 돌려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와 무역량의 증가,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등이 우리 경제의 신장에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신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외채부담으로 인한 국제금융질서의 위기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우리 경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유리한 것은 적극 활용하고 불리한 것은 슬기로운 대응, 극복하여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2년~86년)을 전면적으로 수정키로 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 산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환기를 맞아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환기를 맞고 대처하려는 데는 주체가 누구이어야 한다는 책임전가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발전의 주체가 정부와 그리고 기업, 국민일진대 이를 주체 모두가 책임을 같이 함이 옳을 것이다.

〈2〉 60~70년대의 개발전략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는 4차에 걸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했다. 특히 60년대는 70년대의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굳힌 개발연대로서 그 역할은 매우 컸고 또 실제로 훌륭히 해냈다.

우선 60년대 초의 개발계획은 시멘트·정유·비료 등 기간산업의 수입대체와 도로·철도·전력 등의 기반구축에 역점이 두어졌다. 이 개발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 다음으로 내외지향적 공업정책, 바꾸어 말해서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시장이 좁고 우리의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수출주도형의 내외지향적 개발정책은 이 기간 중의 세계 자유무역주의에 힘입어 크게 성공을 거두어 급속한 공업화와 고용증대를 가져왔다.

7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한때 주춤한 적도 있었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굳건한 의지로 수출을 계속 늘려나갔고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함께 이룩함으로써 60년대 초반까지의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다. 온 국민이 땀과 의지를 한 곳에 모아 노력한 결과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성공한 모범국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성숙화, 내실화함으로써 선진 산업국가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해야 할

때를 만난 것이다.

앞으로 선진된 나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선진화의 조건

그렇다면 우리가 겨냥하고 있는 선진경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쉽게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제를 연상할 수 있지만 꼬집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확실히 표현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과 후진, 또는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인당 국민소득이나 산업구조 등 지표를 비교해서 분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진경제 대열에 발돋움하려면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분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88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역·외환·자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화 및 개방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OECD는 이른바 서방 24개 공업국이 가맹하고 있는 개발협력체제이다. 가맹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2할에 해당하는 7억명에 불과하지만 세계공업 총 생산의 60%, 무역량은 70%,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OECD에 가입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은 없다. 가입된 후 OECD 협정문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할 태세만 갖추면

가능하다.

다만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의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가입 그 자체보다는 가입 후에 따르는 의무의 이행문제가 더 크다. 가입이 되면 무역·외환·자본 등의 거래면에서 모든 것이 자유화되어야 한다.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국위선양과 외교적 성과는 물론 크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등 고도 공업국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들도 OECD가맹국으로써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으로는 국내경제의 완전개방 및 자유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을 완전히 자유화해야 하며 우리의 국제수지가 나빠졌다고 하여 외환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의 경제가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충격과 마찰을 감내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경제력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OECD에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이 기구의 가맹국들의 국력과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스위스」의 「유러피언·매니지먼트·포럼」지가 최근 OECD 가맹국의 경제, 사회지표

를 담은 82~83년판 세계산업경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신흥공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자료도 수록하고 있다.

우선 경제규모부터 볼때 81년을 기준해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NP)이 6백 57억 달러로, 6백 61억달러인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안에서라면 15위권에 든다.

그러나 1인당 GNP는 훨씬 낮아 OECD의 평균 9천 5백 85달러의 6분의 1 수준인 1천 6백 97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OECD 가맹국은 「터키」(1천 1백 74달러) 뿐이다.

한편 연평균 경제성장률(76년~81년)은 우리나라가 6.45%로 OECD의 연평균 2.76%보다 훨씬 높으며 가맹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인 일본의 4.78% 보다도 역시 높다.

물가의 경우 지난 76년~81년 중 우리나라는 연평균 18.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OECD의 평균은 9.1%, 이 기간중 「스위스」는 3.3%의 상승을 기록함으로써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서독이 4.4%, 「오스트리아」가 5.2%, 일본이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나라는 「터키」와 「포르투갈」뿐이다.

다음으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부문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

는 미국으로서 GNP(국민총생산)의 2.3%를 투자하고 있다. 「스위스」 「일본」 「서독」 「영국」 등도 2%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0.6% 수준으로써 OECD대로 따지면 18위 수준에 머문다.

가계지출 중 식료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율인 잉겔계수는 우리나라가 52.8%(80년)로 OECD의 평균 27.3% 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최하위인 「포르투갈」의 47.6% 보다도 높다.

이러한 지표상의 비교는 어디까지나 비교에 그치는 것이지 OECD의 가입요건은 아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OECD의 가맹국의 중하위권의 국가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5〉 OECD가맹의 선행조건

자유화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의 궁극적 일진대 개발과정에서 야기될 국내경제에 대한 충격과 마찰을 극소화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물론 자유화로 국내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이 없지 않다.

외부로부터 경쟁이라는 자극이 전해옴으로써 국내산업에 합리화·능률화 바람이 일고 가격경쟁이 촉진되며 한계산업이 도태됨으로써 자원의 적절한 배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잇점을 얻기 위해서는 우

리의 경제체질이 그것을 수용할만큼 강해야 한다.

수입자유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품목에 예상 외의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이 미치지 않을만큼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의 국산품의 질과 가격이 외세선호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물가 기술개발·수출·수입·외채·저축 그리고 우리의 의식문제 등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자신을 갖지 않으면 비록 OECD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선진경제를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 과제들을 현황과 더불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감으로써 비로소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운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협조가 한데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 물가

최근의 물가동향에서 우리는 물가안정이 일단은 정책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지난해에 도매물가 상승률이 2.4%, 소비자 가격 4.8%로 잡힌데다가 울들어서는 지금까지 2%를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들은 인플레이의 크나 큰 해독과 그로 인한 빠져린 고통을 솔하게 경험했다. 그때문에 「물가란 으레 오르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해 왔다. 또한 오름폭도 소득수준의 향상을 항상 앞지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와 실질소득의 저하라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계와 생산여건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속에서의 성장은 결코 의미가 없다. 마치 불필요하게 살찐 사람에게 비유할 경우 병에 약한 흠을 갖고있는 것과 같다.

최근의 물가안정은 그런 면에서 자못 뜻이 깊다. 물가안정의 바탕 위에서 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분기 우리경제는 9.3%의 성장을 달성했고 이어 2.4분기에는 9.8%로 치솟았다.

흔히 물가안정과 성장은 상충적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실제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성장을 두 마리의 토끼에 비유함으로써 안정론과 성장론이 맞부딪쳐 격렬한 논쟁을 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안정도 구하고 성장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경제의 명제이므로 우리들은 그 동안 늘 이 두 과제의 달성을 정책의지로 삼아왔다.

지난해와 그리고 올해의 물가안정과 성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했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노력했으며 농민들은 증산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에 힘썼다. 이같은 국가적 노력과 합심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인 것이다.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선진국 대열로 발돋움 하려면 물가안정이 정책단계를 넘어 우리경제에 체질화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야 임금, 금리 등이 안정되어 기업이 계획경영을 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게 되며 그것이 수출증대·투자의 확대·가동률의 제고·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아직도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또 물가안정, 소득의 실질증가를 틈타 중동적인 소비심리가 자극을 받기 쉽다.

지금이야말로 소비생활의 합리화,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 절약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 외채의 적절한 관리

국내저축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저축 즉 외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원래 빚이란 있는 것 보다 없는 것이 좋으며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것이 건전한 경제를 꾸려나가기 쉽다.

우리나라의 지난 연말 외채잔액은 3백 72억달러에 이른다. 또 앞으로도 더 늘어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따라서 오는 86년까지 상환하는 것을 제외해도 그때에 가서는 외채액이 64백 45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외채문

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러한 외채규모가 우리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외채의 상환능력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을 수출금액에 대비한 DSR(부채상환비율)로 표시되며 0.2를 안정비율로 잡는다. 우리나라의 DSR은 81년을 기준하여 0.13으로 평가받고 있어 외채상환능력은 안정권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 몇몇 나라들이 외채의 상환불능사태를 빚었다. 결국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융자로 발등의 불을 꺼 과국은 면했지만 이들 국가의 외채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훈을 주었다. DSR이 안정권에 있다고 하여 반드시 생활능력이 양호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브라질」이 그예로써 이 나라의 80년대 초의 DSR은 0.16~0.2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외채의 상환불능사태가 야기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채관리방향은 명확해진다.

첫째는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외채의 씹씹이를 줄여야 한다.

둘째는 국내저축을 크게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없이는 어렵다.

정부는 외채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계속 추진 중이다.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거나 연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감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오늘 '86년의 외채잔액을 5백억달러로

줄이게 된다는 계산이다.

다. 수출과 수입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하여 외채를 갚아 나가는 방법과 수입을 최대한으로 줄여 외화의 씹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다소 나아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의 동향을 보더라도 그 열의가 식은 것 같다.

흔히 수삼년에 걸친 해외수요 감퇴가 수출감퇴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사실 수출이란 수입국에서 물건을 사들여 가지 않으면 어려운 노릇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세계를 휩쓴 불황은 확실히 세계 교역을 위축시켰다.

또한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사이에 팽배해진 새로운 보호무역 풍조도 우리 수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후발국들이 우리나라를 맹렬히 추격 중에 있다.

한 마디로 무역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전해야 하는 장벽인 것이다. 우리의 수출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움츠러든 수출열의를 일으켜 과거에 보였던 역량을 또 한번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수입자유화를 높이

자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이 격증한 사실은 우리의 외채선호심의 뿌리깊음을 잘 입증해 주었다. 수입자유화의 참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첫째는 자유무역이라는 세계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우리의 이미지를 세계에 심고 우리 상품도 기술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를 사치성 소비재 수입으로 탕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심지어는 뱀파워의 수입에 외화가 낭비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라. 저축의 증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가 외채를 들여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국내저축의 뒷받침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저축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축은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뒤지고 있다.

'80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9%에 불과한 반면에 경쟁국인 대만은 33.4%, 「싱가포르」도 27.3%에 달했다. 이웃인 일본도 31.7%에 이르는 것이다.

흔히 저축이야기만 나오면 살기도 어려운 데 저축할 여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반발에 부딪친다. 그러나 저축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저축을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낮은 저축률을 오는 '86년에는 약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축은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사회지도층의 술선수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들이 소비를 줄이고 근검 절약하는 자세를 본보임으로써 저축정신은 좀더 빨리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저축의 가장 큰 적인 인플레이가 잡힘으로써 실질소득이 높아졌다. 이때야말로 저축하는 마음을 기르는 좋은 기회인듯하다.

마. 기술개발의 확대

지금 선진국들 사이에는 기술개발에 대한 경쟁이 첨예화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의 독점화는 물론이고 무기화의 양상으로 치달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기술경쟁에서 밀려나는 나라는 결코 흥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벗어나 신흥공업국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지만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훨씬 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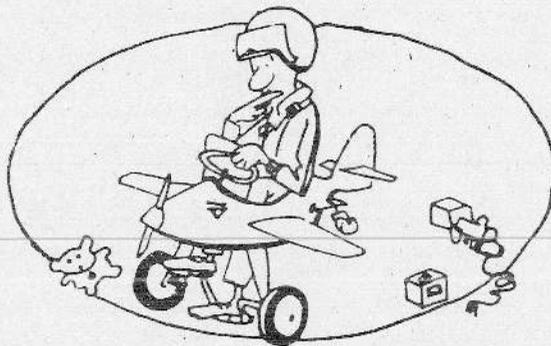
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용료를 주고 들여온 선진기술에 약간의 개발을 가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접목형 기술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의 기술향상은 결코 기술개발 기술혁신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제 2의 경제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만큼의 기술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결 론

이밖에도 선진경제를 이룩해 나가는 데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식량의 자급화도 그러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환경보전·인구·교육 등이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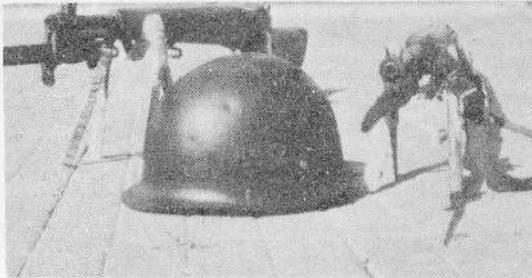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들의 「의식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식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 질 때 선진경제는 더욱 앞당겨지고 내실도 기해질 것으로 믿는다.



軍人精神에

關한 研究(2)

中 領 李 龍 炯
(空 軍 本 部)



第3章 韓國 軍人精神 要素 에 對한 妥當性 分析

第1節 韓國軍의 軍人精神에 對한 背景

우리나라의 軍人精神은 ① 1948年 12月 1日 初代 國防部長官 李範奭將軍이 麗·順叛亂地區 討伐作戰에 戰歿한 將兵 慰靈祭에서 宣布한 國軍三大宣誓¹⁾ ② 1948年 12月 5日 初代 陸軍參謀總長인 李應俊將軍이 制定한 士兵訓²⁾ ③ 1949年 改正 宣布된 國軍盟誓³⁾

④ 1950年 2月 28日 大統領令 第 282号로 制定 公布된 軍人服務令⁴⁾ ⑤ 1956年 11月 21日 國防部訓令 第27号로 公布된 軍陣守則⁵⁾ ⑥ 1957年 12月 1日 國防部訓令 第28号로 公布된 軍人의 길 ⑦ 1976年 9月 17日 國防部訓令 第212号로 改正 公布된 軍人의 길 ⑧ 1976年 10月 13日 大統領令 第8262号로 改正 公布된 軍人服務規律⁶⁾ 等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 나타난 軍人精神은 우리 나라의 建國理念인 弘益人間精神, 新羅의 花郎徒精神, 李舜臣將軍의 愛國愛族精神, 3·1運動의 自主獨立精神 等 우리民族 思想에 나타난 軍事的 傳統을 土台로하고 6. 25動亂과 越南參戰과 같은 反共突戰 경험을 참고로 하여 制定하였는데⁷⁾ 이들 各 思想에 나타난 軍人精神의 背景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第1項 弘益人間精神

우리 民族의 최초의 國家인 古朝鮮의 建國理念은 「弘益人間」이었다. 「弘益人間」이란 널리 人間世上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平和와 和解속에서 共存의 삶을 영위한다는 光明正대한 精神인데 이 理念은 우리 民族의 基本理念으로 化하여 우리 國軍의 精神的인 바탕이 되어온 것이다.

第2項 新羅의 花郎徒精神

花郎制度는 新羅 真興王때에 国力을 伸張하고 나아가 民族統一의 偉대한 理想을 實現코자 채택한 一種의 教育制度로서 많은 젊은 靑少年들이 集團의으로 世俗五戒(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有信, 臨戰無退, 殺生有損)의 戒律아래 山川을 돌아다니며 武術을 익히고 心身鍛鍊과 直觀陶冶를 修鍊하였다.

이러한 修鍊을 통하여 신라의 젊은 靑少年들은 愛國心(國土防衛), 忠誠心, 勇敢性, 信義, 正直, 協同, 必勝의 공격정신을 具備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적 실천적 정신은 現在 우리 軍에 있어서 軍人精神의 母體가 되고 있다.

第3項 이순신장군의 애국애족정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군인이다. 임금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심, 군인으로서의 애국애족정신, 將帥로서의 부하에 대한 애정, 적탄을 맞고도 부하들을 督戰한 그의 투철한 사명감 등은

오늘날 우리 軍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第4項 3·1運動의 自主獨立精神

3·1運動은 우리 民族이 日帝의 탄압적 統治를 거부하고 民族의 自主獨立을 主唱한 거족적인 民族運動이었다.

이 運動은 거의 全國民이 다 參與하였으며 우리 民族이 外勢의 支配에 의하지 않고 自主的으로 行動하고 生活할 수 있다는 우리의 意思를 널리 内外에 宣揚했던 것인데, 이러한 3·1運動의 自主獨立精神은 오늘날 우리 軍의 精神的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韓國軍의 軍人精神은 民族의 傳統과 先烈들의 精神을 계승 發展하여 왔으나 時代에 따라 變하는 國家理念에 對해서는 소홀한 感이 없지 않다. 물론 國軍精神戰力 教本이나 軍인의 길 등에는 國家觀과 滅共思想이 強調되고 있으나 軍人精神의 諸要素에는 直接的인 언급이 되지않고 있는 것이다.

第2節 現 軍人精神 要素의 分析

軍人服務規律에 나타난 現 韓國軍의 軍人精神의 諸要素는 名譽心, 忠誠心, 眞正한 勇氣, 必勝의 信念과 臨戰無退의 氣像, 責任感 等인데,⁸⁾ 이들 諸要素에 對한 內容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第1項 名譽心

명예란 여러 意味를 지닌 社會的이고 倫理的인 觀念으로서 한마디로 定義하기는어

려우나 一般的으로 명예는 한 인간의 도덕적 인격 또는 그가 수행한 업적이나 그의 職能 혹은 地位에 대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존경이며,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心的狀態라고 할 수 있다.⁹⁾

軍에 있어서 명예심은 指揮官이나 部隊가 敗北를 認定하지 않으려는 一種의 意志의 自尊心이다.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의 自負心과 敗北했을 때의 羞恥感은 指揮官과 部隊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는 강한 투지를 갖게 함과 동시에 敗北보다는 죽음을 택할 각오를 굳혀주는 것이다.

軍人으로서 국가적 명예를 중히 여겨 자기의 생명을 바친 例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新羅 神文王때 逼實은 고구려 遺民이 일으킨 叛亂을 진압하러 나가면서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두 형님은 이미 나라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불후의 이름을 전하고 있소. 비록 어리석은 나이지만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차스럽게 살려고만 하겠소. 오늘은 그대와 살아서 헤어지지만 곧 이 몸 역시 죽어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이요. 너무 상심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라오.” 라고 맹세하고 홀로 적진속에 들어가서 적 수십명을 격살하고 戰死했던 것¹⁰⁾이라든가 김유신 장군의 아들인 元述의 이야기, 그리고 백제의 階伯將軍의 최후의 一戰 等은 명예를 죽음보다도 더 귀중히 여긴 例이다.

第2項 忠誠心

論語에 의하면 忠은 원래 인간의 허위와

가식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어서, 글자도 中과 心으로 된 것이며, 精誠됨과 公平無私함 그리고 곧음(直)을 말한다. 또한 誠은 言(말씀)과 成(이룸)의 두 글자로 된 것으로, 말한 바 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¹¹⁾ 그러므로 忠誠이란 자기가 바라는 바에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한다는 뜻이다. 忠誠의 對象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軍人에게는 어디까지나 國家와 民族에 대한 忠誠이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그러기에 軍人의 길에서도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군인 복무규율에서도 軍人의 使命이 國家民族을 위해 忠誠을 다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第3項 真正한 勇氣

勇氣란 理性에 의해 인도되는 心性의 活動的 元氣이며, 恐怖를 느낄 對象과 그렇지 않을 對象에 대해 올바른 分別이 있고 그 分別力에 준거해서 행동하는 意志이다.¹²⁾

용기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용기와 육체적 의미에서의 용기가 있는데 진정한 용기는 이 두가지 요소가 겸비해야 한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용기는 군인의 必須的인 要素로서 강조되고 있는데 古代中國 春秋時代의 吳子は “必生則死, 必死則生”이라고 하여 용기를 강조했으며 S. L. A. Marshall은 “戰場에서 勇氣를 代身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勇氣보다 部隊行動에 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¹³⁾ 고 軍人에 있어서 용기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Napoleon은 “先見力없는 용기는 不必要한 結果를 낳기 쉽고 용기없는 先見力은 迫力이 없어 任務를 遂行하기 어렵다”¹⁴⁾고 말하여 용기는 강한 의지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군사전문 지식과 올바른 상황판단 능력과 결합될 때 용기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第4項 必勝의 信念

必勝의 信念이란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마음에 간직한 確固한 믿음과 自信感을 말한다. 그러므로 必勝의 信念이란 勝利에 대한 確固한 믿음과 동시에 勝利할 수 있다는 自信感을 뜻한다.

必勝의 信念은 軍人の 勇氣를 격려해주며 解決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많은 난관들을 克服할 수 있게 해주는 精神的 支柱가 된다. 또한 이 信念은 「爭取하려고만 하면 勝利는 나의 것이 된다」고 믿게 해주기 때문에 平凡과 常識을 넘어선 奇蹟을 낳기도 한다. 壬辰倭亂때 元均의 무고로 억울하게 옥고를 당하고 白衣從軍하게 된 李舜臣 將軍이 임금에게 上疏한 글에서 “臣이 아직도 12隻의 戰船을 가지고 있습니다. 臣이 죽지 않은 한 敵이 우리를 업수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¹⁵⁾ 라고 한 것은 李舜臣 將軍이 勝利에 대한 信念이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육군사관학교편 「한국의 군인정신」에서는 必勝의 信念은 다음 세가지 要件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① 나는 正義요, 敵은 不正不義라고 믿는 信念이다.

② 불같은 적개심으로 敵과 싸워야 하겠다는 信念이다. ③ 敵과 싸워, 나는 이길 수 있다는 信念이다.¹⁶⁾ 결국 이러한 것들은 전투시 戰爭의 目的과 敵愾心 그리고 必勝의 信念을 鼓吹시킴으로써 戰勝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第5項 責任感

責任이란 「말아서 해야 할 임무 또는 행위의 결과에서 손실이나 制裁를 한몸에 매어 맡는 일」¹⁷⁾을 뜻한다. 따라서 책임이란 나와 나 이외의 存在와의 관계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내가 나 이외의 存在에 대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課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賞과 罰이 수반된다. 責任과 비슷한 말로서 義務가 있다. 그러나 의무는 주로 행위자의 良識에 호소하는 것이며 賞罰이 따르지 않는다는데 差異가 있다. 이러한 責任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家族에 대한 責任, 社會에 대한 責任, 國家에 대한 責任이 있다.

우리 軍人은 國家防衛의 責任이 있으며 이것은 위로는 指揮官으로부터 아래로는 衛兵勤務의 兵士에 이르기까지 각각 저마다 책임이 있다. 軍의 최후의 目的은 궁극적으로 戰爭에서 勝利를 爭取하는 것이기 때문에 軍 構成員 각자는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을 다했을 때에 勝利라는 綜合的인 效果가 나타나 는 것이다

第6項 臨戰無退의 氣像

臨戰無退의 氣像이란 전투에 임했을 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로서 어떠한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희생을 각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불굴의 투지로 승리를 爭取하겠다는 精神이다.

이러한 精神은 新羅 花郎徒의 世俗五戒 가운데 네째 戒律인 「臨戰無退」에서 그 起源을 찾을 수 있는 바, 오늘날 우리 軍이 指向하고 있는 現陣地 固守라는 戰術的 概念은 이러한 精神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現行 軍人精神 要素는 使命的 側面과 行動的 實踐的 側面은 充分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理念的 側面은 지나치게 包括的인 愛國心이라는 말로 表現되었을 뿐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行動的 實踐的 側面에서의 臨戰無退의 氣像은 必勝의 信念이 싸워 반드시 이기겠다는 意志力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意味上 重複된다고 생각한다.

第3節 바람직한 軍人精神 要素

바람직한 軍人精神이란 軍人 身分으로서의 精神姿勢가 軍은 勿論 國家의 目的과 理念에 符合되며 國土를 防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해야겠다는 使命感 그리고 戰場에서 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行動的 諸要素의 總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行 軍人精神 要素는 理論的 考察을 통하여 살펴본 軍人精神의 前提條件에 비추어 볼 때

使命的 側面과 行動的 實踐的 側面은 充分히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理念的 側面은 부족하였다.

물론 우리 나라의 軍人精神은 그 制定過程에서 檀君朝鮮의 弘益人間思想과 3·1 運動의 自主獨立思想 등을 背景으로 했기 때문에 現行 軍人精神의 要素에 理念性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理念性은 다른 어느 要素에 스며들어 있는 附隨的인 面으로 보다는 表面的인 要素로 나타나야 함이 옳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理念은 궁극적으로 國家의 存立目的과 直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國家의 現念은 그 國家가 처한 狀況과 時代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軍人精神의 理念性도 包括的인 概念보다는 具體性을 띤 理念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이 檀君朝鮮 以來로 弘益人間思想을 그 理念的 背景으로 하고 있지만 具體的인 具現 方法으로서의 理念은 時代마다 다르게 변천해 왔다.

統一新羅時代나 高麗時代에는 佛敎思想을 國家理念으로 하였으며 朝鮮時代에는 儒敎思想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 大韓民國은 自由와 平等에 基礎를 둔 民主主義 思想을 國家理念으로 하고 있다.

또한 西洋에 있어서도 國家理念은 時代마다 다르게 변천해 왔음을 볼 수 있는데, 古代 그리스는 國家理念을 調和된 人間에 두었고 中世에는 神의 意志를 그리고 絶對主義 時代에는 民族의 繁榮과 榮光을 國家理念으로 삼았으며 오늘날 西歐의 大部分의 國家들은 自由民主主義 思想을 國家理念으로

로 삼고 있다.

이처럼 理念은 時代마다 다르게 변천해 왔는데 現在 우리 나라는 동인민족끼리 南北으로 分斷되어 理念的으로 극심한 對立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國家의 至上課業은 南北統一과 모든 國民이 自由롭고 平等하게 잘 살 수 있는 民主福祉 國家 社會建設에 있으며 이를 實現하기 위해 勝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軍의 가장 큰 存在 理由도 勝共과 民主主義의 實現에 있으며 이를 위해 軍의 構成員인 將兵은 渾身の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軍의 軍人精神 要素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큰 要素는 理念性이며 이것을 具體적으로 表現한다면 勝共과 民主精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故로 本 論者는 바람직한 軍人精神의 要素로서 理念的 側面에서 勝共과 民主精神을, 使命的 側面에서 忠誠心, 名譽心, 責任感을 그리고 行動的 實踐的 側面에서 勇氣와 必勝의 信念을 바람직한 軍人精神의 諸要素라고 본다.

第4章 結 論

現代戰의 양상은 武力에 의해서 직접 敵을 分쇄하고 굴복시키는 在來의 戰爭方式을 벗어나 政治, 經濟, 文化, 思想, 軍事 等의 綜合的인 國家力量을 動員하는 總力戰이기 때문에 有形戰力과 아울러 無形戰力을 重要視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無形戰力인 精神戰力이 重要視

되고 있기 때문에 現在 國防部를 비롯한 各 軍은 軍教育機關과 部隊訓練을 通하여 이의 強化에 努力하고 있다.

한편 精神戰力의 強化를 위한 教育과 訓練을 위해서는 戰神戰力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軍人精神에 對한 明確한 概念定立이 必要하다. 故로 本 研究를 通하여 精神戰力의 核心이 되는 軍人精神의 概念에 對해 分析 檢討해 보았다.

먼저 各 文獻을 通해 軍人精神에 포함될 一般적인 基準(前提條件)을 設定해 본 결과 軍人精神에는 理念的인 面, 使命的인 面, 行動的 實踐的인 面으로 分類해 볼 수 있음을 밝혀내고 이 基準에 現行 軍人精神의 諸要素를 적용시켜본 결과 使命的인 面과 行動的 實踐的인 面에 對한 諸要素는 比較的 充實하게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理念的인 面에 對한 要素가 貧弱함을 發見하였다.

勿論 軍人精神의 概念定立에 있어서 具體的인 強調點은 그 國家가 處한 狀況과 時代에 따라 다 다르지만 Ideology를 中心으로 南北韓이 對決하고 있는 狀態下의 韓國軍에 있어서는 이 理念的인 面이 다른 面보다 더 強調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끝으로 本 研究는 軍人精神에 포함되어야 할 一般的인 側面에 重點을 두고 現行 軍人精神 要素를 分析하였기 때문에 各 側面에서의 諸要素가 果然 必要하고 充分한 것인가에 對해서는 미흡했음을 指摘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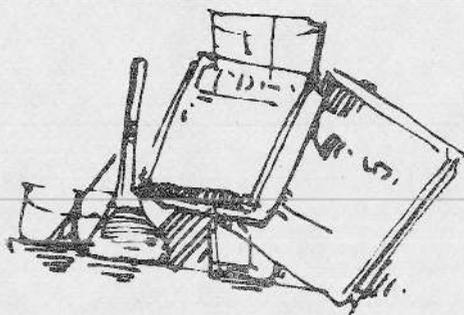
各 側面에서의 諸要素에 對한 妥當性 檢討는 앞으로 계속적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註 解 析 —

- 1) ① 우리는 先烈의 血跡을 따라 죽음으로써 民族國家를 지키자 ② 우리의 上官 우리의 戰友를 共産黨이 죽인 것을 銘記하자 ③ 우리 軍人은 강철같이 단결하여 軍紀를 엄수하며 國軍의 使命을 다하자.
- 2) 우리는 大韓民國의 진정한 軍人이 되자. 진정한 軍人이 되자면, ① 官長가 엄정하여 上官의 명령에 충심으로 복종할 것이고 ② 上官을 존경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화목단결할 것이며, ③ 각자 맡은 책임에 성심성의 死力을 다하여 이것을 완수할 것이며 ④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로부터 信愛를 받을 것이며 ⑤ 公戰에 용감하고 私鬪에 겁내며 특히 음주폭행을 엄금할 것이며 ⑥ 정직결백하여 부정행위가 絶無할 것이며 ⑦ 극렬파괴분자를 단호 배격하며 그들의 모략선동에 엄연 動치 말 것이다.
- 3) ①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②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公산침략자를 쳐부시자 ③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두만강 물에 戰勝의 칼을 씻자.
- 4)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I, 1967, p. 389
- 5) 국방부, 「국군정신전력교본 III」, 1979, p. 164
- 6) Ibid., p. 164
- 7) 육군사관학교, 「한국의 군인정신」, (서울: 삼화출판사, 1978), p. 270
- 8) 군인복무규율 시행세칙 제4조 3항
- 9) 육군사관학교, Op.cit., p. 271
- 10) 金富軾, “三國史記”, 陸軍士官學校, Ibid., p. 272에서 再引用
- 11) 유승국, 「한국의 유교」,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6), p. 118
- 12) 육군사관학교, Op.cit., p. 276
- 13) 국방부, 「지휘·통솔」上, 1979, p. 211에서 再引用
- 14) 육군사관학교, Op.cit., p. 278에서 再引用
- 15) Ibid., p. 279
- 16) Ibid., p. 280
- 17) 동아출판사 사서부,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사서출판사, 1969), p. 1206

— 参 考 文 献 —

- 国軍精神戦力学校, 「精神戦力の 指導理論과 實際」, 1980.
- 国軍精神戦力学校, 「精神教育 指針書」, 1978.
- 国防部, 「国軍精神戦力教本」, 1979.
- 国防部, 「軍人服務規律施行細則」, 1978.
- 国防部, 「精神戦力強化法」, 1975.
- 国防部, 「指揮・統率」, 1979.
- 国防部戦史編纂委員会, 「韓国戦争史」, 1967.
- 김유려, 「정신교육강좌」, 서울: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70.
- 金鍾洙, 「現代戦과 精神戦力」, 서울: 悅話堂, 1976.
- 동아출판사 사서부,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69.
- 安秉煜, 「새 韓國人の 使命」, 서울: 三育出版社, 1980.
- 柳承國, 「韓國의 儒教」, 서울: 世宗大王 紀念事業会, 1976.
- 陸軍本部, 「政訓教材」, 1965.
- 陸軍士官学校, 「韓國의 軍人精神」, 서울: 三和出版社, 1978.
- Karl Von Clausewitz: 李鍾學訳, 「戦争論」, 서울: 一潮閣, 1980.
- 韓鎔源, 「軍事發展論」, 서울: 博英社, 1980.
- 国防部 人力管理研究委員会, 「軍人氣質育成 基準設定案」, 1980.



禮節바른 言語生活과

秩序意識

編 輯 室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의 한국이 아니다.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내세우고 힘쓰고 있는 중이다. 관광객이 1년에 백만명 이상씩 밀려들어오는 세계 속의 한국이다. 갖가지 국제회의가 열려 왔고 앞으로도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86의 아시안 게임,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주인의식」으로 스스로 질서를 하는 구호의 현수막이 그래서 내걸렸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모임을 정부가 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주도만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만큼 국력의 신장이, 국내정세의 안정이 이루어져 결론

적으로 아시안 게임이나 특히 서울올림픽의 개최능력이 있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고 북한의 갖가지 방해나 교란공작이 접칠 것이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결속을 더더욱 굳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만의 일이 아니요, 체육인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내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훌륭히 치러 되도록이면 적자가 아닌 흑자재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며 문화민족의 저력을 보여 국위선양도 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즈음에 우리가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되돌아볼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

「가장 부끄러운 세계 1위라 하여 자동차 1만대당 연간 58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미국이 3.3명, 서독이 5.3명 영국이 3.5명인데 비해 너무나 엄청난 차이이다. 그런데 사망자 10명 중 7명

이 보행자요 10명 중 3명은 14세 이하의 어린이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횡단보도나 그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가 월등히 많았다고 하니 우선 신호등에 따라 교통질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전기사도 행인도 하나하나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운전기사만을 나무랄 수 없는 일면도 있는 모양이다. 업주도 정부관청도 모두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폭주 운전을 막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벌칙강화만이 아닌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 것인지? 운전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대로의 고충은 또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돈 많이 벌겠다는 과욕으로만 볼 것인가?

서울시내의 경우 택시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줄서기는 거의 지켜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버스(사전에는 버스)의 경우는 줄서기가 지켜지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나 질서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지금 전화가 늘어서 웬만한 집이면 전화 없는 집이 없고 웬만한 시골에도 전화연락이 되는 것은 그만큼 전화보급이 되었다는 얘기가 된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전화통화의 시간이 선진외국에 비해 너무나 길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다. 우리의 한 통화 평균이 1분 47초라는 것이다. 미국이 55초, 일본이 1분 10초임에 비해 너무나 길다. 통화를 짧게 끊게 쓰는 것도 선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담배꽂초나 휴지를 거리에 버리는 일은 많이 없어진 듯 하다. 그러나 거리에서 가

래칩 뺏는 것은 아직도 근절까지엔 먼 느낌이다.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경로석」이란 것이 있다. 그러나 거의 이름만이지 젊은 남녀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노인이 없을 경우, 아무나 앉아도 무방하겠지만 노인이 앞에 섰을 경우에는 선뜻 일어서는 미덕이 아쉬운 것이다.

「敬老席」이 아닌 「輕老席」인가 하는弄을 한 일도 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양보를 받은 일이 두어번 밖에 없다. 아직만 65歲는 안 되었고 젊어(?) 보인 탓일까? 어느 婦人에게서 대학생에게서 자리를 양보받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고마웠던지 고맙다는 인사를 두어번 썩은 되뇌어 한 일이 있다.

바로 얼마 안 된 前의 일이다. 교수연수의 모임이 있어 개인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만 실수로 손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안에는 현금도 의료보험카드도 校正紙도 들었고 個人 명함까지도 들어있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R교수의 말이 있었다. 더러 외국 관광객들이 물건을 잃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61, 2년이었던가 日本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기차를 갈아탈 때 양산을 놓고 내렸던 K교수가 시험(?)삼아 승무원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산이 되돌아온 일이 있다. '78년엔 내가 대만엘 갔을 때 어느 약방에서 여행용 핸드백을 놓아둔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생각이 나서 돌아갔을 때, 그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핸드백을 보고는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 그 핸드백 안에는 現金도 여권도 들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졌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아찔했었다.

이런 외국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관광객도 늘고 국제적 스포츠 특히 아시안게임이나 世界 올림픽대회에는 아시아의 耳目과 全世界의 耳目이 우리에게 쏠릴 것임을 생각하면 主人의 식으로 스스로 질서를 너도 나도 銘心해야 할 일이다.

이 나라는 바로 「내 나라」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강건너 불구경식」의 생각은 35년간의 日帝下를 생각하고 90일간의 공산치하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생각이다.

외국인에게 친절도 보이고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도 보였으면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듯하다. 그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문제는 自己卑下의 친절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제 体面 차려가면서의 친절이라야 한다.

古來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다. 예의지국이라며 흐뭇한 評이 아닐 수 없다. 예절바른 민족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아무래도 유교에서 由來한 삼강이니 오륜이니 하는 전통논리의 값진 소산으로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해방 후 물밀듯이 들어온 外來思潮 특히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자칫 나를 잃고 휘청거렸거나 지금도 그런 휘청거림이 남아 있다면 自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전통논리의 根柢 위에 국가민족에 대한 忠도 부모형제에 대한 孝悌도 어른에 대한 공경도 벗에 대한 신의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의식개혁의 차원」이란 바로 이 문화민족으로서의 전통논리를 현대감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지 外來風潮를 뒤따르자는 것은 천만 아니다.

생각해 보면 예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말과 몸가짐이 남의 귀나 눈에 거슬린다면 禮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말의 힘이 莫重함은 德宗妃 昭憲王后 韓氏의 撰인 內訓 「성종 6년 1475년」에 「言語者는 榮辱之樞機며 親疎之大節也니 赤能離堅合異하며 結怨與讎하느니 大者則覆國亡國家하고 小者도 猶六親을 離間하느니……」 「말이라 하는 것은 榮辱이나 親疎의 갈림을 이루기도 하나니 굳어진 관계를 풀기도 하고 疎異로운 것을 和合하게도 하며 원망을 짓기도 하고 원수를 일으키게도 한다.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크게는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집을 망하게도 한다. 적게도 六親(부모, 형제, 처자)을 이간하게 한다」라고 하여 있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莫重한 말이기에 우리는 私的인 대인관계나 공적인 사회생활에서나 예절 바르고 품위 있는 말을 함으로써 서로간의 원만한 인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절바른 언어생활은 바로 사회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要諦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학에 의하면 「年長以倍則父事之」 하고 十年以長則兄事之하고 五年以長則肩事之 나라.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로 섬기고 십년이 위면 형으로 섬기고 오년이 연상이면 어깨로 좃을(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는다는 뜻) 것이니라 하였다.

나이에 따라 적당한 경어를 써야 하고 직장에서의上司나 학교에서의 선생이나 군대에서의 상관에게 적절한 경어를 써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말에 있어서 경어법(존대법)이 발달되어 있음은 널리 알려진 것이며 국어의 특질의 하나로 일컬어질 정도다. 이 경어법이란 것이 동양논리에 바탕을 둔 충효의 사상이나 장유유서의 정신 등에서 유래한 미풍양속의 하나라고 나는 본다.

그런데 특히 해방 후 존대어를 쓰는 것은 비민주적이거나 封建잔재 정도로 생각하는 풍조 즉 my나 you로 통하는 사고방법(西歐社會에 예절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의 보급으로 전통적 공대법이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①원칙적으로 전통적 존대법은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존대법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언어유산으로 특히 「남」을 살지 않고 「나」를 사는 생활처세면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저(나) 진지(밥) 잡

숫다(먹다) 주무시다(잔다) 여쭙어보다(물어보다) —께(-에게) -께서(-이) 노인-(늙은이) 연세, 춘추(나이) 尊卿, 銜字(이름) 齒牙(이) 약주(술)……「銜字, 春秋·齒牙·藥酒」에 대해서는 혹 이의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자연 쓰지 않게 될듯하다.

②구두어로서는 거의 퇴화된 듯하다. 문장어로서는 「-옵(-압), -삽, -삼」이 옳게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하옵는 바 좋겠 삽기로, 글월 받잡고

③그러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낮추던 말법은 止揚해도 좋지않을까 하며 되도록 순우리말이 있는 것을 되찾고 쓰되 물론 한계는 그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님, 어르신네(춘부장, 대인) 어머니자당, 대부인) 큰아버님, 작은 아버지(院丈) 조카, 조카님(戚氏) 아내, 안사람, 집사람(荆妻) 형제분(雁行) 아드님(자제) 아들아이(豚兒, 家豚)

④친구끼리(동성 혹은 이성)나 손아랫사람에 대한 호칭이나 대화에 있어 품위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해라」나 辱說, 卑俗語, 隱語, 尖端적인 된소리같은 것은 止揚되었으면 한다.

씨, 형, 군을 적절히 가려 썼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성끼리(젊은이들)의 경우 씨를 살려 썼으면 좋겠다. 옛날 양반말씨의 장점 즉 그 「점잔」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紳士·숙녀다운 그 「점잔」 말이다.

⑤지나치게 「님」이나 「-시」를 남용하는

것도 올바른 존대법은 아니다 「총장실 사장실」을 「총장님실, 사장님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의 예고 「선생님께서 부산에 다녀오신 뒤에」면 죽한 것을 「선생님께서 부산에 가셨다 돌아오신 뒤」에는 오승존대다.

⑥話者보다는 地体が 높으나 聽者보다는 지체가 낮은 이 즉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버지」에게 「형」, 「은사」에게 「先輩」의 얘기를 할 때에는 경대를 하지 않는 말법을 써야 한다. 최근에 텔레비전 등에서 이 말법의 오용이 있어 귀에 거슬린다.

⑦「예절바른 언어생활」이란 면에서 醇正한 국어 올바른 발음의 말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긴소리나 된소리 발음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면 뜻의 混同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상대방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으므로 발음을 옳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간의 예를 들어 보인다.

(1) 순우리말〈-는 긴소리표〉

눈싸움 · 눈싸움(설전) · 별세계(별세계) 별세계
 건다(収 · 捲) · 견다(보) · 굶다(꼭) · 굶다(炙)
 길다(십) · 길다(補) · 낫다(저) · 낫다(勝 · 癒)
 묻다(埋) · 묻다(문) · 벌이다(陣列) · 버리

다(捨)
 붙다(付) · 붙다(殖) · 붓다(注 · 脹)
 앓다(좌) · 안다(抱) · 업다(負) · 업다(覆)
 없다(무)
 적다(기록) · 적다(소) · 젖다(濕) · 젖다(攪插)

(2) 한자말

高大 · 古代 · 苦戰 · 古典 · 査定 · 私情 · 事情 · 成人 · 聖人
 身長 · 腎臟 · 他殺 · 打殺 · 光州 · 広州
 嶺東 · 永同 · 靈泉 · 永川
 伊川 · 利川 · 公氏 · 孔氏
 申氏 · 辛氏 · 慎氏 · 全氏 · 田氏 · 錢氏
 丁氏 · 鄭氏 · 曹氏 · 趙氏
 京姬 · 敬姬 · 慶姬 · 英姬 · 榮姬 · 永姬
 貞淑 · 正淑 · 西門女高
 사적 · 寺跡 · 私敵 · 史籍 · 史蹟 · 私的(사적) · 史的

시가 媳家 · 詩歌 · 市街 · 時価(시까) 市価(시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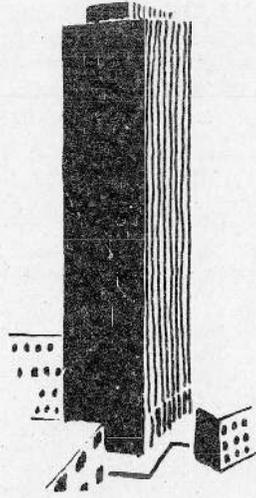
죄과 · 罪過 · 罪科(죄과)
 이상 예절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실천사항을 거론해 보았다. 이 예절바른 언어생활의 실천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고 가정 · 학교 · 사회 · 직장을 평화롭게 하며 안정되고 질서있는 장으로 만들것 임이 틀림없다.

× × ×

開天節과 創造、開拓의 護國精神

|| 祖上의 그 슬기 이어받아

先進祖國 앞당기자 ||



朴文

松(인문인)

우리는 해마다 10月이면 개천절을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항시 우리들은 그 意義를 새롭게 해 주고 있다.

우리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온 民族精神面에서 보더라도 그 意義와 精神은 언제나 더욱 새로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民族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開天節, 이제 그날의 뜻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祖上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創造와 開拓, 그리고 護國의 精神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建國이 始作되는 개천절은 바로 우리 歷史上 언제나 새로운 의의를 주면서 민족적인 날로 그리고 自主獨立의 날로 이어져왔고 또 그 뜻을 繼承 發展시켜온데서 우리는 다시금 개천절의 意義와 뜻이 더욱 깊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또 다시 맞이하는 개천절에 즈음하여 우리 歷史上 보여준 건국의 의의와 創造, 開拓精神으로 일관하면서 國難을 당할 때마다 護國의 정신으로 일깨워온 국경일로서의 의의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聖業君主 檀君의 창조정신 그 뜻

우리는 開天節을 建國기념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날을 國慶日로 定한 歷史的 배경은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건국하였다는 건국정신과 그 의의는 물론이지만 國難의 극복과정에서 자주독립의 精神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우리 民族史가 시작된다고 하는 창조의 정신을 보여 주고 그 후에 계속되면서 특히 國難時에는 극복을 위한 민족의 求心點을 이루어 주면서 더욱 진취적인 행동으로 開拓하여 나아가서는 민족적인 추진력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역사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고려 때 金富軾이 지은 「三國史記」와 그 보다 약 150년 후에 僧侶인 一然이 지은 「三國遺事」가 있다.

이 두가지의 역사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가, 다시 말하면 三國의 건국과 歷史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三國史記가 있고 우리 나라의 건국이야기와 그밖에 여러가지가 다양하게 기록된 것으로는 三國遺事が 있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건국의 始原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 10月 3日을 국경일인 개천절로 제정하여 우리 민족이 거룩한 건국 이념과 弘益人間 그리고 창조의 뜻을 받들면서 우리 民族史와 正統의 始原을 단군의 창조정신에 두고 그 뜻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단군을 우리 나라 최초의 創業君主로 모시고 우리 역사의 始祖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脈絡으로써 이어져 왔다.

이는 나아가 우리 민족의 통일외식으로 굳어져 發展하여왔고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삼아온 것이다.

그럼 檀君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記錄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즉 승려인 一然이 지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단군이 있어 도움을 아사달에 定하고 나라를 처음으로 개창한 것이 中國歷史의 시작이라고 하는 堯나라와 같은 시기라 하였다.

삼국유사에 인용하고 있는 古記라는 기록에 따르면 옛날에 桓因의 아들 桓雄이 있었는데 항시 天下에 내려가고자 하는 뜻을 품고서 人間世上을 탐내어 인간세상에 내려가서 살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계의 높은 산 가운데 하나인 太白山을 내려다 보면서 그곳이 人間을 널리 利롭게 할만한 곳이라 여기고 이에 天符邱 3개를 주어 가지고 가서 세상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桓雄은 무리 3천을 이끌고 太白山 꼭대기 神壇樹 밑에 내려와 그곳을 神市라 하여 人間世上을 다스리는 도읍지로 삼으니 이가 곧 桓雄天王이라는 것이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거느리고 조종하는 三帥를 거느리고 穀·命·病·刑·善·惡 등 무릇 人間의 3백60여 가지의 일을 맡아서 人間 세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教化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하나의 꿈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서 살며 항상 桓雄에게 빌기를 「원컨대 사람이 되게하여 달라」고 하므로 한번은 神은 신령스러운 쭉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먹고 1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난 곰과 범이 햇빛을 보지않고 쉰하기 삼천일, 즉 21일만에 이를 잘지킨 곰은 여자의 몸이 되고 범은 충분히 지치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으로 여자가 된 熊女는 그와 結婚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항상 壇樹아래서 아이를 잉태해 달라고 축원하였다. 이에 雄이 잠깐 변하여 熊女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단군王儉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래서 태어난 단군이 우리 나라의 건국의 始祖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민족사의 開創으로 여기고 개천절로서 민족적인 경축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천절은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창조와 始原의 뜻을 잘 나타내면서 그 같은 정신을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民族的 自主意識 함양에 힘쓰자

그래서 건국의 始祖를 우리 민족과 역사의 始原으로 삼고 민족사와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文化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건국연대까지도 밝혀져 紀元前 2333년으로 中國史에서 자랑하는 堯임금 때와 같은 시대에 건국한 것을 밝혀 단군기원 원년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군을 天이라 하여 우리 민족을 하늘에 연결시켜 天孫民族으로서 선택된 거례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우리 歷史에 나오는 箕子도 古朝

鮮 속에 흡수시켜 우리 歷史의 계통을 세웠고 삼국시대를 단군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늘과 직결된 신성한 民族으로서 즉 天孫民族으로서 자주성을 계승하고 悠久한 歷史의 傳統을 이어 받았음을 확실하게 밝히고 正統意識을 밝히며 후대에 계승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의식은 李承休가 지은 帝王韻記에서도 단군과 中國의 堯임금과 같은 時代임을 밝히고 대등한 건국의 始祖를 모시고 서로 똑같이 각각 발전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하여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 부여 등 모든 국가를 우리 동족이 세웠음을 밝히고 단군을 공동시조로 삼고 있었음을 밝히면서 우리 역사에서 도외시하였던 발해도 똑같이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임을 뚜렷이 하고 있다.

즉 삼국유사의 帝王韻記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 역사의 대등성을 보여주면서 悠久한 歷史와 자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자주성을 강조하며 자주독립과 민족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 世界와 佛敎信仰세계에서 국가정치와 서민생활을 중심으로 天地自然의 渾然一體하는 조화 속에서 우리 역사가 전개 되어온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의 저자인 一然은 우리의 上古史를 自主的인 입장에서 건국의 유구한 역사를 解釋하고 있다.

이는 우리 역사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온데 대하여 체계를 세워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

게 하였으며 민족적 자주의식을 나타내는 정통을 세우는데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精神은 國難克服의 힘되고

1910년 우리가 日帝에게 주권을 빼앗긴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이 갖는 건국의 正統정신은 한시도 잊어본 때가 없었다.

비록 한때나마 우리의 국력이 弱하여 主權을 日本에 탈취당했으나 조금도 굽히지 않고 민족과 國家를 되찾기 위한 전쟁은 시작 되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과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중국의 상해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단군 이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우리의 주권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宣言하고 옛부터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정통자주독립정신 전통 그리고 민족주체성을 계승하여 독립자존의 國家를 이룩하려는 偉大한 정신의 소산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헌법에서도 우리 민족은 「神人一致 中外協應하여…」 「우수한 전통으로 스스로 開拓한 강토에서 悠久한 역사와 국가생활을 하여 人類文明과 진보에 공헌하며…」 등으로써 건국정신을 繼承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系統은 1919년 3·1 운동 후 大韓民國 臨時政府가 수립될 때에도 우리는 건국 4252년 4月이라 하여 단군 紀元

으로부터 정통을 세웠다.

우리가 獨立運動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부구가 아니라 단군의 건국에다가 그 根源을 두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음도 아울러 明白히 하고 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군의 건국정신을 숭상하는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상의 정통정신을 계승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권위를 불러 일으키고 만중의 忠誠心을 통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를 부르짖음은 모두가 애국애족을 위한 정신적인 결정체가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國家 民族의 영원한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이때에 있어서는 적어도 단군시조의 血族으로서 한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고 살아온 우리로서는 다시 주저할 것조차도 없이 독립운동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데서도 단군의 건국정신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1924년 11月 9日字 보도를 본다면 중국 上海에서는 우리의 건국 기념일인 開天節의 行事가 진행되어 우리 동포들이 모여서 건국한 개천절의 의식을 거행한 것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亡命地인 임시 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정통정신과 자주독립정신으로 계승되어 온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國難克服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上海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의 기념행사를 하였던 것은 비록 우리나라를 잃고 日帝 侵略下에서 일제와 싸우

고 있는 어려운 여건아래서도 민족정신을 바로하며 유구한 건국의 理念을 계승시켜 주려는 훌륭한 정신에서 나온 당연한 민족정신의 계승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건국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겨레는 日帝侵略과 對抗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1941년 12月 8日 日本이 美国·英国에 대하여 宣戰布告를 하자 다음날인 9日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對日宣戰布告를 단행하여 우리의 獨立運動과 光復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總和·協同으로 來日の 榮光이루자

또한 건국의 始祖를 國난극복의 구심점으로 삼아 민족정신을 일깨워준 경우로서 大宗教를 들 수가 있다. 大宗教는 우리 나라의 고유 宗教이다.

大宗教란 三神 즉, 桓因, 桓雄, 桓儉, 즉 단군을 가리킨다.

대종교는 단순히 단군만을 信仰하는 宗教가 아니라 三神一體의 天神을 받드는 신앙사상으로서 宗教的 단체를 만든 것은 1909년 弘岩 大宗師 羅喆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羅喆은 우리가 主權을 잃은 뒤인 1916년 추월산에서 자결하고 제 2대 교주인 茂園宗師 金教獻은 日本의 탄압으로 教園인 總本司를 만주로 옮긴 후 日本軍에게 학살당한

10여만의 교도를 애원하다가 죽었다.

이처럼 대종교가 단군만을 모신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自主獨立精神과 단군의 건국정신을 우리가 이어 받아 다시 내 祖國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정신이 언제나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흐르면서 國난극복의 정신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建國의 시조로 받드는 단군의 건국과 창조적인 건국정신이 國난극복의 구심점으로 겨레의 가슴속 깊이 이어져 왔음을 간추려 보았다.

우리의 건국은 中國에서 그들의 역사 시작이라고 하는 堯임금 때와 같은 시기에 건국한 유구한 역사임은 물론이요 그같은 건국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의 創造精神이요 開拓과 진취의 精神인 것이다.

우리의 오랜 역사의 전개 속에서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계승되어온 것임을 確認시켜주고 있음도 아울러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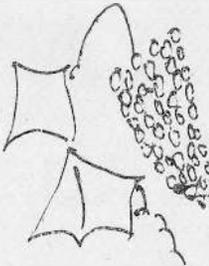
이제 또다시 맞이하는 개천절을 당하여 우리는 다시금 建國이라는 창조의 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서 민족사를 발전시키려는 總和 協同의 精神이 꾸준히 계승되어온 것임을 되새기면서 先進祖國創造의 앞찬 일꾼으로서 우리 後孫에게 창조와 자주독립의 精神을 계승시켜주어야 할 義務와 使命感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다.

人口增加의 深刻性과 問題點

— 이젠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 —

정 병 섭

〈서기관 : 내무부〉



오늘의 人口現況

우리 나라의 人口가 마침내 4천만 명을 훨씬 넘고 있다.

人口學者들은 당장 人口抑制를 위한 劃期的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멀지 않아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可用面積이 약 3만 km² 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려 4천만 명 이상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마저 갖게 된다.

우리의 資源이나 國土面積으로 볼 때 가

장 적절한 人口數는 1천 5백만 명이며, 2천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人口 4천만 명 이상은 우리 땅이 飽和狀態에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人口爆發은 결국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주택난, 실업, 공해문제 등 갖가지 감당해내기 힘든 사태를 빚어, 끝내는 하나뿐인 지구를 인간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地獄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人口抑制 즉, 産兒制限이다. 人口가 많아서는 인류에게 어떠한 복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다만 人口增加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래의 세계 人口증가 추세를 연도별로 비교해 꼽아 보면 그 놀라운 증가추세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딜레마 속의 人類生存

19세기 초 즉 1800년의 세계인구는 9억 6백만 명이었는데 20세기 초인 1900년에는 16억 8백만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세계인구가 2배로 늘어나는 데는 1백년 이상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두 배로 늘어나는 데는 60여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즉 1960년에 이미 30억을 돌파했으니 말이다. 그 후의 증가속도는 더욱 더 加速化하여 '80년대에 접어들면서 40억에 이름으로써 불과 20여 년 만에 1.5배로 급증한 것이다. 저 유명한 맬더스가 人口原理에서 지적했듯, 바로 그 幾何級數的 증가의 무서움을 실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증가가 거듭되면 약 6백 년 후엔 남극대륙을 포함한 지구표면엔 한 치의 발붙일 땅도 없이 사람들이 뻘뻘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상의 수치이고 실제로는 그 전에 맬더스의 人口原理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生活資料, 즉 식량들이 이에 못 따라가 숲한 인간비극을 자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맬더스의 人口論을 요약하면 식량품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이며, 또 예나 지금이나 兩性間의 情慾은 변함없이 지속돼 오고 있다. 그러기에 생활자료는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은데 인구는 幾何級數的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人口過剩現象은 필연적이며, 악덕과 빈곤이 발생하여 사회혼란과 굶주려

죽는 인간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餓死者가 발생하고 있고 45억 인구 중 그 10분의 1인 4억 내지 5억이 굶주려, 기아상태에 있거나 尤甚한 영양실조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맬더스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皮骨만 남은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비참한 사진을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비아프라의 비극은 곧 인류비극의 시작이며 인구폭발을 억제하지 못한 인간 스스로의 최악인 것이다.

세계는 이렇듯 벌써부터 식량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측정에 의하면, 오는 '85년도의 세계곡물 총생산량은 17억 2천만 톤이며, '79년도의 인구증가율 1.82%로 추산한 '85년도의 세계인구는 48억 4천만 명이 된다.

그리고 식량 총수요량은 17억 1천 4백만 톤으로 잡고 있다.

말하자면 지구의 부양능력한계는 50억 명 정도라는 가정이 성립되고, 이는 곧 '80년대 후반부터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전체를 한 단위로 본 總括的인 의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국가 단위로 봐야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미국과 같은 넉넉한 곡물생산국이 있는가

하면 비아프라 등 수억의 인간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현실이 또한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富強, 国力의 伸張이 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새로운 국가 의식을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人口現實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인구는 14세기 말인 고려시대 말에 1천만 명에 달했고 그 후 약 4백 년 동안 겨우 6백 30만 명이 늘어 1910년에 1천 6백 30만 명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완만하던 인구증가가 20세기에 들어 갑자기 폭발, 불과 70년 동안에 3.5배로 는 것이다. 지금 남한만도 4천만 명이며 南北韓을 합쳐 약 6천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政府의 적극적인 家族計劃事業으로 '60년대 후에는 인구증가율이 드디어 폭발현상을 멈추어 '50년대 말에 3% 선에서 현재는 1.6% 선으로 줄어들 긴 했다.

하지만 오늘도 .52초에 1명꼴로 연간 60만 명씩 늘어나, 말하자면 한 해에 大田만한 도시가 하나씩 늘어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出生率은 낮아졌으나, 死亡率이 그에 못지 않게 더욱 낮아지고, 평균수명은 10년 전에 비해 10년이나 불어난 66세로 길어졌다는 데 연유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人口增加速度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人口構造에 있다.

6·25동란 직후의 이른 바 베이비붐 世代들이 전체 인구의 主軸을 이루면서 황성한 증식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大都市들의 심각한 人口增加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인구증가현상은 국가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에 힘겨우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면 人口폭발은 곧 식량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의 성과를 흡수해버림으로써, 개발정책의 노력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시도도 모두 人口增加에 의해서 삼켜버릴 우려가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이 주장은 지금 인구밀도가 세계 제 3위이며, 산림지대를 제외한 가용면적으로만 따지면 1평방 km당 人口가 1천 1백 32 명으로, 단연 세계 제 1위인 우리 나라를 두고 한 말 인것 같아 다소 씩씩해진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人口급증현상은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 주거환경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가장 큰 정책적 고민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별 인구추세만 봐도, 바로 도시인구의 집중현상을 알 수 있다.

지난 '60년 전체인구의 2천 4백 98만 명 가운데 도시지역인구는 28%인 6백 99만 명

으로 지금의 서울人口보다도 훨씬 적었고, 농촌인구는 72%인 1천 7백 99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던 것이 '80년 말에는 전체인구 3천 7백 45만 명 중 도시가 무려 57.2%나 차지했고, 농촌은 42.8%로 역전되고 말았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가속되어 '90년에는 69 대 31로, 2천 년에는 77 대 23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때 부산과 서울의 2大 都市人口가 전체인구의 43%, 즉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들 두 대도시에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인구집중추세는 갈수록 가속화하여 지금도 전 인구의 3분의1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없이 어물쩍 하다가는 불과 30년도 못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에서 후손들은 미리 손 못 쓴 못난 조상들을 원망할 것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人口抑制政策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77년 서울人口를 '86년 말까지 7백만 명 선까지 묶겠다면서 마련한 「首都圈人口 再配定 10개년 계획」이 이젠 그 실효는 커녕 계획 자체가 사실상 白紙化되어버린 것이다.

도대체가 '76년의 서울人口가 이미 7백만 명을 25만 명이나 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오히려 줄여 10년 후인 '86년에는 7백만 명으로 묶어 두겠다는 계획이었는데, 5년 만인 지난 '81년 서울人口가 3.69%의 높은 증가率로 치달아 무려 8백 67만 명으로 결장

지 못하게 늘어나버린 것이다.

經濟發展과 人口移動

전체적인 人口增加現狀 못지 않게 人口의 都市集中問題는 큰 골치거리이다.

人口都市集中現狀은 상대적으로 농촌을 썰렁하게 만들고 만다.

해마다 농번기만 되면 농촌 일손부족을 한탄하는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 농수산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81년 말 현재 9백 99만 8천 6백 51 명으로 '80년의 1천 85만 5백 85 명보다 한 해 동안에 무려 83만 2천 명이나 줄어들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해의 우리 農村人口는 총인구의 25.9%로 약 4분의 1이 되는 셈이다. 불과 15년 전인 '67년도 전체의 54.7%가 농촌에서 살았다는 생각을 하면, 人口의 도시집중화는 실로 무서운 속도임을 직감할 수 있다.

더구나 8割이 농민이라고 우리가 농본국임을 자처하던 '30년대와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다.

그러나 營農의 採算性이 악화되어 가는 농업부문에서 벗어나 工業化에로 탈바꿈하는 産業構造의 고도화 과정에서, 농업인구의 대량이동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계적 현상인 것이다. 西歐先進國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日本의 경우도 지금 영농인구가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농촌인구 25.8%는 그

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말에도 一理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농촌인구의 轉出에 병행되어야 할 요건 즉, 營農機械化, 營農規模의 대형화, 또 그 바탕이 되는 경지정리작업 등이 채 틀이 잡히기도 전에 일손부터 都市로 빠져나갔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産業化가 가속되던 '70년대의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내지 50만 명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어 해마다 이 都市過密化現狀은 두드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아들選好風潮부터 뿌리뽑자

해마다 大田市가 하나씩 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人口增加現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지만, 이 말은 앞으로 人口가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하더라도 5년 후에는 3백만 명 규모의 충청남도만한 人口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같은 폭발적인 인구성장은 경제성장과 社會發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浮刻되고 있다. 우선 제한된 國土 위에 人口만 늘어나 1인당 耕作面積의 경우, '60년에 2백 67 평이던 것이 '80년에는 1백 67 평으로 줄어들어 식량사정과 생활환경은 갈수록 악화된다는 사실을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 '60년 국내 양곡생산량은 5백만 톤이던 것이 '80년에는 7백만 톤으로 무려 40%가 증가했지만, 人口도 또한 46%가 늘어 식량수요는 5백 39만 톤에서 무려 1천 3백만 톤으로 1백 50%나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식량문제 하나만도 이렇듯 긴급한데, 어쩔 수 없는 工業化로 빚어진 離農現狀은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 주택부족, 交通混雜, 環境汚染, 通信과 上下水道 등 사회 간접자본 형성에 엄청난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人口問題는 오늘날 우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源泉이며 病原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와 같은 開發途上國家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적인 人口抑制政策을 개발하여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1 子女갖기 運動의 必要性

우리 나라 인구증가의 元壼을 하나만 꼽으라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男兒選好라는 마음 속의 관념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 않는다.

家族計劃協會의 조사에서, 딸을 넷이나 낳은 夫婦 中 아들을 낳을 때까지 더 낳겠다고 한 응답이 무려 40%나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男女差別을 조장하는 각종 家族關係法을 물론 근로기준법 등 기존 사회제도를 몽땅 바꾸는 결정부터 내려야 한다.

女性의 家門相續과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기회의 확대, 賃金隔差의 해소 등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政策이 필요하다.

韓國 女性의 出産力은 1인당 평균 2.8명

인데 미국, 일본은 1.8명, 서독은 1.4명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人口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計算이 된다. 우리 나라의 人口增加率は '70년대 말에 1.5%였던 것이 '80년대에 들어서서 1.6%로 높아져 간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 탓인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딸만 둘 있을 때, 아들을 볼 때까지 낳겠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뿌리뽑지 않는 한 人口政策이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家族計劃事業이 실패하면 2천 년의 인구는 5천 4백 49만 9천 명을 2천 50년에

는 7천 2백 78만 2천 명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家庭에 2子女만 낳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1子女 낳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만, 2천 년에 가서도 人口가 5천만 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결론적으로, 이렇듯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는 人口增加추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政府當局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人口時計는 지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 政策當局이나 인구학자들에게는 마치 시한폭탄의 秒針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줄는지 모른다. 누가 이 공포의 人口時計를 멈추게 할 것인가.

명 언

우리의 特權은 우리 義務보다 클 수 없다. 우리 權利의 보호는 우리 責任의 이행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없다.

J·F 케네디 <밴터빌트 大學에서의 연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여야 될 것은 그가 당신의 말을 몹시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스틸경 <스펙터이터>

훌륭한
社會人은

節度있는
家庭教育에



— 家庭教育과 靑少年의 내일 —

이 성 호 (사무관·문교부)

父母가 생각하는 教育의 責任은 언제나 教師에 있다. 教師가 생각하는 教育의 責任은 이 또한 언제나 父母에 있다. 教育을 받아야 할 어린이는 캐치볼하는 야구공같이 이쪽으로 던져졌다가 저쪽으로 던져졌다가 왔다갔다 할 뿐 바른 教育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現實이다.

이러한 教育으로 인하여 新聞社會面을 떠들썩하게 하는 子息이 아버지를 구타하고 심지어는 殺害까지 하는 悖倫兇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學校, 家庭, 社會에 공동 책임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家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人格形成의 1차적인 책임은 오로지 家庭에서 父母가 져야만 할 것이다.

子女教育은 家庭에서부터

教育이라는 말은 本來 라틴어 Educere 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e(밖으로) +ducere (끌어내다) =educate의 뜻으로 속에 지니고 있는 天稟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教育은 形式的교육과 非形式的 教育으로 구분한다.

형식교육은 意圖的인 教育, 狹義의 教育 다시 말해 學校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非形式교육은 非意圖的 教育, 廣義의 教育, 가정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의 人格과 個性은 형식교육보다 非形式교육으로부터 싹트기 때문이다. 家庭은 인간이 태어나 成長하는 과정에서 父母는 교사가 되며 道德의 기준을 제공하며 人格을 형성시키는 重要한 기초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의 子女教育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가치판단과 인격형성이 유아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近來 科學이 발달함으로써 증명되고 있다. 人間의 知能은 60~70%가 만 6才 이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노레 이브스박사도 受胎한지 5~6개월이 되면 생각할 수 있는 意思를 갖고 있다고 실험결과를 발표하였다.

人間의 인간다움, 다시 말해 人格形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腦에서 이루어진다.

知識·異性·性慾·運動能力·性格 등의 차이는 腦의 개인차에 의해 생기며 이런 미묘한 個人差를 나타내는 뇌세포(뉴론)는 1백억~1백 50억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숫자는 1초에 하나씩 셈한 다 하더라도 3백 17년이 걸리는 可恐할 숫자가 人間이 태어날 때부터 形成되어 있으며 이러한 뉴론은 다른 腸器와 같이 增殖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生産된 이상 죽을 때까지 減少되는 일은 있어도 증가되는 일은 없다.

또한 뇌는 뇌세포를 연결하는 2억가닥의 신경섬유다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이 어릴 때 가정환경과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뇌세포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作用하는 것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父母의 과잉보호 止揚하자

부모가 뇌세포에 어떠한 신경섬유를 연

결해 주는가에 따라 子女의 人格形成에 영향을 준다. 컴퓨터 배선작업을 하는 技能工의 회로배선作業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듯 家庭에서 부모의 役割은 컴퓨터 기능공과 같다.

인간의 天稟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뇌 속에 어떤 회로를 연결하느냐와 같다고 할 때 教育의 一次的인 責任은 父母에게 있는 것이 明白하다고 하겠다.

어린이가 배워야 할 時期에 가정에서 부모의 바르지 못한 行動과 環境이 無意識中에 습득되므로 부정적이고 歪曲된 思考方式을 지니게 되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어린이의 個性이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報道를 통하여 대하게 되는 麻藥환자도 복용자의 教育과 環境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3살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의 役割이 어린이의 인격형성에 얼마나 至大한 영향을 주는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어린이에 대한 과잉보호가 문제이다. 과거 유교적인 교육하에서는 청소년 犯罪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 후 이러한 교육이 褪色되고 과거 많은 자녀로 인하여 일일이 개개인을 보살필 여유가 없어 아버지는 엄하게 훈계하고 어머니는 감싸주는 嚴父慈母의 教育이 이루

어저 엄한 면과 자애스러운 면이 調和를 이루었다. 요즘은 한 두 자녀를 두다보니 부·모 다같이 사랑이 지나쳐 무엇이든 요구대로 들어주고 그저 맹목적으로 좋다 좋다 하다 보니 節制할 줄 모르고 事物에 대한 愛着心, 돈이 가지는 귀중함을 알기에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는 온실에 꽃과 같이 나약하고, 無氣力하며 依存的이고, 개인주의적이며, 忍耐心이 없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한다. 이러한 결과가 성장 후에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잡아 놓은 고기만 먹으려고 하니 社會的인 문제가 생기고 靑少年 범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어린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문제다. 어릴 때는 같은 또래의 集團과 어울려 마음껏 뛰놀게 하여 協同心과 忍耐心, 질서의식 등 社會生活의 기초를 經驗토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부모들은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원치 않는다.

놀면 옷버린다, 싸운다, 다친다, 얼굴이 햇빛에 탄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저 방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게 오로지 그림책을 보고 공부하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는, 말을 잘 듣는 愛玩用으로 만들려는 것이 문제다.

공부, 공부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흥미도 없어지고 어린이 自身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결론이다. 動物도 집에 가두어 두면 사납게 되어 사

고를 내는 것⁵과 같이 어린이도 집에만 가두어 두면 밖에 나가 동갑내기끼리 적응할 줄 모르며 協同心과 秩序意識, 상호이해력 不足으로 마찰을 빚는다.

이러한 지나친 父母의 간섭이 成長 후에도 社會生活에 지장을 초래하며 부모에 대한 尊敬心이 없어진다. 이렇게 허물어진 父母, 子息관계는 學校에서도 救濟不能이다.

父母의 바람직한 生活태도가 重要

세째,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生活이 문제이다. 父母의 行動은 산 교훈이다. 요즘 부모는 말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率先垂範하는 자세가 不足하다. 어린이에게는 공부하라. 정돈하라, 착한 일 하라, 여러 가지를 要求하지만 모범을 보이는 일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질서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은 빨간신호등이 있는데도 살짝 건너는 일, 출서는네 새치기, 유행에 민감한 일, 자신의 利益만 고집하는 일 등이 자라나는 어린이를 병들게 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는 결과 속이 다른 뼈없는 습성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건전한 思考方式을 갖고 자기의 信念대로 人生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家庭에서 부모가 어떠한 方向으로 子女教育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첫째, 장점은 인정해주고 더욱 더 助長해주어라. 人間의 成敗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팔자소판도 아니다. 어릴 때 하고 싶은 흥미와 환경이 相

互作用하는 가운데 個性이 발전된다. 우리는 어린이를 교육함에 있어 兄弟간에도 長短點이 있다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과 손재주가 없는 경우 또 그와 반대의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개개인의 장점을 伸張・發展시킬 수 있도록 부모는 助力者로서 도와주고 激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는 오로지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채찍을 가한다.

훌륭하다는 基準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의심스럽다. 공부에 소질없는 어린이에게 공부만 강요하다보면 공부도, 운동도, 기술도 모든 能力을 발휘 못하는 병신을 만드는 것이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의사 지바고」作家 파스테르나크가 집수리를 부탁했는데 하루는 木手가 술 한 병을 들고 찾아와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소설가라는데 세계제일의 목수인 나와 만났으니 술 한 잔 하지 않겠소」라며 술잔을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처럼 장점을 인정해주어 그 분야에서 제일의 권위자가 되도록 하여 개인이나 國家에 유익하도록 해야 하겠다.

사랑으로의 지도편달을

둘째, 사랑으로 指導하고 눈물로 꾸짖어라. 어린이 教育은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하여 필요하며 가문의 흥망도 자식에게 달려 있다. 자식을 올바른 길로 成長시키기 위해서는 花草가꾸기의 몇 곱절 끈기와 주의

가 必要하다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교육은 忍耐와 智慧가 필요하다.

잘못을 매로서만 다스린다면 매에 대한 면역이 생겨 더욱 가혹하게 통제해야 하는 副作用이 생긴다. 또한 사랑으로 지도한다고 해서 偏僻된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즉흥적으로 指導하면 자식을 더욱 망친다.

매를 때릴 때도 부모와 자녀가 다같이 아픔을 느끼는 共感帶의 매, 또 엄하게 다스린 후에는 긴장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저녁에 잠자리 속에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한다든지, 동요를 부른다든지, 아무 소재도 없다면 「오늘밤도 잘자」 하면서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해주어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게 해야한다.

세째, 아이들 質問에는 滿足할 때까지 대답해 주어라. 어린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事物에 대한 好奇心을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문을 充足시키는 과정이 교육이며 배움이다.

자기가 모르는 問題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그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滿足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질문이란 알고자 하는 왕성한 意慾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질문에 가혹하게 통제한다. 「조그만 것이 무엇을 알려고 그래 가서 공부나 해」 하면서 일축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생각나면 매와 장소를 불문하고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귀찮아서 진성으로 대답하는 성의없는 態度는 자녀에게 바른 교육이 되지 못한다.

배움의 바른 태도는 부모가 알려주어야 한다. 호기심을 자극해주고 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때 배움의 즐거움이 생긴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父母다. 공부, 공부같은 소리를 되풀이 하면 反感이 생겨 의도적으로 안하게 된다. 어린이에게 배움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 質問에는 만족할 때까지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国家的 내일 위한 바른 教育

結論的으로 말해 가정이란 어린아이가 母

胎에서 태어나서 대하게 되는 성장의 보금 자리이며, 人格形成의 기초가 되는 공간이다. 母의 품속에서 청서를 배우며 아버지의 日常生活에서 의지력과 生活手段을 배우게 되고 어린이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비형식적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家庭教育이 잘못되어 불량아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가정교육이 인간완성의 1백%라 말하기는 어렵다. 모든 교육이 家庭을 기초로 해서 학교,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행복과 더 나아가 国家的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헌신적인 努力과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4천만의 申告精神

다져지는 国家安保

北 韓 的

新 聞 과 放 送

編 輯 室



북한의 신문 특징

북한의 新聞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찰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집단적 조직자 선전자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벗이며 대변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스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선」의 물질적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동원 및

사상교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은 다양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반면에 당파성과 사상성이 강하며 전투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다른 보도 매체와 마찬가지로 신문도 당에서 철저히 장악하고 있다. 黨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정무원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당 관계부서의 직접적인 지도 통제를 받으며 각 도와 단체들에서 발간되는 신문들도 단체 내 당 조직의 핵심당원들에 의해 발행될 뿐만 아니라 계통적으로 당의 감독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신문의 최고 지도기관은 노동당 선동선전부 신문과이다. 선전선동부는 중앙당 조직지도부 다음의 서열로서 북한이 보도 매체의 운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나 정무원 체제도 정무원 소속의 출판지도검열국 신문과가 있어 신문 발행에 따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오늘날 북한신문의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동당 및 정무원에 의해 장악되며 주민을 조직·교육하여 공산주의의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둘째로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니다. 셋째로 당에 대한 「전투력 충성」이라는 원칙에 의해 활동되며 당의 완전통제하에 놓임으로써 신문 활동은 객관성이 부인된 채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만을 추구하게 된다. 넷째로 북한에서의 뉴스란 오직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유용한 것만이 뉴스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뉴스의 속보성을 부정함으로써 신문으로서의 보도의 가치가 없고 철저한 사전 제작계획에 의하여 제작된다. 다섯째로 「뉴스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찾을 수 없으며 선전·선동·교화의 기본사명을 갖고 있을 뿐이다.

北韓 新聞의 편집과 제작

북한 신문의 편집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노동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을 거치면서 유일사상·선전·선동·조직·교화·위주의 편집 방침을 고수하며 편집의 획일성과 보도·논평의 주관성·어용성 및 비속보성·사회면과 광고의 부재, 그리고 모든 정보원이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이 게재하는 기사 내용은 김일성 신격화의 일환으로서 「혁명전통」의 계승에 관한 내용과 당 정책의 선전과 그 실

천을 촉구하는 내용 대남 정책으로서의 한국의 악선전과 조국 통일에 관한 선동과 아울러 反美 운동의 선동과 악선전 및 국제 외교 내용 등으로 사회관계 보도 내용은 드물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기사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조선중앙통신사」의 통신에 의존하며 기자들의 현지 취재활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은 매우 적다. 이처럼 대부분이 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지만 자체적인 통제와 검열과정은 반드시 거친다. 또 신문에 게재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며 특정기사 게재에 대한 지면의 크기나 위치까지도 그 지시에 따른다.

북한의 신문들은 각 신문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면을 구성한다.

제 1 면은 金日成 연설문·담화문·시책지시와 金日成의 外國 代表團 접견 및 현지지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특종 보도나 각종 대회의 진행 뉴스를 게재한다.

제 2 면은 노동당의 시책인 공산주의 교양 및 교양자료 등이며 제 3 면은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과장한 기사나 혁신적 업적을 세웠다는 개별적인 인물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기사 등이 게재된다.

제 4 면은 국제뉴스와 한국 사회상에 대한 비방 기사 등이 실리며 제 5 면에는 「反帝 투쟁」 소식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날조·선전기사 등을 제 6 면은 대내의 뉴스에 대한 보충 또는 그 해설기사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제 1면에서 취급되는 특종 보도란 한국 사회에서 소요사태 등을 과장날조한 기사 공산진영에서 개최한 중요 회의관계 기사 국가원수급 외국 代表團의 訪北 기사 등이며

이처럼 북한의 고정 격식화된 신문의 지면 구성은 신문의 흥미와 필요불가결한 가치를 감소시킨다. 다만 북한 노동당이 필요로 하는 선전·선동·조직 교화의 가치만을 중시하여 대중과 신문을 격리시키기도 한다.

北韓의 放送 개념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방송은 국가를 통합하는 위력한 수단으로서 중요시된다. 방송은 신문에 비해 유연성이 있으며 통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레린은 방송을「종이와 거리가 필요없는 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통한 선전·선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당은 방송을「대중 선동자 대중 선전자」로서 정치 선전 및 정치 교육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全同盟 라디오위원회(VRK)는「소비에트의 라디오는 마르크스·레린 스탈린의 교시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문화적·정치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매일 노동자들에게 알리며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계급투쟁에 대한 真理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 방송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북한의 방송개념 역시 소련을 따르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인민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혁명위업 실천에로 조직·동원하는 당의 강력한 선전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마이크는 인민의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내보내는데 바쳐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방송의 당성은 당연히 뉴스의 개념에 대해 정론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론성이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선전·선동·조직·교육 동원에 필요한 요소들을 가미하여 각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방송 개념 속에는 오락의 개념이 없다. 비록「연극이나 노래도 그것이 예술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역시 선전과 선동」이라는 신념이 공통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0년 10월 방송절을 제정하는 정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방송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방송은 노동당의 위력한 선전 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의 선전 역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인 방송 부문 일꾼들은 金日成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경제·군사력 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 방송의 기능을 혁명과업수행에 주민을 동원시키기 위한 수단과 金日成 유일사상의 선전 선동의 기능을 하며 북한 사회의 혁명·노동계급화를 꾀하는 한편 反美·한반도 적화 및 對外 선전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金日成은 당적이며 인민적인 방송을 창설하여 당의 사상적 무기로 힘있는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 강화 발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金日成이 항일 무장투쟁 속에 이룩한 혁명적 출판물과 구두 선전활동의 전통을 계승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방송이 창설되어 오늘날과 같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방송으로 강화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방송도 金日成에 의해 창시·육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방송 행위가 金日成과 黨을 위한 事業에만 절대적으로 기여하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제한시켜 놓고 있다.

방송체계와 실태

북한의 방송은 당과 정무원의 이원 체계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당·정무원의 지도 감독에 따라 북한의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은 당으로부터 임명된다. 이 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

해 있지만 방송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의 선전선동부와 대남사업부의 지시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방송 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정무원에 속하면서 정무원의 체신부가 주관하여 각 방송국의 시설 기계의 관리 및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과 관계에 대한 인사권은 당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송을 이원 체계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방송을 당이나 어느 조직의 기관방송으로 둘 수 없는 방송의 특성 때문이며 이것은 방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제도이다. 당 체제상의 특징은 대남방송의 직접적 운영으로서 대남 선전선동 내용의 방송을 주기능으로 하는 평양방송은 내면적으로는 중앙당 대남사업부가 맡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는 각 道·市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郡·邑 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 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그런데 1927년 2월 16일 일제가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이란 이름으로 出力 1킬로와트·호출부호 JODK로 한반도에서 방송을 始作한 이래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북한에는 평양·청진·해주·원산 등 5개의 放送局이 있었다.

북한은 金日成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하는 이른바 「조국 개선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실을 중계한 45년 10월 14일을 기념하여 이날을 기점으로 「조선중앙방송」을 개시했

다고 선전하면서 정령으로 매년 이날을 「방송절」로 제정하고 있다.

해방 후 북한에 노동당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모든 방송시설이 6. 25 당시 파괴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복귀는 휴전 후 주민을 복구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환으로 대중 전달 수단인 방송시설과 기능 회복에 전력을 다했다. 그리하여 전후 평양시의 주요 가로들과 직장·구락부·각 도·시·군 소재지 및 노동자지구들에는 유선 방송망이 설치되었다.

55年 4月 9日에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出力을 1백50킬로와트로 대폭 강화한 복귀는 그후 3백킬로와트로 증강시켰으며 '67年 12月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조선중앙 제 1 방송」(3백킬로트) 「조선중앙 제 2 방송」(5백킬로와트)으로 분리하여 제 1 중앙방송은 대내방송·제 2 방송은 대외 및 대남방송의 기능을 맡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72年 11月 10日 「조선중앙 제 2 방송」은 「평양방송」으로 다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국은 중앙국 2개, 지방국 10개, 유선방송국 1개, 특수국 1개 등으로부터 모두 17개의 단파방송과 25개의 중파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17개의 송신소와 20개의 중계소가 있으며 라디오 수신기는 약 2백만대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61年 8월 30일 남포통신기제공장에서 11석짜리 라디오(천리마호)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는데, 5석짜리 이

상의 라디오는 반드시 사회안전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유선방송체제를 늘려 갖추는데 북한에서도 선전·선동·교육·동원의 수단으로 유선방송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라디오 수신기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적인 선전선동과 정보의 전달·동원의 수단으로 지역별·단체별로 집단형태로 수신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유선방송 사업은 '6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75年 11월 북한 방송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북한의 전 지역에 유선방송화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선방송의 특징은 경제적이며 중계소의 방송프로를 방송하기 쉬워 지방적인 성격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송출하는데 이용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당국과 민중을 연결하기가 쉽고 방송내용을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라디오 청취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적에 의한 라디오 선전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북한의 TV放送

북한의 TV방송은 '67年 4월 「조선중앙 TV방송국」이 개국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북한은 '71年 4월 15일에는 대남선전용으로 개성TV방송국을 개국시켰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 4기 4차회의가 '69년도 예산 결산과 '70년도 예산책정에서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위해 많은 TV수상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북한은 '71년에 전 지역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계탑 건설을 벌여 5차 당대회 이후 1년 이내에 TV수신 가능지역을 전주 민세대의 76%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북한은 TV수상기에 있어서 동구식(OIBT式)을 사용하는 한편, 개성 TV방송국에서는 대남선전을 목적으로 미국식(US式) 채널을 채택하고 있다. '62년 6월 남포통신기계공장에서 처음으로 TV수상기를 생산한 이래 현재 북한에는 20~25만대의 흑백 TV수상기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TV수상기를 생산해 내은 과정을 살펴보면 '65년 2월에 자강도

홍천에 전자관 공장을 건설하여 TV수상기를 제작했으나 주요 부품은 외국에서 수입하였고, '68년 2월에 서독의 Siemens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평양에 전자관 생산공장을 건설하였다.

북한의 주요 TV수상기 제작공장으로는 평양 TV공장·남포 통신기계공장·안주 통신기계공장·단천 영예군인공장 외에 대동강 TV수상기 공장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TV시청은 단일폐쇄식 시청방법으로 인하여 북한지역의 일부지역만이 시청가능할 뿐만아니라 민주선전실 및 기업소·직장단위로 가설되어 있어 집단적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TV의 개인소유는 주로 시당책임비서·시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의 고급간부들이다.

〈명 언〉

“처음 배우는 이는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워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할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스스로를 작게 여겨 물려 가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율곡 이이 —

I. 論議의 觀點

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急進變革論理와 疎外の 克服

李 正 圭

(社會學博士：뉴욕주립대학교수)

1970年 봄 미국에서 反戰運動이 설정을 이룰 때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발포가 나오자,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농성을 하거나 빌딩을 점거하면서 방화, 폭탄투척 등 과격한 폭력행위를 시습치 않는가 하면, 대학구내에서 학장이 학생들에 의해 그의 집무실에서 축출되기 일췌였다.

그해 한 해만 해도 미국 전역에 수 천 번의 데모가 있었고 대학에서도 37개 주에 200개의 캠퍼스가 데모의 와중에 휩쓸렸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젊은 층의 급진적 行動主義 경향은 1960년대 들어와 미국을 비롯한 독일·불란서·일본 등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서구 제국의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이들의 사상을 담은 책자나 데모하면서 내건 플래카드·팸플렛·빠라 같은 데에는 대체로,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한 마르크스로 돌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한 마르크스로 돌아야 한다」는 말은 1848년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 이전 청년마르크스사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人間疎外の 필연성과 그 疎外克服에 의한 인간성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를 人本主義者로 규정하며,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마르크스의 근본이념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이는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마르크스주의가 충실히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왔던 조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그 시행 과정에서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선진자본주의사회도 외형적인 물질적 풍요와 번영 속에 나타난 소외와 비인간화(非人間化) 현상에 의해 인간해방의욕을 상실한 고독한 군중들이 집합한 사회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적·실천적 운동을 이끄는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네오 마르크시즘(Neo-Marxism)과 뉴 레프트(New Left) 운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急進的 社會變革論理는 1960年代 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에서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기부터는 주로 후진자본주의국가의 학생운동 및 지식인의 반체제 운동의 촉매역할을 해왔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남미를 비롯한 아시아(일본제외),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현실사회에 대한 저항의 논리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런 급진논리로 무장한 일부 학생, 반체제인사(反體制人士)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혼란을 치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대응이나 검토가 미흡하고, 설득력없는 현실 논리만 앞세워 온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급진적 행동논리의 실체를 이해하고 또 우리 현실에 비추어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네오 마르크시즘과 뉴 레프트운동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앞서지적한 대로 이러한 사상적 움직임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사회의 산물이므로 이들 사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이론들이 생겨난 서구 선진사회의 성격 규명이 필요하고, 이런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를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되는 疎外와 非人間化 현상을 이러한 급진사상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진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특히 「疎外問題」를 논의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선진사회의 본질적 현상임은 물론이려니와, 그에 덧붙여 이 문제가 급진사상이 극복해보려는 주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II. 現代産業社會와 疎外

1. 現代社會의 特徵

現代社會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物量을 기초로 하고, 그에 따라 社會는 分化, 專門化, 標準化, 大型化라는 특성을 띤다. 社會의 상품생산과 작업과정이 극도로 분화됨에 따라 전문가의 능력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다. 社會의 분화는 작업과정의 相互關連性보다는 단편화된 노동과정을 중시하게 되어 일에 대한 창의력과 관심을 잃게 되고, 전문화는 고도로 분화된 과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社會 전반의 기술관료적 지배현상을 낳고 국민주권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한다.

생산과정의 표준화와 기계화는 經濟領域

이외에도 확산된다. 사회는 더 이상 개성과 차이를 거부하고 그 대신 획일적이고 사회 순응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며, 인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주체로서 보다는 그에게 구조적으로 부여된 역할을 담당하는 살아있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생산과정의 대형화는 국민의 주거관념에도 파급되어 정신적인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통해 자신을 전시하려는 잘못된 심리를 낳고 인간 관계는 아픔과 정열이 넘치는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이탈하여 돌처럼 차가운 「물건과 물건의 관계」가 되어 버린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자기자신에 대한 이미지마저도 물건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잘못된 의식이 산업화된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後期産業社會는 단순한 물량적 풍요와 대중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노미(Anomie)나 소외(Alienation)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외의 원인은 産業化過程을 지배하고 있는 논리와 산업화의 결과에 나타난 諸 사회관계 사이의 모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양식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 주장하는 소위 사회적 생산관계가 人間意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보다 복잡한 질문에 접하게 된다. 여기서 명백히 해야 할 점은 생산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네오-마르크시즘의 입장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의식의 변

화가 사회의 생산관계에 기인한다고 말함으로써 소외문제의 보편적인 측면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후기산업사회 혹은 현대산업사회는 위에서 열거한 특성을 지닌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동시에 보편적으로 소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일반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2. 소외의 개념

疎外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갑자기 유행어처럼 나타나게 되었는가? 혹은 이 소외의 극복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소외」의 참다운 의미는 소외가 나타난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의 의미를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곧 현대사회의 사회관계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상황의 부수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으로서의 「소외」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20년대 네오 마르크시즘의 鼻祖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철학자 루카치(Lukács)가 이를 취급하면서부터이다.

첫째, 소외는 우선 정신적인 영역의 한 특수현상, 즉 심리적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전대 애정이 일방적일 때,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 감상이 일어날 때, 혹은 무언가 분주한 社會生活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공백감과 같은 것이 바로 소외이다.

그것은 나아가 人間心理의 병리적 현상으로, 곧 歪曲된 정신적 無秩序狀態로 나아갈 경우를 포함할 것이다.

둘째, 또한 소외는 生産, 의사소통, 계급적 관계에 있어 사회생활의 변두리에 위치한 일군의 「한계인간(Marginal Man)」에게 있을 수 있다. 限界人間은 산업화의 직접적인 산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화의 결과 이 과정에서 외면 되고 배제된 일군의 사람들이란 점에서 그것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들 한계인간은 때때로 매우 단결된, 따라서 응집력이 큰 생활을 영위하는 까닭에 소외를 「느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외부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혹은 산업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급속히 소외를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혹은 소외는 현대사회의 노동과 자본의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말해진다. 곧 현대사회는 脫産業化의 결과 더 이상 고전적 마르크시즘이 말하는 자본가 지배가 아니라 노동자세력과 자본가세력과의 대립이라는 일종의 組合主義的 지배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과 노동의 분리 및 이들의 상관관계의 질적 측면에는 커다란 변화를 미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 자본에서 분리된 노동의 소외, 곧 생산과정에서 노동자 일반의 소외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끝으로 소외는 文明一般에 관련되어서 논의되기도 한다. 문명일반이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욕구를 규제하면서 질서와 규율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소외는 사회가 있는 곳에 필연코 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문명에 內在的인 것이라는 설명이 될 수 있다. 곧 문명은 그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간에 문명에 내재적인 소외를 갖기 마련이며, 원시인이 아닌 이상 사회의 발전단계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외의 의미는 다양하다. 여기서는 그것이 특히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소외」를 특정시간을 초월한 초시간적 개념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과 관련된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산업사회의 특이한 소외현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만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소외」의 진원을 밝힐 수 있다.

3. 現代産業社會에 있어서 소외의 兩側面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소외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대산업사회의 성격규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산업사회는 물질적 豊饒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喪失하고 자신의 여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외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아직 산업화 과정에 있고 물질적 解放에 뒤따른 시간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외현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거나 사회주의 사회를 막론하고 脫産業化過程에 들어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소외는 일면 인간생활이 과거처럼 貧困과 不足에 얽매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서 문명의 일정 단계에 나타나는 目的喪失에서 오는 무기력을 의미하며, 인간이 갖게 된 방대한 여가를 선용할 수 없는 무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소외는 生産過程이 勞動과 資本으로 분리됨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 놓은 생산물과 다른 생산자로부터, 자기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소외는 인간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外化過程에서 나오는 생산양식의 계층성에 있게되며, 그것은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체제에서는 사회일반에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Ⅲ. 疎外の 克服문제

소외의 개념과 정의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외의 克服 또한 다양한 처방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대체로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傳統社会로의 回歸

첫째, 소외를 現代大衆社会의 方向喪失

또는 아노미(Anomie)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제시되는 克服方案이다. 현대사회는 물량적으로 그 규모가 방대해지고 사회운영은 비인간적인 기계화의 과정에서 진행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人間群이 생활전면에 나타나는 관계로 인간관계도 일정하게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이다.

그리하여 인간관계는 목적상실로 인한 疎外暴戾이 일어난다. 그것은 일면 전통적이고 익숙해 있던 慣行과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진 반면 아직 이에 대처할 삶의 樣式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못한 곳에서 혹은 새로운 양식이 더 이상 과거처럼 인간의 안주와 歸屬感을 부여하는데 부적절한 데에서 일어난다.

특히 지리적·계층적으로 사회적 동원이 급속히 일어난 사회에서 이러한 소외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를 사회학적으로 「아노미(A-nomie)」라고 부른다.

또한 文明一般의 차원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현대사회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적인 政治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意志를 그대로 공동체의 결정에 반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議會制가 출현하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정치적 인식이 범주안으로 들어온 대중을 소위 ‘代議制’에 의해 대표하려는 노력은 다시금 懷疑를 낳게 된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그것이 지닌 법제적 평등, 사회적 예의, 도덕과 의사에 기초한 정치체 등 수많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

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하여 다시 곧 傳統社會가 지닌 문화적 결속력에 의존하자는 주장이 있다. 곧 大衆支配에서 엘리트 지배로, 이익 사회적 市民社會에서 공동사회적 政治體로, 산업사회에서 소단위의 前産業社會으로 시계방향을 되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극복방안이 반드시 시간적인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를 붙들며 두려는 관점에 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본능의 억제나 해방을 통한 소외의 극복.

둘째, 소외가 文明과 人間感性의 대립 때문에 일어났다는 관점에서 극복방안을 생각해보려는 입장이다. 문명일반이 인간의 고유한 쾌락본능과 자기중심적 본능을 억압하면서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社會維持의 기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간 본능과 문명일반의 충돌, 혹은 인간의 밖으로 나타난 행동과 潛在的 욕구의 근본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사실 문명은 인간개체의 자유와 욕구의 충족보다는 種族集團의 보존을 중요시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가 속하는 사회질서와 어느정도의 대립 혹은 緊張關係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장관계가 현대문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견디어 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 섰다는 점에서 인간본성에 대한 현대산업사회의 억압은 두드러진다.

이처럼 문명과 人間本性的 대립을 소외의 근본원인으로 파악하게 될 때 그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두가지의 길, 곧 문명이 인간본성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그 역으로 인간본성이 문명에 적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두가지 방안 중 역사 일반이 보여준 해결방안은 인간이 문명에 적응하는 방안인데, 그것은 오로지 소외를 더욱 가중시켜왔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완전한 의미의 自動機械로 전환될 수 없다면, 인간을 문명에 맞추려는 노력에 비례하여 그만큼 人間幸福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소외에서 인간을 구제하기 위하여 심리적 치료나 개조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정도의 한계를 벗출수 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본능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주장이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능의 발전이 역사적 조건의 성숙과 더불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미리 막는 것은 아니다.

문명을 인간본능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방안은 곧 인간의 억제된 본능을 해방함으로써, 그리고 문명을 다소간 이러한 해방의 수단 혹은 추진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외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 첫 조치는 지금까지 억제된 인간의 본

능이 순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문명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국한하는 것이다. 곧 장애물로서의 제도, 사회관계, 언어의 역할이 한정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간적인」 문명은 人間解放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거기서 기존문명의 역할은 우선 이러한 억압된 본능을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애물로 자신을 제시하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본능이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데 실패할 때 - 곧 그 어떤 문명도 인간본능과 조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 때 - 인간은 역사를 통해 쌓아 올린 문명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만약 문명이 최소한의 가치, 즉 인간의 필요악이라면 그 문명을 대치할 방안이 없이 이를 위기로 몰아 넣는 상황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疎外克服을 위하여 문명을 그 주된 해악으로 고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폐허가 된 문명의 잔해 위에서 참다운 인간의 해방과 기쁨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3. 노동소외의 극복.

세계, 소외를 資本主義社會에 고유한 생산관계적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입장에서의 극복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소외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자본제적 상품생산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소외의 원인을 우

선 산업사회의 勞動分化에서,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을 자본주의적 生産方式에서 찾고 있다.

소외를 노동분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때 소외의 극복문제는 어떻게 노동의 분화를 극복하는가 하는 문제로 변형된다. 노동분화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시민사회가 생산활동의 증대를 통해 사회일반의 물량적 확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을 때, 노동분화는 소외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에의 從屬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경제기초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간해방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의 확대를 통해 인간소외가 극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필연적으로 소외를 普遍化한다는 입장으로 발전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유래하는 소외는 곧 노동의 생산물과 노동의 존재조건이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부터 독립되고 대립되면서 점차 확대할 국면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물의 가치관계 및 인간관계의 物化現象은 사상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교환가치에로 전락시켜 상품에 대한 物神崇拜를 빚는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대상에 대한 관념들이 근거하고 있는 산업사회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킴으로써 소외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빚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내재적인 비인간적 측면을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좁히는 정치적 결단을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좁히는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소외의 극복은 이처럼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소외를 지양하려는 제도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IV.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 소외의 극복방안을 둘러싼 세가지 입장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소외의 개념이 複合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극복방안이 개념의 함수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소외의 극복이 정치적 선전의 수준을 넘어서 과연 완전히 이루어질 성질의

것인가에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사회에서의 도피나 과거로의 移行은 일시적 방편일 수 있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문명에 대한 전면적 거부나 자본제적 질서의 변혁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의 틀 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극복방안은 기껏해야 이론적 수준의 문제로 남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황의 일부로서 소외를 피할 수 없으며 소외와 함께 살아갈 운명에 있다. 그러나 이 소외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지닌 문제를 진지하게 의식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삶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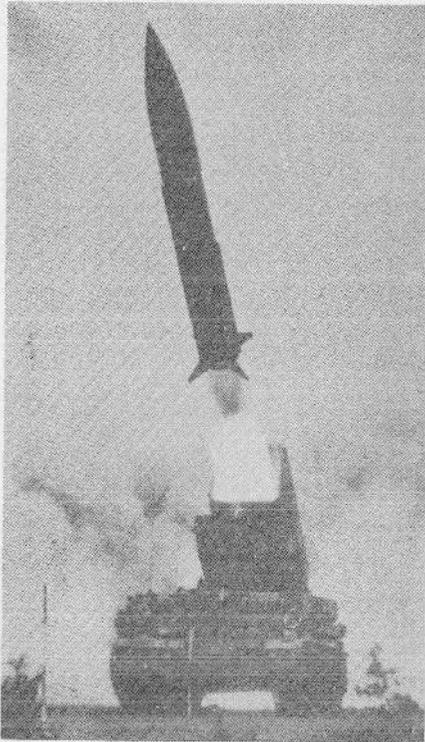
— 参 考 文 獻 —

1. C. W. Mills, "The Marxists," Washington press Co, 1982.
2. Karl. R. Popper, "열린社会和 그 敵들" Boston Phillips press, 1980.
3. 新 紀元" 現代産業社会和 急進變革 論理," 1984.
4. J. A. Schumpeter. "The Capitalism, Socialism & Democracism" Havard publish Co. 1978.

☐ 프랑스의 핵戰力 現況 ☐

中 領 丁 龍 鎮

〈공군사관학교〉



프랑스는 世界 1, 2 次 大 戰 을 거 치 면 서 반
아 온 그 들 의 不 名 譽, 인 도 차 이 나 戰 争 (1946
~ 1954), 스 웨 즈 운 하 紛 争 (1956), 알 제 리 戰
争 (1954 ~ 1962) 등 에 서 外 國 軍 과 처 항 할 수
없 을 정 도 로 惡 化 되 기 만 했 다. 그 러 나, 1958
년 드 골 장 군 의 등 장 과 함 께 自 主 国 防 의 이
름 아 래 国 力 伸 張 에 총 령 을 기 울 인 결 과 오
늘 날 에 는 世 界 3 位 의 핵 強 大 国 이 면 서 3 位
의 武 器 輸 出 国 으 로 등 장 하 게 되 었 다.

따 라 서 우 리 軍 은 프 랑 스 에 관 하 여 보 다
깊 은 関 心 및 理 解 를 增 進 시 키 기 위 해 佛 의
基 本 国 防 政 略 인 핵 抑 制 戰 略 을 이 해 하 고 현
재 보 유 하 고 있 는 핵 武 器 体 制 및 앞 으 로 의
展 望 을 살 피 보 고 자 한 다.

目 次

1. 国 防 政 策 및 国 防 政 略
2. 핵 軍 現 況
3. 핵 軍 의 展 望
4. 資 料

1. 国 防 政 策 및 国 防 政 略

프 랑 스 는 1958년 10월 드 골 将 軍 의 政 界 復
歸 로 美 · 蘇 와 동 등 한 유 럽 勢 力 圈 을 建 設 하
여 主 導 權 掌 握 과 함 께 프 랑 스 의 威 身 을 높
이 기 위 해 独 自 의 인 핵 武 器 (1960년 핵 實 驗
성 공) 을 개 발 하 였 으 며 1966년 에 는 NATO 軍

事機構로부터 離脱하면서 채택된 國防政策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양극화된 美·蘇의 개념을 排擊하고 意思決定의 중심을 多極化함으로써 強大國의 독점을 막고 서구의 자율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강력한 核戰力 保有 및 在來式兵力의 強化에 있다.

現 國防政策에 관해서 라카즈(Lacaze) 參議長이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종합하면(1984. 5. 19), 核攻擊力의 強化 유럽방위에 대한 참여(西獨에 3개사단 주둔), 友邦國에 대한 軍事支援 및 紛爭에 대한 介入, 科學技術의 研究開發(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한 “별들의 전쟁”에 대비한 技術開發)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國防政略概念은 戰略 및 戰術核에 의지하며, 平和시 敵의 侵略意慾을 事前沮止시킴으로써 戰爭을 예방하는 “核 抑制戰略(Dissuasion- Nuclear)”을 기본으로 한다. 프랑스의 總 核威力은 대략 100MT 으로(소련의 核戰力 比例 1 : 15,000) 相對國의 主要軍事目標(300개 선정)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攻擊戰略을 갖고 있다.

또한 “核 抑制戰略”의 실패로 전쟁발발시에는 유럽방위를 위해 國境地域에서 在來式武器 및 核武器로 敵을 擊滅하는 國境防衛戰略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프랑스 영토내에 敵兵力의 침입에 대해서는 각지역 독자적 또는 機動軍과 연합하여 對 邀擊戰을 실시하는 抵抗戰略이 있으며, 이를 위해 憲兵軍(74,000명) 및 豫備軍(1,200만명)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自國의 利權守護를 위해 언제든지 國內外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緊急介入軍(1984년 창설: 병력, 47,000명 헬기, 200대)을 보유하고 있다.

2. 核軍現況

佛의 核軍은 戰術核軍과 戰略核軍으로 크게 대분 할수 있다.

戰略核軍은 空軍이 보유하고 있는 地對地 미사일 18기 및 MIRAGE 4에 의한 核爆彈(AN-22), 海軍이 보유하고 있는 5척의 戰略核潛水艦(각 16기 보유)으로 구성되어 있다.

戰術核軍은 空軍의 9개 전투대대(1개 대대당 15대), 육군의 5개 PLUTON(戰術核 명칭) 연대, 해군의 함재기로 구성되어 있다.

3. 核軍의 展望

佛軍은 1984년부터 시작된 5차5개년 軍備增強計劃을 추진중에 있으며 核武器의 維持, 正確度 向上 및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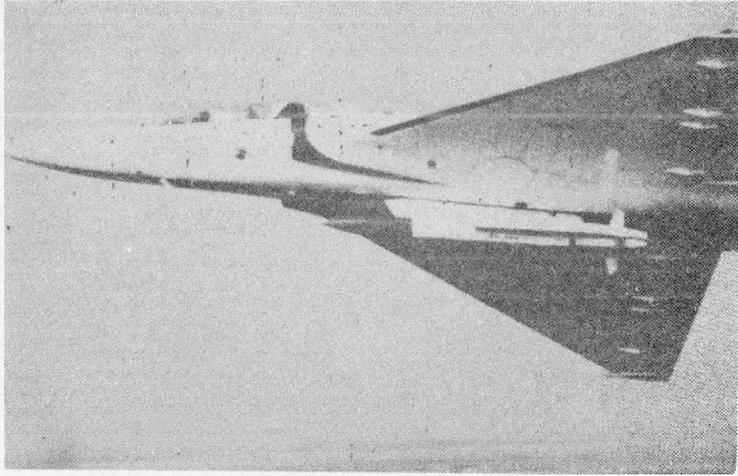
'84년도 국방예산(1,421억 프랑)중 核軍의 戰力增強을 위해 205억프랑을 투자했으며 '85년도에도 전체국방예산(1,520억 프랑)중 233.8억 프랑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날 계획으로 되어 있다.

空軍은 지금의 S-3형인 地對地 미사일을 소련의 SS-20형과 같이 차량에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85년부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공대지 순항 핵 미사일은 곧 작전배치 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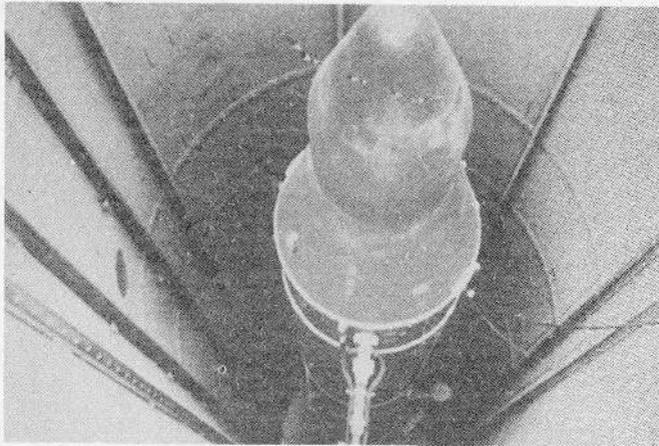
核 軍 現 況

출처 : LA DEFENSE EN CHIFFRES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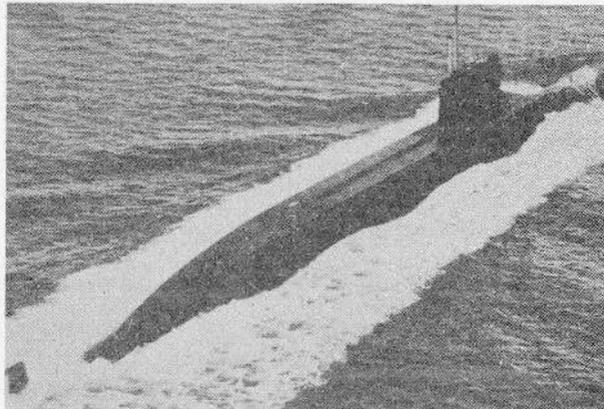
구 분	軍 別	戰 力	武 裝	행 동 반 경	비 고
戰術核軍	空 軍	2 개 대대의 MIRAGE 3E	AN-52 (25KT의 核 장착)	900km	- 1 개 대대당 15대의 항공기로 구성 - AN-52를 순항미사일 (ASMP) 로 교체 예정
		3개 대대의 JAGUAR			
		2 개 대대의 MIRAGE 3E (엄호기)	레이다 공격 (AS-37)		
		2 개 대대의 JAGUAR (엄호기)	전자전 수행		
	陸 軍	5 개 연대 (각 연대마다 6 기씩 보유)	PLUTON (15~25KT의 核 장착)	120km	
海 軍	3 개 대대의 함재기 (Super-Etendard) (항모 2 척에 분산 배치)	AN-52 (25KT의 核)	550km	- 각 항모마다 18대의 핵 공격 함재기 보유	
戰略核軍	空 軍	지대지 공격미사일 (SSBS-3) (2개부대 보유)	S-3 (1MT의 核)	3,500km	- 1개부대당 9기씩 보유
		2 개 대대의 폭격기 (31대의 MIRAGE 4)	AN-22 (60~70KT의 核폭탄)	1,300km 2,500km (공중급유)	
		1 개 대대의 공중급유기 (11대의 C 135F)	38Ton의 연료보급	38Ton의 연료적재시 4,200km	
	海 軍	5 척의 대지공격 핵 잠수함	M-20 (1MT의 核)	3,000km	- 각 잠수함 마다 16기씩 미사일 보유



▲ MIRAGE 2,000N (순항핵미사일 장착 : AS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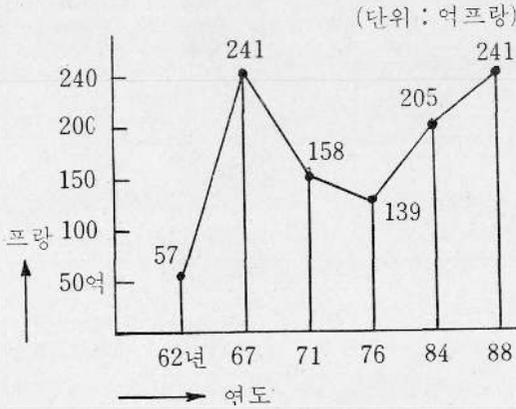


▲ S-3형 지대지 핵 미사일



▲ 전략 핵 미사일(SNLE)

核戰力에 대한 투입예산



*단위 : 억프랑 = 100억원
 *출처 : armée d'aujourd'hui ('83년 10월)

해군은 잠수함발사 미사일을 다탄두 핵 미사일(M-4형)로 대치중에 있으며 육군은 지금의 전술핵 미사일(PLUTON)을 유효거리 및 정확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180개의 미사일 탄도탄을 보유토록 계획하고 있다.

結論적으로 1966년부터 현 국방정책을 지속해온 프랑스군은 平和時에는 敵의 侵略意慾을 事前沮止시킴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核抑制戰略”을 우선적으로 만족시키면서 어떠한 형태의 紛争에도 즉각 대치할 수 있도록 在來式 武器의 強化에도 주력하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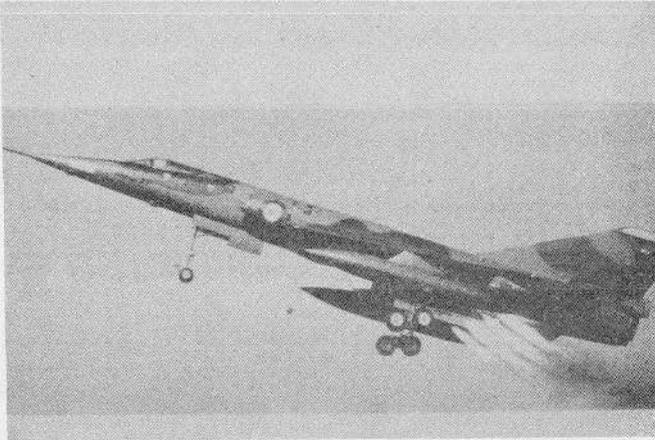
프랑스의 核軍은 戰略核軍과 戰術核軍으로 구분되며 空軍 및 海軍이 戰略核을 보유하고 있으며 戰術核은 3軍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世界 3位의 核戰力을 갖고 있다.

특히, '84년부터 시작된 5次 5個年 軍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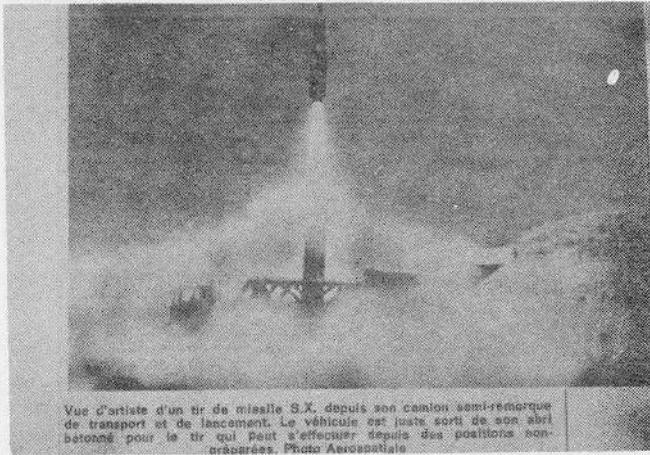
核武器 增強計劃

출처 : AIR ET COSMOS 1984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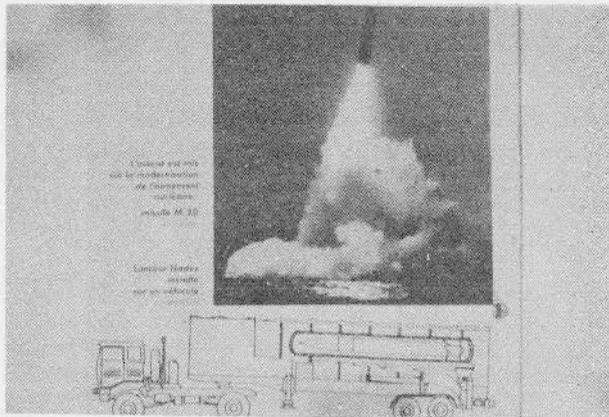
軍別	명 칭	작전배치 (년)	성 능	비 고
空軍	S-X형 (이동미사일)	1996	유효거리 : 3,500km 탄 도 : 3×150KT	지금의 지대지 핵미사일(S-3형)에 대한 교체 차량에 적재함으로써 은밀성 향상(폐성 II) 산속에 위치하며 여러개의 출입문 사용 수송기에 의한 공수 가능
	ASMP (공대지 순항 미사일)	1987	순항거리 : 100km이상 탄 도 : 20~65KT	지금의 AN-52 및 AN-22와 교체예정 목표지역 밖에서 공격
海軍	M-4 (잠수함 발사 미사일)	1985	유효거리 : 4,000km 탄 도 : 6×150KT	- 1985년부터 작전배치 되는 6번째 핵 잠수함에 처음으로 장착 - 기존 잠수함에 장착된 M-20형을 2000년 까지 M-4로 교체
	M-5	1994	유효거리 : 6,000km 탄 도 : 10MIRV	1994년부터 작전배치 예정인 7번째 핵잠수함에 장착 예정
陸軍	HADES	1992	유효거리 : 350km 탄 도 : 10~25KT	- 1974년부터 작전배치 되어온 전술핵무기(PLUTON)의 교체 - 佛陸軍은 모두 180개 미사일 배치 예정



▲ 전략 폭격기(MIRAGE 4P)



▲ S-X형 지대지 핵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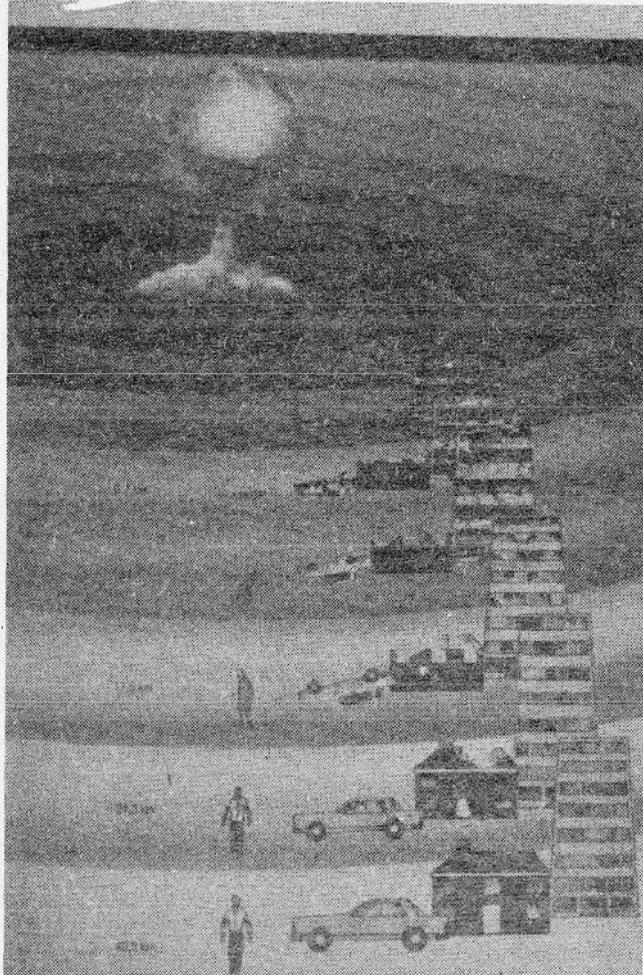


▲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M 20) 및 지대지 전술 핵미사일(HADES)

增強計劃을 통하여 核軍의 戰力增強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核 抑
制戰略을 고수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정된 核 抑制戰略이 韓民族의
生存戰略에 적용할 수 있도록 研究와 科學
技術을 發展시켜야 하겠다.

4. 資 料



IMT 핵 폭발시의 위력

프랑스 전략핵무기 개발현황

군 별	명 칭	작 전 배 치	핵 미 사 일		비 고
			유효거리	탄 도	
空 軍	S-2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 2 개부대 (18개 미사일) 	2,750km	1 × 150KT	• CEA : 900m
	S-3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 S-2 형의 개량 • 2 개부대 	3,500km	1 × 1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2 형 개량형 • CEA : 830m
	S-X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예정 • Mobile MSL • 발사대 : 차량 	3,500km	3 × 150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발사대로 산속에 위치하며 여러 개의 출입문을 갖고 있다. • 수송기에 의한 공수도 생각하고 있음 (소련의 SS-20과 비슷)
海 軍	M-1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2,750km	1 × 500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핵공격 잠수함에 장착 • 지금은 M-20형으로 교체 되었음.
	M-2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3,000km	1 × 150KT	
	M-20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7년 	3,000km	1 × 1M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척의 핵공격 잠수함에 장착 • 1986년부터 M-4 형으로 교체
	M-4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 	4,000km	6 × 150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5년부터 작전배치되는 6 번째 핵 잠수함 (inflexible) 에 처음으로 장착
	M-5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6,000km	10MIR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부터 작전배치 예정인 7 번째 핵 잠수함에 장착 예정

主要核軍 增強計劃

5 차 5개년계획 기간중

항 목	기 간		계
	1984~1985	1986~1988	
SNLE (核 潜水艦)	-	1	1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량 (최신형: M-4형)	1	2	3
공중지휘 항공기	4	-	4
MIRAGE 4 에 장착될 순항 核 미사 일(ASMP) 확보	18	-	18
급유기(C-135F) 의 엔진 교체	7	-	7
MIRAGE 2,000N (전술핵 공격기 및 ASMP 확보	32	38	70
HADES (전술핵) 연대		1	1
함재기에 장착될 ASMP 확보	10	40	50

출처: LE BUDGET DE LA DEFENSE 1984

각국 핵무기 비교

무 기 체 계	미 국	소 련	프랑스	영 국	중 공
지대지미사일발사대	1,050	1,398	18	-	110
핵 공격 잠수함	32	81	5	4	-
총 미사일 수	520	944	80	64	
폭격기(댓수)	316	150	34	-	120

출처: LA DEFENSE EN CHIFFRES 1984

핵 공격 잠수함 비교

국 적	핵 잠 수 함		핵 미 사 일			
	형	중 량	숫자	명 칭	거 리	핵 탄 두
소 련	DELTA 3	13,300t	16	SSN 18	8,000km	3~7 MIRV
	TYPHOON	25,000t	20	SSN 20	7,400km	12 MIRV
미 국	LAFAYETTE	8,250t	16	POSEIDON	5,900km	14×50KT
			16	TRIDENT I	8,000km	8×100KT
	OHIO	18,750t	24	TRIDENT I	8,000km	8×100KT
			24	TRIDENT II	11,000km	14×150KT
프랑스	REDOUTABLE	9,000t	16	M20	3,000km	1×1 MT
			16	M 4	4,000km	6×150KT
	SNLE-NG	12,000t	16	M 4	4,000km	6×150KT
			16	M 5	6,000km	10 MIRV

출처 : AIR ET COSMOS 1984

주요 핵무기 성능 비교

	GLCM	PERSHING II	SS-20
형 태	순항 미사일	탄 도	탄 도
길 이	6.40m	10.49	16m
지 림	0.53m	1.02m	1.70m
중 량	1,450kg	7,200kg	40T
순항속도	885km/H	-	-
항속(유효)거리	2,500km	1,800km	4,400~5,000km
시 간	4 시간	대략 12분	10~15분
정 확 도	100m이내	50m이내	대략 400m
핵 탄 도	1×250KT	1×10~15KT	3×150KT
발 사 대	차 량	차 량	차 량
공수가능	가 능	가 능	가 능

美·蘇航空機 電波諜報戰

— KAL 사건으로 드러난 그 실상 —

編輯室



- ……이 자료는 교육자료로서 과…□
- …학평론가 徐光云氏가 월간지에…□
- …게재한 글에서 발췌했으며 내…□
- …용은 미·소 전파전의 군사력…□
- …비교이다. ……………□

RC-135기의 기능

먼저 미국의 RC-135기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RC-135는 미전략공군사령부(SAC)의 장거리 정찰기로 18~20시간 비행할 수 있다.

기내에는 통신도청장치와 함께 약 30명의 공군요원과 수명의 전자전략담당 장교가 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군의 통신정보수집기관인 국가안전정보장국(NSA)의 지휘를 받고 있다.

RC-135는 목표국가 부근에서 NSA가 지시하는 궤도를 「8자」와 비슷한 코스에 따라 비행한다.

8자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까닭은 상대방의 영공에 잘못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목표국가의 영공에 접근하는 일도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의 조기경보체제의 약점이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것.

이러한 정찰기에 의한 정보수집은 위성이나 지상수신 시설로는 불가능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구역에서는 365일 24시간체제로 정찰기가 날아 1대가 착륙하게 되면 반드시 그전에 다른 1대가 이륙하게 된다.

또 RC-135는 백채널이라고 불리는 통신시설을 통해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보수뇌에게 현장에서 일어난 정보를 곧바로 전할 수 있으며 가령 일본 근해를 비행 중인 경우는 「크리틱」이라는 코드명으로 10분 이내에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첩보기는 적의 행동을 탐지해내서 아군기에 경고발신을 보내거나 적레이다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空中情報 전쟁

다음으로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미·소의 쫓고 쫓기는 항공기 정보전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항공기 스파이전쟁에서 미국은 50년 이후 적어도 27대의 비행기를 잃었고 60대가 공격을 받았으며 정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종사 또는 특수요원 1백 3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가지 실례를 알아본다.

△ 58년 6월 27일=9명의 요원이 탄 CIA 스파이기가 소련의 코카서스 상공에서 격추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즉시 비밀리에 보고됐다가 지금부터 불과 2년 전에 비밀유지 딱지가 떨어졌다.

△ 58년 9월 2일=17명의 NSA 요원들 태운 정찰기가 소련의 아르메니아 상공에

서 격추됐다.

△ 60년 5월=11일 당시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됐던 U-2기가 소련의 우랄 상공에서 격추됐다.

△ 60년 6월 1일=RC-135의 전신인 RB-47기가 바렌츠바다 상공에서 소련측에 의해 격추됐다.

△ 64년 1월과 3월=동독 상공에서 정치활동을 하던 미국 T-39와 RB-66기가 격추됐다.

이상의 실례는 미국의 스파이기가 피격된 두드러진 케이스지만 소련측의 피격사례는 일체 비밀로 붙여지고 있다.

상당수의 위성첩보 외에 미국의 현재 사용 중의 스파이기는 RC-135, U-2, TR-1 S, SR-71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정체가 드러난 RC-135기는 60년대 중반에 나온 전자정보수집기로서 17시간 이상 공중에 머무르면서 소련의 레이더 시그널과 지상관제소로부터의 대화내용을 지름 2.5cm 크기의 자석테이프에 수록한다. 전파로 탐지된 이 자료는 기지에 돌아온 후 컴퓨터에 넣어져 소련의 정확한 레이더기지의 위치와 통신내용을 밝혀낸다.

RC-135기는 2백 40km 거리에서 좌우 양쪽을 동시에 정찰하는 레이더를 부착하고 부분의 넓적한 패널이 특징인데 폭격기와 크루스 미사일이 목표물을 추적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지도를 작성해 주고 있다.

상대방의 영공에 들어가 방공체제의 반응을 촉발시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쓰는 일이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비행기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도록 미국은 한 번 임무에서 돌아오면 넘버, 안테나, 마이크 등을 모두 바꾸어 버린다.

RC-135기는 대개 10.5km 상공에서 상대방의 전자송출부호를 청취하는데 상태가 좋은 날이면 최고 1천 6백km까지 청취할 수 있다.

SR-71기의 정체

그리고 미국정찰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소련쪽에서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블랙버드라는 별명을 가진 SR-71기이다.

이 첩보기는 티타늄으로 특수제작된 것으로 25.5km 상공에서 한 시간 동안 3천 2백km를 날면서 5천 6백km의 행동반경을 갖고 지상의 물체를 용단촬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SR-71기는 소련의 어떤 전투기도 심지어 소련의 공대공미사일도 맥을 못출 정도로 빠르다.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빨리 런던-뉴욕간을 2시간 이내에 날 수가 있다.

미그-25기를 몰고 '76년 일본으로 망명한 빅토르·벨렌코는 그의 자서전에서「SR-71기는 자신을 뒤쫓는 미그-25를 마치 조롱하듯, 가지고 놀듯,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대로 사라져 종잡을 수가 없게 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SR-71기는 중공 상공에도 자주 날아가 정찰활동을 벌였는데 중공측의 강력한 항

의로 '71년 닉슨 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고 난 직후 비행을 중지시킨 적이 있다.

RC-135기가 전파탐지의 기능을 자랑한다면 SR-71은 사진촬영의 주기능을 과시할 수 있다.

보통첩보위성이 열적외선을 이용해서 1백 85km 상공에서 30cm의 크기의 물체까지 찍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SR-71 같은 초고성능 정찰기가 살살이 누비면서 촬영하는 편이 보다 낫다.

NSA가 보유, 이용하고 있는 정찰기는 17대의 RC-135기, 9대의 SR-71기, 8대의 U-2기 그리고 2대의 TR-1S기와 수백대의 전술정찰기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이들 스파이기를 주로 소련과의 접경지대에 배치하고 있으며 영국, 그리스·오끼나와·키프로스·터키 등지에 특별기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첩보기는 오끼나와 필리핀에서 발진하여 주로 사할린 부근의 소련 극동기지를 정찰하고, 알래스카에서 발진한 첩보기는 쿠릴열도를 따라 역시 소련 극동군의 반공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 빌 공군기지에서도 이륙하는 고성능 첩보기는 북태평양은 물론 소련의 극동지역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해역에서 KAL-007기의 격추사건이 빚어진 것이다.

일본의 지상기지

이번에는 KAL기 격추현장으로 눈을 돌

러 지상레이다 추적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일 두 나라의 정보수집 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숄츠 국무장관 등 미국측 증언과 일본측 발표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상오 1시부터 이미 소련기가 KAL기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본은 2시간 20분 후인 3시 20분에 비로소 소련기가 출현한 것을 발견했다.

출동한 소련기의 숫자도 미국은 8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본항공자위대는 3대 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KAL기가 두 나라 레이다에서 사라진 시간도 9분의 차가 난다.

이 9분의 차가 어찌면 미국과 일본의 전자정보전의 실력차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국은 평소에 소련의 움직임을 환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표로 세상에 다시 한 번 드러난 셈.

숄츠국무장관의 발표가 늦어진 것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현재 미국정부에서 전자정보의 수집,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NSA)이다.

KAL기 사건을 추적한 것도 NSA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관은 1952년에 설립된 후 기관의 임무는 대통령 비밀명령에 따라 일체 비밀에 붙여져 있다.

지금 일본에는 NSA 수신기지가 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해군이 관리하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가미요리다니(上瀬谷) 통신기지, 공군 6986 보안부대가 관리하는 북해도 최북단의 와카나이(稚内) 통신소, 육군보안대가 관리하는 씨도세(천세) 통신기지 그리고 육군 12보안부대가 관리하는 히라오(평미) 통신기지 등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上瀬谷기지에 있는 전파수신장치는 소련군의 교신, 소련 레이더에 비치는 영상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KAL기사건의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것도 이곳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까닭에 소련도 이 기지에 대해 신경을 몹시 쓴 나머지 1963년에는 캐나다 여권을 위조하여 전자기기 수집상을 가장한 스파이를 이곳에 침투시키려다 CIA에 납치당한 007극을 벌인 일도 있다.

이곳에서 수집, 분석한 정보는 5분 이내에 백악관의 정보분석실로 보내지는 만큼 미국이 KAL기 사건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며 다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은 정보능력을 상대방에 알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과 소련이 설마 비무장 민간기를 격추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일본의 NHK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한편 일본의 자위대도 북해도의 히가시씨도세(동천세), 히가시네무로(동근실), 와카나이(稚内), 니이가타(新潟)현의 고부네와다리(小선渡) 등 9개소에 통신소와 파견대를 운영하여 독자적인 대소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이번의 KAL기 격추사건에서도 항공자위대의 레이더와 운수성의 동경국제통신국의 KAL기와의 통신내용 외에 북해도에 배치된 전파수신기지를 통해 소련기의 교신내용을 캐치해서 분석해 냈었다.

위성도 감시하고 있다.

또 KAL기 피격사건으로 드러난 것에 알류산열도의 세미야도에 있는 미국의 정교한 청취기지와 북해도 북부의 미사와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청취기지가 있다.

이들 기지에 녹음된 정보들은 일본의 민간관제소에서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청취기지에서 포착된 민감한 군사통신에 이르기까지 다른 다양한 소스들과 종합 분석되어 소련전투기와 KAL기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소련의 태평양연안 일대가 세계에서 가장 면밀히 관찰받고 있는 지역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곳은 2개의 주요 해군기지가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미사일적재 잠수함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목표들에 대한 정찰지역이기 때문이다.

세미야기지에 있는 장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코브라 메인레이더가 있다.

미사일 시험을 감시하고 모든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는 이 레이더는 3천 6백 80km의 거리에서도 야구공을 관찰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청취기지를 잃은 뒤, 중공의 주요 내륙 깊숙히 설치한 또 다른 이상추적소들은 시험미사일들이 보내오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소련의 무선과 레이더 시그널을 잡아내고 있다.

한편 우주공간에서 수집되는 정보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 저공궤도에 있는 위성들은 소련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종횡으로 체크 하면서 통신정보를 기록·수집하고 있다.

또한 3천 6백 80km의 높이에 있는 위성들은 지구와 같은 속도로 돌면서 활동하는데 그중 일부는 지구상의 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시그널까지 잡아낼 정도로 민감하다.

위성들은 대체로 적도 일대에서 가장 높은 능력을 발휘하며 KAL기 격추사건이 빚어진 북寒帶 등에서는 아무래도 기능이 약한 편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정보들은 즉각 워싱턴 북쪽에 있는 NSA에 전달된다.

NSA는 각종 언어로 녹음된 이들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컴퓨터에 넣어 문제의 사건내용을 일관성있게 재구성한다.

NSA의 이러한 방대하고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이번에는 로보트까지 등장할 판이다.

미공군은 북극권의 조기경보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신형 단거리 레이더를 사용하는 로보트를 배치할 계획이다.

매사추세츠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 전자장비사단은 '83년 여름 이와 관련한 연구

제약을 체결하고 '80년대 중반에 무인로봇 레이더를 처음으로 조기경보체제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자장비사단의 윌리엄·F·스틴슨 중령은 「현재의 조기경보체제가 몹시 낡았다」면서 「이 체제는 지난 '50년대에 폭격기의 위협에 대비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신형폭격기의 성능과 순항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해선 이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알래스카-캐나다-그린랜드의 전장 4천 8백km를 감시하는 31개소의 조기경보레이더망이 50개소로 늘어날 것이며 이중 37개소는 저공비행 폭격기와 순항미사일 탐지레이더를 사용하는 로봇트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소련기도 미기지를 감시

한편 소련도 △ 무르만스크에서 이륙한 첩보기가 북대서양에서 쿠바까지의 상공을 비행하며 미국의 동부군사기지를 체크하고 있으며 △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기지에서 발진한 첩보기가 일본 영공 부근을 비행하며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미군기지를 정찰하고 있고 △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한 첩보기는 디에고 가르시아 등 북인도양 일대의 미함대 이동상황과 페르샤만을 정찰하는 등 첩보전은 이른바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서방국가가 민간항공기를 스파이용으로 쓰는 경우는 없지만 소련의 첩보비행은 민간항공기로도 수행되고 있다.

소련과 東歐민항기가 지난 '80년 이래 미국영공을 77회, 싱가포르 영공을 8회 침범한 것은 모두 이런 스파이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방정보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소련은 여러 종류의 수많은 스파이기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TU-99베어기·베저기·블라인데기 그리고 폭스배트기가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다.

폭스배트기는 최고 36.9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그 고도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다.

TU-99 베어기는 미국의 RC-135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미국해안을 탐정하다가 여러 차례 발각되어 쫓겨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스파이기들은 서유럽과 NATO기지 감시에 혈안이 되어 영국영공에 들어왔다가 영국공군의 팬텀기의 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소련은 방위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크루즈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저공탐사 레이더망의 개발에 일단 성공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3백억~5백억달러를 투입하여 1백대의 장거리 레이더항공기와 저공탐사 및 擊墜레이더를 적재한 수천대의 제트전투기와 약 1만기의 지상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의 새 크루즈미사일 요격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케리 미국방차관이 78년 11월 14일에 밝힌 바 있다.

케리 차관은 이날 각종 방공망에 대한 제

트추진식의 소형 크루즈 미사일 발사실험을 끝낸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소련의 현 방공체제는 이번 실험결과 크루즈 미사일의 위협 앞에선 속수무책임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소련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적어도 크루즈 미사일을 한꺼번에 최고 3천기씩 발사, 소련에 집중적인 핵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크루즈 미사일은 컴퓨터로 공격목표를 정확히 찾아낸 후 소련해안 약 8km 상공의 B52폭격기에서 발사되는데 미국은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1백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또 현 크루즈 미사일계획이 소련의 요격체제 개발 노력보다 2~3년이 앞서고 있

으므로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전자통신 교란장치를 비롯한 보다 고속의 소형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국방성의 현단계 계획이 정당함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SA10으로 불리는 소련의 신형 지상 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에 대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대량배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AL007기도 결국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됐는데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나날이 증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서방측의 요격태세와 레이더 탐지활동은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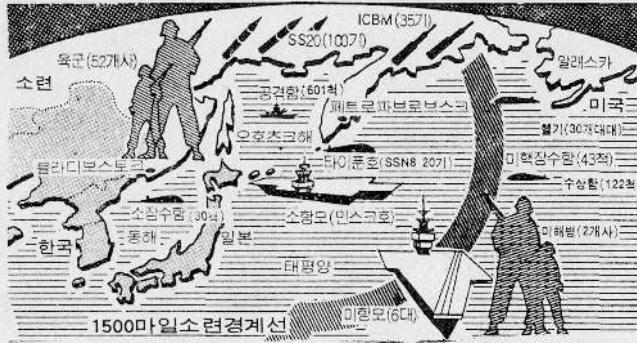
너와 나의 間諜신고

国家안정 家庭안정

● ● ● ● ● 美·蘇 核戰爭과 當面課題 ● ● ● ● ●

— 미·소의 군사력 비교 —

李 善 浩
(국방대학원 교수)



그 사용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핵전략 이론이 대두되어 왔었다.

1. 문제의 제기

가. 군사전략 이론의 요건

핵무기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장래의 전쟁양상을 논하고 또한 힘의 사용을 관리·지도하여 그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전략 이론이 도입되었었다.

특히 1945년 7월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알모고드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무기 시험으로 핵시대가 개막된 이래 핵무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핵무기 사용이나

그런데 군사전략 이론에 대한 개념은 주요 군사대국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채용되었으니, 서방측은 작전상의 개념에 국한하여 그 명제는 힘의 행사 혹은 그 행사의 위협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소련은 이와는 달리 군사전략은 「전쟁의 성격」과 이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국가와 군의 전쟁준비에 관한 공인된 견해의 체계로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소련의 군사과학의 관점 속에는 전쟁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여러 문제의 전 범위가 포함되

어 왔던 것이다.

군사전략 이론은 국가의 지도자나 군부 고위층의 발언과 연설 속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만, 한 나라나 그 동맹집단의 군사적 준비활동, 즉 군사력 조성 및 배비에 관한 결정, 군사교리, 군사, 정치관계의 정기간행물이나 서적에도 반영된다.

국제관계 속에서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한 핵전략 이론도 핵무기의 역할에 따른 논자의 태도에 따라 몇 개의 학派로 나누어져 왔는데 이는 핵무기의 전면적 용인과 혹은 회의파와 상대주의파, 그리고 전면적 거부파 등이라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시 해야 할 것은 핵무기의 사용이 국가안보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는 이론은 유엔현장의 기본이념인 「법을 통한 평화」란 슬로건과 내립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또한 군사전략 이론의 방법과 의의를 고찰해 볼 때 하나는 전략이론 내지 전략이론적 발언이 여러 가지 정치적 및 군사적 목적에 원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특정 전략이론이 전쟁수행을 위한 작전구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평화나 정세에 관계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대상은 군사적인 잠재 적국이나 그 동맹국인 것이다.

전략이론의 신뢰성은 당연히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에 의해 좌우된다.

즉 어떤 전략이론이라도 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하고, 또한 필요시에는 이 힘을 행사하려는 국가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전략 이론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승전전략이 되어야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전략도 되어야 하고, 또한 억제가 실패시 최단시간 내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전략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국가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핵무기와 억제

억제의 현상은 인류출현과 더불어 존재해 왔다.

억제란 힘의 행사를 통한 위협을 바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의사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가할 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보복을 받게 될 것 이란 것을 심리적으로 납득시켜 스스로 자제케 하는 공갈수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억제전략의 원리는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전략 이론의 기본원칙으로 되어 왔으며, 핵시대 도래와 더불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과잉살상력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핵 억제개념은 통상 무기에 의한 억제와는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핵상황하에서의 억제장치는 시·공간적으로 즉각적이고 범세계적인 효과가 수

반되기 때문이다.

분초를 다투는 핵공격은 일국을 회복불 가능한 상태로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 나라의 방위능력은 종전까지는 억제 를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어 왔다.

이는 적이 침략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그것 때문에 뒤따르는 손실이 더 크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핵억제는 방위력으로 설계된 핵전력의 기초 그 자체가 바로 공격 전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억제는 기본적으로 공격능력으로써 적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제2격 능력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이는 거부에 의한 억제, 즉 국지, 제한 전쟁에 있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란 위협을 통해 억제의 기능을 달성하려는 생각이나, 고위력의 전략핵전력의 상호교환까지 이르는 핵의 단계적 확전의 위협을 전제로 한 징벌에 의한 억제를 그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개념이 오늘날 방위 능력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ABM과 같은 방위체제의 기술상의 비약적 발전이 공격전력을 중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SALT나 START 등 핵군비 통제를 위한 초강대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상호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

문이다.

억제에 대한 사고는 예상되는 피해의 크기가 일정수준을 넘어 설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것이란 전제 하에 성립한다.

60년대 중반에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은 상대국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은 인구의 1/4 내지 1/3과 산업능력의 1/2 내지 2/3의 파괴가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한 핵전력의 소요는 4 백 메가톤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소련의 제1격을 받고도 미국은 제2격으로 소련 인구의 2/5와 산업시설의 3/5 이상을 파괴할 수 있는 실증파괴력이 있다고 과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의 이와 같은 상호확실파괴(MAD)에 의한 억제개념을 수용치 않고 미국의 제2격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존하여 제3격으로 더 큰 피해를 미국에게 줄 수 있다고 확신한 나머지 방어전력 위주의 핵능력을 양적으로 미국보다 앞질러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소간 핵무기와 핵전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억제전략이론이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 80년대의 현실적 문제인 것이다.

2. 핵억제전략 이론의 허실

60년대 초에 와서 핵무기에 의한 억제가 내재하고 있는 거대한 위협의 수준에 따른 인식과 한편 핵무기체계의 발달과 다양화가 대량보복전략에서 유연반응전략으로 이

행되는 기본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이론은 정세의 중대성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다고 보는 수단(통상전력, 전술핵전력, 전략핵전력)을 선택적·단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적의 공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연반응전략 이론은 NATO의 기본전략 개념이며, 미국은 지난 20년간 역대 행정부에서 이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변형된 전략개념을 발전시켜 왔으나 그 근본은 유연반응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핵억제전략 이론은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위협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심리적 작용으로서 민간인을 인질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은 컴퓨터가 하지 않고 인간의 이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핵전쟁의 수행은 인간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하에 놓이게 될 때는 억제의 장치가 작동치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억제가 실패시 완전한 해결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정교화된 핵억제전략이라 할지라도 현실과의 의미상관성을 볼 때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핵억제의 전제조건은 억제의 주요성격을 관계 제국이 상호 이해하고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억제에 대한 사고방식은 초강대국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서로가 상대

방에게 전략이론이 알려져 있는지와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문제인 것이다.

어떤 군사전문가들은 일방에서 표명된 전략이론은 번증법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반대의 전략이론으로 창출되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앞서 지적한 미·소간의 핵전략의 비대칭성에 따른 억제 효용성 상실현상인 것이다.

인간이 핵전쟁수행의 결정에 의해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긴장된 상황에 놓일 때, 정책결정자는 집행자가 이미 정해놓은 전략이론의 모든 규칙에 따라 행동할지가 의문시되며, 각 분야의 인간활동과 더불어 전쟁수행에 따른 모든 조치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때로는 오류를 범하고 행동의 돌발적인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억제체제에 입각한 평화는 관계국의 전력 사이에 대략적인 대등성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전력의 비취약화와 비도발화란 문제와 직결된다.

만일 상대방이 당사국을 지나치게 약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제공격을 가하게 되고, 상대방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믿을 때는 도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억제는 불확실성 속의 균형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과 전력, 공격전력과 방어진력, 그리고 질과 양의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포괄적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이른바 필수적인 대등

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대등성을 SALT-II에서 찾으려고 했으나, 양적 균형에 있어서의 지나친 열세를 만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제 미국은 START란 새로운 개념으로 핵군비통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균형된 감축과 검증가능한 장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탄두의 고성능화와 정확도의 향상에 의한 질적우위를 바탕으로 양적 열세를 견제하면서 목표과파력(CPM)의 우위를 견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핵억제전략 이론의 안전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비판의 하나는 억제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상황진전 및 처방문제인 것이다.

아 물론 전후 핵억제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여 아직 핵무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허다한 제한, 국지전쟁은 야기되었으나, 억제전략의 논리에 따라 다수의 세계 분쟁을 예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억제전략이 모든 기능을 다한다고 해도, 핵관리의 기술적 실패에 의한 인간의 오판으로 핵전쟁이 우발적으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핵무기 제조기술의 보편화로 원자료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핵분열성 물질의 적정량만 유출시키거나 국제암시장에서 획득하거나 또는 폭력조직에 의해 탈취하게 되는 경우 소규모의 조잡한 전

술핵무기를 제조하여 이를 시험하지 않은 채 사용하게 될 때 기존의 핵전략 이론은 그 뜻을 잃게 된다.

3. 핵기술 발전

핵무기 사용의 위협에 기초를 둔 핵전략 이론은 그 위협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범위가 더욱 더 확대되고, 복잡 다양해짐과 동시에 정교해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었다.

전략이론이란 하나의 이론적 복합체로서 방위정책의 기반이 되며 또한 군대의 배치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핵무기의 연구, 개발, 제조의 기초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주요 군사대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무기체계 개발을 촉진한 것은 전략이론이라기 보다 오히려 군사전략이론의 조정을 재촉해온 기술상의 발전이었다.

초강대국의 억제가 국민의 상호 인질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한, 선제 제1격에 의해 상대방을 잠재적으로 무장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핵억제의 불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더욱 이러한 주장은 무기경쟁을 계속 하게 하는 구실로서도 왕왕 사용되고 있다.

지하 사이로의 건설, 대륙간 운반수단의 강화, 미사일 발사능력을 가진 기동성과 불가시성 때문에 취약성이 해소된 전략잠수함대의 도입,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의 전

환·폭격기와 같은 취약성있는 전력의 경제 태세유지…… 등이 억제외 안정화에 기여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전력이 취약화되면 될수록 그 국가는 상대방의 보복목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바 제 1격으로 선수공격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견고한 표적에 대하여 사용되는 고정확도의 무기출현은 대항전력을 뒷받침한 새로운 대응전략론의 발전을 자극하게 된다.

사이로에 들어있는 대륙간탄도탄이 파괴될지 모르는 위협 때문에 견고하나 방어 또는 수량의 증가로 비취약화가 달성될 수 없거나, 대륙간탄도탄 전력이 전략공격력의 일부로서 사활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될 때는 미·소 공히 대륙간탄도탄 전력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불안정한 상태로서 즉각 발사체제 자체가 지닌 우발적 오인발사 가능성이란 결함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초강대국의 일방이 전략무기경쟁에서 패배가 예상될 때는 즉각 발사체제를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핵교전을 개시할 도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불안정한 요인을 조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기술발전의 측면은 점점 정교화되어 가는 핵기술이 제반 전략이론의 개념을 흐리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전략이론을 앞질러 선행하기 때문에 전력과 전력의 용납성이 결여되고 있는 현상을 보

이고 있다.

공격과 방어, 억제와 방위, 전술핵무기와 전구핵무기 및 전략핵무기의 구분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회색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정책과학자인 드로가 「문제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지만 그 처방요원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듯이, 핵전략체제의 상위체제로서 핵전략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가운데 그 하위체제인 과학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앞서 가는 현상 속에서 핵문제를 위요한 갖가지 곤란성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전략이론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국제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4. 소련의 핵전략이론

소련의 핵전략이론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이 공공연히 표명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결정자들의 발언, 군사력의 배치, 군사사적 등에서 유추해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련의 전략이론에 대한 서방측의 일반적 인식은 제약되어 있고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오도될 잠재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소련에 의한 세계적 군사균형에 안정화의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 불안정화의 요인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소련의 군사전략이론의 내용은 정치와 군사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전쟁의 정치목적과 그

성격 그리고 요인이 군대 편성과 군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쟁수행 수단인 군사력의 구조와 군비조성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전략은 군사·정치적 양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소련의 군사전략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세적이고 군사적으로는 공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80년대 초반에 와서 후르시초프가 「세계전쟁이 제국주의 침략자에 의해 개시된다면, 소련은 불가피하게 핵미사일 전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다분히 미국을 모방한 억제와 대량보복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롤스키 원사의 「소련의 군사전략」이란 저서에서도 핵전쟁의 확산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60년대까지의 소련의 군사전략은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일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70년대 와서 소련은 통상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전략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의 60년대의 유연반응전략을 답습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소련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 국지 제한전쟁의 가능성 및 전면 재래형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대량 보복적 속성을 내포한 핵전략개념을 시험하고 있으나 제

1격능력을 바탕으로 한 선제공격전략과 제3격능력을 배경으로 한 핵전쟁 승리사상은 핵전략이론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본다.

5. 결 론

국제적 안전보장에 대한 억제전략이론의 영향과 핵무기의 존재 및 그 무기체계의 기술적 발전의 영향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핵무기가 국제적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정의하려면, 핵무기의 사용조건과 그 사용을 규제하게 되는 전략이론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한 가지 분명한 의문은 전략이론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다.

한 나라가 일정한 전략이론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이론과 현실과의 괴리현상인 것이다.

현행 전략이론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정세가 전략이론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한 확실성있는 회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전쟁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종결되었던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핵전쟁은 제어할 수 없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팽배해질 때 핵전략이론의 신뢰성은 손상되고 만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는 핵전쟁이 발발

했을 때 전략이론의 시나리오간의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사목표를 겨냥하는 대군사력 공격과 산업시설을 겨냥하는 대도시공격의 경계선이 지극히 불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효과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군사적 표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한 비군사시설과 민간인에 대한 부수적 피해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제문제를 핵상황진전에 따라 전략이론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모든 전략이론은 그 나름대로 안전보장에 미치는 다른 측면의 뜻을 지니고 있다.

핵억제전략은 궁극적으로 대량보복전략에 수렴된다.

유연반응전략 개념하의 갖가지 형태의 전략이론과 최근의 상쇄전략까지도 결국은 대량보복을 내세우는 핵공갈전략임에 틀림없으나, 억제가 실패시 국제사회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회복할 수 없는 인류문명의 파괴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현실적 국제정치형태가 Y이론이나 Z이론이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이상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궁극적 완전 폐기를 지향하면서 현존핵무기의 전량 국제관리에 미·소가 합의하는 길이다.

<명언>

전쟁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하듯이 平和를 위해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고 막바지에 이르는 능력은 필요한 기술이다. 네가 만약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거나, 위기에 이르기를 두려워 한다면, 너는 진 것이다.

— J. F. 딜레스, J. 세폴리의 <딜레스 전법>에서 —

管理科学 模型의

实用性 考察



曹 永 喆
(에비역대령)

1. 序 - 管理科学의 意義

管理科学이란 組織이 當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効率的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評價하는데 必要한 解決案을 찾는 科学的인 原理나 技法을 利用하는 一種의 接近方法(Approach)을 말한다.

管理科学이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는 科学的 技法이나 原理로서는 綜型計劃(Linear Programming), 게임理論(Game Theory), 큐잉理論(Queuing Theory), 統計的 意思決定理論, 体系分析, OR, 시뮬레이션(Simulation), 몬테칼도法(Monte Carlo Techniques) 등이 있다.

이러한 管理科学은 科学的 方法과 数学的 및 計量的 模型構成, 心理社会的 側面보다는 經濟的 技術的 側面, 그리고 全体的인 体制接近方法을 강조하고, 문제해결의 体系的인 接近과 道具로서 컴퓨터를 利用하여 解答을 찾으려고 한다.

목 차

1. 序 - 管理科学의 意義
 2. 管理科学의 發展
 3. 組織行政에 있어서의 管理科学의 重要性
 4. 管理科学의 適用過程
 5. 管理科学 實用化의 成敗要因
 6. 韓國行政文化의 實際
 7. 結語 - 展望과 課題
- 註 解析
參考文獻

또한 叙述的 模型(Descriptive Models) 보다는 規範적 模型(Normative Models)을 指向한다. 다시 말하면 理想的, 合理的인 最適模型을 追求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오늘날 社會가 복잡화되고 社會를 구성하는 各 要素들 間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行政環境 속에서 점차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資金難, 더 높아져 가고 있는 國民들의 主權의식 등으로 組織관리자들은 제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体系的이고 깊이 있는 分析에 의해 얻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은 복잡한 模型들을 活用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組織行政過程에서 管理科學의인 方法과 節次의 活用을 促進시켜 주었다²⁾.

이러한 時点에서 本稿는 管理科學의 適用과 관련되는 우리나라의 行政文化와 其他 요인들을 검토하고 管理科學의 적용상의 문제와 전망을 고찰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2. 管理科學의 發展

管理科學도 大部分의 學問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여러 學問的 概念과 哲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管理科學은 19세기 말 이후 企業經營에서 發展된 科學管理論의 후예(Descendant)라고 할 수 있다.

초기의 科學的 管理論은 테일러와 그 추종자들은 經營의 합리화를 위해서 종업원 의 기능을 分析하여 組織의 제반 활동 등

을 계획하고, 개개 종업원의 作業(Task)에 대한 일련의 生活標準을 개발하여 관리함으로써 組織의 生産性 向上,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Arch W. Shaw는 商品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體系計劃(System Planning)의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엔지니어였던 Gant는 作業계획과 그 完成에 소요되는 時間의 關係를 도면으로 作成한 Gant Chart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科學的 管理論은 문제의 해결에 수학적 방법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고, 組織을 하나의 體制(System)로서 보고 디자인하거나 管理하는 知識體系나 技法을 確立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第2次世界大戰中인 1940年 英國에서 軍事問題의 해결을 위해서 개발된 OR, 선형계획 Game Theory와 戰後의 응용수학의 발달, Simplex method의 개발, 體制分析의 發展 및 컴퓨터의 發展에 따른 大量情報處理의 可能性이 增大한 데 있다.

管理科學은 이와 같이 여러 技法들이 組織의 問題解決 및 管理의 問題에 응용하면서 생겨난 學問이며 接近法이라고 할 수 있다. 戰後에 産業經營의 급속한 팽창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보다 새롭고 한층 더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問題點의 解決은 고도의 새로운 科學的 技法의 적용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기업經營 쪽에서 발전된 管理科學은 政府行政管理에 있어서도 그 重要性이 강조되고 적용성이 고조되어 왔다³⁾.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미국 國무성의 PPBS의 채택과 RAND 연구소 등이

행정해결과 계획을 위해 科学的인 分析方法을 使用하여 研究프로젝트들을 수행함으로써 行政 各 機關에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年代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個年계획을 作成하기 위해 科學的 管理法를 使用하였고, 1978년부터 1982年 사이에 第1次行政電算化 基本計劃이 수행되었으며, 1983년부터 第2次行政電算化 基本計劃이 추진됨으로써 政府 各 機關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 活用하게 되었다.

3. 組織行政에 있어서의 管理科學의 重要性

管理科學은 組織의 當面한 問題를 合理的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效率的으로 執行하며, 妥當性이 높은 方法으로 評價하는데 必要한 情報를 產出하는 過程에서 응용되는 計量的인 分析方法과 절차로써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을 利用하면 正確한 記述의 可能性이 높아지게 된다. 科學의 目的 가운데 하나의 現象에 대한 올바른 記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管理科學의 基礎가 되는 수학과 통계학은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精確하고 능률적인 記述을 可能하게 해 주는 記述的인 言語이다.

둘째, 管理科學에 대한 方法의 적용은 관찰된 자료로부터 여러 가지 결론을 도출하고 推論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결론과 추론은 管理科學에서 발전시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절차와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管理科學은 복잡한 事件의 뒤에 숨어 있는 因果的 要因들에 대한 統計的 分析을 可能하게 해준다. 많은 社會現象들은 인과관계에 의하여 發生되게 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들은 統計的 實驗의 方法에 의하여 그 「베일」이 벗겨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넷째, 管理科學을 利用하면 여러 가지 가능한 問題해결의 方案들 가운데에 最良의 行動代案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경우가 많다. 管理科學의 方法을 적용하면 많은 경우 의 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다섯째, 管理科學은 집행결과를 평가하는데 必要한 理論的 基礎를 提供해 준다. 다시 말하면 管理科學은 집행결과에 대한 必要한 정보를 妥當性이 있고 信賴性이 높은 方法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政策評價의 理論적 基礎를 提供해 준다⁴⁾.

4. 管理科學의 適用過程

管理科學이 관심을 갖는 問題는 組織의 特定한 상황과 相關하여 發生하는 實質적인 問題점이다. 管理科學은 組織의 전체 체계의 맥락 속에서 個別的인 問題의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科學方法의 근본적인 制원칙에 입각한다. 管理科學에 적용되는 一般的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Observation)이다. 이것은 組織이 해결해야 할 實質적인 問題를 인식하고 확인하는데 목적의 있다.

둘째, 問題점의 定義 및 規定(Definition

of the problem)이다. 그것은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질적인 여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개개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定義하고 規定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째, 假說의 設定(Formulation of a hypothesis)이다. 이것은 可能한 解決策에 관해서 여러 가지 假定과 假說을 세워보는 것이다. 管理科學의 적용에 있어서 假說은 보통 수학적 모형이나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그들의 相關성의 次元에서 기술하는 方程式의 形式을 取한다.

네째, 實驗(Experimentation)이다. 이것은 설정된 假說이 타당한 解決策을 提示하여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을 행하는데 目的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決定者들이 수학적 모형을 가장 유용할 수 있는 단계이다. 人爲的으로 造作된 상황하에서 가설의 타당성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다.

다섯째, 적용 가능한 해결책의 開發(Development of Operational Solution)이다. 이것은 어떤 理論的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결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실제 상황과 相關하여 또 다시 검증해 보고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다.⁵⁾

5. 管理科學 實用化의 成敗要因

管理科學 實用化의 成敗要因은 論議의 편의상 私企業部門과 政府部門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要因과 行政에만 통용되는 固有한 要因으로 区分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共通要因

첫째, 조직관리자와 相關된 요인들을 보면 組織의 최고관리자가 平素에 정책결정과 정에서 과학적 관리모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 모형에 의해서 분석된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哲學과 意志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의 形成, 目標의 設定, 代案의 作成 過程에서 管理科學者 또는 分析家들과 자주 접촉하며 고무해 주는가? 또 관리자가 未來指向的이고 刷新에 호의적이며 이를 受容하려는 態度를 보이고 있는가? 이 要因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요인들이 많을수록 관리과학의 實用化 可能性이 높다.⁶⁾

둘째, 관리과학의 實用化가 그 조직의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의 文化와 밀접히 相關되어 있다. 조직의 文化가, 변하여 저항적일 때에는 관리과학의 實用化는 많은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⁷⁾ 조직의 各級 관리자들의 管理哲學이 관리과학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거리가 멀 때, 조직 구성원들 가운데 관리과학의 實用化로 自己 固有의 업무가 위협받고, 自己位置의 重要性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조직변화에 대한 경직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고 관리과학의 實用化는 그만큼 어려워진다.⁸⁾

세째, 관리과학의 실용화는 관리과학자나

分析家들 自身들의 行態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관리과학자 또는 分析家들이 조직의 문제, 관리자의 문제와 情報의 수요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고, 이들을 토대로 올바른 行態의 문제를 形成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管理科学模型의 实用化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管理科学者와 分析家들이 成功的인 实用化를 위한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하는 것이 관리과학의 实用化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의 하나가 된다.⁹⁾

네째, 문제의 性格이 管理科学의 实用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구조, 목표의 수, 목표가 기술되는 方法 등은 모두 문제의 性格을 구성하며 이들이 바로 管理科学의 모형작성과 그 实用化에 決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¹⁰⁾

다섯째, 관리과학모형 그 自体의 적합성이 또한 实用化의 成敗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의 적합성은 여러 가지 次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으로서는 利用可能性의 次元과 資料의 次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行政管理의 실무면에서 볼 때, 利用可能性이 없고 부적합한 모형이나 자료의 부적합성, 자료수집에 지나친 비용과 시간소요는 중요한 沮害要因이며 이것을 어느 程度 극복해 갈 수 있으나 하는 것이 또한 实用化의 可能性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¹¹⁾

나. 政府行政部分의 要因

政府部門에는 관리과학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作用하기 보다는 오히려 실용화를 阻害하는 요인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 민감성의 결여, 핵심적 변수의 측정 불능, 비용과 시간을 너무 많이 要하는 성향 및 정부과업의 多目的 性格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부부문에 관리과학모형을 실용화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現實狀況을 모형에 반영시킬 수 있을 만큼 充分한 정치적 감각이 관리과학자나 分析家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事實이다.¹²⁾

둘째, 관리과학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變數들이 주로 測定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見解이다. 따라서 分析家들은 관리자가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형성하고 解答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¹³⁾

셋째, 관리과학모형을 活用한 연구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어느 특정한 상황에만 高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代案을 作成하며, 模型을 形成하고 必要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적정대안을 탐색해 내는데 많은 경비와 時間이 소요된다면 의사결정에 정보가 필요할 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管理

科学模型의 활용에 따른 장기간의 시간소요와 과다한 비용은 관리과학 실용화에 커다란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14)

네째, 정치부문에 있어서 관리과학 실용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과업의 다목적적인 성격이 私企業部門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사기업부문의 관리과학모형은 금전적 변수를 목적함수로 하거나 또는 이 금전적인 변수를 代用變數로 使用함으로써 목적을 單一化 할 수 있으나, 政府部門에서 取扱하는 과업은 많은 목적을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모형작성이 어렵다. 또한 정부부문의 공공사업은 목적과 결과가 多次元的이기 때문에 效用函數의 設定과 효용의 個人間比較가 어렵다. 15)

6. 韓國行政文化의 實際

行政文化란, 一定한 행정행위를 유발케 하는 한, 社會의 생활방식 전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으며, 社會의 지배적인 價值, 信念, 態度, 象徴, 慣習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6)

그러면 한국의 행정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權威主義行政이다. 우리나라의 政治風土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이라 함은 이미 밝혀진 事實이다. 우리의 행정문화 역시 이를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上意下達은 잘 되는데 反해 下意上達은 잘 되지 않는다는 事實에서도 볼 수 있다. 17)

둘째, 無事安逸主義行政이다. 이것은 行政上的 어떤 變動이나 改革을 싫어하고 現狀維持를 고수하려는 인습의 산물이다. 어떤 뚜렷한 업적이나, 획기적인 제도같은 것을 창안하느라고 물의를 일으키기 보다는 큰 탈 없이 무사하게 지내려는 생각이다. 18) 특히 창의성과 솔선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中堅管理層 以下에 公務員 大多數가 職業公務員制度라고 하는 안일한 「베일」속에 파묻혀 무사·안일을 일삼고 있는 것은 행정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째, 割拠主義行政이다. 관료들이 自己가 소속되고 있는 기관, 부처·국·과만을 종적으로 생각하고 他局, 課·部處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조정 협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19)

네째, 變化에 대한 저항이다.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保守性을 갖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관료의 自己保存에 대한 위협, 불안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나 現狀維持에 집착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外部變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變化에 낙후되기 쉽다. 20)

7. 結語-展望과 課題

管理科學의 活用과 重要性은 時代的인 요청이기는 하나, 제 아무리 知識과 能力이 겸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變化에 저항이 많은 보수성이 강한 관료적 풍토하에서는 管理科學의 實用化는 많은 時間이 要할 것 같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 오면서 행정과학화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고, 各種 행정사무의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機器의 개발 보급과 아울러, 컴퓨터의 대량보급으로 기업경영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에 있어서도 一大 轉換期를 맞게 되었다.

행정업무에 있어서 컴퓨터와 관리과학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고 있고 System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의 관리과학모형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우리는 행정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관리과학모형들을 널리 개발 보급시키고 나아가서 행정교육에 있어서도 이론만 치중하지 말고 管理科学分野에 비중을 높이고 행정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배양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各級 公務員들의 재훈련기관에서도 우리나라 행정문화의 병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의 비중을 높여 행정에 있어서 분석적 사고력을 기르고 이를 活用케 함으로써 行政의 科学化에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 註 —

- 1). Herbert L. Lyon et alis, "management Science in organizations" (pacific palisades california, good year publishings co, 1976), p. 3.
- 2). 盧仕俊, 行政計量分析, (서울: 法文社, 1985), pp. 2-3.
- 3). 盧仕俊, 上揭書. pp. 6-7.
- 4). Yehezkel Drov, "Design for policy Sciences" (New York: Elsuvier, 1971), pp. 15-17.
- 5). Hevhert L. Lyon et alis. op. cit., p. 9.
- 6). Hugh J. Waston and Patrica Gill Marett "A survey of management Science Implementation problem", Interfaces, vol. 9. No. 4. (August 1978), pp. 124-125.
- 7). C. Jackson Grayson Jro,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practice",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73, p. 44.
- 8). Waston and Marett, op. cit, pp. 124-126.
- 9). Grayson Jr., op. cit, pp. 47-48.
- 10). A. G. Lockett and E. polding, "OR/MS Implementation-A Variety of processes", Interface, vol. 9. No. 1. (November 1978), p. 46. : Allan Harvey, "Factors Making, for Implementation Success and Failure" management science, vol. 15. No. 6, (February 1970). pp. B-315-B-316.

- 11). 盧仕俊. 前掲書. p. 914.
- 12). Victor Thompson, *Bureaucracy of Innovation*, (Alabama :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69). pp. 54-57.
- 13). Thompson, *op. cit.*, p. 56.
- 14). C. Jackson Grayson Jr., "Management Science and Business practice :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73), pp. 41-48. : Bertram M. Gross, "The New system Budgeting :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 2 (March 1969), p. 128 : Aron Wildavsky, "Rescuing policy Analysis from PPB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9, No. 2 (March 1969), p. 191.
- 15). Aron wildavsky, "The political Economy of Efficien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6, No. 4, (December 1966), pp. 233-234.
- 16). 金鳳式 "韓國官僚制의 特徵" 尹謹植 外, 現代政治와 官僚制, (大旺社, 1976), p. 474.
- 17). 尹天柱 "韓國政治体系" 고려대학출판부, 1961, p. 249.
- 18). 金鳳式, 韓國行政學報 vol, 1, No. 2. 1968, p. 252.
- 19). 朴東緒, "韓國行政論" 法文社 1984, p. 231.
- 20). 朴東緒, 上掲書, p. 231.

参 考 文 献

- 1). 白完基, 韓國의 行政文化, 서울 : 고려대학출판부, 1984.
- 2).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 : 法文社, 1984.
- 3). 金光雄, 行政科学叙説, 서울 : 博英社, 1983.
- 4). 金雲泰 外, 韓國政治行政의 体系, 서울 : 博英社, 1982.
- 5). 盧仕俊, 行政計量分析, 서울 : 法文社, 1985.
- 6). 金鳳式, "韓國人の 思考方式을 通해 본 韓國行政文化", 韓國行政學報. 第 1 輯 2 號, 1968, pp. 341-354.
- 7). 劉鍾海, 金繁雄, 金永燮, 行政學세미나, 서울 : 考試院, 1982.

◆ 北韓의 教育實像 ◆

= 유일체제의 도구화 =

編輯室



1. 教育 정책

가. 教育 이념

북괴는 이른바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막스-

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한편 노동당 규약에서는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막스-레닌주의 당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마스-레닌주의가 그들의 이념체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1918년 8월 28일 소위 「교육활동 제 1 회 러시아 대회」에서 「우리들은 근로 피착취자들의 지배를 공공연히 선언한다. 이것은 국민교육의 분야에서도 똑같다. 부르조아 국가에서는 학교가 자본가들의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학교분야에서 우리들의 일은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과 똑같다. 생활에서 유리되고 정치에서 유리된 학교란 허위적이며 위선임을 공공연히 선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닌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 후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학교교육의 지침이 되었으며 북한의 교육도 이와 같은 이념 밑에 진행되고 있다.

북한 헌법 제3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교육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할 것이다」라는 말과 같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란 1968년 3월, 김일성의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 교양하자」에서 비롯되어 1969년 12월 「로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때의 김일성 “교시”로서 완성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즉, 북한이 마스-레닌주의와 이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체사상」을 그들의 교육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그들의 정치적 수요에 대응하여 제기되고 있다. 즉,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이 필요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기술적 인간」이 요청되고,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체력이 튼튼한 인간」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국방체육이 북한교육 내용의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나. 교육목표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소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 즉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등 혁명적 세계관에 투철한 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사업을 강화」(《로동신문》70. 5. 16) 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따라 학생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교양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음으로써, 교육의 기본목적들을 두고 있다(1980. 10. 13〈《로동신문》〉). 따라서 모든 학교에는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연구실」을 두고 「김일성의 혁명력사」를 암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어버리 수령과 영광스러운 당중앙(김정일)의 한없이 높은 은덕」을 꼭꼭각시처럼 외우게 하고 있다. (〈천리마〉 1982. 6 월호)

북한교육의 장기종합정책지침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전문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산주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고,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사업의 원칙으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며, 주체를 세우고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며,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테제에서 학생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그리고 학교를 「혁명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라 정의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교육목표는 공산당의 궁극적

목표 달성, 즉 폭력에 의한 정권탈취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지적 및 육체적 능력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필요한 인간기계」를 제조하는데 있는 것이다.

※ 북한의 평양방송('84. 9. 1)은 북한의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즉,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되는 교육은 그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을 다하는 참다운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2. 학제와 교육과정

북한의 현행 학제를 간추려보면, 2년간의 유치원 과정과 4년간의 인민학교(우리의 국민학교), 6년간의 고등중학교(우리의 중, 고등학교), 그리고 4~6년간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 고등전문학교, 교원대학, 공장대학 등의 특수교육기관이 있다.

유치원 과정이 국가적인 제도로 크게 보급,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여성인력을 노동인력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리고 인민학교의 연한(4년)이 짧은 것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공통적인 것으로서, 이는 국가나 가정에 의존하는 소년기를 단축하고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일꾼으로의 의식을 앞당겨 심으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여기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과

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민학교는 주당 교육시간이 1학년 25시간, 2학년 26시간, 3학년 26시간, 4학년 29시간씩 각각 배정되어 있으며,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체육,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 10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3~4학년은 이러한 10개 과목 외에 역사, 지리, 자연 및 실습과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습은 주로 학교에서 생산과 결부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민학교 과정에서부터 1인 1기의 실기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학교의 전 과목에 대한 총 배정시간은 3604시간인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은 국어과목으로 1700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학 850시간, 체육 272시간,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이 136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인민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고등중학교의 교과과목을 보면, 국어, 문학, 영어, 로어, 역사, 지리, 생물, 물리, 화학, 체육, 도화, 제도, 음악, 위생,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3학년 부터는 음악시간이 없어지며, 4학년부터는 기술이론과목이 추가되어 점차 기술이나 실습과 관계되는 학과시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참고로 여기서 드러난 북한의 각급 학교 연간 총교육 배정시간은 여름과 겨울방학 전 기간에 실시되는 “좋은 일하기 운동”에 동원되는 노력봉사시간이 제외되었음을 밝혀 둔다.

3. 교과별 내용

북한의 교과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① 김일성을 신처럼 찬양하고 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도록 만들어진 책 ② 인간존엄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가르치는 반교육적 내용 ③ 우리의 역사를 멋대로 왜곡, 난조 ④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조적 사고를 인정치 않는 원시적 교화중심적 강제주입식 방법의 내용 구성 ⑤ 민족동질성 파괴 등으로 요약된다.

가.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그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기술한 책

모든 교과서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하여 하늘같이 높은 존경과 찬양, 그에 대한 무한한 감사, 그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맹종심을 표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첫 페이지 전면에 김일성 사진을 실고 그 위에는 과거 사진첩에서 사용하던 반투명의 흰종이를 끼워, 교과서에서 김일성 사진에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현했다.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인 「사회」 교과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교과서는 모두 80쪽의 분량으로 3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즉 제1과가 “김일성 원수님”, 제2과가 “만경대”(김일성이 태어났다는 곳) 등으로

시작되어,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제14과), “책을 사랑하신 원수님”(제19과), “원수님께서 주신 겨울옷”(제28과),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제30과) 등 거의 대부분이 김일성의 말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하여 전체 80쪽의 교과서에 김일성의 이름이 83번이나 나오고 있어 1쪽당 한 번 이상이 나오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서 맨 앞에 모조지를 덮은 김일성 사진이 수록되어 있고, 교과서 내용에도 총 삽화 41개 중, 김일성을 그렸거나 김일성과 관계되는 삽화가 17번이며, 나머지의 대부분도 어떤 형식으로는 김일성과 관련되는 내용의 삽화로 되어 있다. 이처럼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인민학교 1학년 과정의 사회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시켜 모든 분야에서 거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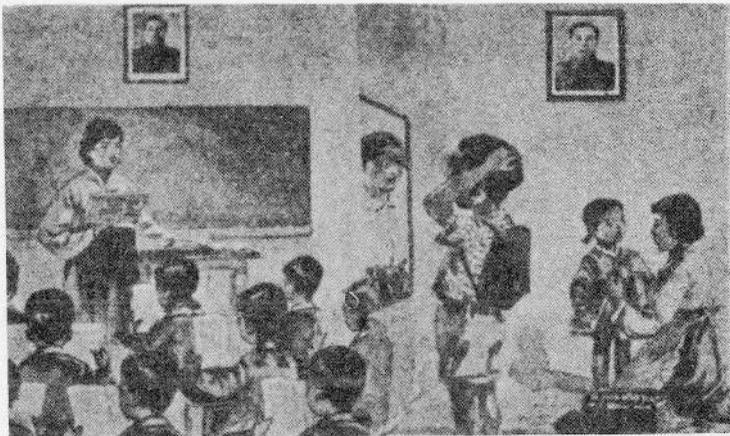
또한 기존의 학문이나 교과내용과는 관계없이 김일성이라는 한 개인과 그의 집안을

과장, 미화, 우상화시키는 내용의 교재가 학교의 정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교재는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김일성 원수 혁명력사” 등 학교 및 급별로 다양화 되어 있다. 교재내용을 보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농업 등 모든 분야의 모든 활동이 오로지 김일성 개인이 생각 해내고 창조한 방법으로 지도해냄으로써, 북한이 세계 제일의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되었다고 서술함으로써, 김일성을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미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천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색적인 표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표현 등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리」과목의 경우에도 학습요점란에 반드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를 제시하고, 역시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조선지리 1에 있는 “머리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 9 번이나 언급되고 있으며, “해방된 조국땅 위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전체 인민이 다같이 잘사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발전시키시었다” 등의 우상화작업이 곳곳에 시도되고 있다.

「역사」과목에서는 현대사부분이 김일성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대한 영도자로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6. 25전쟁을 「미제의 침략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역사」교과서에 계급투쟁의식과 지나친 개인숭배를 주입시켜 아동들의 객관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고 있다. 또한 역사를 멀리하고 인격의 도야와 순화를 꾀하기 보다는 호전성과 적개심을 길러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국어」는 모든 내용과 소재가 김일성과 혁명과업에 관한 것들이다. 즉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내용이 시, 소설, 수필, 평론, 회곡 등의 소재가 되고 있다.

〈실례〉

시: “사령부의 방차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

소설: “포화 속에서”, “피땀한 원썩” 등

회곡: “피바다”, “승리의 기치따라”

수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열렬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언어학적 지식이나 문법에서도 김일성과 공산이념에 연결시키는 등 모든 것을 김일성이 만들었고, 그의 은혜로부터 가능해졌다는 식의 철저한 개인우상화작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미국을 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김일성만을 신 이상으로 우상화하였으므로 가족구성원 간의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따뜻한 인간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데서 불신감을 파생시키고 있다.

한편 고등중학교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김일성 우상화 내용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김일성 우상화 내용

○ 세살난 어린이가 김일성 노래를 부름.
(고등중학교 2년)

○ 수령을 보고 싶은 생각에 아침밥 먹는 것도 다 잊었다.

○ 김일성과 로동당에 의해 우리 글이 쓰이게 되었다.

○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이 수령의 교시를 따라 생활한다. (고등중학교 3년)

○ 김일성의 가르침으로 모든 고난과 애로를 극복 (고등중학교 2년)

「외국어」과목에서도 김일성 우상화는 제외될 수가 없다. 영어는 기초단계이므로 우상화나 왜곡된 내용이 많지 않으나, 「로어」와 일본어교과서(조총련교재)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본어 교과서에는 각 과마다 “경애하는 수령”란이 있다.

「수학」교재에서도 교과서내용 중 “김일성”이란 글씨는 모두 굵은 활자로 되어 있다.

머리말에는 김일성교시가 제시되고 있으며, 연습문제를 김일성과 관련시켜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기쁜날은 몇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달력에서 찾아 보시오.”라는 식으로 김일성의 생일을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만경대로 학생 336명이 견학을 갑니다. 버스 한 대에 48명씩 탔다면 버스가 모두 몇 대겠습니까?”와 같이 김일성의 생각인「만경대」의 견학을 연습문제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배려로 새로 일떠선 학교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듭니다. 꽃밭의 너비는 3m 이고 길이는 xm 입니다. 꽃밭의 면적을 60m²보다 크게 하려면 길이를 몇 미터로 하여야 하겠습니까?”라는 연습문제를 내용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를 함께 진행시키고 있다.

음악, 미술교과서는 김일성 개인선전물인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개인우상화가 심하다.

고등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첫 페이지에

는 김일성이 미술에 대해 말한 것을 하나의 교육목표 및 원리라며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 등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스주의 예술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절로서, 마치 김일성이 마스에 비길 정도의 어떤 예술철학을 가지고 지침을 제시한 듯이 의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화”나 “조각” 등 일부 영역에서도 엿보인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1학년의 경우 18개의 제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9개곡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이었고, 나머지는 만경대, 평양, 백두산 등 북한을 상징하는 대상을 소재로 공산주의를 예찬하는 소재로 되어 있다.

음악교과서의 가사는 터무니없는 김일성 우상숭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1학년의 경우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애국가」보다 먼저 나와 있는가 하면, “보물동산 우리나라”라는 곡에서도 “땅속 가득 금돌 쇠돌, 자랑 많은 우리나라 원수님이 주셨죠”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김일성은 신과 똑같은 지위로 우상화되어 있다.

나.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반교육적 내용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기꺼이 받쳐서라도 죽여 없애야 될 천천지 원수놈(미국놈, 지주놈, 자본가, 지배계급, 양반)들이 있고, 그 원수놈들의 각을 뜨고 골통을 부수어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살인백정의 의지가 충만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남을 죽이자니 내 목숨인들 온전할 리 없다. 그러자니 “내 목숨으로 너의 목숨을 따겠다”는 살인마적 논리가 자연히 교과서에 반영된다. 가공할 반인간적 내용이다. 나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원수놈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과서의 야수적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제 각 교과서별로 반미, 반일, 반한감정과 호전성을 고취시키는 반인간적 반교육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반미, 반일감정 고취

먼저 「사회」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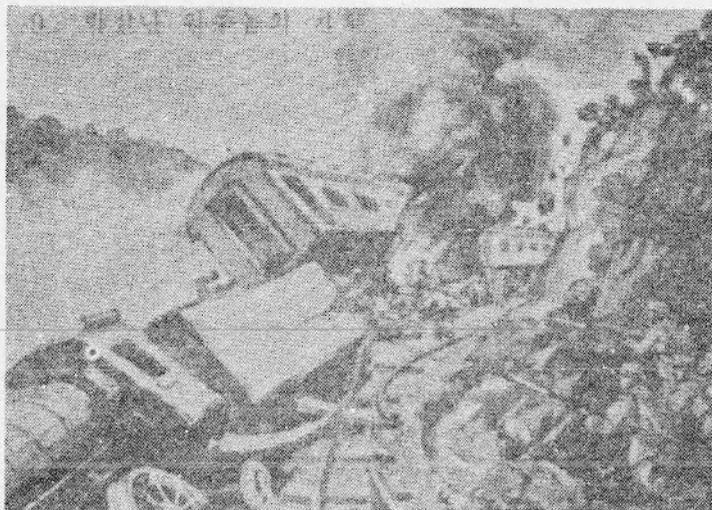
가지로 미국과 해방 전의 자본가, 지주계급을 속된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를 보면 “미국놈은 우리의 원수”, “박살난 원수놈의 기차”, “지주놈”, “총알은 원수놈의 골통을 때렸습니다”, “자본가놈을 죽쳐버렸습니다” 등의 표현을 어디서든지 자주 볼 수 있다.

가령, 인민학교 사회교과서 24, 25쪽에는 “미제를 타도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등의 구호와 함께 총·칼로 미군을 잔인하게 찢러 죽이는 삽화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색적인 표현,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표현 등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남조선에 동지를 들고 있는 미제 원수놈들과 그 앞잡이놈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쳐들어오려고 전쟁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다.” “자본주의 제도는 노동자, 농민을 비





못한 일반대중은 일할래야 일할 자리도 없고,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는 썩고 병든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이고도 폐쇄적인 교육은, 인간을 맹목적으로 한 개인에 추종케 하는 수단적 도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교과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날강도 미제와 자본주의 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산들은 모두 벌거숭이 산으로 되고, 기름진 논밭이 군사훈련장으로 짓밟히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바,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반미·반일·반한감정 고취를 위한 내용을 발췌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실례〉 반미·반일감정 고취내용

○ 남조선에서는 미국놈들이 자기나라에서 팔지 못하는 연료와 남은 기계들을 강제로 팔아먹기 위하여 수력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수력발

전소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

○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약탈하여 가기 위하여 일제가 구분한 행정체제와 구역을 그대로 유지 강화하고 있다.

○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자연자원과 식량, 원료를 무제한하게 약탈하여 갔으며 동시에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을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공업이나 농업은 발전할 수 없었다.

○ 해방 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일제가 원료를 약탈해가며 식민지체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워 놓았던 빈약한 공장들이 있었으나 그것마저 미제에 의하여 3년간의 전쟁으로 모조리 파괴되어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 미제가 약탈해가는 흑연채굴량은 1944

년에 비하여 2 배로 장성했으나 같은 해 공화국 북반부의 채굴량에 비하면 훨씬 적다.

○ 남조선에서 령락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제를 남조선 강토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력에 의거하여 조선사람 자신들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공업과 농업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남조선에서는 경제가 전혀없이 몰락하고 쇠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경제가 이와 같이 락후한 원인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미제는 우리나라의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에서의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

「역사」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면서 중간 중간의 문단 도입부분에 김일성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즉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고 하면서 그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를 지배계급의 착취와 이에 대한 인민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만 주로 서술하여 호전성과 적개심을 기르고 있다. 세계사의 경우 종교, 문화부분의 내용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십자군전쟁」을 “빈동의 두목 법왕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세력의 침략”으로, 「지리상의 발전」을 “부르조아적 식민지 략탈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학」교과서의 연습문제는 미국에 대한

비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이 많이 등장한다. 소위 6. 25전쟁을 소재로 하여, 「인민군」이 「미제놈」을 살해 또는 포로로 잡은 예 등을 문제 예로 제시하여 극도의 반미·반일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조선인민군 아저씨들이 남강도 미국놈만 하여도 397, 543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397, 543명을 4사5취하여 약 40만명이라고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것은 반미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한 연습문제이고, “조선 인민혁명군



▲ 인민군대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국놈을 265놈 죽이고 나머지 157놈은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 승냥이 미국놈이 몇놈 있었습니까? 풀이. $157\text{놈} + 265\text{놈} = 422\text{놈}$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강도 일제놈 군대 420놈을 죽였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놈은 사로잡힌 놈들보다 120놈 더 많습니다. 죽은 놈과 사로잡힌 놈은 각각 몇놈입니까?”와 같은 것은 반일감정을 불어넣기 위한 연습문제이다.

고등중학교의 「수학」교과서에 나타난 반

미·반일감정 고취내용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실례〉 반미·반일감정 고취내용

○ 1938년 초에 항일 유격대의 한 분대는 행군 도중 120명의 일제 헌병무리와 불의에 맞다들어 싸우게 되었다. 우리 유격대원들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배나 되는 적을 공격하여 놈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몽땅 잡았다. 이 때 놈들에게서 빼앗아낸 경기관총, 적탄통, 보병총, 권총의 개수 중에서 경기관총과 보병총의 합은 83, 적탄통과 권총의 합은 93, 무기들을 각각 몇 종(문) 빼앗았는가?

(고등중학교 2학년 대수)

○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남강도놈들의 강점하에 있는 한 공장에서는 원료부족으로만 하여도 2년 안에 생산량이 84퍼센트 줄어들었다. 매 해 평균 몇 퍼센트씩 줄어들었는가?

○ 1954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남강도놈들은 100,000,000 달러를 남조선에서 약탈해갔다. 미제 남강도놈들이 약탈해간 것을 10의 루승근으로써 표시하여라.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대부분의 북한학생들이 고등중학교과정부터 배우는 유일한 외국어는 「로어」이다.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로어」 이외에 영어 등을 배우기도 한다.

고등중학교 3학년 「로어」교과서는 첫단원부터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을 남조선에

서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영어과목의 「Black Jimmy」라는 단원은 미국에서 사는 흑인 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얘기로 두 장의 삽화를 싣고, 흑인들은 짐승의 우리와도 같은 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왜곡 기술해 놓고 있다.

즉, 「흑인은 열심히 일해도 벌이는 시원치 않다」는 내용으로 이 단원은 시작된다.

영어과목의 경우 다른 교과에 비해 김일성을 이상화한 내용은 적지만, 흑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백인의 차별대우를 남북전쟁 이전의 현실로 묘사해 놓고 있다.

특기할 점은 책 내용은 미국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으로 차있으면서도 영어발음은 영국식이 아닌 미국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점이다.

(2) 호전성 고취

북한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어나 사회과목은 물론 수학, 음악, 미술 등에게까지 호전적이고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철천지 원수놈」 등 상스러운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전투적인 용어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방법을 써서 적대감을 나타내야 한다」는 그들의 교과서 집필 지침에 따라 기술된 것이다.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65페이지 「국어소조활동과 구연」이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같은 지침은 명확히 나타나 있다.

「구연」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직

접 겪은 것처럼 생동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러한 구연을 듣게 되면 지난 날 일제놈들과 자주 자본가놈들에 대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한다」고 설명해 놓았다.

고등중 2학년 국어교과서의 「말하기와 언어례절」에는 「원썩놈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키다리 미국놈」, 「미국놈의 대가리」, 「왜놈의 모가지」 등 낮잡아 이르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표현을 쓸 때는 「필요한 대목에는 감정을 넣고 운물을 살려 읽도록」 강조하고 있다.

「원썩」, 「○○놈」과 같은 욕설 이외에도 「피바다」, 「피땀원썩」 등의 언어를 계속 사용해, 합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맹목적인 세뇌효과를 노리고 있다.

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에서도 이같은 호전적인 내용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이 수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인민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에는 「다음 표는 미제 승냥이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학교에서 학비를 내지 못하여 쫓겨난 학생수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꺾인 선 도표를 그리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수류탄과 「자동보총」의 그림을 통해 수의 개념을 터득하도록 수학교과서는 꾸며져 있다(인민학교 산수도 북한에서는 수학으로 부른다).

나뭇셈은 전폭기인 「미그」기 편대를 그린 그림을 통해 배운다.

붉은 교과서는 이미 인민학교에 취학하기 이전 유치원과정의 전쟁놀이 등으로 친숙해진 전쟁장비와 무기를, 기초적인 셈을 터득하는 매개물로 채택해 삽화까지 곁들여 놓고 있다.

셈법을 터득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승냥이 미제놈 땅크를 6대 까부셨습니다. 또 2대 까부셨습니다. 모두 몇 대 까부셨습니까」라는 문제가 나온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승냥이 미제놈들을 죽이는 인민군대 아저씨들을 도와 16,875상자의 탄알을 소년단원 45명이 날랐습니다. 한 명이 몇 상자씩 나른 것으로 됩니까」라는 문제는 나뭇셈 문제, 곱셈은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에서 3,200원하던 물건값이 또 그의 2.25곱으로 올랐습니다. 물건값이 또 몇 원이나 비싸졌습니까」하는 식의 문제를 통해 배우고 익힌다.

고등중학교과정의 교과서는 수준은 높아 지지만 교과서의 설명이나 제시된 문제는 비슷한 형식이다. 「기하」교과서의 표지는 전투기 그림이며 「대수」교과서의 절표지는 대포의 탄도를 그려 놓았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파악하는 문제는 삼각형 중심부에 「미제놈」이라고 써 놓은 과녁을 세우고 학생들이 었드려 이를 겨냥해 총을 쏘는 삽화를 이용해 터득하게 한다.

삼각함수를 배우는 단계에서도 이해를 돕는 삽화나 설명은 전투적인 것으로 일관돼

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한 해안방어진지에서 원썩 미제의 간첩선을 단발에 명중, 격침시켰다. 이 때 진지높이는 150m, 내려보는 각이 8도였다. 진지로부터 간첩선이 격침된 곳까지의 수평거리를 구하여라 (10자리까지)」

그들은 전쟁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무기나 전쟁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한국 등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내용이 많다.

「남조선 한 마을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82명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아이는 54명이고, 나머지는 구두닦이를 합니다. 구두닦이를 하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인민학교 1학년 「수학」)

「지난 조국해방전쟁시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제놈들과 괴뢰군놈들을 모두 15,130놈 잡았습니다. 그런데 승냥이 미제놈은 괴뢰군들보다 1,030놈 더 많습니다. 승냥이 미제놈과 괴뢰군놈들을 각각 몇 놈씩 잡았습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푸시오」

(인민학교 4학년용 「수학」)

이처럼 수학의 기초적인 원리를 터득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등수학에 이르기까지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전술훈련 전투 등을 소재로 한 내용이 기술돼 있으며 한결같이 전투적인 용어가 구사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밑에서 과연 인간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관용적 인간들이 길러지겠는가?

그들은 인간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살인집단을 길러내고 있는 것 같다.

〈실례〉 호전성 고취내용

○ 400m 상공에서 미제 날강도놈들의 락하산이 남조선 무장유격대의 맹사격에 의하여 산산조각이 났다. 명중된 때로부터 얼마 후에 땅바닥에 떨어져 추사하였겠는가? (t초 간에 물체가 지난 경로의 길이는 $7.9t^2m$ 로 계산된다.)

○ 조국해방전쟁 때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인 용감한 조선인민군의 한 박격포 부대는 전선에서 옥실거리던 미제 날강도놈들의 머리 위에 불벼락을 퍼부었다. 이 때 포탄의 탄도는 $Y = 2X - X^2$ 이었다. 미제 날강도놈들은 몇 킬로미터 앞에서 소멸되었겠는가? (여기서 X는 포탄의 수평거리, Y는 높이다.)

○ 조국해방전쟁때 비행기 사냥군조의 인민군 전사가 혼자서 썩 떨어진 날강도 미국놈의 비행기 수는 우수라고 한다. 이 수와 다음의 큰 우수와의 적은 썩 떨어진 비행기의 15배에 14를 가한 것과 같다. 썩 떨어진 날강도 미국놈의 비행기 수를 구하여라.

○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썩인 미제 날강도놈들의 비행기가 500m의 높이에서 220m/초의 속도로 머리 위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다. 용감한 조선인민군의 한 사수는 미국놈 비행기를 올려다 보는 각이 $47^\circ 12'$ 인 순간 총알과 비행기의 속도를 고려하여 올려보는 각이 $65^\circ 30'$ 인 점을 조준하여 발사한 결과, 명중되었다. 사수는 미국놈 비행기로부터

몇 미터 앞을 조준하여 발사하였겠는가?
미국놈 비행기의 동체의 길이가 11m 라면
비행기 길이의 몇 배 앞을 조준하였겠는
가?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특히 인민학교 음악교과서는 호전성을 고
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민학교 3학년의 경우, “몰아내자 미국
놈을 우리 조선땅에서”라든가, 역시 3학년
의 경우, “학교 앞도 못가던 머슴군에게 원
수님의 유격대복 입혀주셨네”라는 내용 등
으로 유지된 때부터 전투에 임하도록 그 호
전성을 고취하고 있다.

(3) 한국 사회상 왜곡

북한은 철저히 폐쇄된 사회이다.

언론자유, 봉쇄, 여행통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일 외에는 자기들 주변
의 일도 거의 모르고 지낸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하물며 한국의 참모습을 알 길
이 없다. 그들은 오직 왜곡된 한국의 실상
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치솟는 물가, 「세금지옥」으로 시달리
고 있다”는 거짓선전 내용만이 한국에 대한
「실상」으로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다.

〈실 레〉 한국 사회상 왜곡

○ 미제 낱장도둑들이 육실거리는 남조선
에서 1인당 평균세금은 21,500원이었다.
한 노동자가 세금을 물기 위하여 21,500원
을 월리 6푼으로 빌렸다. 빌린지 2년만에
복리법으로 계산하여 빚을 갚게 되었다. 얼
마를 갚아야 되겠는가?

○ 남조선의 한 농민이 당장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리대금입자한
테서 3만원을 빌려 왔다. 이 악독한 고리
대금입자놈은 4년 후에 년리 10할로 받아
내려고 날뛴다. 가난한 이 농민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가?

○ 남조선의 한 노동자가 집세를 반년째
치르지 못했더니 매달 5천원인 집세에 월
리 10할로 리자가 붙었다. 리자는 얼마겠는
가?

○ 남조선에서 한 어린이를 학교에 입학
시키기 위해서 교섭비용으로 10만원을 빌려
소비하였다. 년리 9푼으로 3년 만에 빚을
갚으려면 얼마를 치러야 하겠는가?

○ 남조선에서 실업당한 한 노동자가 돈
5,000원을 겨우 빌렸다. 년리 6할로 3년
만에 갚으려면 얼마를 치러야 하겠는가?

(이상 고등중학교 3학년 대수)

다. 역사를 멋대로 왜곡·날조

북한 교과서에서는 김일성을 내세우지 않
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회, 「조선력사,
「조선지리」 등 사회교과서는 온통 김일성의
신격화, 계급투쟁, 사회주의혁명, 반미투쟁
등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조선력사」는 「관리놈들, 「봉건 지주놈
들, 「절간 중놈들」과 이에 대항하는 「량
인농민」과의 투쟁의 과정으로 왜곡, 거의
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후삼국시대의 「붉은
바지 농민군, 농민들이 「단결과 투쟁의 표
식으로 붉은 바지를 입고 싸웠다」고 소개

하면서 「지방관청과 지주놈들 집을 습격, 악질관리놈들과 지주놈들을 쓸어눕히고 창고를 열어 굶주리고 헐벗은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고려 때의 큰 반란인 묘청난과 정중부의 난은 「묘청은 평양 인민들로 대오를 편성, 기왓장과 벽돌을 던지면서 용감하게 적들(관군)을 죽였다», 「무신 량반놈들은 왕을 쫓아내고 문신 관료놈들을 모조리 처 죽인 다음 정권을 틀어쥐었다」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장황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 농민군», 「공주 농민군», 「경상도 농민군」 등 「농민군」과 「토벌군」의 싸움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한 뒤 「용감히 싸웠으나 그 어느 하나도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농민들이 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들이 모두 계급적 원수라는 것을 똑똑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쟁과 내란의 설명에서는, 「죽였다», 「쓸어눕혔다», 「까눕혔다», 「까부셨다», 「처 죽이었다», 「몽땅 녹아났다», 「때려부셨다」는 등의 표현들이 수없이 나온다.

안시성싸움 부분에서는 「침략자의 우두머리 왕놈도 원눈에 화살을 맞아 외눈깔이 되었다」는 등 상식적으로 교과서에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말을 쓰고 있다.

고려의 문학예술부분에서는 착취자들을 놓고 먹는 참새에 비유, 폭로한 것이라는 「참새새끼», 「그물에 걸린 참새」 등의 민요와 「농군의 노래», 「도토리의 노래」 등 「지

주놈들의 부화방탕한 생활을 폭로한」 시가 있다고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청산별곡», 「가시리», 「파한집», 「역옹패설」 등, 우리 귀에 익은 유명작품들은 제목만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한글에 대해서도 「리조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봉건통치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쉬운 글을 만든 것」이라고 하고 「반동적인 유교」는 「인민들의 계급투쟁의식을 흐리게 했다」며 문화유산을 계급투쟁에 관련시켜 거의 부정적인 평가만 하고 있다.

삼국사기에 대해서도 국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왕과 지주놈들의 위신을 돋구며, 봉건 유교도덕을 선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들만 골라 썼다」고 악평하고 있다.

우리 역사교과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역사상 첫 통일로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교과서는 고려를 첫 통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신라통일은 완전한 국토통일이 아니라고 해서 「령토 확장», 「령토 남부의 통합」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갑신정변은 「1884년 부르조아혁명», 위화도회군은 「위화섬 군사독립», 삼국시대는 「세나라시기」로 이름을 붙여 놓았다.

신미양요(1871)는 「미국 해적선 사만호사건」으로 명명, 「미제국주의는 이같이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날강도놈들」이라며 김일

성의 증조할아버지 「김응우 선생님」이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거짓 선전하고 있다.

「세계력사」의 경우, 종교 문화분야의 내용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10월 사회주의 혁명」(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 각 공산국가들의 「혁명투쟁」 소개와 「빨럭불가담」(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라. 강제주입식 세뇌방법의 내용구성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제시방식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완전무결의 가르침인 것처럼 되어 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심이나 사실여부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김일성에 대한 내용은 모든 교과서에 너무나 위대하고 위엄있게 파고 들어가 있어서 북한의 폐쇄 사회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라면 그의 신성에 자연히 압도되도록 되어 있다. 원수와 동무로 갈라 놓는 마스-레닌의 세계관, “남조선을 강점한 철천지 원쑤 미국놈”, “해방되어야 할 남조선의 참혹상”, 이런 모든 것은 진실이며 사실로서 가르쳐진다. 그것은 교과서의 전체구성에 있어서 일관되게 되풀이되고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의 교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최상의 권위로 입증된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전체사회 조직과 신문, 라디오,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북한의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교화되고 세뇌될 수 있다. 이 점이 공산주의 교육과 우리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이 언제나 진리며 완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낸 문제해결 가운데 최선에 가까운 것으로서, 우리의 창의와 슬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서로 다른 해답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처럼 학생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우리의 교육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구성에 있어서, 별다른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를 성전시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을 철저히 따라가는 판에 박은 기계적 인간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마. 민족동질성 파괴(언어의 이질화)

언어체계, 역사이해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민족동질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우려하게 한다.

교과의 많은 기본용어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달라지고 있음이 크게 주목된다. 두음법칙을 무시하여 “령도”, “력사” 등 첫 음에 “ㄹ”을 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호상(상호), 밥공장, 원쑤(원수-적) 등 우리에게 생경한 일상용어가 쓰이는 예는 허다하다. 교과별로 보면 이

러한 이질화된 언어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감동사(감탄사), 직유(직접 비김) - 이상 국어, 돌물(용암), 지구마닥(지구내부), 주름운동(습곡운동), 땅꿍임운동(단층운동), 달라진 바위(변성암), 쌓임벌(퇴적평야) - 이상 지리, 뒷썰(검산), 웅근수(정수), 데림분수(대분수), 팔메선(포물선) - 이상 수학, 검밭기(명암), 벽보(벽화보), 초본그리기(밀그림 그리기) - 이상 미술, 장단치기(리듬치기) 선불만들기(가락짓기) - 이상 음악, 이러한 학술용어 이외에 일상용어로 "일떠서다"(일어서다), "마사지다"(부서지다), "알마춤한"(알맞은), "야장간"(대장간) 등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러한 용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우리와 정반대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6. 25는 남쪽에서 먼저 도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쳐들어 오려고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다"든가,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고 기름진 논밭이 군사훈련장으로 짓밟히고 있다"(지리교과서) 등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곳으로 남한실정을 왜곡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고대부터 완전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마르크스주의적 투쟁의 역사로 기술하고 있다.

4. 맺 는 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북한 교과서는 역사, 지리는 물론 국어, 수학, 예술과목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시키고, 공산주의 혁명가를 양성시키는 것이 그 기본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만들어진 북한 교과서가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는 도구적, 굴종적, 맹목적인 인간상이 길러지기 쉽다는 점이다. 교육이란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시켜 개인의 성장을 돕고,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을 이끌며, 나아가서는 인류역사 발전을 돕는 것이 그 기본목표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공산체제 중에서도 지극히 폐쇄적인 김일성 개인집단을 위한 도구적인 인간을 만드는 교육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독단적, 폐쇄적 성향을 띠게 되는 이러한 닫힌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인간 정신의 발전을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사상, 과학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6,000만 우리 한민족에서 2,000만이라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같은 반교육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역사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해

치는 비극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로는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에 역행하는 교육내용으로 심각한 민족의 이질화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념적 체제 아래 그 문화와 사용하는 언어체제도 상당히 변형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교과서가 김일성 개인을 우상화시키고, 계급투쟁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역사 날조로, 우리와는 다

른 역사상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심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호전적, 투쟁적인 용어와 속된 표현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인적인 인간교육을 목표로, 창의와 자유를 기본으로 한 우리의 언어, 문화체계와는 상반되는 이같은 교육이 북한 지역에서 계속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이 과연 유지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왜 그랬어? ◇

L대위는 화창한 봄날 공중전투 기동훈련을 위하여 C중위와 함께 고도 2만피트에서 F-5A로 Vertical Scissor 기동을 하던 중 약 70도 경사, 45도 상승률 자세에서 왼손으로 Throttle을 잡고 요기를 확인하던 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Throttle을 약간 미는순간 딸가닥 숨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고요한 적막이 찾아왔음 대위는 가슴이 철렁내려 않는 놀라움을 참고 계기를 확인하니 두 엔진 모두 Flame Out 되고 속도가 100KTS 이하로 줄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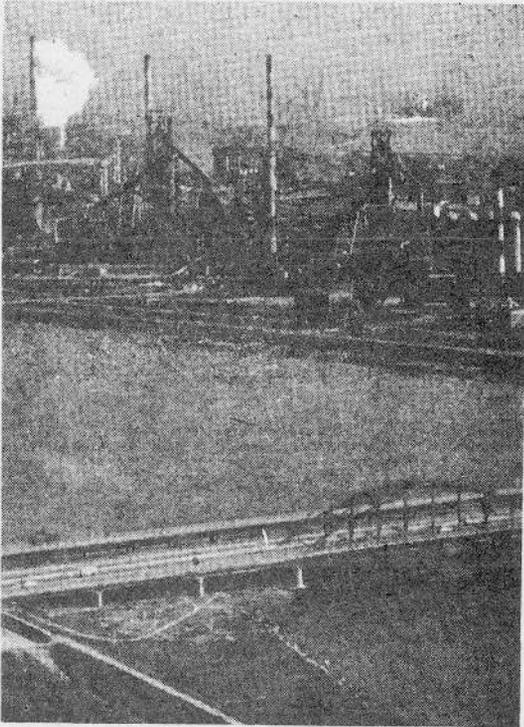
기수를 우선 낮추고 증속시키며 Throttle을 OFF 후 250KTS가 되는 것을 보고 좌측 Engine부터 시동을 걸고 잠시 기다리니 Radar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음. 그 순간 L대위는 소리에 대한 반가움을 새삼 깨닫게 되었음.

임무를 중지하고 말없이 귀환하니 요기 C중위는 왜 그럴까? 의심은 나지만 따라올 수 밖에 ……

올바른 理解를 為하여

= 国政 1 問 1 答 =

編輯室



이 자료는 經濟 主要關心事에 대하여 國民의 궁금증과 誤解를 풀어주고 이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심어 주기 위한 解說資料이다.

80년의 外債 200億弗이 84년에 430億弗로 急増한 이유는?

○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부족하므로 經濟發展을 위하여 부득이 대부분의 原資材를 해외로부터 수입, 이를 商品化하여 다시 해외로 輸出하는 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 原資材를 가공 輸出하기 위해서는 우선 工業化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많은 機械設備를 도입해야 하고, 또한 道路, 鐵道 및 항만 건설이 必須的으로 뒤따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外債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 '79년말 204억불이던 外債規模가 84년말에 431억불로 급격히 증가된 主要原因은, '79년의 배럴당 13弗 水準이던 原油값이 30弗線으로 폭등하였고 國際金利 上昇으로 인하여 7.5%이던 外債利子율이 10%가 넘는 선으로 상승한데 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추가된 외채부담이 原油값 143억불, 利子

40억불로 무려 183억불에 이른다.

○ 外債를 들여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反論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벌어들인 돈만으로 原資材를 사오고, 그 많은 工場을 건설하려 했다면 현재와 같은 經濟成長이나 우리 생활의 향상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 국내외의 많은 學者들은 우리 경제에 外資導入이 없었을 경우 지금과 같은 高度成長은 기대할 수 없었음은 물론 아직도 後進國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62년~'83년 기간 중 外資導入이 없었더라면 經濟成長率は 8.2%에서 5.6% 정도로 낮아지고 연평균 就業者 증가 29만명 중 外資에 의한 고용증대가 11만4천명이었음에 비추어,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 外債는 先進國도 지고 있다. 日本은 2,000억불이 넘는 外債를 지고 있으나 외상 輸出代金이나 外貨보유로 받아야 할 돈이 외채보다 많기 때문에 債權國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84년 말 總外債殘額 431억불에서 외상수출 대금이나 外換保有高 등을 뺀 純外債는 329억불이다.

急増한 外債를 어디에다 사용했나?

○ '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外債가 急増한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은

'79년말 原油價 폭등(배럴당 13弗-35弗)과 國際金利 상승으로 인한 外債 利子率이

인상(7.5→16~17%)으로 추가된 외채부담물이 183억불에 달한다. 지난 '80년 미증유의 혼란으로 인한 수출격감 및 농산물 凶作 등으로 5.2%의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한데서도 그 原因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84년 현재 430억弗의 外債 속에는 제 5공화국 출범 이전의 누적된 外債 200억弗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속에는 現地金融 59억弗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現地法人과 外國銀行의 金融去來로서 국제관계상 外債算入에는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다.

○ 그러나 第5共和國은 '80년 초의 극도의 混亂과 無秩序로 인한 國家存立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수습하고 우리 經濟를 安定成長의 궤도 위에 올려 놓았다.

항간에는 88高速道路 건설 이외에 外債를 들여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의문시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 第5共和國 政府는 政治,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자율과 개방, 성숙의 시대를 열어 國家의 活力을 진작시킨 것은 물론 특히 經濟面에서 刮目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는 外債의 効率的인 使用이 뒷받침한 성과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 導入外債는 國土開發面에 있어서 88高速道路 건설 뿐 아니라 光州圈 개발사업 完工, 全州圈 개발사업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한강 橋梁(4개) 건설, 댐(8개) 건설 추진 그리고 서울과 釜山의 地下鉄 건설 추진 등으로 쓰여지고 있고 上下水道 건설, 水利施設, 耕地정리, 發電所 건설, 電話施設

확충 등 우리 生活便益을 돕는데 투자되었다.

○ 이같은 經濟施策에 따라 우리 경제는 80년의 都売物価 상승률 42.3%에서 '84년 말 1.6%로 획기적 物価安定을 기한 위에 연평균 輸出 13.3% 증가, '84년도의 불과 14억불의 國際収支赤字(80:53억불), 그리고 '81년 이후 연평균 7.2%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새로운 跳躍段階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外債를 償還할 能力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外債가 적지 않은 것은 事實이며, 과연 이를 갚아 나갈 수가 있는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빚을 주는 사람이 빚을 지는 사람의 갚을 能力을 고려하지도 않고 빚을 줄리는 없다. 外國銀行이나 國際機構가 아직도 韓國에게 借款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償還能力이 있다는 것을 反証하는 것이다.

○ 外國이 빚을 줄 때는 債務國이 外債를 얼마나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우리가 外債를 社會間接資本 建設에 사용하고 있고 國民生活 편익을 증진하며 生産性 向上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外債導入의 條件充足은 물론 償還의 能力도 인정받고 있다.

○ 400億弗의 外債는 이를 한꺼번에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元金 일부와 利子를 매년 갚아 나가는 것이다.

外債 償還能力을 평가할 때, 벌어들인 外貨 중 몇 %가 元利金 상환에 쓰여지는가 하는 소위 元利金償還 負擔率이 중요한 指標로서 사용된다.

外債에 대한 償還能力을 나타내는 元利金償還負擔率(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수출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外債償還能力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 장기 元利金 상환부담률은 15.7%로서 아르헨티나의 103%, 브라질 87%, 멕시코 59%에 비할 바가 아니며, 장기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15.3%로 전 세계 평균치인 29.1%나 세계 12大 債務國의 평균치인 22.1%보다 크게 낮고 國際金融機關의 危險水位 평가기준인 20% 보다도 훨씬 낮으며 앞으로는 더욱 낮아질 展望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外債 平均償還期間은 11.9년으로 세계 20개 高債務國 平均 8年보다 長期이고, 平均利率도 8.9%(20개국 평균 11.2%)로 좋은 조건으로 借入하고 있다. Inflow Investors가 추정한 Country Risk도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107개국 중 '80년 43位에서 '84년 30位로 낮아지고 있다.

○ 덴마크 노르웨이이는 1인당 外債가 7,000弗이 넘는 수준이며, 캐나다는 1인당 4,000불로서 外債規模 1,000億弗이 넘지만 아무도 그 나라들의 外債 償還能力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 外債가 많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國民 모두를 위한 外債 使用이기는 했지만 外債 節減을 위해

서 政府와 國民 모두가 노력할 때다. 政府에서는 外債節減을 위하여 第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끝나는 '86年度 우리나라 外債規模를 당초 645億弗에서 470億弗수준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經常收支 赤字幅도 '82年度 26億弗, '83年度 16億弗, '84年度 14億弗線으로 매년 개선시켜 나가고 있어 '80년대 말이면 黒字가 예상되고 있다.

○ 또한 企業은 새로운 技術을 개발하여 질좋은 商品을 만들어 輸出을 늘려 나가야 하며 國民들은 國產品을 애용하고 과잉 소비를 없애며 에너지를 절약하여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꾸려나가는 등 外債節減을 위한 夣國民적 努力이 必要하다.

많은 外債를 지고 있으면서 2천년대를 대비할 수 있는가?

○ 400억불 이상의 무거운 外債를 지고 있으면서 2千年代의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일부의 批判도 있으나 이는 歷史發展을 위한 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없다.

○ 不確定, 不確實 時代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世紀를 위한 民族的 對備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民族의 榮枯盛衰는 가름된다. 100년전 旧韓末, 나라의 長期設計가 없었기 때문에 國權喪失의 불행을 겪었던 經驗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 先進外國에서조차도 2000년을 대비하는 각종 研究가 進行되고 있다. 유럽 文化財團의 「유럽 2000년」(77년), 美國의 「地

球의 2000」(80년), 日本의 「2000년의 日本」(82년) 등이 그것이다.

○ 많은 外國의 學者와 專門家들은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予見하고 있고, 韓國은 그 主役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世界銀行(IBRD)의 한 報告書는 21세기의 韓國을 「産業化 市場經濟」로 전망했는데 하던 美國의 저명한 經濟學者 「W. 로스토우」 교수는 「高度大衆社會」라는 말로 2천년의 韓國을 표현한 바 있다.

○ 우리가 지고 있는 外債는 政府와 國民의 努力으로 갚아나가야 하고 또 분명히 갚을 수 있다. 지금 外債는 오히려 國家發展의 밑거름으로 善用되고 있다.

○ 21세기 건설은 政權의 차원의 口호가 아니라, 진정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民族의 理想이자 希望이며 실천적 目標인 것이다.

財閥企業만 지원함으로써 中小企業이 倒産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과거 經濟開發 計劃過程에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공장을 세우고 輸出을 늘리기 위해 政府가 大企業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第5共和國 출범 이후, 政府는 中小企業의 보호와 育成을 위해 82. 4월 「中小企業振興長期計劃」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대기업에 대한 貸出을 규제하고 강력한 中小企業 金融支援 施策을 추진하고 있다. '84년 중 銀行의 總

貸出増加額 26,319억원 가운데 48.1%에 해당하는 12,661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책을 보면 中小企業振興基金에 政府가 매년 財政支援을 하여 '85年 말에는 1,750억원의 基金을 조성 활용하고 中小企業 共濟事業基金에도 50억원(85)을 政府가 出捐할 계획이다.

또 金融機關의 中小企業에 대한 義務貸出 비율을 인상하였고 (市中銀行: 30%~35%, 地方銀行: 50%~55%), 短資会社の 中小企業 대출비율도 높였으며(30%~35%),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地方造成資金이 서울로 逆流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政府는 大企業이 부분별하게 中小企業 事業分野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즉 大企業群은 主力業種에 전념하도록 하여 大型 專門化시켜 국제적 競争力을 갖춘 企業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獨과점 品目에 대한 競争促進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이 大企業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自律的인 競争力을 배양해 주기 위해 中小企業 創業資金 190억원(85)을 지원하고 下都給 등 母企業과의 系列化관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公正去來 次元에서의 調整을 강화하며 中小企業者만이 할 수 있는 固有業種을 확대하여('84: 205개 業種), 이에 大企業이 任意로 참여할 수 없도록 保障해 주고 政府 및 公共機關에서는 매년 中小企業 製品를 구매토록 하였다 (84: 32,6

66억원)

貧富隔差를 解消하기 위한 政府施策은 무엇인가?

○ 資本主義 經濟体制下에서 貧富간의 상대적인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自由競争과 創意原理로 個人的 幸福과 나라의 富를 증대시키는 資本主義 經濟체도의 長点은 지금 中共이나 蘇聯, 심지어 北韓까지도 이를 導入하려 하고 있다.

○ 祖国近代化를 위해 지난 '60~'70년대에 工業化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貧富間의 隔差가 다소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한 1인당 國民所得 2千弗시대 (우리의 입장)에는 先進外國이 그러했던 것처럼 階層間에 상대적 貧困의식, 疎外感 등이 크게 높아진다는 現象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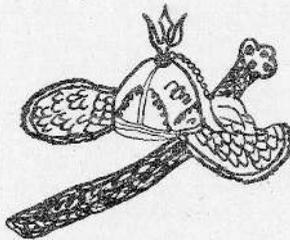
○ 政府는 中産層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고 經濟發展의 惠沢이 國民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相統稅, 財産稅 등에 累進稅率을 적용하고 不動産 投機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강화하고 中産層 이하의 稅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租稅政策을 통한 所得再分配를 강화하고 庶民層 公共住宅의 확대공급 및 서민 無住宅家口에 중점 분양, 의료보험제도의 점진적 확대실시 등 福祉施策을 확충해 나가며 도서벽지의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확대하고 農家의 農外所得 增大시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中小企業을 적극 육성하고 大企業의 經濟力 集中防止를 위한 關係法 改正을 검토하여 公正去來制度를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Ⅲ 內憂外患을 平定한

崔 瑩 將軍 ⅢⅢ

정 준 귀

〈교 사〉



◆ 상승의 명장

최영장군은 고려의 명문 출신이었다.

그는 宰相을 지낸 崔惟清의 5대손이며 최유청은 무인의 난 때 문관들이 무더기로 학살당할 때에도 그의 덕망에 감복한 무장들의 비호로 화를 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최영의 아버지 元直은 司憲府의 諫官으로서 검찰의 직을 맡아보고 있었다.

최영은 어릴 때부터 얼굴에 영기와 위엄이 있었고 기골이 장대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최영의 나이 16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임종 때 아들을 불러놓고 「너는 마땅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고 타일렀다.

최영은 평생 이 유언을 뼈에 사무치도록 새겼으니, 그는 이로부터 청렴을 평생의 신조로 삼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최영은 청년장교로서 揚廣道(지금의 경기도) 都巡問使 휘하에서 倭寇을 막는데 공을 세워 왕의 근위대원이 되었다.

그후 공민왕 원년(1352년)에는 다시 조일신의 逆謀를 진압하여 무명을 떨쳤고 3년 뒤 39세 때에는 벌써 대장군(從三品)이 되었다.

때는 아시아와 유럽에 군림하여 영화를 자랑하던 大元帝國이 마침내 落照의 길을 더듬던 시기였다.

강남에는 홍건족의 반란이 불길처럼 퍼지고 있어 '원나라 군사'는 대토벌조를 남하시키는 한편 고려에 대해서도 助征군의 파병을 요청해 왔다.

이에 고려에서는 명망있는 장군 40여명이

2천의 정병을 거느리고 원정의 길에 올랐으며 원나라에 있는 고려인 2만명과 함께 원나라 군사의 선봉으로 각지에서 빛나는 무훈을 세웠던 것이다.

이 원정은 최영장군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원나라 군사보다 고려 군사가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원나라의 내정이 형편없이 문란·부패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반란군, 즉 후일 명나라 군사의 실력을 이때 몸소 체험하였다는 사실이다.

원나라의 조상이며 토벌군의 총수인 설설이 고우성(城)을 빼앗고 육합성을 포위했을 때, 후일의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육합의 서쪽 백리지점에 있는 강주에 있었다.

이때 주원장은 육합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격하고 있었으니 그곳 전진에서 최영은 주원장과 만났을지도 모른다.

이 원정에서 최영은 각지를 전전하며 뛰어난武功을 세우고 몸에 몇 군데의 槍傷까지 입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원정군의 還國은 그대로 고려 재건운동의 출발을 의미하였다.

원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긴 이래 90여년 동안 여지없이 자주성을 잃었던 고려가 이제 내면에 간직하고 있던 독립에의 의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었다.

최영은 동북방으로는 雙城總官府의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한편, 고려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넘어 遼양에 이르는 교통로를 제

압하였다.

이어 그는 고려의 야전군 사령관이라고도 할 서북면 명마사가 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흉건족과 여러 곳에서 싸워 눈부신 공을 세웠다.

그러나 이 흉건적이 원군의 진출에 밀려 방향을 고려로 돌린 것은 그후의 역사의 진로, 즉 고려의 숙원인 자주독립운동을 교란시킨 하나의 액운이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침입한 흉건적 10만군은 개경을 함락하고 성안의 남녀를 불태워 죽이는 만행을 함부로 자행하였던 것이다.

1362년 최영·이성계 등이 거느리고 고려군이 서울을 탈환한 다음 해 왕이 환도하게 되었을 때 宰相 金鏞이 行宮을 습격한 逆謀가 있었다.

이 반란도 최영장군의 분전으로 진압되어 그는 判密直司事(지금의 국방부장관에 해당)가 되었다.

이에 원나라에서는 고려왕족 덕흥군을 반원적인 공민왕 대신 즉위시키려고 崔濡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입국하게 했는데 최영은 이를 일격에 무찔렀다.

이렇듯 다사다난했던 고려 말기에 그는 동분서주하여 백전백승의 무장으로서 나라의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영도 인간인 이상 실수와 파란이 없을 수 없었다.

1365년 그가 동서강도 指揮使로 있을 때였다.

마침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왜구가 창陵에 들어와 세조의 초상을 훔쳐간 일이 있

었다.

이에 최영을 미워하던 辛旼은 우왕에게 모함하여 그를 계림군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최영은 이를 감수하고 부임하였던 것이다.

신돈은 다시 이 기회에 최영을 아주 없애 버리려고 최영이 상하의 이간을 꾀하였다. 하여 이득립을 보내어 그를 고문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생명이 위태로왔을 때 습浦萬소 정사도가 결사적으로 그를 옹호하여 최영은 겨우 무사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374년에는 또 제주도에서 牧胡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제주도는 원래 성종 때 원나라의 군민총관저가 설치되어 감독관 「나무하치」를 두어 소와 말을 방목하던 곳으로 원나라의 영향이 짙은 곳이었다.

그때 친원파의 현지 목장 관사들이 반명적인 감정에서 반란을 꾸밀 기색을 보이므로 고려에서는 최영을 총수로 전함 3백 14척, 사졸 2만 5천 6백명의 대군을 편성하여 이를 토벌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엄준한 진압으로 이 반란은 평정되었는데 그는 이때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가차없이 죽였을 뿐 아니라 병사들이 함부로 소와 말을 잡아먹으면 용서없이 사형 혹은 팔을 잘라 군기를 엄하게 함으로써 추호도 민폐가 없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싸움에 임할 때마다 필승을 기하고, 일보라도 물러서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목을 잘라버리곤 하였다.

그가 개선하였을 때에는 벌써 恭愍王은 암살되고 禡왕이 즉위하고 있었다.

당시의 고려는 왜구로 말미암아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1376년 왜구는 충청도 연산 개봉사를 점령하고 원帥 박인규는 패사하였다.

이때 최영은 老軀를 무릎쓰고 출진을 자원하였는데 출동명령을 받은 그는 쉬지 않고 강행군으로 연산에 도달하였다.

공주 근처에 이르렀을 때 최영은 삼면이 절벽으로 된 험소에서 왜구와 충돌하였는데 그는 士卒의 선두에서 불격하다가 입술에 화살을 맞았으나 태연자약하게 곧 그 저격자를 활로 쏘아 죽이고 왜구를 대파 격멸하였다.

왕은 論功施賞으로 그를 侍中(수상)으로 승진시키려 하였으나 최영은 侍中이 되면 쉽게 출격할 수 없으니 왜구를 모두 진압한 후로 비루어달라고 사퇴하였다.

그에게는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있을 뿐 모든 공명은 그의 뜻하는 바가 아니었다.

다음 해 왜구는 또 예성강 어귀까지 쳐들어와 전함 50여척을 불사르고 다시 강화로 쳐들어왔다.

이와 같은 왜구의 위협으로 조정에서는 내지로 遷都하자는 주장까지 일어나 철원에 宮城을 쌓자는 등의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최영은 극력 반대하여 이를 제지하였다.

1378년 왜구는 또다시 승천도에 침입하여 서울을 침입해 온다는 소문이었다.

이에 서울은 계엄상태에 들어갔고 도성의

장정은 총동원되었다.

왜구는 鴻山싸움 이래 백수 최만소(최영)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최영의 군사를 격파하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부대는 돌아보지 않고 최영의 직속부대에 공격을 집중하여 한때 형세가 위급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의 인심은 흉흉하였으며 백관은 피난보따리를 싸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무렵 최영은 공세를 취하며 이성계와 합세하여 이를 전멸시켰다.

그 후로도 해마다 경상, 강원, 전라도에는 왜구의 침입이 그치지 않아 농사를 짓지 못하여 굶어 죽는 자가 많았다.

◆ 재상 중의 재상

최영은 장군으로서의 관록 뿐만 아니라 입상하여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청렴한 재상이기도 했다.

그는 이인임의 청탁을 큰소리로 꾸짖고 물리쳐 신정군 마동수의 貪汚를 적발하여 백여대나 곤장을 쳐서 유배장에 죽게하였다.

그는 또 정사에 관여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우왕의 유모 장씨를 우왕의 간곡한 청에도 불구하고 斬刑에 처하였으니 공사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엄격한 그였다.

이렇듯 최영은 그 시대에 있어서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의 오랜 연륜의 공훈에 대하여 왕은 철승을 내려 표창하였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간곡한 대목이 보인다.

지금 장수들 중에서 역전의 도수와 공로가 많기로는 오직 卿 한 사람 뿐이다.

또한 재상으로는 충의를 다하고, 위로 왕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보살핌이 더할 나위 없으니 재상 중에도 참된 재상이로다.

전토와 奴婢로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경의 청백은 천성이 그러하니 반드시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다만 철권을 내려 왕으로 軸을 삼아 특례의 표창을 한다.

최영은 또 지성을 다하여 방탕한 우왕의 행실을 諫지 하였으며 그는 이에 부심한 나머지 가끔 철석같은 의지로써 곧잘 눈물을 짓기까지 했다. 또한 청렴한 최영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상인들이 謀利에 급급함을 보고 모든 물가를 공정화하고 설인을 찍어 매매시키되 세인이 없는 물품을 거래하는 자는 등에 갈고리를 찍어서 죽일 것이라고 하여 큰 갈고리를 시장에 걸어 놓아 상인들을 벌벌 떨게 하였으니 여기서도 그의 엄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1387년 고려의 사신 장방평 등이 요동에 이르렀을 때 명나라로부터 요동통과가 거부되어 그대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 국교단절과도 같은 비상사태의 돌발은 고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로써 대명관계는 험악하게 되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당시의 정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민왕은 명나라 황제가 즉위한 후 곧 반원친명으로 전환하였으니 이것은 대세를 통찰하는 선견의 명이 있음과 동시에 고려왕조 자체가 원나라와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얽혀져 있는 관계로 보아 그것은 대단한 모

형이었다.

이같이 공민왕이 친명정책을 쓴 것은 친명을 위한 친명이 아니라 태조 왕건 이래의 고려의 북진주의를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즉 고구려의 옛 강토인 만주를 함치는 것이 고려의 자주독립을 위한 숙원이었으며 이는 고려시대를 일관하여 내려온 북진정책의 저유였다.

원상국이 낙조의 기세가 짙은 이때 옛 강토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명나라와 손을 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요동 경로는 의외로 신속하였으니 그들은 해로로 요동반도·해함에 상륙하여 급속히 요동에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고려에서는 이성계 등으로 하여금 1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桓仁의 우라산성을 공략하고 많은 민소를 압록강 이남으로 옮겼으며 이어 요동의 요충인 요양을 함락시켰다.

그러나 성을 함락할 때 과실로 인해 창고가 타없어지지 군량을 이을 수 없게 되어 엄동설한에 대단한 곤란을 받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출병은 요동정세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처음 태도 함락 이래 원나라 황제는 멀리 한북으로 달아나고 요동에 대한 통제력은 땅에 떨어져 원장은 군용할거의 형세였으며, 그들은 남으로 고려와 협력하여 명나라의 동진을 막고 만주를 원나라 중흥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이러하여 요동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고려는 북진의 의원으로 명나라와 동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동지방의 한인출신인 요양성 평장 劉益은 요양성이 고려군에게 함락되자 명나라 군사에게 투항하였다.

劉益의 투항은 요동에서의 명나라의 세력을 약화시켜 정세는 일변하게 되었으니 고려 북진의 당면의 적은 원나라가 아니라 바로 명나라가 된 것이었다.

그 후 고려는 원나라 장수와 손을 잡고 명나라의 동진을 방패하여 반원친명책은 반명으로 역전하였다.

국내에서는 친원과의 세력이 부활되고 명나라 또한 고려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일변하여 견제하려 하였다. 명나라의 황제는 누차 고려의 표리부동한 처사를 힐책하고 사절을 비롯하여 내왕하는 고려인에게 정탐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민왕 12년 12월에는 장문의 선론을 내려 나하주군의 우가장 습격사건에 가담하였다고 핑계하여 고려 사절에 요동 경유의 왕래를 막고 정벌 운운으로 고려를 위협하였던 것이다.

우가장 사건이란 명나라의 요동 경략사상 최대의 오점이니 원나라 군사의 기습으로 명나라는 10만여석의 군량과 5천여명의 군사를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명관계의 악화로 다시 북원의 연호를 쓰고 북원과의 국교를 재개하였으며 북원은 요양의 협공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명나라의 황제도 고려에 압력을 가하고자

과중한 세공액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병 수십만으로 정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하여 고려는 1384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밀린 5년분의 세종조로 금 5백근, 은 5만냥, 배 5만필 말 5천필을 바쳐 우선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도 명나라 황제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러한 명나라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이 공갈외교로 고려를 견제함으로써 고려의 복진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본래 만주는 땅은 넓고, 인구가 드물었으며 또한 당시 압록강은 결코 피아의 국경이 아니었다.

강 양쪽의 주민은 성분도 비슷하고 경계라는 관념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 교역하며 매양 서로 친하게 지내며 통혼까지 하는 사이였다.

그러므로 우국은 서로 개발의 원동력인 민소의 확보에 힘써 경제적으로 상대방 민호를 초무하여 渡江을 원하는 자에게는 각기 양식을 관급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려측 공작의 기지가 바로 강계(지금의 만포진)였으며 강계는 또한 복원 및 명나라와 접촉하는 관문이었다.

그런데 강진너 桓인평야 일대와 요양일대는 고려로서는 그들의 옛 강도로 여겨오던 고장이었다.

그것은 이 지방이 고구려 발상의 땅일 뿐만 아니라 전날 몽고와의 전쟁 때 고려의

피난민들이 북상하여 이곳에 많이 정착하였으며 원나라도 이곳에 고려 군민총관부를 두는 한편 그것을 濼王府로 승격시켰다.

그 이후 고려 왕족을 심왕에 임명하였고 그들은 민정의 실권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遼濼 일대는 고려인이 집단거주하는 특수지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고려는 이곳을 영토확장의 첫 대상지로 하여 쌍성총관지(영흥 이북의 함경도 지방)와 같이 아직 명나라의 지배력이 약한 이곳을 먼저 점령하여 기정사실로 만들고 그 후 적절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명나라로서는 이 때 당면의 적은 복원이었으니 그들의 요동 경략의 목적이 사실은 요동지방의 점령유지가 아니라, 복원의 좌익을 이루는 북만주에 있는 원나라의 유력한 장영 나하추군과 고려와의 연락을 끊는데 있었다.

그런데 1387년 6월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함으로써 명나라는 포로 20만명과 많은 노획물을 얻는 등의 전과를 올렸으며 이로써 동북방면의 위협이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征虜大將軍 藍玉은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몽고 경략에 열중하게 되었으니 이에 만주, 특히 요동방면에 명나라의 병력은 비세 되었다.

이러한 정세는 고려를 자극하였으며 이러한 고려의 동향을 견제하려는 명나라의 공작도 노골화해 갔다.

이러한 정책의 첫 표현이 장방평등에 대한 요동 폐쇄였던 것이다.

◆ 짚어가는 전운

고려는 이에 적극책과 소극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왕의 뜻도 북진에 있었고, 북방 정세에 정통한 최영장군 역시 북진주의의 강경파로서 그들은 이러한 나라의 우환을 못본채 쭈뼛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권신 이인임, 임견미, 엄홍방 등을 주살 혹은 유배하여 민심에 경중을 울리는 한편 북진주의 실현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것이다.

우왕은 최영의 고사를 무릎쓰고 최영의 딸을 영비로 삼았고 이로써 최영과 고려왕실은 한집안이 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로부터 조야를 놀라게 한 중대 보고가 들어왔다.

최원지의 보고는 명나라 요동도사는 이은경 등을 보내어 압록강에 이르러 방문을 붙였는데 그 내용인즉 명나라 황제 명으로 친견 이북과 동북·북서는 원래 원나라의 개원에 속하는 땅이므로 그 관하의 고려인과 한인 및 여진인·몽고인 등은 요동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친령은 우리의 강원·함경도 경계상에 있는 안변의 철관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이다.

이 명나라 황제의 시달은 확실히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친령의 서쪽이라 하면 우리의 평안도도 포함되는데 평안도는 원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대 통첩에 접한 고려는 곧 수상 최영이 주재하여 중신회의를 열어 정요위(요양)를 공격하여 명나라에 일격을 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요구에 응할 것이냐를 의논하였다.

그 결과 일단 외교교섭을 해본 후에도 결정짓자는 데에 합의하여 우선 사절을 출발시켰다.

그러나 전명사 조립 역시 요동에 들어가 지 못하고 돌아오자 명나라에 대한 감정은 더욱 격앙되었다. 이에 최영은 우왕과 요동정벌을 은밀히 의논하는 한편 명나라의 친령 이북과 이어 회수의 첩회를 교섭하는 진청사로 밀직제학 박선중을 명나라 서울로 보냈다. 이때 또 최원지로부터 두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그 내용인즉 요동도사에서는 친여명의 병력과 지휘관 두 사람을 강제로 파견하여 친령위를 세우고 관원을 임명하여 모두 요동에 도착했으며, 또 요동으로부터 친령에 이르기까지 70개의驛站을 설치하고 각 역참마다 백소를 두기로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원지의 제2차 보고는 대세를 결정적으로 격화시켰으며 우왕은 비통한 목소리로 「군신이 나의 정요의 계책을 듣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하고 전국의 병사를 소집하였다.

우왕은 최영과 황해도로 가서 이성계를 불러 요동정벌군의 지휘의 임무를 맡기려 하였다. 그런데 사태를 격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원지의 보고는 사실이 과장되고 날조된 것이었다.

명나라의 기록을 보면 명군은 강계 서쪽 황성에 와서 민호를 초무하였을 따름이며 병사를 끌고 도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

이다.

또 최원지의 이 자극적인 보고가 있는 직후 명나라는 철령위의 치소를 요양 동북 80리 지점에 있는 봉집현에 정하고 있었으니 이 원격한 곳에서 철령 이북의 땅을 다스리려고 하였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최원지는 최영의 심복으로 반명감정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한 것이고 철령위 설치문제는 치소를 봉집현에 둠으로써 사실상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명나라 황제가 1387년 12월 중에 고려의 사절 僉將帥에게 전한 咨文에는 철령 이북의 회수전과 고려의 명나라에 대한 모욕과 정탐을 힐책하는 귀절과 아울러 금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말라는 강경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그 진의는 요동의 확보를 위하여 고려의 복진 기도를 진압 견제하고자 일부러 고려가 탐내는 요동지방은 물론 나아가서 고려 내지까지를 명나라 영토로 회수하겠다는 협박외교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공갈은 명나라 황제의 상투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명나라에 간 주청사 박의중의 동향을 들 수 있다. 그의 주청이 성공하였는데 그 원인은 박의중의 청림에 명나라 황제가 감동한 때문이라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한낱 미화된 전설이거니와 철령위 문제가 요동공략의 출병에 앞서 치소를 봉집현에 둠으로써 결말을 보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명나라 황제의 협박은 고려 복진파에게 역이용을 당한 셈이었다.

❖ 좌절된 복진주의

이때의 정요군의 상황을 보면 우왕으로부터 요동정벌의 책임을 맡기게 된 이성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 번 그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소국으로서 대국에 거역함이 첫째, 불가요, 원정군이 출동하면 왜구가 그 허를 노릴 것이 둘째, 불가요, 여름철 출진이 셋째, 불가요, 지금은 장마가 들어 활의 아교가 녹아 못쓰게 되며 장마철이라 질병이 걱정되니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이성계의 이와 같은 「사불가론」은 도군 이후에 조작된 것이고 이성계가 그 때 실제로 주장한 것은 여름철 발병의 한조목 뿐이었다. 그러나 최영은 이에 반대하였다.

그가 한편으로는 출병시기를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이성계의 저의를 의심하면서도 출동을 서두른 것은 다음과 같은 피치못할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요동의 명나라 병력이 모두 몽고방면에 출동하고 있어 방위가 소홀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 것이고, 둘째, 요양지방에는 고려인과 더불어 여진인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도 여진 땅에서 자란 이성계의 성망이 크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침내 요동출병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우군도통사 이성계는 약 5만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 중간의 위화도에 머무

르고 있었다.

때는 1388년 5월 좌우군도통사는 재차 회군을 상진하였다.

지금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 도강할 수 없어서 위화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기가 오면 앞길에는 큰 내가 많으니 진군이 곤란할 것이 걱정이고 또 서우에 활이 녹아 싸움에 불편하며 군량보급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기술도 매우 서툴렀으며 오직 활에만 능하였다.

활은 중국 것보다 우수하였지만 우중에는 불에 쪼여야 하므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유일한 무기인 활을 장마철이라 쓸 수 없었으니 야전군의 이와 같은 전의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군중에는 도리가 막혀서 벌써 군량보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출정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도망병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정세를 살핀 南閩 趙仁沃 등은 회군할 것을 주장하였고 나아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것도 密謀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이성계는 회군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회군의 이유는 攻遼가 출정시기로 봐서 부적당하여 승산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으나 그 직접 동기는 군량부족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明實錄」에 보면 1388년 8월 초에 고려 千戶 陳景來라는 자의 투항과 그가 제공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즉 회군 이유는 오직 「양식이 모자라서 돌아간다」로 밝혀져 있다.

회군하는 이성계군의 행군 속도는 신속하였다. 그들은 개경 근방에 이르러 왕에게 최영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우왕은 이를 거부하면서 前 密直副使 陳平仲을 보내어 서면으로 諸將을 諭示하였다. 이시한은 궁지에 몰린 왕이 병력을 거느린 장령들에게 보낸 것인만큼 그 성질상 내용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유시에서 왕은 명령에 반하여 회군하였음을 책하고 회군의 이유를 물었다.

「옛 강토의 회복은 조종의 遺志이니 어찌 쉽사리 내나라의 땅을 남에게 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군사들 일으켜 우리의 땅을 지키려 하여 제장에게 의논하였던 바 제장은 모두 옳다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어찌하여 前約을 어기었는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성계의 「四不可論」은 조작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혁명군과 정부군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우세한 이성계군에 대하여 최영은 노구를 이끌고 분전하였다. 비록 市井人으로 급편된 방위군이기는 하였으나 용장의 분투 아래 능히 柳曼殊軍을 격퇴하였다. 그러나 이성계가 친히 지휘하는 部隊가 저항을 물리치고 善竹橋를 건드자 子男山 위에 진을 친 최영장군의 마지막 방어선도 무너졌다.

이성계는 敗走하는 部隊를 쫓아 물밀듯 만월대 위의 궁궐안으로 돌입하였다. 최영은 우왕과 눈물로 작별하고 체포되었다. 그

리하여 최영 휘하의 심복 장병들은 속속 처형되고 최영은 처음에 고봉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습浦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대가 이론 功勞가 크나 事大의 예에 어두워 독단으로 攻遼의 군사를 일으켜 천자에 득죄하고 하마터면 나라를 망칠뻔 하였으니 前攻이 大明에 대한 반역죄를 덮을 수 없다。」이성계는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그를 참형에 처했다. 이 때 그의 나이 73才였고 刑에 임하여서도 그가 처형되는 날 都城人은 일제히 문을 닫고 吊意와 항의의 뜻을 표하였으며 街童巷婦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렸다 한다.

◇ 孤独한 人間 崔瑩

요동정벌의 목적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을 점령한 다음 桓仁 일대의 남만주 일부를 장악하고 羅唐의 고사를 따라 적당한 정치적 해결을 기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비록 그 시기가 전략적으로 부적당한 점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밖의 여건은 시기가 불리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누구보다 북방정세에 정통한 최영이 무모한 짓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그것은 장안 사람들의 그에 대한 지극한 애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말기의 사실에 대한 조선왕조 사물은 믿을 수 없는 점이 많다.

즉 회군의 정당성,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려사는 40여년에 걸쳐 몇 번이나 뜯어 고쳐야 했던 것이다.

요동정벌에 반대하고도 회군을 제일 먼저 주장한 南陽이 최영 당시보다 훨씬 요동에 있어서의 명나라의 기반이 확립되었을 때조 6년에 새 왕조 제일의 실력자 정도전과 더불어 요동정벌을 결심하고 그 계획과 준비에 온 정력을 기울인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태조 6년 6월 判의홍삼군저사로서 병권을 쥐고 있던 정도전은 「五陣도」라는 병서를 올렸던 바 태조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후 훈도관을 두고 전국의 절제사 및 西班 각 품관에게 교습시켰다. 이에 정도전 등은 흥병출경을 건의하고 태조를 움직여 거국적으로 출사 준비에 착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8월에는 진도훈도관이 각 도와 각 진에 파견되었으며 서울 시내에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이 행하여졌다.

태조 7년 8월에 이르러서는 외방 諸鎮의 절제사로서 陣圖를 習練하지 못한 자를 杖罰하는 한편 정도전, 남은은 매일같이 태조를 만나 요동공략을 권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사연을 보면 태조 6년 4월 僕將帥 등이 가지고 온 명나라의 예부자문에는 정도전의 「禍源」이란 말이 있었으며 7년 5월에 명나라 황제는 다시 箋之에 속이는 내용이 있다 하여 전분의 제술 연루자인 정도전의 입조를 요구하였고, 정도전은 병을 핑계삼아 황제의 명에 불응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여 병법훈련에 열중하게 되었다고 「태조실록」에는 적혀 있다.

이미 1393년(태조 2년) 5월 명나라 사신이 가지고 온 명황제의 수소에는 고려 말때와 다름없는 협박적인 내용이 보인다.

즉 조선의 사절은 두 浙강민으로부터 소식을 정탐하여, 요동에는 사명을 빙자하여 사람을 보내어 邊將을 유인하고 여진인 5백명을 설유하여 도망케 하였다고 힐책하는 한편 장명동사하여 조선에 대해 설분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 왕조에 들어와서도 고려 말기 이래의 북진의 기세를 멈추지 않았고, 명나라의 협박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98년 5월에는 左散騎常侍 下仲良이 상소를 올려

「우리는 사대에 성의를 다하는데 명나라에서는 정탐운운으로 협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부당한 명나라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강경한 태도로 나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긴장된 대명관계와 요동 공략논은 최영 당시를 방불케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군이 공요를 반대하는 명분론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사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도전 등이 계획한 요동정벌은 최영의 요동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가장 잘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영은 청렴 강직하기가 비할 데 없었으니 평생 험소하고 누추한 집에서 살았으며 살림은 검소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官吏로서 잘사는 사람은

집승같이 여겼으며 남의 불의를 보면 깊이 그것을 미워하여 배척하였다.

싸움마당에 나가서는 어떤 싸움에서든 무적의 용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矢石이 좌우에 날아들어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는 부하에게는 엄준한 武將이었으나 戰陣中에서는 가끔 詩를 짓는 풍류를 잃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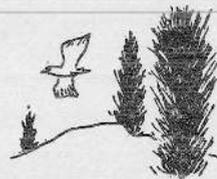
언제나 都堂에 나가서는 바른 말을 서슴치 않았으며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면 홀로 흐느껴 울었다.

그의 철석같은 심정으로서도 국가를 걱정하는 외로운 고충만은 전디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는 일찌기 “나는 나라 일을 밤새 생각하고 아침에 同僚들에게 이야기 하면 한 사람도 나와 뜻을 같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憂國衷情의 인물이 그의 生涯를 건 요동공략의 雄志는 혁명파의 야심으로 좌절되고 나라 위해 평생을 바친 겨레의 스승은 오히려 참형을 당하였던 것이다.

그날의 국민들의 슬픔과 노여움을 우리 巫俗 속에 연면하게 살아 있으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 최영에 대한 추모는 앞으로 깊이 우리 겨레와 함께 할 것이다.



契丹의 侵略과 楊規將軍



金 健 錫
〈作 家〉

高麗와 契丹의 잦은 충돌

楊規는 고려 穆宗때 장군으로서 당시 왕실은 부패되고 내정은 혼란에 빠져있을 때 거란의 聖宗이 우리나라를 침범, 그때마다 楊規는 군인답게 끝까지 契丹軍과 싸우다 전사한 용장이다.

이같이 나라를 사랑하고 내나라를 방위 하겠다는 투지와 용맹은 곧 고려가 남긴 고려군의 상징이었다.

楊規장군은 艾田에서 큰 공적을 세우고 전사하였으나 그의 힘이 없었더라면 이때 契丹군을 미리 파멸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가 죽은 뒤 왕은 그의 공로에 대하여 工部尙書의 칭호를 주었고 양규장군의 부인 홍씨에게는 종신토록 양곡 1백석과 왕이 손수 적은 교서를 하사하였다.

아들 帶春에게는 교서랑의 벼슬을 주었고 이어서 三韓後壁上功臣의 호를 내렸다.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고려와 契丹간의 접촉은 이미 太祖 王建 때부터 비롯된 일이었으나 고려는 중국의 宋나라와 친교를 맺고 송나라의 적인 契丹에 대해서는 한낱 이를 夷狄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契丹은 고려를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자칫하면 옛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북으로 뻗쳐오는 고려의 정책과 동쪽으로 밀고 나가려는 契丹의 세력과 충돌을 일으키곤 하였다.

그러던 993년(成宗 12) 윤10월 소손녕의 군사는 압록강을 건너와서 泰川과 龜城 사이의 蓬山郡을 치고 고려의 선봉군사 給事中 尹庶顔 등을 사로잡아 갔다.

이때 徐熙가 군사를 이끌고 봉산군으로

달려가자 소손녕은 「우리 大遼가 이미 고구려의 옛땅을 탈환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大遼의 강역을 침탈하므로 정벌하는 것이다」하면서 연거푸 글을 보내 「大遼는 천하를 통일했다.

그러데도 아직 歸附하지 않은 자는 기어이 소탕할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하였고 또 「80만명이 출동했는데 이 大軍이 강을 건너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저서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항복하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때 소손녕이 별로 공세를 취하지는 않으면서 것처럼 글로써 공연히 위협하기만 한 것은 그가 거느린 병력이 실제로는 얼마 안 되고 또 고려의 군사력을 상당히 두려워한 때문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徐熙는 그러한 소손녕의 태도를 보고 돌아와서 成宗에게 화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아뢰었다.

契丹의 1次 侵入

成宗은 禮賓少卿 李蒙叟를 거란군 진영에 보내어 이번 침입의 이유를 묻게 했다.

그리하여 이몽진이 곧 거란측에 가서 침입한 까닭을 묻자 소손녕은 「고려에서는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삼가 천벌을 행하는 것이다. 회령을 구하려고 한다면 빨리 항복하라」한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몽진이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자 成宗은 즉시 어전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다.

이때 대신들의 의견은 화친을 맺자는 쪽

으로 기울고 있어 그중에는 「왕께서는 돌아가시고 重臣들이 항복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고 자비령을 경계로 삼자」하는 의견도 나왔다.

光宗 이래로 文弱에 기운지 반세기도 채 못되어 고려의 투지는 이미 이렇게까지 쇠퇴했던 것인가, 아니면 契丹軍의 규모가 정말 80만 大軍이었기 때문인가, 앞의 주장은 그저 화친을 맺고 적군을 돌려 보내려는 술책이었고, 뒤의 주장은 일찌기 태조가 서경을 중시한 것이나 역대 제왕이 부진정책을 써온 것을 일시에 저버리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소리였다.

여기서 成宗은 뒤의 의견을 받아들여 契丹에 서경 이북을 내주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그러나 땅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서경의 倉米만은 적군에게 넘겨 주기 아깝다 하여 백성들을 불러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것은 대동강물에 버리라고 했다.

이때 徐熙가 「먹을 것이 족하면 성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으며 싸움에도 이길 수 있소, 대체로 이기고 지는 것은 강한가 연약한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아 잘 움직이는데 달린 것이요, 그런데도 곡식을 왜 그냥 버리겠소, 곡식은 백성의 명맥이요 비록 적에게 이용된다 할지라도 강물에 내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지 않을 것이요」 하고 成宗에게 간하였다.

그러자 成宗은 그 말이 옳다 하고 곡식을 강에 버리라고 한 말은 취소했다.

徐熙는 다시 「거란의 東京(遼陽)에서 우리 안북부(安州)까지 수백리의 땅은 모두가 女真이 살던 곳이었으나 光宗이 그 일부를 빼앗고 嘉州, 松城 등지에 성을 쌓았었소, 지금 契丹軍이 온 목적은 바로 그 두 성을 빼앗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고구려의 옛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협박하는 수작일 뿐이요, 지금 그들의 軍세가 대단한 것을 보아도 서경 이북을 내주는 것은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니요, 그들은 三角山 이북이 다 고구려옛 땅이라고 하여 한없이 요구할 것이니 어찌 그걸 다 들어 주겠소, 하물며 지금 땅을 빼어 주면 실로 万世의 치욕이 될 것이요, 요전대 왕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신 뒤에 臣이 한 번 싸워보고 나서 다시 항복을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요」하며 한 번 싸울 것을 주장했고 前民官禦事 李知白도 항복을 반대하였다.

口舌로서 功세운 徐熙

契丹 장수 소손녕은 고려측의 항복을 재촉하기 위해 공세를 취하여 安戎鎭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中郎將 大道秀가 낭장 庾方과 함께 적을 물리쳤으므로 소손녕은 다시 진군할 엄두를 못내고 사자를 보내서 또 항복만을 재촉하였다.

이에 成宗이 知通使로 閣門舍人 張瑩을 거란 진영에 보냈더니 소손녕은 「大臣은 우리 진영 앞에 보내 오면 對面하겠다」하므로 成宗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

다.

「누가 契丹軍 진영에 가서 口舌로써 적을 둘러세워 万世의 功을 세워 보겠는가」그러나 신하들 가운데서 언뜻 나서려는 자가 없었는데 徐熙가 나서서 그 어려운 일을 가로 말았다.

그는 곧 國書를 받들고 소손녕의 진영에 가서 訳者를 시켜 相見禮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소손녕은 「내가 大朝의 貴人이니 너는 마땅히 뜰에서 절을 해야 한다」라고 君臣의 관계나 되는 것같이 말하였다.

이에 徐熙는 머리를 내젓고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는 밑에서 절을 하는 법이지만 두 나라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으나」하여 소손녕과 서희 사이에는 두 세 차례나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다.

그래도 소손녕측에서 굽히려 하지 않으므로 徐熙는 화를 내며 속소로 돌아가서 누워버렸다.

그러자 소손녕은 徐熙를 달리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여 堂에 올라서 相見禮를 행하고자 했다.

徐熙는 그제서야 營門에 나타나 말에서 내려 소손녕과 함께 分庭에 들어가서 당에 올라 예를 행하고 東西로 마주보고 앉았다.

이때에 소손녕이 徐熙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는 신라땅에서 일어났으며 고구려 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네는 우리 땅을 侵蝕하고 또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잇달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다 건너편의 宋나라를 섬기고 있어서 오늘 의 군사행동이 있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신

비가 땅을 갈라 바치고 朝聘을 닦으면 무사할 것이다」했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터에 섰으므로 고려라 이름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던 것이다. 만일 땅의 경계를 따진다면 上国(遼)의 東京(遼陽)도 모두 우리의 경역에 들어있는 것이니 우리가 침식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압록강 안팎의 땅도 우리 경역인데 지금은 女真이 그곳에 몰래 들어와 살면서 그동안 갖은 頑黠 變詐를 다 부리므로 길 다니기가 바다 건너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에 조빙이 통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女真때문이었다. 만약 지금이라도 女真을 몰아내어 우리의 옛땅을 도로 찾고 그곳에 城壘를 쌓아 도로를 열 수 있다면 어찌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 將軍이 만일 이 말을 당신의 나라의 황제에게 아뢰면 황제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어 주시리라 믿는다」

徐熙의 이러한 대답에 소손녕은 더 이상 강요하려 들지 않고 서희와의 교섭 경과를 자기네 황제에게 알렸다.

契丹의 聖宗은 「高麗가 이미 和를 청했다면 군사를 철수하라」 하였다.

北方 여러 곳 城쌓아 防備

契丹측은 일단 고려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소손녕은 徐熙의 인격을 존중해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려 했으나 서희는 「우리나라가 비록 잘못은 없지만 상국에서 이처럼 수고롭게 멀리 오게 하였으니 상하가 모

두 황황해서 병기를 손에 쥔 채 들에서 있는 판인데 어떻게 차마 宴樂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소손녕은 「두 나라 대신이 만났터에 어찌 歡好의 禮가 없겠느냐」라고 굳이 칭해서 서희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었다.

그리하여 徐熙가 契丹軍 陣營에 잔치 7일 만에야 돌아오는데 소손녕은 그에게 낙타 10마리, 말 1백필, 양 1천두 錦羅縠 5백필을 주었고 성종은 매우 기뻐하며 강가까지 마중하러 나왔다.

이때 徐熙는 성종에게 소손녕과의 회담 경위를 그대로 보고했거니와 소손녕은 이듬해 2월에 보내온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희와의 협약을 다시 확인하였다.

「宣命에 비추어 압록강 西里에 5城을 쌓기로 하여 3월 초에는 城 쌓는 곳에 갈에 정이고 또 修築을 시킬 예정이요, 바라건대 大王(成宗)께서는 미리 지휘하여서 安北府로부터 압록강 동쪽까지 2백 80리에 걸친 田地가 될만한 곳을 살피고 地理의 遠近을 헤아리고 또 役夫들을 보내 성을 쌓게 하는 동시에 이번에 쌓을 성의 수효를 속히 알려 주시오. 이것은 車馬가 서로 통하게 하여 貞觀의 길을 열어서 길이 우리 조정을 만들게 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契丹은 중원의 宋나라를 대신하여 종주국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고려는 이때부터 契丹의 統和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려측에서 이상과 같이 조공을 약속하고 契丹의 연호

를 채택한 이유가 실제로 事大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손녕과 그의 군사를 좋은 말로 철수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는 그해 4월 契丹에 시중 朴良柔를 보내어 그쪽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기도 6월에는 元郁을 宋나라에 보내서 契丹에 보복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宋나라에서는 그때 겨우 北邊이 평온함을 얻었으므로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 하여 元郁을 그냥 돌려보냈다.

이에 고려는 宋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말았다.

이같이 徐熙의 능숙한 外交戰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란 것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그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女真을 몰아내고 長興·歸化의 두 鎭 및 郭州·구주 등지에 城을 쌓았으며 그 이듬해에도 군사를 일으켜 다시 女真을 몰아내고 安義·興化·宣州·猛州에 성을 더 쌓았다.

따지고 보면 契丹의 1차 침입은 오히려 고려에서 西北 일대를 경략하는데 큰 도움을 준 셈이었다.

契丹의 2次 侵入

고려는 이같이 서북 일대에 城을 쌓아 방어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으나 成宗의 다음인 제 7대 穆宗왕 때에 고려왕실에는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당시 西北面都巡檢使 康兆는 어지러운 왕

실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開京에 들어와 穆宗의 퇴위를 청하여 大良院君을 내세워 왕을 삼으니 이가 곧 顯宗이다.

이러한 사태를 관망한 契丹왕 聖宗은 왕을 폐립한 康兆의 죄를 묻겠다는 부질없는 內政 간섭의 구실을 내세워 고려를 침공하였지만 사실은 契丹의 야망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고려의 세력이 점점 西北쪽으로 뻗어나가 마침내 契丹과 직접 인접하게 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契丹은 고려의 힘을 빨리 꺾어 놓아야겠다는 속셈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契丹이 康兆의 변란을 트집잡았던 것도 첫째로 고려는 앞서 소손녕에게 宋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약속한 일이 있었으나 사실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미 994년 6월 거란에 보복하기 위해 서라고 하며 宋나라에 원병을 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자신의 왕래를 끊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穆宗 2년 10월에는 다시 이부시강 朱仁紹가 宋나라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고려에서는 모두들 華風(中國風)을 사모하고 있으나 契丹이 이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그 실정을 말하며 고려의 契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돌아왔다.

그것은 여전히 宋나라를 事大하고 싶어한다는 말이다.

穆宗 8년에는 宋나라 温州 출신 文士 周

자가 건너오자 禮賓注簿에 임명하여 고려에서 살게 해 주었다.

기록에 나타난 것 만도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宋나라와의 교섭이 그 몇 배 더 많았을 것이니 北쪽의 契丹이 볼랐을리 없다.

고려와 宋나라와의 관계는 먼저번에도 契丹에 자극을 주어 침략의 구실이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것은 침략의 구실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고려에서는 진부터 女真을 東·西北 양면에서 몰아내고 있었는데 현종 초에 尚書左司郎中 河拱辰이 또 그들을 몰아 내려다가 오히려 패배하였다.

이에 원한을 품은 和州防禦郎中 柳宗이 女真人 95명이 조공하러 和州館에 온 것을 보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자 女真이 거란에 가서 康兆의 정변을 고해 바쳤다는 소식이 들리므로 고려에서는 1010년 5월에 河拱辰·柳宗 2인을 삼으로 귀양보냈으나 당시의 女真은 康兆의 정변 외에 다른 일까지 들어서 거란에 고려를 모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40만 大軍은 압록강 건너고

세째로 거란에서는 먼저번 침입때부터 공식적으로 上國의 행세를 하여 이미 成宗 15년에 冊王使를 보내온 일이 있고 穆宗 10년 2월에도 책왕사를 보내온 일이 있다.

그에 의하면 한낱 무신에 불과한 康兆가 穆宗을 제멋대로 폐위시키고 새 임금 顯宗을 세웠다 함은, 그것은 인물을 어긴 것이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契丹의 조치를 뒤

엮은 도덕적인 행위라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010년 초에 마침내 契丹에서 군사를 일으켜 康兆의 죄를 묻는다는 소식이 오더니 그해 7월에는 給事中·梁炳, 대장군 那津允이 와서 前王을 폐위시킨 까닭을 물어보고 돌아갔다.

그뒤 고려는 8, 9월 두 차례에 걸쳐 契丹에 사람을 보내어 변명하는 등 다시 화해를 구했으나 실패하고 10월에는 결국 契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주 參知政事 康兆를 行營都統使, 상장군 安紹光을 行營都兵馬使, 소감부 崔賢敏을 左軍兵馬使, 형부시랑 李昉을 右軍兵馬使로 각각 임명하여 군사 30만을 이끌고 通州에 나가게 하였다.

그러자 마자 거란에서는 給事中 高正, 闕門引進使 韓杞가 와서 출병을 고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참지정사 李禮均, 우부야 王同顯을 거란에 보내 화친을 청하고 그 다음 달인 11월 1일에는 기거랑 姜周載를 보내서 다시 화친을 청했으나 거란의 聖宗은 기어이 장군 소응을 보내서 親征한다는 것을 알리더니 그달 16일에 義軍天兵이라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오자 먼저 홍화진을 에워싸고 공격하였다.

이때 홍화진에는 都巡檢使 楊規가 鎮使 戶部郎中 鄭成, 부사 장직주부 李守和, 관관 능희령 張顯嬰 등과 함께 城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契丹의 聖宗은 몇 번이나 공격을 가했지만 번번히 실패에 돌아가고 그때마다 막대

한 손실을 입으니 흥화진에 글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었다.

「前王이 契丹조정을 섬긴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 逆臣, 康兆가 그 왕을 죽이고 나이 어린 자를 새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므로 짐이 친히 精兵을 이끌고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가 康兆를 잡아서 짐의 눈앞에 데려오면 곧 군사를 돌려 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경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너희 처자를 다 죽일 것이다」 하였다.

화살에 꽂아서 성문으로 날려 보낸 글에도 역시 康兆 등의 죄인을 토벌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 나머지는 다 살려준다고 했었다.

이에 楊規 등이 답서를 보내서 이번 침입의 이유를 시인하는 기색을 보이자 聖宗은 곧 錦衣·銀器 등의 답서를 보내며 다시 康兆를 비난하며 항복을 권하므로 楊規는 다시 회답을 보내 먼저 철군할 것을 요구하였다.

楊規의 戰略 앞에 속수무책

契丹의 聖宗은 대군으로 시도한 공격이 楊規 전략 앞에 거듭 실패로 돌아가자 할 수 없이 흥화진의 포위를 풀고 군사를 둘로 나누어 20만명은 린주의 동쪽 無老代(지금의 의주지방)에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20만명을 이끌고 通州를 내려왔다.

이때 通州에서 기다리고 있던 康兆는 通州城 남쪽으로 나아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물을 사이에 두고 세 곳에 陣을 쳤다.

즉 일부는 동주 서쪽의 세 물줄기가 만

나는 곳에 陣을 치게 하고 康兆 자신이 그 속에 자리 잡았으며 일부는 근처의 산에 진을 치게 하고 나머지 일부는 동주성에 붙어 진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는 靛車라는 것을 빌려 놓았다가 契丹兵이 쳐들어 오면 그 검차를 중심으로 해서 총 반격을 가하여 번번이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康兆는 곧 적군을 업신여기게 되어 사람들과 바둑을 즐겼다.

그 사이에 契丹兵의 先鋒 耶律盆奴가 곧 상은 耶律敵魯를 이끌고 동주 서쪽의 고려의 진지를 격파했으므로 그곳 鎮主가 급히 위급을 고하였다.

그러나 康兆는 말을 믿지 않고 「입 안의 음식처럼 적군도 적은 것은 좋지 않다. 많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어라」 하더니 얼마 후에 「契丹兵이 많이 들어왔다」고 재차 위급을 고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야 놀라서 벌떡 일어나며 「알았다」 하였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契丹兵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康兆를 묶어버렸다.

이때 康兆 외에도 행영도통부사 李鉉雲, 행영도통관관 盧戩, 감찰어사 盧顛, 楊景, 李成佐 등도 잡혀갔는데 이때 契丹 聖宗이 康兆의 포박을 풀어주면서 「너는 나의 신하가 될 생각은 없느냐」 하니까 강조는 선뜻 「내가 본래 고려인인데 어떻게 너의 신하 노릇을 하겠느냐」 하더니 다시 물어 보아도 같은 대답 만을 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李鉉雲이 契丹 聖宗에게 「두 눈이 이미 세 日月을 보게 되

있으니 한 마음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라」
하고 배신하는 말을 하자 강조는 버럭 화
를 내며 이현운을 발길질하고는 「네가 본래
고려인인데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하고 꾸
짖어 고려인의 기백을 과시했다.

한편 康兆 등이 그렇게 잡혀가서 살해되
니 부하들은 크게 혼란을 일으켜 무질서하
게 쫓기다가 契丹軍이 계속해서 수 십리를
추격하는 통에 3만여명이나 살해되고 내
버린 군량·장비 등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때가 1010년 12월의 일이다.

夜襲으로 敵 모두 사살

通州에서 康兆를 격파한 거란군은 계속
남하할 기세를 보였으나 前左右奇軍將軍 金
訓·金繼夫·李元·申寧漢이 緩項嶺에 북병
을 배치해 놓고 있다가 얼마 안 되는 군사
로서 적군을 기습하여 물리쳤다.

이에 거란병은 北으로 다시 물러가서 속
임수로 康兆의 글을 꾸며내어 흥화진으로
보내고 다시 항복을 권하였다.

그러나 도순검사 楊規는 「나는 우리 왕
의 명을 받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강
조의 명을 받고 온 것은 아니다」 하여 항
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契丹軍은 다시 通州城에 대해서
도 항복을 권유해 보았으나 城을 지키는 군
사들은 더욱 합심하여 성을 고수하였다.

契丹軍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이해 12월
에 郭州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그곳의 방어
사 趙成裕는 어둠을 틈타서 도망쳐 버렸고

이 성을 지키던 여러 장수들은 다 목숨을
잃고 결국 城은 함락되었다.

契丹軍은 군사 6천여명을 남겨 두어 郭
州를 지키게 했는데 楊規將軍이 興化鎮에
서 군사 7백여명을 이끌고 또 通州에서 康
兆의 부하를 1천명을 수습하여 밤에 郭州
의 契丹軍을 습격해서 거의 다 죽이고 성
안에 있던 남녀 7천여명을 구출해서 通州
로 데려갔다.

그 사이에 契丹軍의 主力은 광주에서 남
하하여 淸水江(淸川江)에 이르러 安北 都
護府(安州)를 위협하였는데 이곳 도호부사
工部侍郎 朴暹이 먼저 성을 버리고 달아나
니 州民은 일시에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이때 契丹軍은 거란인 劉絳을 서경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으나 듣지 않고 중랑장
智蔡文은 軍容使 崔昌과 함께 故官의 南廊
에 진을 치고 있었다.

契丹의 大軍이 서경에 접근하자, 성 안의
관민이 몹시 동요하므로 지체문이 城 남쪽
에 나가서 진을 쳤는데 겨우 대장군 鄭忠
節 만이 따라 나갔다.

이때 갑자기 동북계 도순검사 卓思政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세하므로 지체문 등
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契丹軍은 곧장 서경으로 달려와
성을 에워쌌고 契丹의 聖宗은 성 서쪽의 절
간에 자리 잡았다.

이때 卓思政이 휘하의 장군 大道秀에게
「너는 동문으로 나가고 내가 서문으로 나
가서 차례로 挾攻하면 이기지 못할리 없다」

하고 곧 어둠을 틈타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항복해 버렸다.

이에 그 부하 장수들도 거의 다 흩어져 달아나고 城 안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統軍錄事 趙元이 스스로 兵馬使로 추대하고 군사들을 모아서 다시 城을 굳게 지켰다.

서경의 수비군은 비할 수 없는 大軍에 둘러 싸이면서도 필사적으로 서경을 방위 하였으므로 契丹軍은 패전을 거듭하였다.

연달아 공격을 가해도 빼앗지 못한 契丹 聖宗은 中興寺 탑을 불지르고 근처의 肅州를 먼저 공략하고는 곧 서경의 포위를 풀어 더욱 남하를 서두르고 있었다.

楊規將軍의 통쾌한 섬멸전

契丹軍의 主力이 개경으로 향한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논의를 거듭한 결과 姜邯贊將軍의 의견을 좇아 全羅道 羅州로 환도하기로 하였다.

顯宗은 그날 밤으로 후비와 신하, 그리고 50여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개경을 떠나 남쪽 전라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경기도 양주에 이르렀을 때 河拱辰이 왕 앞에 나타나 대책을 아뢰었다.

「契丹은 본래 역적을 치러 나온 것이요, 이미 康兆를 죽였으니 우리가 만약 사신을 보내어 화의를 청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군사를 돌이킬 것입니다」라는 河拱辰의 상주에 따라 왕은 契丹과의 화친할 것을 결의하고 河拱辰을 적진에 보내게 했다.

왕의 중대한 임무를 맡은 하공진이 契丹軍의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그 先鋒은 아무 대항도 받은 일 없이 일사천리로 개경에 난립하고 말았다.

契丹 聖宗이 텅빈 개경에 들어온 것은 顯宗이 떠난지 이틀 후인 정월 초하룻날이었다.

잔인한 살해와 약탈이 감행되고 太廟와 궁궐은 물론 일반 민가까지도 거의 다 불살라 버리고 귀중한 국채와 보물이 일시에 다 채로 변해 없어졌을 뿐 아니라 太祖 이래 穆宗까지 7대에 걸친 주요 事蹟이 다 없어진 것이다.

이같이 약탈과 방화를 일삼던 契丹軍은 개경에 들어오긴 하였으나 원래 명분없는 침략을 감행하였고, 텅빈 수도는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보니 더 이상 顯宗을 찾아 남하한다는 것은 우선 어려운 문제였다.

뒷 전선에서 항복시키지 못하고 두고 온 고려 군사의 끈덕진 기습작전이 위협을 줌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엄동설한에 그 많은 군사들의 군량 조달도 어려워 지탱 못할 곤경에 빠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돌연히 河拱辰이 찾아와서 고려와 契丹間의 和親을 청하는지라 기다렸다는 듯이 하공진의 화친에 응했고, 회군을 약속하였다.

개경에 들어온지 열흘째, 원정군을 끌고 나온지 약 3개월 만에 契丹軍은 개경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적이 통과한 전선지방에서 고려의 군사는 철군하는 거란군을 맞아 곳곳에서 통쾌한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義州에서 기다리고 있던 별장 金叔興은 중랑장 保良과 더불어 거란군을 요격하여 1만여명을 배어 죽였다.

한편 興化鎭을 근거로 삼고 근방 각지의 契丹軍을 소탕하던 楊規는 義州 남쪽의 無老代에서 거란군을 쳐 2천여명을 배었고, 적에 사로잡혔던 남녀 3천여명을 이 작전에서 구출하였다.

부하와 더불어 壯烈한 戰死

楊規將軍은 또 梨樹에서 싸우다가 石嶺까지 맹렬히 추격을 가하여 그 곳에서 2천 5백여명의 契丹軍을 사로잡았고, 남녀 1천여명을 구출하기도 했다.

또 餘里站에서도 과감히 싸워 1천여명의 적을 죽이고 사로잡혔던 남녀 2천여명을 구해 주었다.

이날 즉 정월 22일에는 楊規將軍이 세 번 싸워 세 번 다 이긴 막대한 戰果를 거두었다.

이에 뒤이어 楊規將軍은 契丹軍의 先鋒을 艾田(지금의 慶山지방)에서 요격하여 적 1천여명을 배고, 계속 契丹軍 길이가 들어가 공격을 가했다.

이때 契丹 聖宗이 거느린 大兵力이 밀어닥치니 楊規將軍은 수 백명의 敵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楊規將軍은 종일토록 역전분투하다가 화살이 떨어지고 부하들도 사기가 떨어져 온

갖 힘을 다하여 싸워 보았으나 할 수 없이 그의 부하와 더불어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이같이 막대한 大軍을 상대로 사력을 다하여 싸운 그의 투혼은 고려 군사의 사기를 높여 주었고 적개심을 최고도로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楊規將軍의 요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契丹軍을 향해 고려군은 필살의 공격을 감행하였고 契丹軍은 곳곳에서 막심한 손실을 맞보아야만 했다.

또 때 아닌 큰 비를 만나 軍馬가 쓰러지고 병기를 잃어버린 채, 압록강을 건너가는 중 契丹軍의 진중에는 큰 혼란을 빚었다.

그때 契丹軍의 뒤를 쫓아 최후까지 추격을 늦추지 않던 鄭成은 楊規將軍의 서전 鎭使인지라 주장의 원수를 갚고자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契丹軍이 반쯤 강을 건널 때에 이르러 크게 공격을 가하니 강물에 빠져 죽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창과 칼과 화살에 맞아 죽는 자 또한 적지 않았다.

이리 하여 압록강을 건너 갈 수 있었던 契丹軍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楊規將軍은 契丹軍과 싸우다가 중과 부족으로 할 수 없이 장렬하게 전사할 때까지 10여일간 일곱번 싸워 일곱번 모두 이겼다.

그동안 무찌른 契丹軍의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았을 뿐 아니라 敵에게 사로잡혔던 동료를 구한 것 만도 3만여명이나 되었다.

그외도 契丹軍에게서 군사기지를 빼앗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의

功은 탁월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西北方의 여러 城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3개월 가까이 걸친 수많은 격전에서 입은 희생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었다.

특히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꾸준하게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楊規將軍과 그 부하의 죽음은 거란의 大軍을 몰아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라의 위기를 견져낸 그 투혼은 바로 고려 武士의 기백을 표시한 것이고 이 정신은 그후에도 거듭 닥쳐오는 國難을 극복하는데 고려인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고려 조정은 楊規將軍의 공적을 높이 포상하여 만인의 귀감으로 삼았다.

< 충 고 >

황희정승의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이 있다. 황희정승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황정승은 그 농부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시오, 그때 그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 하오?」

이렇게 묻는 황정승의 말에 농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황정승은 혹시 농부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가 해서 더 큰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얼마 뒤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서 황정승 옆으로 가까이 다가서더니, 황정승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서, 「검정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황정승은 농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그제서야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짐승이라 하여도 잘못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아니오? 그러니 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듣고 황정승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가 정사를 하는 때도 늘 그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家計手票事犯 解説



編 輯 室

이 자료는 공군본부 법무감실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가계수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시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1. 서 언

근래에 당 군 소속 장병들도 가계수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가계수표제도는 간편한 지급수단으로서 편리함이 많은 반면, 부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계수표 사범을 사전에 근절하

여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계수표가 부도처분된 경우의 형사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유형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 대월한도 초과발행으로 인한 부도 처분

가. 가계수표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당좌대월 약정의 한도액은 금 30만원인 바, 이러한 약정대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이 수표는 부도처리되고, 거래은행은 부정수표단속법 제 7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있음.

나. 이 경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2항, 제 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3.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한 경우

가. 거래은행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금융기관과 가계수표 거래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남아 있는 가계수표용지를 이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면, 예금잔고에 관계없이 처벌받는 것임.

나. 처벌내용은 전 항과 같음.

4. 가계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가. 가계수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5조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상의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는 것임.

나. 이 때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절취하여 타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면 가계수표위조죄의 이와 같은 형량 외에 절도죄에 해당하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산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임.

5. 가설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가. 자기의 가계수표용지가거나 타인의 용지가거나를 불문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임.

나. 이 때에도 타인의 가계수표용지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면 절도죄의 형이 가산되는 것임.

6. 금융기관에 허위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예컨대 자기가 제대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면서도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실하였다거나 또는 도난당하였다고 거래은행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나. 이 때에는 거래은행에서 당해수표를 지급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수표단속법 제 4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임.

7. 결 론

가계수표는 그 부정행위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당좌수표, 또는 자기앞수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계수표에 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발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형사입건되어 군법회의에서 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가 되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은 가계수표의 사용에 있어 약정 당좌대월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한편,

가계수표용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또는 분실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각급 지휘관 등은 장병들의 가계수표 사용에 있어서 무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최초의 언어 ◇

인류학자에 의하면 네안델타인은 인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현대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를 사용했고, 그 언어 능력은 원숭이라든가 아기들과 흡사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원전 4만년경의 크로마뇽인은 효과적인 음성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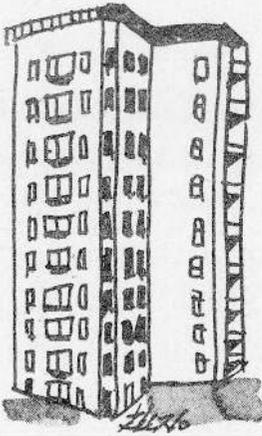
1966년 12월 루마니아의 모르스하(河) 유역의 타아탈리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다뉴브문화의 정토 명판(銘版)은 기원전 5000~4000년경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판 위에는 궁시와 문(門) 그리고 빛의 표상이 새겨져 있다.

1970년에는 기원전 3500년의 것이라고 하는 이일람어의 원형을 전하는 문자판이 이란 남동부에서 발견되었다. 미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마샤크에 의하면 파리 교외의 국립고대미술관에 있는 기원전 3만년의 크로마뇽인의 69개 표시가 된 뼈는 멧대로 그어진 선이 아니고 달의 만삭이라든가 태양이나 달의 주기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대화의 必要性 ≡≡≡

장 재 화

〈서기관 : 내무부〉



옛날부터 「닭이 먼저인가 아니면 달걀이 먼저 있었는가」하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개인이 먼저 있었는가 아니면 사회가 먼저 있었는가」는 문제도 성립된다. 개인이 먼저 있었다면 그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사회가 먼저 있었다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된다.

만일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것이라면 우리는 사회가 없는 개인이나 이웃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자아를 생각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음을 깨

달아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버려두면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본능이기도 하며 또 우리들의 경향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굶주린 이리떼들이 서로 해치며 잡아먹는 것 같은 비참을 되풀이 하겠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끈질긴 자기중심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이 생존에의 본능과 결부되면 이웃과 타인을 불행으로 몰아넣고라도 나는 즐겁게 잘 살고 싶다는 힘의 행패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개인의 생활이나 민족 간의 갈등과 암투를 역사적으로 회상해 본다면 그 때문에 빚어진 비참과 파멸의 기록은 얼마든지 있다. 전쟁을 비롯한 힘의 정복도 같은 내용의 비극이며, 개인간의 질투와 살상도 예로부터 계속되어 왔다. 현재에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동물

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켜 가면서 살아온 선배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 질 수가 있다.

질투와 싸움이 본능인 것 같아도 사랑과 봉사의 정신도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와 사회가 유지되어온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와 같이 이기적일 수도 있으나 천사와 같은 선의 실천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어느 편을 택하며 어떤 인생관을 갖는가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선택과 노력이 다른 바로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편을 선택하며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직장과 사회가 새로운 방향을 택하게 된다.

우리 사회를 악마의 고장인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양심이 빛나는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생활을 위한 가장 고귀한 뜻과 교훈은 어떤 것인가. 물론 그 대답은 하나로 낙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최초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가」함에 달려 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 나라에 대해서는 충이 제일이라고 생각한 때도 있으며, 효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라

고 가르친 사람도 있다. 법이나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정의의 질서가 무엇보다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덕가나 종교가들은 仁, 자비, 사랑같은 개념을 내세워 인간애의 정신을 강조해 오기도 했다. 정의와 사랑의 질서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 자신이 직장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귀중한 인간관계의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는가. 또 어떤 德目を 내세우기보다는 실천적인 방법을 동반하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의 것이 되겠는가. 성서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데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했다. 그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히 귀담아 들을 교훈이다. 우리들 모두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남에게 향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사회는 하루 동안에 낙원으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 밑에 너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쳤다.

성서의 이야기를 윤리적인 규범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칸트의 주장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기초적인 것의 하나는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이해의 필요성은 우

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간관계의 기본적 조건이다. 상호간의 이해의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일체의 사회생활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이해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

이해라는 한문자는 이성적으로 풀어가자는 뜻일 것 같다. 이해관계나 권력관계가 아닌 가장 바르고 합리적으로 서로를 알아주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태도일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해라는 말은 언더스탠드(understand)라는 말로 표현한다. 내가 낮은 데 선다는 뜻이다. 사람은 높은 곳에 설수록 낮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쉬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해는 서로의 환경과 생각에 욕망을 바꾸어 가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며 상대방의 생각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해의 길은 쉽게 트인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최초의 방법이다.

그러면 생각과 뜻을 바꾸어 가지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선의의 대화를 갖는 일이다. 옛날부터 우리는 웅변과 침묵은 애기해 왔으나 선의의 대화는 별로 생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대화교육을 장려해 왔고 서독은 히틀러 때 파괴된 사회를 재건하는 정신적 방법으로 대화운동을 활발히 일으켰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졌던 일본이나 한국에 대화의 장소를 위해 아카데미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의 건설적인 개선을 위해 폭넓은 선의의 대화를 상하관계나 횡적 관계에서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것은 이해를 더해 주며 이해는 객관적 가치와 협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눈

編輯室



여름 날 파초 일에 비가 드는 소리처럼 정갈스러운 시원함을 주는 것이 또 있을까. 후드득 꾸밈도 없는 투박한 소리, 거기에 밤꽃 냄새같은 흙냄새가 피어 오르면 여름 소나기의 정취는 한결 더한다. 세상 모르고 뜨거운 태양을 마음껏 肉化시킨 파초의 탐스러운 성장에서 우리는 싱그럽고 풍성한 생명의 신비를 찬탄한다. 그 위에 무심히 내려 달는 빗방울은 생명들이 주고 받는 交感과 비밀스러운 조화를 느끼게 한다. 생명의 합창, 생명의 고통, 우주의 숨결에 실려 오는 공명의 선율을 듣는다.

어쩌다 산사에 머무는 밤에 소나무, 자작 나무 숲 속을 지나는 바람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얽어지고 백지처럼 바래져 간다. 실오라기가 지나는 발자국같은 가느다 가는 바람소리에 우리 가슴이 가늘게 표백되어 간다. 잡다한 티끌들이 말끔히 가시고 나는 한결 순결해진다. 뜻을 두고 솔바람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무딘 가슴에도 聯想의 파도가인다. 이대로 출렁이다 어느 날 숨이 다하면 말없이 가는 것인가. 어느 날 몸에서 나간 호흡이 다시 들어 오지 않으면 저 청산에 낙엽지듯 그 자리로 갈 것인가. 세상에 와 묻은 때가 얼마인가. 그러기에 이토록 짐스러운 보따리를 안고 언덕길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와 진 빗이 얼마이기에 이처럼 죄스럽고 미안한가. 낙엽을 굴리는 바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영혼이 산사의 조용한 밤을 깨어 뒹굴다 새우고 만다. 소낙비와 파초가 엮는 진통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진

혼의 음악이라면 산사의 밤에 누어서 듣는
솔바람 소리는 우리의 혼을 灌浴시키는 신
묘한 法音에 비기고 싶다.

그보다 더한 仙境은 풍성하게 첫눈을 맞
은 산이다. 천하가 잠든 밤을 몰래 내린 첫
눈에 덮힌 산은 산이 아니라 그림이요 영혼
의 나라를 감싸는 보로다. 눈으로 채색된
산은 그대로 자연의 캠퍼스다. 참으로 있
는 것은 있음이 없이 있는 것이라면 참그
림은 그림이 없이 그려진 그림이 아닐까.
어떤 의도나 계획이나 작위가 끼어들지 않
는 그 無為가 참으로 있는 것의 구도요 모
습이 아닐까. 여기에 어떤 의식이 발동하거
나 에고(Ego)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참을
깨뜨려 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한다. 생각이 없는 생각이다.

첫째,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닌다면 세상이 모두 아름다울 것이 아니
냐 하는 생각이다.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
기 때문에 더럽고 싫증나고 괴로운 것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자기수호가 아
닐까 하는 생각이다. 탐욕스러운 이기의 숲
에 갇혀 나는 순수를 보고 참 모습을 불
눈을 잃은 것이다. 내 눈은 이미 참 모습
을 볼 능력을 잃은 것이다. 그것은 대상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경으로
채색된 내가 만든 내 모습을 대상에 투사하
여 내가 꾸민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러므로 내 시력은 내 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내 感受능력과 수용의 능력은 내가

지닌 예지의 저울대를 넘어설 수 없다. 있
는 그대로의 참을 보려면 내가 참되어야 한
다. 어떤 선입견도 어떤 자의식도 참을 가
려 버리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佛家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며 보는 주체를 내세우지 못
하게 하고 無心을 가르치며 보는 마음을 따
로 갖지 말 것을 말한다. 이 얼마나 적절
한 표현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에 마음이 가
난해야 참을 보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함도
한 가지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마음의 가
난은 곧 무사무아다. 어떤 세상의 구더기가
끼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둘째는 꾸미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
각이다. 꾸며서 아름다운 것은 조형미요 우
리가 나름대로 설정해 본 불완전한 理想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격이란 꾸밈없이 사는 삶의
자세다. 주어진 자기 몫의 삶의 배역을 잘
치루어가는 삶의 모델을 인격이라 할 것이
다. 꾸미면 생명이 죽는다. 만들면 참 모습
이 사라진다. 설명하면 진실을 그르치고 만
다. 그래서 禪家에서는 開口即錯이라고 하
지 않는가. 논리화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참
실재와는 거리가 먼 제2의 우상을 만드는
격이 된다.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꾸
미지 않는 마음자리를 유지하느냐에 귀착된
다. 어떻게 해서 꾸밈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꾸밈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있다. 설경이 아름다운 것은 내리는 눈도
꾸밈 의도가 없었고 받는 나무들도 造作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든 것은 그래서

죽은 것이다. 造化는 그래서 생명이 없다. 출발을 흐르는 바람도 바람 그대로 이기에 우리가 자기순화의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비를 맞는 파초가 파초일려는 의도도 소낙비 일려는 자아의식도 없기에 우리의 혼을 빗질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세째, 서둘지 말라는 생각이다. 서두는 것은 조급하다는 말이요 조급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다. 서두는 것은 인위요 욕심이다. 무욕한 사람에게는 自足の 낙이 따른다. 자족만큼 가득한 만족은 없다. 지혜는 자족을 터득함이 최상의 지혜다. 본질에서 보면 욕심이란 참된 내 생명의 소산이 아니다. 원래 근본 생명은 이미 만족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具足の 상태가 생명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심을 내는 것은 불만의, 부족의 시작을 여는 문이 된다. 서둘러 가면 자기 울동을 잃는다. 분에 맞지 않는 서두름은 조급이요 조급은 생명의 흐름에 이상울동을 가져온다.

그래서 조급은 생명의 파장에 혼선이 오고 그래서 생명은 제자리에 복귀하려는 반동이 일어나고 이 생명의 난기류가 곧 불만이다. 불안은 생명의 리듬에 병을 가져온다. 불안은 생명의 伸張을 가로막는 암이다. 현대인은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오고 너와 나를 대립시켜 적대관계에 이른다. 생명에는 일정한 울동이 있다. 그 울동의 두 줄기가 기다림과 참음이다. 성숙에는 기다림이 있고 결실에는 참음의 질서가 함께 있다. 이 생명의 질서, 우주의 대법칙

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질서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서둘지 않는 고요한 마음은 왜 행복한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인 적정의 자리에 돌아간 탓이다. 조급하지 않으면 왜 행복한가. 우리가 생명의 질서인 참음과 기다림의 두 울동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老子の 도덕경에 무위이무불위(無為而無不為)란 말씀이 있다. 무위란 함이 없이는 말이다. 자국을 남기지 않고 함을 말한다. 조작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케도를 벗어나지 않는 함(作為)이다. 그러므로 無為란 없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정된 목적을 설정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것은 무위가 아니다. 일에 매임이 없이 일을 하는 것이다. 무위란 곧 질서요, 무위란 가장 완전한 행위다. 완전한 작위다.

우리는 이제 파초의 無為와 솔바람의 寂靜과 첫눈의 무위에서 몇 개의 삶의 교훈을 얻는다.

먼저 우리는 동화하려고 하지 말자. 동화는 자기의 상실이다. 대인은 和而不同 하고 소인은 同而不和라는 말이다. 전체적으로 공화하되 각각의 성품은 오히려 싱싱하게 지켜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같은 듯하나 전체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두 개의 상반된 경우를 말한다. 꼭지점을 위해 하나이면서 개별 특성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 자꾸 남을 추종하고 유행을 쫓는 것은 꼭지점없는 막연한 집합으로 개성만을 상실한 것이다. 문화의 주류가 전파매체로 주종을 삼고, 기계조작의 기술이 문화의 본령으로

알며, 감각적 만족이 예술의 광장으로 오인하고 있다. 갖가지 정보에 포만하여 인간은 참된 門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삶의 준칙이 타인이 되고 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外在律이 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 남이 준 정보에 묶여 참 나의 삶에서 쫓는 생명의 정수를 못 마시고 산다. 기존의 Rule에 묶여 포박되어 있다.

소속감을 갖고 동일보조로 단체목적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성의 상실, 자아의 매몰이어서는 안 된다. 온갖 나무가 어울려 숲과 산을 이루면서도 각자 자기 개성, 자기 생명은 잃지 않는 저 산의 나무를 보라!

또 하나 造作하지 말자는 말이다. 남의 흉내를 내서 내 모습 아닌 조작 장식의 마술사가 되어 인생을 얼마나 허구 속에 살고 있는가. 개성을 담아야 한다. 자기 냄새가 풍겨야 한다. 자기 모습이 살아 있어야 한다. 자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결코 전체에서의 이탈이 아니다. 본질을 지향하는 각각의 “채널(Channel)”이다. 우주는 다양한 요소의 통일적 집합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하나는 그가 지닌 각각의 기능이 있다. 유행에 동화하는 것은 자기 기능의 포기다. 자기에게 지워진 인생의 직무유기다. 각각의 그것들이 전체의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야 한다. 일미평등이다. 기체에 각종 부속이 고유의 기능을 다하여 전체의 기체가 움직이는 이치와 같다.

조작은 자기가 죽은 것이다. 내 목소리

내 숨씨로 살아야 한다. 선전 전시용, 상업용이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개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누구도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난대로 제 것을 만들자. 절대우수의 표준품은 없다. 각각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품이면 다시 노력하라. 사상도, 언어도 모조품이어서는 안 된다. 원점을 통하는 직선은 무한히 있는 법이다. 밖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본질의 표현이다. 내가 만든 것, 내가 표현한 것은 내 혼의 표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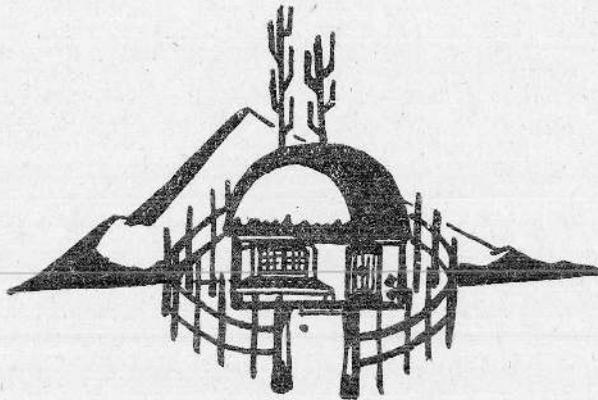
또한 세련을 위해 자기를 마멸시키지 말자. 세련은 오히려 위장이다. 지나친 세련은 자기의 교살이다. 오히려 세련때문에 세상의 비극은 증가된다. 세련은 모방술을 동원한 자기과시다. 자기를 다듬어 모나지 않게 함과 세련은 다르다. 자기의 稚氣를 떨고 만인 공인의 행동양식, 생활습속이나 문화의 공통 표준을 따르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세련이라는 이름 앞에 인간성이 표백되고 세련이 개성의 평준화를 가져오고 세련이 순수 인간성의 퇴화로 치닫고 있음을 안타까와 함이다. 세속과 시류에 흠뻑 젖는 것이 세련이어서는 안 된다. 세련은 원숙이어야 한다. 혼의 승화여야 한다. 세련이 저속과 저질화여서는 안 된다. 고고하게 자기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예지가 성숙한 인격으로 몸에 배어 들 때 그것이 세련이 아니겠는가! 세파에 단련되고, 염치가 무디어지고, 감성이 둔화되고, 양심의 촉발이 둔감해지고, 약삭빠른 상업성과 대중적 취향에 마비된 사람, 時俗에 출타기를

잘하는 기능사가 세련된 사람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성을 팔고 약삭빠른 利財의 기술, 권문에 접근하는 기술, 비도덕적 축재의 기술을 세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기의 좁은 골목을 벗어나 참예의 수련을 쌓는 것이 세련이다. 생활의 공동규범을 익혀 소아적 아집을 청산한 것을 세련이라고 보아야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우친 인격을 세련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끈질긴 에고(Ego)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세련되었다고 해야 한다. 자기로부터 탈피하여 더 큰 나를 본 사람을 세련된 사람이라고 일러야 한다.

첫눈이 만든 저 자연의 숨씨가 참 세련이다. 모방하지 않는 저 파초의 빛소리가 참된 소리임을 들을 줄 아는 가슴이라야 한다. 저 산사의 솔바람 소리에 가슴 저리는 참예의 향수를 지닌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다. 세련이 세상의 흙탕물에 채색된 인격을

말하는 세상이라면 아직도 우리세대에 구원의 불빛은 요원한 것이다. 세련을 잘못 이해하여 깨끗한 나를 얼마나 때를 묻혀 놓았는가 보자. 전혀 자기 생각, 자기 발이 아닌 것들을 구사하여 자기를 탈바꿈시키고 있는가. 잘못 세련의 길을 찾다가 속물이 되고 자기를 상실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세련은 그 속에 살면서도 그 속을 떠나 사는 셋별같은 인격이다. 숲속의 백합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살자. 무사평등한 자연의 섭리에 눈을 떠 보자. 좁은 나의 성벽을 뚫자. 자신이라는 성벽, 사상이라는 성벽, 종교라는 성벽, 파당이라는 성벽, 예술이라는 성벽, 권위라는 성벽을 뛰쳐 나와 저 창공을 춤추는 첫눈을 쳐다보자. 씻어내자, 我相의 묵은 때를 씻어내자. 자연은 스승이다. 부처요, 예수요, 노자요, 공자다. 자연이 육신의 옷을 입을 때 바로 성자인 것이다.



医学

산성食品과

알카리성 食品

김 용 직
(고려대학교수)



「산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질이 극성화되어 건강을 해친다」 또는 「알카리성 식품은 건강에 좋다」 등의 영양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흔히들 듣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식품을 산성 식품 알카리성 식품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関心만을 갖는다는 것은 영양 문제에 대하여 개개인의 개체는 생각지도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만 건강의 焦点을 맞추어 왔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식품의 산성·알카리성으로 体液狀態가 어찌될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큰 착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몸 안은 언제나 산·鹼基 平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적

으로는 혈액이나 각종 체액은 강알카리성을 가지게끔 調節되어 있다.

그래서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酸症이라 하여 呼吸困難이 생긴다든지 甚하면 昏睡狀態가 일어나기도 한다.

반대로 체액이 지나치게 알카리성으로 기울어지면 알카리성이라 하여 전신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其他 체액의 지나친 PH의 변화는 각종 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PH라는 뜻은 용액의 산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체액은 약 7.4 정도이고 PH가 7보다 크면 알카리성이라 하며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한다.

생체 내 PH를 調節하는 물질이 혈액이나 체액 내에 여러 가지가 있으며 其他 신·폐기능도 조절기관으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糖尿病을 치료치 않고 방치하였을 때 중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 체내에는 케톤체의 축적이 늘어 체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져 산성의 酸狀이 나타나는 수

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機轉에 依하여 呼吸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알카리성으로 되기도 하며 또는 甚한 嘔吐가 있을 때도 알카리성으로 되어 건강을 해치는 수도 있다.

체액 중에는 위액같이 PH가 1.5~2.5 정도의 강한 산성인 것이 있는가 하면 脾液같이 PH 8.5 정도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調節하기 위하여 尿의 PH는 보통 PH 4.5~7.5로 비교적 넓은 幅으로 되어 있어 체액 調節에 큰 役割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을 산성식품과 알카리성 식품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食醋나 살구같이 酸味가 강한 것이라고 해서 산성식품은 아니다.

식품의 산성·알카리성의 判定은 식품을 300°C~500°C의 고열로 완전연소시킨 뒤 남게 되는 재(이 중에는 각종 鈣物質이 남게 됨)를 물에 용해시켜 그 PH를 측정하여 산·알카리성을 구분하고 있다.

即 타고 남은 재속에 있는 鈣物質 중에는 용액 내에서 산성이 되는 것도 있고 알카리성이 되는 것도 있어 어느 것이 많느냐에 따라 그 식품의 산성·알카리성을 결정한다.

예컨대 살구같은 酸味가 있는 식품 중에는 알카리성 鈣物質含量이 높아 알카리성식품이 된다.

이 부류에 속하는 식품에는 각종 과실 野菜類가 該當되며 牛乳 및 그 제품도 알카리성 식품에 속한다. 그러나 각종 유류에는

硫黃이나 산성식품이며 쌀도 磷含量이 높아 강한 산성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식품을 우리가 攝取하였을 때 果然 우리 체액이나 혈액의 산도를 어느 정도 變更시킬 수가 있을까? 사실은 이들 식품의 攝取로 체액의 산도를 변화시켰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실험적으로 쇠고기 1kg을 먹었을 때 체내에서 나타낼 수 있는 산과 동량의 약품을 건강한 성인에게 每日 投與한 바 체액의 PH는 7.35 정도로서 正常範圍 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약물 投與를 중지하면 2~3日内에 다시 정상치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또한 野菜나 과실을 전혀 먹지 않아도 체액이 산성으로 되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영양소의 均衡이 깨지게 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양소의 均衡이 제대로 잡힌 식사를 할 경우에도 체내에서는 알카리성 물질의 약 10배 이상의 산성물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산은 체내에 존재하는 酸·塩其 調節機構에 依하여 너끈히 矯正하고 정상치를 維持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알카리성 식품을 다량 먹어야만 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산성식품을 먹거나 알카리성 식품을 먹거나 체내의 산성·알카리성의 均衡調節은 언제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체질이 산성화되

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말은 쓸데 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正當한 食생활을 誤
導하기 쉬운 「무서운 迷信」이라고 말할 수
가 있다.

이와 같은 기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
품의 산성·알카리성 보다도 5가지 종류
의 基礎 食品群을 제대로 均衡 잡히게 잘
먹는 것이 健康維持의 捷徑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이 迷信같은 것
이 우리 食생활을 제대로 誤導하게 되었는
가? 돌이켜 보면 식품을 산성·알카리성으
로 문제 삼았던 전례의 역사가 있다.

即 19세기전, 그러니까 維生素의 발견이
있기전 營養素 연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1889년 스위스의 과학자 Bunk 博士가 육
류는 체내에서 완전 산화되면 硫黃이 남게
되고 이것은 체내에서 산성물질로 변하여
체질을 산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알카리
성 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硫黃이 체내
에서 그 일부가 산성물질로 되는 것은 사
실이나 그것이 곧 체질을 산성화 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即 中화를 위하여 알카리성 음식을 꼭 먹
어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체내에서 中화에 사용되는 물질(緩
衝劑)은 식품으로 攝取하여 저장되는 물질
이 아니다.

예컨데 酸·塩基調節에 체내에서 크게 작
용하는 中炭산사만 하여도 체내에서 각종
유기물질이 산화되어 생기는 이산화탄소로

부터 유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腎에서 尿로 酸排泄에 必須物質인
암모니아만 하여도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아
미노산 대사산물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볼 때 肉類消費增大는
食品供給에 큰 문제가 提起될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국가정책상 肉류소비를 억제하
기 위한 하나의 誤導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쌀 위주의 食생
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肉類·脂肪攝取는 부
족한 실정이어서 結核환자가 아직도 사라지
지 않고 있는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와서 營養문제가 건강·장수·정력
과 어느 사이에 연결이 되어 갑자기 제대
로의 營養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우연한 어
떤 사실을 과장 표현하거나 그것을 正當화
시켜 사람의 弱點을 이용 선전하고 있다.

산성·알카리성 식품에 대하여도 인체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지 않고 체
액을 수도물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인식으
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백미는 마치 害食品인
양 지나치게 말하기도 하고 있으나 5천년
동안 그것에만 의존하여 營養을 維持한 우
리로서는 지나친 誤導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구나 요즘 營養학의 연구가 전문화되고
많은 營養학전공자가 나오고 있는 반면 아
예 營養학의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
람들이 서당강아지 3년에 풍월을 한다는
식으로 어깨너머 듣거나 특히 최근 일본에
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웃지 못할 내용의

서적을 한 두권 읽고 마치 영양학자·식품학자나 된양 전문가를 뺏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 TV, 신문 등에서 소름이 끼칠만큼의 잘못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국민의 영양학 지식을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문가들이 아무리 시정을 촉구하여도 아직 일부에서는 「40대 이후에는 菜食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느니 「육류나 脂肪食品은 인체를 금세 병자로 만든다」는 등의 말만을 믿는 이들이 많아 웃지 못할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傾向이다.

그와 같이 역설적인 이론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물성 식품이나 脂肪食品의 攝取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이나 動脈硬化환자가 歐美人에 비하여 적은 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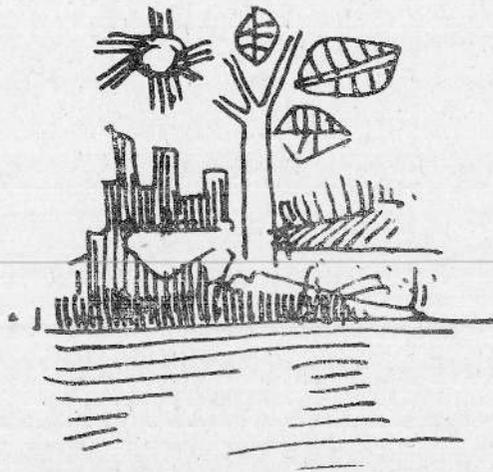
그래서 요즘 갑자기 성인병 예방대책이라 하여 난데 없이 脂肪이나 동물성 식품을 먹

지도 못하면서 피하러 야단이고 산성식품 攝取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혈압원인은 85% 이상이 소금섭취과다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결코 동물성 식품이나 脂肪攝取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소금성분인 Na(소다)는 알카리성 식품 중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지나친 알카리성식품 섭취는 고혈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식품 중의 鈣物質이 시험관 내에서와 같이 單純한 반응을 呈示한다고 생각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생체내 반응을 너무나 單純하게 생각한데서 기인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어찌되었던 최근 학설로는 식품의 산성·알카리성이 체내 PH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否定되고 있다는 것이며 식품은 제대로 골고루 섭취만 하면 우리 몸은 잘 적응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
 ≡≡ 나비처럼
 || || || ||
 꿀벌처럼 ≡≡
 || ||

編 輯 室

이 글은 전호명 수필집 꽃밭일기에
 서 발취한 글로서 인간의 참된 삶은 박
 쥐와 개미와 같은 생각은 버리고 꿀벌
 이나 나비와 같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
 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분류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구별할 것이다.

박쥐와 같은 인생, 개미와 같은 인생 꿀
 벌이나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말이다.

○ 우리들의 생활 주위에 박쥐와 같은 인
 생이 있다.

· 빛나는 햇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활동하기를 기피하고 어두운 밤이나 구름,
 안개로 뒤덮힌 습지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
 는 박쥐다.

침침한 동굴 속에서 기분 좋지 않은 눈빛

을 번쩍거리며 뿔뿔 나르는 박쥐의 무리들
 이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몸둥이보다도 더
 긴 날개를 펼치고 이리저리로 날고 있다.

맑고 부드러운 대지 위에서 활발하게 살
 아가는 동물들과 비교해서는 정상인 아니라
 고 본다. 박쥐는 그 나름대로의 생활방식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에 사람의
 생활이 그렇다면 이상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도 그런 부류가 있다.

거짓이 없는 흙과 더불어 자연의 생각대
 로 살아가며 부지런히 일하면서 노동의 댓
 가를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어
 느 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처박혀 있다가 캄
 캄한 밤이 되어야만 활동의 무대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도둑의 무리가 그것이고 사기꾼이나 날치
 기의 무리도 마찬가지다. 노력의 보람도 아
 닌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힘들여 모아 놓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쉽게 가지려는 나쁜 사
람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
가는 도둑들이다. 사람 썩치기를 예사로 하
는 殺人者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必要가
없다. 없을수록 사회가 안정이 되고 생활에
불편이 줄어든다. 정말로 박쥐와 같은 무리
들이다.

○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아주 작은 몸집을 가진 개미가 여름 날
무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자
기의 몸보다도 훨씬 더 큰 물체를 굴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부지런한 그
들로 하여금 게으른 우리들의 일상이 부끄
러워진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면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무리가 모여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옮겨가고
있다. 어느 동물보다도 협동심이 강하고 부
지런하다.

이웃이나 친구가 잘되면 배알이 뒤틀려서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비교해
볼 때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나 개미들도 자기 자신을 위한, 양식
을 구하기 위한 작업 뿐이다.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강한 개미도 사람들에게는 도움
이 되는 것이 없다. 자신들만 챙기기 때문
이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이다. 개미가 없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없고
개미가 있다고 잘 될 일도 없다.

우리들과 더불어 사는 데도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 자신 만을 부지런히 챙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다. 남이야 죽던 말던
이웃이야 살던 말던 내 하나 만을 위해 곳
곳이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勤勉이
라는 조건으로는 본받을만 하지만 다른 이
유로서는 소외시되기 쉽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부류에
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하다. 만물의
靈長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인류사회를 위
해서 이바지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사회에
서, 주위에서 必要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먹을 것이나 찾고 자기 한 몸
챙기는 것이 고작이래서야 되겠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보람스럽다.

○ 그리고 꿀벌과 나비가 있다.

나비는 꽃피는 강산을 이리저리 날아가며
춤을 춘다. 그 모습이 보기에도 좋다. 하얀
날개를 팔락거리며 꽃밭에 날아드는 모습을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다. 아름다운 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생활이 부드러워지기도 한
다.

나비는 꽃과 꽃을 넘나들면서 꽃가루를
물힘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도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攝理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

아무리 무성한 식물이라 해도 열매를 맺
지 못하면 번식이 되지 않는다. 식물의 번
식이 없이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고 살 양
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양식이 되는
일을 즐기만 하는 것 같은 나비가 하는 것

이다. 꽃가루를 옮김으로서 씨방이 결실을 갖게 된다.

꿀벌은 나비와 똑 같은 일을 하고 꿀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꿀은 달고 맛이 있다. 사람이 먹으면 좋은 양식이 되고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나비와 꿀벌은 인류에게 해로운 것이라고는 하지를 않는다. 좋은일, 보람된 일만 한다.

내 주위에는 나비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박쥐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한 몸 만 쟁기는 개미와 같은 사람도 아니다. 이웃이나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이들이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해 나가고 돕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다. 꽃의 향기보다 진한 인격의 향기를 내어 뿜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비처럼 꿀벌처럼 산다면 싸움이 필요없고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 실상으로 옮겨졌을 때 다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理想이 아니겠는가!

못마땅해서 토닥거리기 보다도,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보다도, 더러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나비처럼 살자, 꿀벌처럼 살자, 따지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너와 난데 이해하면서 살자, 부드럽게 살자.

<名 言>

徳이 있는 사람은 말도 또한 훌륭하지만, 말이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덕이 있지는 않다. 仁한 사람은 용기가 있지만, 勇氣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 반드시 仁한 것은 아니다.

有徳者必有言 有諾不必有徳 仁者必有勇 勇者不必有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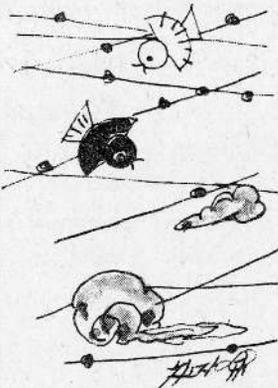
— 孔 子 —

잊혀지지

않는 追 憶

권 광 주

(사무관 : 문교부)



동네 개구장이 하나가 솜사탕을 소중한 듯
높이 지켜두고 곧복길로 들어서고 부러워하
는 표정의 조무래기 몇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혹 불면 푸른 하늘을 향해 한없이 마냥
떠올라 어디론가 사라질 솜사탕의 빛은 그
지없이 희고 밝다.

이 솜사탕을 보자 망각 속에 까맣게 묻혔
던 차돌할머니의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작달막한 키에 허리가 꼬부라져 몸은 아
주 왜소하게 보였다. 흰머리는 때문은 현실
같이 운택을 잃고 있었지만 노인답지 않은
活력이 있었다.

주름살로 뒤덮인 쪼그라진 얼굴에서 어두

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기 분수
를 안 知足의 생활이라고 할까, 待天命의 철
학을 투철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까, 諦念 속에 자신을 안정시키고 있는 哲人
같기도 했다.

수중다리에 천식으로 병들어 활동이 부자
유한 아들 그리고 귀먹은 머느리와 큰손자
차돌이와 바우 두 손자의 뒷바라지며 우리
집 일을 돌봐 주기에 설틈없이 바빴다.

아무 것도 잘 할 줄 모르는 귀먹은 머느
리가 손자들을 보게 해 준 것만이 고마운
일이고 대견한 일이라고 머느리 자랑이 이
만저만이 아니었다.

노인에게 벅찬 일이겠지만 짜증을 내거나
굴 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

지금 생각해봐도 차돌할머니의 쑥 들어간
눈은 善意와 仁慈로 빛나고 있었고, 直心으
로 가득차 있었다. 조심스러운 몸가짐, 입
가에 언제나 피어있는 조용한 미소. 이것은
타고난 천품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가다

듬은 結晶에 틀림없다고 생각되며 차돌할머니는 修道者였던 것만 같다.

우리 집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며 일들을 보살피 주었지만 차돌할머니가 가장 信望이 두터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도 이 차돌할머니가 무척 좋았다. 어른에게 좋아리를 맞을 때 내 대신 용서를 비는 이는 으레 차돌할머니가 도맡았다. 그래서 무서운 회초리를 면하곤 했었다.

남 대신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차돌할머니의 핏 속에서 흐르고 있었던 것 같다.

차돌할머니의 간절한 평생소원은 서울구경이었다.

당시 우리 집은 서울에서 출oot 살아오다가 나의 曾祖父가 경기도 양평으로 낙향해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차돌할머니는 서울의 대궐의 크기, 전차나 기차에 대한 호기심이 전기불에 대한 궁금증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러다 어느 해 서울 외가로 어머니와 동행을 하게 되어 차돌할머니의 간절하고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다.

자동차를 처음 타보는 차돌할머니의 표정은 민족과 의아함으로 어려 있었다.

아우고 차가 움직이자 차돌할머니는 앞소매로 눈을 닦았다. 또 아들 생각의 눈물이 있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차돌이와 함께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가게 되었다.

차에서 내리는 차돌할머니의 얼굴에는 두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안도와 반가움이 뒤섞인 착실한 눈물이었다.

차돌할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다가와서 젓가락같은 대(竹) 두 개를 손에 꼭 쥐어 주었다.

나는 차돌할머니와 차돌이 그리고 내손에 쥐어진 대 두 개를 번갈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가를 궁리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밤 온 집안은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다.

차돌할머니가 서울갔던 선물로 솜사탕을 두개 샀다는 것이다. 솜사탕은 녹는 것이니 사지 말라고 말렸으나 막무가내더라는 것이다. 솜이 녹다니 될 말이냐고 하며 시골의 목화솜을 생각한 모양이었다. 솜사탕은 오는 도중 좋아들고 녹아 없어져 대만 남고 말았지만 그 대를 버리지 않고 내손에 쥐어 주기까지 한 것이다.

가족들은 차돌할머니의 直心이 낳게 한 이런 일을 웃을는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나는 그 솜사탕의 대가 소중스러워 그것을 필통 속에 연필과 나란히 넣고 다녔다.

세월은 흘렀다.

그때와는 모든 것이 아주 변모해버린 오늘 차돌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다시 서울을 보여드리고 뒤늦게야 깨달아 보는 어리석음이 없는 人生을 살아가고 싶다.

悔恨의 累積없이 살 수 있다면...

그리고 假飾없는 直心の 흐뭇한 이웃 속에 끼어 살았으면...

차돌할머니가 다시 보고만 싶다.

〈詩〉

祈

禱



朴 在 森
〈詩 人〉

밤, 고요한 밤, 그 속에서
흰 事物, 붉은 알록 달록한 사물들이
뒤엎겨 하나의 정적으로 高揚됩니다. —
당신이 얻고 당신이 거두어 들이는 많은 것에
나를 부디 인도해주소서.
내 가슴은 아직도 너무 심하게 빛과 함께 노는 것일까요?
대관절 내 얼굴은
대상인 사물로부터 언제나 꺼림칙하게 여겨질 것인가요?
내 손을 보고 판단해 주소서.
저기 있는 연장이나 물건처럼 내 손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손에 끼인 반지까지도 소박하지 않으며
빛은 믿음을 가득 담고 내손 위에
마치 어둠 속에서 처럼 빛을
발하며 갈라지는 길과도 같이
내려쫓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詩〉

한 해 가

저 물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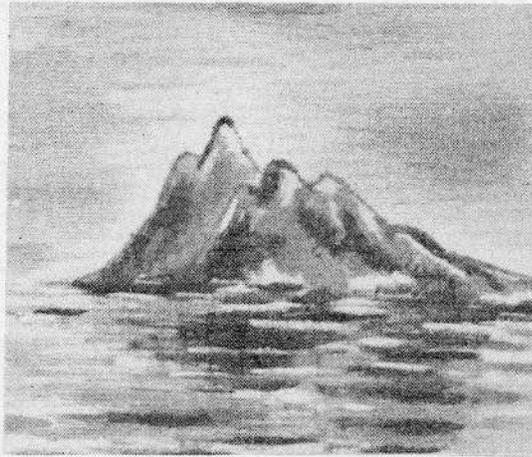
編 輯 室

한해가 저물며 깊은 마음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속으로 침잠한 자에게
眺望은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새로운 眺望이 파괴되지 않은 채—
아무도 그대의 운명을 점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이 잘 되어갈 것인지, 어떤지를 묻지 않는다—
상처의 가장자리 장미의 둘레—
때늦은 여름의 광활한 眺望.

그대를 풀었다가 그대를 비껴어 매네
그대를 감싸주고 그대를 벌거벗기네—
장미의 둘레, 상처의 가장자리
스스로 풀어져 나가는 마지막 眺望.

夕 陽

김 영 희
(소설가)



가볍게 두 개의 글라스가 부딪혔다.
「정말 오랜 만에 만선을 기대할 수 있겠
읍니다.」

5백 70톤급 원양어선, 양산 103호의 제
1항해사 최 달수가 미소를 지은 채 얇은
호박색의 액체가 찰랑거리는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적도의 태양을 위로
하고 선장 김 웅선은 브리지의 창에 기댄

채 목줄기를 타고 흘러들어가는 위스키의
기분 좋은 자극을 즐겼다. 나른한 햇살이
목덜미로 내려앉아 한층 목이 굵어 보이는
김선장은 글라스를 내려 놓고 파이프에 불
을 붙였다.

번쩍이는 금줄의 소매며 견장이 달린 산
뜻한 흰 제복이 이 초로의 억세고 호탕한
전형적인 뱃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잘 어울
렸다.

베이 -

금속성의 인터폰 소리가 햇빛을 부수며 울렸다.

「뭔가?」

「통신실 윤기삽니다. 지금 곧 라디오를 틀어 보십시오. 태풍 경보입니다.」

「음, 알았네.」

모처럼 맞은 만선의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김 선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라디오를 틀자 감정이 배제된 듯한 아일랜드식 악센트가 강하게 섞인 영어가 흘러 나왔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9일 오전 8시 현재, 태풍 마리호가 북위 153도, 동경 13도 해상에서 발생, 뚜렷한 진로를 나타내지 않은 채 거의 정체상태에 있으나, 중심기압 9백 30mb에 최대풍속 초속 50m의 위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근해에 있는 선박들은 급히 대비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9일 오전 8시 현재……」

김 선장은 무거운 어조로 현위치를 물었다.

최 달수는 해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지금 우리 위치는 바로 이 지점, 북위 1백 72도 3분 동경 05도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떨까, …… 그물을 걷지 않아도 될까?」

「글쎄요, …… 아직은 안심이긴 하지만, 정체상태에 있는 태풍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물을 걷고, 다음 기착지인 서사모아의 아피아로 가는

것이 좋겠군요.」

「으음 - 그렇다면 할 수 없군. 만선을 포기하는 수 밖에. 108호와 연락해서 그물을 걷으라고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산 103호와 양산 108호를 트롤식으로 연결해 쳐 놓았던 그물이 걷어 올려졌다.

정오쯤,

윤 기사의 보고로는 태풍은 북서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개시했다는 것이었다. 보고를 받고 난 김 선장은 만약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최단거리의 나우루섬으로 가서 태풍이 멈출 때까지 며칠이고 휴식이나 취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14시 20분경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잠시 흔들리더니 기관이 멈추었다.

「기관장 박 명호입니다. 기관이 과열됐습니다. 과열로 인한 것 같습니다.」

김 선장은 낭패한 표정이 되었다.

「이거 큰일 났구만, 언제쯤이나 정상 가동되는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족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예비기관을 모두 가동시키고, 최선을 다해 빨리 수리하십시오! 태풍이 다가오고 있으니……」

「최송합니다. 선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력이 시속 30노트에서 8노트로 뚝 떨어져 버렸다.

「할 수 없다. 108호를 먼저 아피아로 보내고 우리는 나우루섬으로 향한다!」

비록 기관은 고장이지만 상황은 그다지 절박하지는 않았다. 현상태가 지속된다면 하루쯤은 지나야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이고, 그 때면 이미 기관을 수리해서 약 4백여 km 밖에 떨어져 있지 있는 나우루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배는 헐떡이듯 그렁그렁 소리를 내며 나우루를 향하여 둔중한 용체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16시. 불운한 뉴스였다.

태풍은 급작스레 배쪽 방향으로 진로를 돌려 시속 15km의 속도로 초특급 위력을 가지고 밀려들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955mb를 넘어서고 최대풍속 55m로 점점 더 상승하는 추세라는 뉴스였다.

물결이 눈에 띄이게 거세져 갔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회돌이치고 있었다.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이 분명했다. 김 선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16시 30분.

「기관실! 어떻게 됐나?」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두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박 기관장의 조금기 배인 마른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이미 태풍은 우리쪽을 향했다. 기관이 살아나지 못하면 끝장이야.」

하늘은 온통 흉물스런 먹구름으로 뒤덮여지고, 광란의 태풍이 불기 위해 울리는 전주곡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굴의 투지를 지닌 김 선장도 보조엔진만으로 털털거리리는 이 상황에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조금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의 상태를 점검했다. 태풍이 진로를 다시 바꿔주기를 기다리며……

18시. 윤 기사의 보고는 그들을 무거운 긴장과 공포로 몰아 넣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1천 50mb를 넘어섰고 시속 70km의 맹렬한 속도로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라면 해안의 빌딩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닌 것이다.

비바람과 파도는 더욱 드세어져 선장은 갑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혹시라도 사람을 날려버리는 바람과 이미 갑판 위로 떨어지는 파도에 휩쓸려 갈까 해서였다. 이제 기관이 살아난다 해도 태풍의 세력권 내에서 쉽게 빠져나오기란 불가능했다. 최 달수는 윤 기사에게 S. O. S타전을 치라고 명령하는 순간, 언젠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느꼈다. 그것이 무엇일까……. 확연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저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와 의식의 세계로 옹기하려 하고 있었다.

21시 30분이 가까와서야 기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배에서는 환호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상황은 급박해져 있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그 슬한 고난을 치러 왔던 우리가 아닌가. 삼각파도에나 걸리지 않는다면……. 주엔진과 보조엔진을 모두 가동시킨 양산 103호는 여태껏 내본 적이 없을 정도의 속

력으로 칼날처럼 희뜩이며 덮쳐오는 파도를 헤치며 전진하기 시작했다.

최 달수는 아까 타전한 S. O. S가 무효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선장을 올려봤다.

그의 얼굴은 늙름하고, 씩씩한 역전의 용사처럼 투지와 생기를 되찾았으며 뒤늦게 조리장이 가져다 준 햄버거를 씹으며 계속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최 달수는 깊은 감명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태풍은 점점 더 가까와졌으며 순간순간 두려운 긴장의 시간이 흘러갔다.

30일 새벽 02시

전 선원에게 구명대를 차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파도는 이미 배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으며 뱃전을 강타했으며 그럴 때마다 양산 103호는 시계추마냥 기우뚱거렸다. 노련한 김 선장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솜씨로 파도를 피해가며 배를 몰았으나, 모두들 기력과 전의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가 흘렀을까. 배가 갑자기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 최 달수는 현기증을 느꼈다.

〈절렸다. 드디어 삼각파도에 덩미를 잡혔다.〉

배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바다에 다시 내동댕이 쳐졌다. 양산 103호 총 53명의 선원들은 아우성을 쳐대며 깊은 공포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다. 최 달수는 그 때 묘하게도 편하고 여유있는 듯한 기분이 들

었다.

또 다시 배가 두 개의 거대한 물기둥에 의해 솟구쳤다. 선체 중심부, 기관실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

「전원! 배를 버리고 탈출하라!, 탈출하라!」

브리지의 창유리가 깨지며 파도가 밀려들어와 선장의 몸을 때렸다. 혼란 속에 뛰쳐나온 선원들이 수십 만 톤의 파도가 덮치는 바람에 시키면 바다로 사라졌다.

최 달수가 갑판으로 나왔을 때 배는 비스듬히 누운 채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구명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톱날같은 아가리를 벌린 거대한 파도 앞에 열 몇 명이 타고 있던 구명정은 바람에 종이조각처럼 날아가 버렸다.

두 번째 구명정이 로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내려졌다. 최 달수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구명정으로 헤엄쳐 갔다.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가까스로 구명정에 올라탔을 때 김 선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머리에 피가 흘러내리는 귀기 서린 모습으로 구명정을 뚫어 둔 로프를 도끼로 찍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배의 중심부에서 오렌지빛 섞인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폭발했다.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들이 울부짖으며 기를 쓰는 모습이 보였다.

파도가 허연 이를 드러내고 치참한 물골의 양산 103호를 집어 삼켰다. 핏발서린 눈

동자로 모두들 자신들의 무력함을 원망하며 묵묵히 노를 저어가는 동안, 검푸른 물결위로 울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빨간 구명자켓의 김 선장이 보였다. 최 달수와 동료들이 그를 간신히 건져올렸지만 그의 머리는 심하게 부서졌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파도가 구명정을 들어올려 구명정은 수직이 되다시피 곧추섰다가 핑그르 돌며 곧두박질쳤다. 몇 사람의 선원이 노를 놓치고 시꺼먼 바다로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차릴 여유도 없이 또 한 차례 거대한 파도가 흰 이빨 드러내고 달려 왔다. 최 달수는 시꺼먼 물벽을 쳐다보는 순간 몸을 내려치는 수백 톤의 수압을 느끼며 의식이 멀어져 갔다. 진공의 세계로 몰입되는 느낌이였다.

세상의 마지막 자락이 이차원의 세계처럼 보여지는 그의 귀에는 무수한 총성과 폭음이 32년 간의 시공을 초월하여 들려 왔다.

아— 최 달수는 짧게 신음했다. 가려진 무의식의 세계가 화산의 폭발처럼 튀어 오르고 있었다.

「집합! 3소대는 전원 집합하라!」

3소대장 이 근철 소위는 굳은 표정으로 피곤에 지친 뺨한 눈동자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소대원들을 둘러 보았다.

(저우 스푼 두 명의 병력으로 무자비한 적 탱크를 막으라니…… 더구나 그 중에 넷은 이제 갓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로켓포 2문에 57mm 대전차포가 1문 있으니 화력은 막강하다. 어찌

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른다.)

「명령이 하달되었다! 복귀군 64사단 8연대 병력 8백여명이, 놈들이 점유하고 있는 783고지에서 현재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564고지로 이동 중이라는 정보다. 놈들은 일곱 대 정도의 탱크를 앞세우고 17번 도로를 따라 이동 중인데, 우리 소대의 임무는 바로 적 탱크를 저지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564고지를 사수함과 동시에 승세를 잡아 783고지를 탈취하라는 것이 사단사령부의 지시다. 다행히 17번 도로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놈들을 박살내든 날아가게 하든, 그건 자유다. 단 놈들보다 우리가 먼저 쓰러져서는 안 된다. 지금 시각 17시 20분.

놈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앞으로 세 시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우리는 너석들을 마중나가 매복해 있다가 수류탄으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연다. 구체적인 작전 지시는 매복지역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상……. 뭐 질문 있나?」

「시간이 급박하다……. 자, 출발!」

그들은 일어섰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를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명령은 기필코 이행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에 그들은 떠나가고 있었다.

산등성이 위 구름사이로 저물어가는 태양의 햇살이 금실처럼 뻗어나가 황홀하게 빛났다. 노을은 크리스탈 주황빛과 바이올렛 빛이 뒤섞여 환호의 갈채처럼 그들의 모습 위에 질게 드리워가고 있었다.

핏빛처럼 붉은 달이 새벽바람에 쫓겨 날

아가고 있었다.

10인승의 구명정 A3호는 단 세 명의 선원만을 태운 채 은빛 껍질을 나선처럼 드러내고, 허공의 빈 구석을 찾아 흩어지는 바람따라 부유하고 있었다.

최 달수는 배 안을 둘러 보았다. 표류 사흘째, 남은 물이 약 2갈, 비스킷 2봉, 찌꺼기 반되 가량, 그리고 빨간 구명자켓 한 개가 그들이 구조될 때까지 견디어야 할 모든 것이었다.

어둠이 차차 깊어지며 뿌연스름한 새벽의 여명이 밀려 들었다.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었으며 구조에의 희망이기도 했다. 최 달수의 무릎 아래 의식불명의 김 선장이 셔츠를 찢어 만든 붕대를 머리에 감고, 거무죽죽하게 피가 말라붙은 몸으로 경련을 계속하고 있었다.

실습항사 선우 경은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로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있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사흘?, 나흘?」

「글쎄, 남은 것을 아껴 먹으면 1주일간은 버틸 수 있을 걸세.」

「그 이후에는 어떡하죠?」

「배를 버리기 전 구조신호를 보냈으니 지금쯤 우리를 찾고 있을 게다.

또 108호도 우리 사정을 잘 알테니까 그 전에 구조되겠지.」

최 달수는 말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 우선 지금의 위치를 알 수 없었으니까. 태풍에 얼마나 밀려 나왔을까.

또 위치를 알 수 있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한 자루의 노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산뜻한 청량감을 안겨주던 태양이 고도를 더해감에 따라 점점 고통으로 변해 갔다. 서리처럼 내린 머리칼을, 셔츠를 찢어 만든 붕대 밑으로 드리운 채 창백한 물결로 누워 있던 김 선장은 이제 더 이상 경련하지 않았다.

배 그늘에서 햇볕을 피하고 있던 선우 경이 자조적인 패배가 가득찬 미소를 지으며 신음처럼 내뱉 듯 말했다.

「그렇게 용감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인생이란 무의미하군요. 흐흐흐…… 우습고 씁쓰름하기 짝이 없군요…….」

최 달수는 김 선장의 두툼한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누런 반지를 빼내며 선우 경을 돌아 보았다.

「무의미한 인생이라? 우습고 씁쓰름한가?」

선우 경은 문득 6개월 전 부산 해운연수교육장에서 수료식을 마치고 외항면허증을 손에 넣고 기뻐하던 일이 스쳤다. 그렇게 원했던 바다였는데……」

「이제 우리 둘 뿐이군요.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최 달수는 대답 대신 김 선장의 시신을 안아 올렸다.

「전원 전투대기하라!……」

취색의 어둠 속에서 이 소위는 주위의 풍경을 둘러 보았다.

「좌측에 보이는 낮은 구름 사이 17번 도

로 적 탱크가 돌아 다리를 건너갈 때 일제히 공격한다. 1분대는 57밀리 대전차포로 제 1번 탱크와 4번 탱크를, 2분대는 로켓으로 2번과 5번, 3분대는 3번과 6번 탱크를 각각 맡는다.」

「남은 7번 탱크는 모두 함세하여 파괴하고, 명중이 되지 않았거나 명중되었더라도 움직이는 탱크는 가능한 한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까 넣는다. 나와 1분대는 여기서, 2분대는 우측에 보이는 나무밑 옆바위에, 3분대는 구릉위에서 대기하라. 특히 3분대는 탱크 공격이 끝나는 즉시 적 보병들을 집중사격한다. 일단 탱크가 파괴되면 각자 요령껏 탈출하여 저 산등성이 너머로 집합한다. 질문사항 있나?」

「……………」

「좋아, 절대 기도비닉에 유의하고 각 공격조는 분대장이 재편성하도록. 자, 그럼 살아서 다시 만나기를 빌겠다.」

「소대장님, 조심하십시오. 살아남기만 하면 일제급 특진은 맡아 놓은 겁니다.」

1분대장이 혈관 속으로 퍼져가는 흥분 속에서 멧적게 웃어 보였다.

「알았다. 각자 조심들 해라. 그러나 우리가 훈장이나 일제급 특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좋다.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만나자. 자 원위치로!」

저리하고 눅눅한 공기가 밀려오는 여동 속에서 최 달수는 들풀을 뿔아 씹으며 탱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시큼한 내음이 정액처럼 화사하게 가슴에 시려왔다. 모두가 허황했다. 인생도, 이태

올로기도, 꿈도, 이상도, 현실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스운 허상일 뿐이었다.

M1소총 한 자루와 몇 발의 수류탄에 목숨을 걸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체험인 양 멀게만 느껴졌다.

다만 그는 뼈를 흐물거리게 하는 육체의 고통만을 느낄 뿐이었다. 헤어진 군화 사이로 돌멩이가 들어가 걸을 때마다 불편함이 그렸고, 동공을 피로 붙들이는 듯한 졸음과 위장을 찢어내는 듯한 배고픔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그는 곧 자신에 대한 타인으로 돌아왔다. 전쟁의 포연으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감수성이 현실에의 괴리감과 반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그 스물 두 살의 찬란한 젊음을.

19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 달수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내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놈들이 나타날 것이다. 한 방씩 한 방씩 멋지게 먹여 주리라.

눅진눅진한 바람을 타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탱크의 소음이 들려 왔다.

「로켓포로 장전하라!」

최 달수는 짧게 소리쳤다.

입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 담배, 담배.

17번 도로를 따라 너댓 명으로 보이는 적의 첩병대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으흐흐…… 이 놈들을 그냥……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너희가 아니다.)

탱크의 라이트가 보였다.

하나, 둘, 셋…… 모두 여덟 대의 탱크가 육중한 몸체를 헐떡이며 천천히 고개를 넘어 오고 있었다. 적 보병들의 시꺼먼 군상들이 불빛에 어른거렸다.

최 달수는 전신을 휩싸는 흥분과 긴장감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로켓트 발사준비!」

(그래, 오너라, 맛을 보여 주마……)

첫 번째 탱크가 다리 중간쯤 건너왔을 때 총성이 울렸다. 공격개시 신호였다.

「발사!」

어둠 속에서 오렌지 불꽃이 피어 올랐다.

「광— 광— 콰앙—」

모두 명중이다. 요란스레 총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터져 나왔다.

새끼들, 가슴에 놀라 아무데나 쏘아대는 것이 틀림없다.

「침착해라! 2탄 발사준비! 빨리 해라! 우리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

「콰— 앙!」

다른 분대에서도 연이어 2탄을 발사했다. 탱크가 화염 속에서 버둥거렸다.

「뛰어라!」

적진으로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최 달수는 경험과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과괴된 줄 알았던 1번 전차가 그렇그렁 소리를 내며 포탑을 돌리며 전진하는 것이 보였다.

(제기랄, 어둠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은 모양이군. 하지만 또 간다.)

그는 단숨에 탱크에 뛰어 올라 해치를 열어 제꼈다. 놀란 승무원의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다.

「먹어라, 개새끼들아!」

획 수류탄을 던져넣고는 해치를 닫으며 뛰어 내렸다.

「핑—」

둔탁한 굉음이 들려 왔다.

탱크는 기우뚱하더니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하나………)

우왕좌왕하는 군상들을 향해 뛰어가며 최 달수는 사격을 해댔다.

그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4번 탱크에 올라 타 있는 이 소위의 땀에 번들거리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해치를 열고 했으나 문이 잠긴 모양이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어디선가 수류탄이 날아 들어 탱크 위에 떨어졌다. 철모가 폭발음과 함께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4번 탱크는 포신을 천천히 돌려 3분대가 매복해 있는 구릉쪽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바위가 튀어오르며 보라빛 섞인 핏빛 불기둥이 솟구쳤다.

최 달수는 앞드린 채로 기어가 수류탄을 캐터필러 밑으로 굴러 넣었다.

허공을 찢는 소리에 탱크는 주저앉아 버렸고, 해치를 열고 뛰어 나오는 적이 보였다. 최 달수는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쏘았다.

「분대장님— 분대장님—」

신병이었다. 양 손에 로켓트포와 포탄을 들

고 철모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왼뺨 위로 선혈이 흘러 내렸다.

「적 포탄에 맞았습니다. 이 일병은 진사 하였고, 저는 쓸 줄을 몰라서……」

「알았다. 이리 내, 포탄 들고 따라 와!」

그는 로켓포를 단단히 거머쥐고 포탄을 장전시킨 후 신병과 함께 후미로 뛰었다. 구름 위로 도망치는 적병은 3분대에 의해서, 논 쪽으로 도망치는 적병은 1분대에 의해서 하나씩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두 대의 탱크는 건재했다. 포탄을 들고 뒤따라 오던 신병이 가슴을 움켜쥐며 고꾸라졌다.

최 달수는 얼드려, 신병에게로 기어가 손을 잡았다.

「야, 입마! 정신차려! 야-」

절규에도 아랑곳없이 피가 강처럼 흘러 나와 최 달수의 옷을 적셨다.

언젠가 녀석은 전쟁이 끝나면 내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라벨의 피가노와 바하의 「사콘느」를 연주했을 녀석의 손은 보드랍고 따뜻했다.

「그래, 어차피 전쟁이란 그런 것이다. 무슨 아쉬움을 남길 게 있더구. 자-식 잘 가게.」

피처럼 진한 짙은 액체가 콧등을 타고 흘러 내렸다. 옆에서 폭음이 울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탱크 위에서 기관총을 쏘아대는 적의 눈빛이 보였다. 그는 일어섰다.

왼쪽 어깨가 따끔했다. 그는 흐르는 옷을 땀이 났다.

로켓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선 채로 방아쇠를 당겼다.

「콰-앙」

기관총을 쏘아대던 적이 뿔겨나가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남은 한 대는 미친 듯이 뒤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수 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깔려 갔다.

최 달수는 어지러웠다. 저 무수한 굉음들 사이로 온 몸이 해체되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적의 탱크를 향해 천천히 로켓포를 들어 올렸다.

산등성이 너머로 별뿔이 긴꼬리를 그으며 떨어져 내렸다.

「콰-앙.」

탱크의 포탑이 본체와 분리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최 달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다리가 걸려 있는 계곡 밑으로 쭉 너 내려갔다.

빨려들어 갈 듯한 코발트블루의 하늘이 보석처럼 뿌려진 별들과 함께 지고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적들이 구름쪽으로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좌측 가슴에서 마지막 남은 수류탄을 빼 들고 포복으로 다리를 향해 기어 갔다.

다리에서 10m쯤 가까이 갔을 때 수류탄을 던졌다.

비산된 파편이 그의 철모 위로 떨어져 내렸다.

최 달수는 눈을 떴다.

선우 경은 잔뜩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

어 있었다.

(가여운 놈이다. 이제 배를 탄 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텐데……)

문득 아들녀석의 모습이 늙은 아내와 며느리의 모습과 함께 떠올랐다.

심장이 파열하는 듯한 아픔에 두 손을 꽉 움켜쥐었지만 그것은 점점 더 온 몸을 짊어누르는 고통으로 그를 하나씩 하나씩 분해하여 갔다.

(현재 위치는 대체 어디쯤일까. 태풍이 밀어버린 것은 어느 정도일까. 태풍이 밀어버린 것을 가산하고 적도역류에 실려 흘러나왔다면 표류 닻새체인 지금은 적어도 뉴우기니섬 북부 5~6백 km쯤에는 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빠르면 사나흘, 늦어도 일주일이면 뉴우기니섬 북부 해안에 닿을 수 있다.

또 운이 좋으면 그 전에 다른 선박이나 우리를 찾고 있는 항공기에 의해 구조받을 수도 있다. 그래, 희망은 있다…….)

날치배가 수면 위로 튀어 올라 날렵하게 수 미터를 날아 다시 물 속으로 곤두박질했다. 오늘 먹을 것이라고는 물 두 모금과 찌쌀 한 줍 뿐이었다. 사정없이 내리되는 강렬한 햇볕에 별걸게 단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일주일 내로 탈수증과 일사병에 걸려 죽고 말텐데…… 아, 무얼 좀 먹었으면……)

심한 갈증과 굶주림에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그였지만 이상스럽게도 눈빛만은 맑았다. 인간은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 달수는 현위치를 다시 한 번 계산했다. 자신의 판단이 그다지 틀리지 않는다면 이 적도역류를 따라 비즈마아크해에 도착하기까지는 사흘이면 될 것이다. 비즈마아크해는 선박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어쩌면 훨씬 빨리 구조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치라도 한 마리 잡혀 준다면……)

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날치를 잡아 불 요량으로 손을 뻗쳐 보았으나 배가 잠시 기우뚱거릴 뿐 허사였다.

그 때 선우 경이 급작스레 외쳤다.

「물이 들어 와요!」

절망이었다. 며칠 간만 건디어 주면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데……

최 달수는 옷을 벗어 물이 스며들어오는 틈을 막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틈이 점점 벌어져가며 배 밀창으로 물이 고여 갔다.

최 달수는 촛점을 잃은 듯한 안스런 눈으로 무정한 하늘을 바라볼 따름이었다.

최 달수는 어둠 속에서 풀을 씹어대며 누워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소대장을 포함하여 열네 명의 전우를 잃었다. 아무런 감격도 감각도 슬픔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은 피곤에 지쳐 몸뚱이를 대지 위로 눕혀 놓고 있었으며 한 구석에서 통신병인 임 일병만이 무전기로 열심히 본부를 불러내고 있었다.

「여기는 짱구 쓰리. 고박사 나오라……」

여기는 짱구 쓰리. 고박사는 응답하라……」

무전기는 한참을 뻑뻑거렸다.

「여기는 고박사, 쌍구 쓰리 반갑다……
여태껏 소식 기다렸다.」

「나왔습니다!」

임 일병이 밝아진 얼굴로 수화기를 들이
냈다.

최 달수는 무기운 손으로 어둠을 물리치
며 수화기를 입에 가져갔다.

「여기는 쌍구 쓰리……」

「여기는 고박사다, 어떻게 됐나?」

「…적전차 8대 모두 파괴, 적사살 수십
명…… 임무는…… 완수했다.」

「수고했다, 귀관은 누군가?」

「2분대장 이동 중사 최 달수다. 소대장
을 잃었다. 잔여 인원 8명…… 부상자는
구하지 못했다……복귀해도 좋은가? 모두
들 피곤에 지쳐 있다.……」

「잠깐 계속 그곳에 대기하라. 소대장을
비롯해 많은 희생을 낸 데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귀관들의 희생의 댓
가는 실로 엄청나다. 우리는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 우선 그
곳에 계속 대기하라. 잠시 후 다시 명령을 하
달하겠다. 나시 한 번 노고를 치하한다.
이상-」

잠시 후 음어로 하달된 명령은 '적 64사
단 예하 8연대 병력의 주공인 탱크를 격
파함에 따라 기선을 잡았으나 적 8연대 수
중에 있는 783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07:00를 기해 개시한다. 그런데 783고지
정상에 있는 적의 벙커는 기관포 3문을 보
유하고 있어 아군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

므로 공격개시 시각 07:00 이전까지 적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파괴하라'는 내용
이었다.

최 달수는 맥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시계를 들여다 봤다.

04시 30분, 783고지까지는 현위치에서 60
분 거리이다. 침투하여 파괴까지의 행동시
간은 한 시간 반, 그 시간이 경과하면 할
수록 아군의 피해는 심해질 것이다. 최 달
수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왼쪽 어깨를 감
싸쥐고 일어서며 말했다.

「새로운 명령이다. 우선 또 한 번 사지로
들어가야 한다. 목표는 적 783고지 정상의
벙커이다. 작전완료 시각은 07시, 그 때까
지 우리는 783고지로 침투, 벙커를 파괴해
야 한다. 벙커의 위치는 나도 모른다. 그리
나 분명한 사실은 무슨 일이 있어도 07시
까지는 벙커 속의 기관포 3문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이젠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
러나 어차피 사나이로 태어나 한 번은 죽
게 되는 것. 까짓거 한 번 멋지게 죽는 거
다. 질문 있나?」

어느 덧 그의 말투는 소대장을 닮아갔다.
1분대원이었던 강 일병이 투덜대며 말한다.

「한 번 멋지게 죽는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본부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를 소모
품으로 아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지도상
의 숫자와 화살표로 표시되는 우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막 전투를 끝내고 구사일생으
로 겨우 살아 온 우리에게 더 이상 무얼 어
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더구나 우선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지 않습니까?」

최 달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화살표와 숫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또 어떻다는 건가?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생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더우기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쓰러져 이름 모를 꽃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상의 명예가 아니냐 말이다. 어차피 이제나 저제나 죽음 앞에 서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에 대한 기만을 죽음인들이 용서할까?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투를 포기하는 것은 생애에 대한 기만이다. 왜 포기하려 하는가! 역사의 굵고 긴 실타래 속에서 우리는 한낱 티끌도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역사에 참여해서 자기 생애에 대한 진실은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말이다. 또한 이 길은 우리 겨레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는 길이 아니냐!…」

그는 악을 썼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이기도 했다.

「자, 시간이 없다. 잠시 후면 날이 밝는다. 지금 곧 출발한다. 출발!」

그들은 걸으면서 잠을 잤다. 정말이지 이제는 전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한 순간만이라도 잠을 잤으면 싶었다.

아, 그 한없이 무겁게 내리누르던 눈까풀을 밀치고 783고지가 가까이 보였다.

하늘 저 편에서 여명이 밝기 시작하며, 산동성이의 공제선으로 적들이 보였다. 서둘러야 한다.

「산개하라. 각자 알아서 행동하라! 만약 발각되면 놈들을 유인하여 기만하도록 한다. 산개!」

그들은 천천히 산개했다.

새벽은 우유빛으로 안개비가 뿌려지고 있었다.

최 달수는 어쩐지 이번 일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대병력 대 여덟 명의 무모한 싸움이었다.

15m쯤 전방에 총을 메고 서성거리는 적의 모습이 얼핏 스치자 최 달수는 풀숲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07시가 되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고지 정상까지의 거리는 백여 미터나 될까. 벅커는 어디 있을까.

그 때, 안개비 속을 헤치며 총소리와 폭음이 들려 왔다. 누군가 발각된 모양이다. 풀잎이 간지럽게 코끝을 스쳤다. 매캐한 흙내음이 향그러웠다.

몇 명이나 희생됐을까. 최 달수의 머리에 소대원들의 모습이 스쳐 갔다.

〈자 침착하자. 설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벅커를 부숴버리기 전까지는 나 개인의 목숨이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타이르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아, 저기다. 드디어 찾았다.〉

벅커는 고지 바로 밑 절벽 중턱에, 나무들로 희뿌연 살을 감춘 채 시꺼먼 구멍으로 기관포의 총신을 빠꿈히 내밀고 있었다.

최 달수는 땀이 촘촘히 배인 이마를 씻었다.

〈이제 지겟 어떻게 까부순다?〉

빙커 밑 10m쯤 되는 지점까지는 어떻게 든 기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단 한 번에 저 시꺼먼 아카리로 수류탄을 던져 넣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면 오히려 내가 죽게 된다. 이런 줄 알았으면 로켓포를 가져오는 건데……

절벽을 기어오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90도가 가까운 암벽을 밧줄없이 기어오르기란 불가능하다. 너구나 고지 위에는 무수한 적들이 버티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아예 고지 위로 올라가 적을 까부수며 소란을 피우다가 기회를 보아 재빨리 암벽을 타고 내려와 구멍 속으로 수류탄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 혼자이고 다른 소대원과 연락도 없다. 다른 소대원들은 어찌 됐을까.

시간은 자꾸만 흘러 가고 있었다.

그 때였다. 풍기를 잔기갈기 씻어 흔들며 하늘 저 편으로부터 한 대의 폭격기가 나타났다. 항공지원사격은 B-29였다. B-29는 하늘을 향해 쏘아대는 적의 포화를 무시한 듯 천천히 선회하며 고지 위로 폭탄을 떨어뜨렸다.

최 달수는 주먹을 쥐고 흔들며 소리쳤다.
「다 때려부워라. 깡그리-。」

폭탄이 빙커 위에도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빙커는 무시한 것 같았다.

한바탕 폭탄을 쏟아부던 B-29는 최 달수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금시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유유히 사라져 갔다.

「서련……, 빙커를 부워야 하는데……」

애가 탔지만 이미 B-29는 보이지 않았다.
07시 정각.

아군의 포격이 시작됐다. 지금쯤 저 아래 돌격개시선에서는 아군들이 돌격을 개시할 것이다. 저렇게 빙커가 건재한 데도…….

아군의 포격은 이제 고지 위로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다. 아득히 먼 곳에서처럼 아군의 돌격함성과 빙커의 기관포성이 들려왔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빙커를 파괴하지 않으면 많은 희생은 치뤄야 한다.〉

그는 일어서서 고지 뒤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전방에 대한 아군의 돌격과 지원포사격때문에 후방의 경계는 소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예상 했던대로 후방은 몇 명 안 되는 병력만이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었다.

참호 속에 머리를 처박고 포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적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최 달수는 내검을 뽑아 들었다.

〈아직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

포격이 멎었다. 참호 속에 고개를 처박고 있었던 북괴군 녀석이 고개를 들고 참호에서 기어나오려는 순간, 최 달수는 놈을 덮쳐 재빨리 내검을 목에 꽂았다. 피보라가 분수처럼 뿜어나와 안개비로 축축히 젖은 풀밭 위로 뿌려졌다.

씩은 고목처럼 쓰러지는 적병을 내버려두고 그는 고지 위로 뛰어 올랐다.

고지 위에는 여기서기 적의 시체가 나뒹굴었고 포연이 가득차서 행동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최 달수는 적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걷어 모아 철모에 받쳐 들고는 몸을 굴러 밀어서 내려갔다.

벙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관포화에 쓰러져 가는 아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바위를 타고 벙커쪽으로 기어 갔다.

벙커가 보였다. 고지 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암벽에 기대어 수류탄을 꺼내들었다. 그의 모습을 발견한 아군이 맹렬하게 엄호사격을 해 줬다.

그가 가까스로 벙커 바로 위까지 도달했을 때 적병 하나가 그를 발견하고 총을 쏘았다.

팅-

총알이 철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적병은 아군의 엄호사격에 의해 목이 뒤로 젖혀지며 고꾸라졌다. 최 달수는 창녀의 음부같은 벙커의 구멍을 향해 수류탄을 힘차게 집어 던졌다. 그러나 수류탄은 구멍 모서리에 맞고는 다시 튕겨나가 10m 아래로 굴러 떨어져 터져 버렸다.

상황을 알아차린 고지 위의 북괴군들이 그를 향해 집중사격을 가해 왔다. 그러나 아군의 맹렬한 엄호사격에 의해 하나씩 들쭉 쓰러졌다.

최 달수는 왼 다리에 예리하게 섬뜩한 통증을 느꼈다. 폭음이 울리며 철모가 날아 올랐다. 최 달수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수류탄을 천천히 집어 들었다.

이상스레 머리가 맑아졌다.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다. 벙커의 시꺼먼 구멍이 확연히 보였다고 느낀 순간 수류탄을 집어 던졌

다. 동시에 그의 바로 옆으로 또 하나의 수류탄이 떨어졌다.

과앙-. 쿵-

그의 귀에 두 개의 유니즌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느낀 순간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진공의 상태로 물입된 느낌이었다.

아아-, 우주의 끝이 보였다.

침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최 달수는 손바닥으로 물을 퍼내다가 문득 후송병원에서의 마지막 고통을 상기해냈다. 까담모를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석양이 바다를 벌겋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사흘, 사흘일세. 그 동안만 이 구멍자켓과 남은 식량으로 견디어내면 되네.

사흘 후면 적도역류를 따라 북부 뉴우기니섬 근처에 도착할 수 있을 걸세. 자, 용기를 내게나.」

「이건 뭘니까?」

최 달수가 진네 준 김 선장의 반지와 또 하나 누런 삼베뿔치를 가리키며 선우 경이 물었다.

「글쎄……, 나의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이라고나 할까. 흘러간 시간의 증인이라고나 할까……」

「왜 이걸 제게……」

최달수는 대답대신 씨익 웃어 보였다.

선우 경은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웃음이 무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최 달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세상의 끝으로 헤엄쳐 갔다.

「잘 가게 꼭 살아야 해…… 어차피 구멍

자켓은 한 개니까, 그건 자네 몫이야.」

선우 경은 이 갑작스런 사태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놀란 눈으로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며 손을 흔드는 최 달수를 쳐다 보았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에 빛나는 웃음과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웃음소리가 군가 소리로 바뀐 듯했다.

선우 경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버리고 구명자켓에 몸을 의지한 채로 세월의 연륜이

올올이 배어 있는 누런 삼베붕치를 끌었다.

태극마크를 둘러싼 쇠조각이 번쩍였다.

그것은 최 달수의 한 편린이었다.

선우 경은 석양빛을 받아 흐물어지듯 번쩍이는 훈장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양산 103호의 유일한 생존자 선우 경은 뉴우키니섬 북부 비즈마 아크해에서 지나가던 영국상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제 195 호

1985년 10월 25일 인 쇄

1985년 10월 30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용사의 다짐

조정계 작사
최창권 작곡

씩씩하게

남아 의 함 는 - 괴 조 국 에 - 바 처
우 령 찬 기 상 나 팔 을 릴 때 - 마 나

흥 설 기 을 차 제 하 셈 리 솟 라는 다 새 짐 했 - 노 용 라 기

눈 보 라 물 아 치 는 참 호 - 속 에 서
뱉 차 고 고 아 될 수 목 줄 거 - 운 나 산

한 목 숨 바 칠 것 - 을 다 짐 - 했 노 라
부 모 - 형 제 지 키 는 보 람 - 에 산 다

(후렴)

전 우 여 이 세 는 승 리 만 이
우 리 의 사 명 이 요 잘 길 이 다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産敵을 쳐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